언론사: 국민일보-1-3.txt

제목: [왜 이럴까요] KBL엔 없는 NBA ‘짝짝이 농구화’… 메시지가 담겼네  
날짜: 20171229  
기자: 이경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9050056001  
ID: 01100201.20171229050056001  
카테고리: 스포츠>농구\_배구  
본문: 인종차별 비판·암센터 후원 등 <br/>특별한 메시지 전달할 때 신어 <br/> <br/>지난 26일(한국시간) 미국프로농구(NBA) ‘크리스마스 매치’에 나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클레이 탐슨과 닉 영은 멋진 플레이로만 눈길을 끌었던 게 아니다. <br/> <br/> 톰슨은 왼발에 형광 연두색, 오른발에 형광 분홍색 농구화를 신은 채 코트를 누볐다. 닉 영 역시 파란색과 노란색 조합의 ‘짝짝이 신발’이었다. <br/> <br/> NBA 선수들은 크리스마스 매치에 특별한 농구화를 신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 클로스의 문양을 새기는 것은 일반적이다. 스포츠용품사의 로고 끄트머리에 종을 매다는 재치도 발견된다. 미 언론은 어느 선수의 크리스마스 신발이 가장 멋졌는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br/> <br/> 꼭 크리스마스에만 ‘짝짝이 신발’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LA 클리퍼스의 몬트레즐 하렐은 27일 새크라맨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양발 디자인이 다른 농구화로 코트를 달렸다. 보스턴 셀틱스의 카이리 어빙은 지난 16일 짝짝이 농구화를 신고 33득점을 했다. 애초 양쪽 색깔을 노란색·보라색으로 달리해 제작된 어빙만의 농구화였다. <br/> <br/>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2010년 1월 캐벌리어스의 옛 유니폼 색깔과 맞춘 오렌지색·파란색 신발을 각각 신고 경기를 뛰었다. 실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는 다음 경기에도 짝짝이 농구화를 신고 나왔다. 그 경기에서는 왼발과 오른발의 색깔을 정반대로 바꿔 의도된 ‘미스매치’였음을 시사했다. <br/> <br/> 독특한 개성 이면에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가 담기기도 한다. 제임스는 지난 18일 워싱턴 버라이즌센터에서 또다시 짝짝이 농구화(사진)로 나타났다. 왼발은 흰색, 오른발은 검정색이었다. 뒤축에 ‘평등(Equality)’이라는 낱말이 새겨져 있었다. 경기 뒤 그는 “이곳을 누가 다스리는지 안다”며 “피부색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 같은 권리를 가졌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다는 해석이 많았다. <br/> <br/>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농구 무대에서는 버밍햄 앨라배마 대학 선수들이 2014-15시즌 흰색과 녹색의 짝짝이 농구화를 신고 뛰었다. 앨라배마 어린이 암 센터에 대한 후원을 부탁하는 의미였다고 한다. 지역 언론에 사연이 소개되자 이들의 상대팀도 짝짝이 신발을 신고 나왔다. <br/> <br/> 한국프로농구(KBL) 무대에서는 선수들의 짝짝이 신발을 볼 수 없다. 올 시즌 선수들의 유니폼 규정은 “<span class='quot0'>선수는 한 조의 농구화를 신어야 한다</span>” “<span class='quot0'>농구화는 양쪽이 같아야 한다</span>”고 돼 있다. 양말도 양쪽이 같아야 한다. <br/> <br/>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4.txt

제목: [지구촌 베스트셀러] ‘상원의원의 아이들’  
날짜: 2017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9215455001  
ID: 01100201.20171229215455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자수성가한 변호사 출신의 젊은 정치인이 대권에 도전했다가 혼외자식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추락한다. 대권 도전을 포기하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다. 스토리만 보면 2008년 미 대선에 출마한 존 에드워즈 민주당 상원의원을 떠올리게 한다. 에드워즈 의원은 암 투병 중인 부인을 두고 여비서와 바람이 나 혼외자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도덕적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에드워즈는 경선을 포기했고, 결국 사실을 시인했다. 화가 난 부인은 이혼소송을 낸 뒤 병세가 악화돼 숨을 거뒀다. 에드워즈는 혼외정사를 은폐하기 위해 대선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더욱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졌다. <br/> <br/> 소설 ‘상원의원의 아이들’은 에드워즈 의원의 혼외정사를 모티브로 삼아 몰락한 정치인의 스캔들이 낳은 트라우마와 내면의 상처를 다루고 있다. 다만 어른들보다 배다른 두 딸이 입은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r/> <br/> 소설 속 본부인의 딸인 벳시는 밤마다 부모가 다투는 소리에 잠을 설친다. 잠을 못 이루고 TV를 켜면 대선 주자인 아버지의 혼외정사를 풍자하는 코미디가 펼쳐진다. 아버지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을 본 벳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에버리를 미워한다. 반면 혼외자식으로 태어난 딸인 에버리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원의원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다.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유명세를 떨칠수록 더욱 가까이 갈 수 없었다. <br/> <br/> 벳시와 에버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게 된 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사경을 헤매고서다. 벳시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읽고 난 뒤에야 에버리에게 위로와 화해의 손을 내민다. <br/> <br/>워싱턴=전석운 특파원

언론사: 국민일보-1-5.txt

제목: [살며 사랑하며-김서정] 우리 엄마들  
날짜: 2017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9191310001  
ID: 01100201.20171229191310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엄마들’에 관한 일이 많은 요즈음이다. 우선은 작은이모. 소프라노 가수였던 이모는 독일 연수도 다녀오고, 오페라에도 출연하고, 합창단을 꾸려서 해외공연도 가는 등 활동이 왕성했다. 그런 이모가 기억을 잃어간다. 자식도 잘 못 알아보니 조카 알아볼 리가 없다. 인사를 하면 커다란 눈을 깜빡거리며 옅은 미소만 띤 채 빤히 쳐다본다. 며칠 전 만난 이모는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말은 더 없어졌다. 작년만 해도 드라이브하는 차 안에서 노래도 불렀는데. <br/> <br/> 그리고 누구보다 활달했던 작은엄마. 눈꺼풀의 선명한 파란색 아이섀도는 어린 내게 강렬한 매혹이었고 작은엄마의 상징이었다. 잘 웃고 유쾌했던 작은엄마가 암을 선고받아 병원에 누워 있다는 소식이다. 작은아빠 돌아가신 뒤 혼자 있는 집이 무섭다더니, 무섭지 않은 남편 곁으로 얼른 가고 싶었을까. 아주 친한 친구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은 크리스마스이브에 받았다. 오랜 투병 끝이었는데, 자손들 모두 모인 가운데 복되게 가셨다고 친구는 담담하게 알렸다. 연휴 중 제주에서 오가기가 쉽지 않으니 오지 말라고 미리 말리는 속 깊은 내 친구.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엄마를 보내는 그녀를 전화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br/> <br/> 작은이모와 작은엄마를 방문한 뒤 우리 엄마가 기운을 잃었다. 입맛도 없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들처럼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세대는 흔치 않을 것 같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에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다. 전쟁 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워냈다. 자식들이 좀 허리 펴나 싶더니 손자들은 부모보다 더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허리 꺾여 있다. 엄마들이 계속 떠나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그 마음에 보람과 자랑과 온기를 채워드려야 한다. 우선 혼자인 우리 엄마부터 모시고 내려와야겠다. 잠시나마 따뜻한 제주의 반짝이는 풍광을 즐기게 해드려야겠다. 밖은 세찬 바람 불더라도 안에서는 안온함을 느끼고 편안해하시면 참 좋겠다. <br/> <br/>김서정(동화작가·평론가), 그래픽=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6.txt

제목: 유방 양성종양 제거부터 유방암 정밀검사까지, 맘모톰수술 체크포인트  
날짜: 2017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8160044001  
ID: 01100201.2017122816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육식 위주의 식단, 생활패턴의 서구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여성의 유방 건강이 위협을 받는 요즘 유방클리닉을 내원하는 환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유방 혹 등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사례도 있고, 유방암검사 결과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이 있어 추가 검사를 위해 내원하는 사례도 있다. <br/> <br/>이에 좋은 방책이 바로 맘모톰 장비를 사용한 수술 및 조직검사다. 영상검사 결과 유방 혹이 양성으로 판명된다면 이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고, 악성으로 의심된다면 조직을 충분한 양만큼 떼어 내 유방암 정밀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은 0.5mm 내외의 최소절개로 진행되어 외과적 절개법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적고 간편하며, 시간 및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다. <br/> <br/>하지만 맘모톰수술은 의료장비에 대한 이해와 스킬이 필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며, 누가 어디서 진행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몇 가지를 꼼꼼히 체크한 뒤 선택해야 한다. <br/> <br/>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의료진이다. 맘모톰은 2000년대 초 국내 도입된 이래 약 15년 이상 사용되어 온 장비로, 이에 비례해 꾸준히 장비를 사용하고 연구해 온 의료진이 집도할 수록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개인마다 다른 혹의 형태나 유방의 특징 등에 따른 수술 계획은 유형/증상 별 사례가 축적될 수록 정확히 세울 수 있는데, 이 역시 관련 경력과 임상 경험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br/> <br/>사용되는 장비의 기종 체크도 중요하다. 맘모톰은 가장 초기에 도입된 맘모톰EX부터 단단한 종양 제거에 좋은 엔코, 큰 종양 및 다발성 종양 제거에 유리한 벡스코어, 유방암 조직검사에 탁월한 바코라 등 기종이 매우 다양하며, 개개인의 양상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는 기종 역시 다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정품인증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되는지도 관건이다. <br/> <br/>한편, 수술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하는 곳인지도 살펴보길 바란다. 맘모톰수술은 유방양성종양 제거나 유방 석회화 또는 의심 가는 종양의 조직검사 등 여러 증례에 적용되지만, 이중에서도 진행을 꼭 해야 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부작용 가능성이나 환자가 겪을 수 있을 세밀한 문제점까지 최소화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권장되어야 하며, 환자 역시 본인에게 수술 및 조직검사가 꼭 필요한 지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br/> <br/>마지막으로, 해당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 지 확인하는 것도 맘모톰 수술 잘하는 곳을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다. 한 번 찾았던 환자가 다시 내원하는 재진비율, 그리고 환자는 물론 같은 의료계(동종분야/타 분야 병 의원)에서도 소개받는 비율이 높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br/> <br/>강남 압구정 한송이영상의학과 한송이 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은 “<span class='quot0'>맘모톰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궁금증과 걱정을 동시에 품고 있을 것</span>”이라며 “일단 문제가 있으면 유방클리닉을 내원해 전문의 상담을 받고, 다양한 체크포인트를 비롯해 잦은 내원 및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이 있는지, 비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txt

제목: 인하대 화학과 조동규 교수 연구팀 새로운 특성가진 화합물 개발 합성기법 국제사회에 제안 눈길  
날짜: 20171227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7233744001  
ID: 01100201.201712272337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하대 조동규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특성을 가진 화합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합성 기법을 제안했다. <br/> <br/> <br/> <br/> <br/>조 교수 연구팀은 안트라센 구조를 가지는 새로운 포피린(Porphyrin)으로부터 딜스엘드(고리화 첨가) 반응을 이용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를 한 플로린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플로린은 포피린 유도체로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나 엽록소 클로로필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합성 화합물을 말한다. <br/> <br/> <br/> <br/> <br/>포피린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안정된 화합물이다. 그동안 이렇게 안정된 구조를 가진 포피린으로부터 플로린을 얻을 수 없었다. 조 연구팀은 이번 논문에서 안정화된 포피린 구조를 이용해 폴린 합성에 성공해 새로운 특성을 지닌 화합물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br/> <br/> <br/> <br/>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Synthesis of a Phlorin from a Meso-Fused Anthriporphyrin by a Diels–Alder Strategy’는 세계적인 화학 학술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IF:11.994)’ 지난달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br/> <br/> <br/> <br/> <br/>이번 연구는 지난해 미국화학회지(JACS·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표지에 발표된 ‘포피린의 방향성과 공액 구조’에 대한 후속 연구로 진행됐다. <br/> <br/> <br/> <br/>조동규 교수는 27일 “<span class='quot0'>개인적으로 석사 지도교수였던 고 강석구 교수님께 헌사하는 이 논문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합물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플로린 등 포르피린 유도체는 태양전지와 광화학 촉매, 암 치료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8.txt

제목: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노모가 남긴 유서 한장  
날짜: 20171227  
기자: 최민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7142444001  
ID: 01100201.201712271424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광주에 사는 한 70대 노모(老母)가 3남1녀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br/> <br/>난소암으로 1년 가량 투병하던 나모(78)씨는 암말기 진단을 받고, 자식들 몰래 유서를 작성했다. 나씨는 이달 중순 세상을 떠났다. <br/> <br/>그가 남긴 14줄짜리 유서 한 장에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꾹꾹 담겨있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애틋한 자식사랑에 유서가 공개된 장례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br/> <br/>노모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라고 운을 뗐다. <br/> <br/>노모는 자식들의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렸다. 그는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라며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라고 자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br/> <br/>노모는 그러면서 "<span class='quot0'>지아비 잃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span>"라며 "<span class='quot0'>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span>"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40대 초반, 시청 공무원이던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35년 동안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br/> <br/>이어 노모는 맏딸과 세 아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는 "딸 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 애야, 맏이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라며 등을 두드리듯 위로했다. <br/> <br/> <br/>노모는 마지막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라며 글을 맺었다. <br/> <br/>지난 19일 치러진 장례식에 참석한 한 지인은 "자녀들이 유서를 읽는 동안,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어머니의 한없는 자식사랑, 희생적인 삶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전했다. <br/> <br/>또 다른 참석자는 "세상의 그 어떤 시보다고 아름다웠고, 효에 대해서, 병들고 나이든 부모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교훈"이며 "위대한 어머니이자,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했다. <br/> <br/>고인은 장례식 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 선산에, 먼저 떠난 남편의 묘소 옆에서 영면했다. <br/> <br/>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9.txt

제목: [헬스파일]“편도 면역력 강화하면 패혈증 예방에 도움”  
날짜: 2017122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7133344001  
ID: 01100201.201712271333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효석 <br/>편강한의원 대표원장 <br/> <br/>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강 키워드는 무엇일까. 영국 공영방송 BBC는 구글 데이터 검색자료를 근거로 다음 4가지를 꼽았다. 바로 암과 혈압, 당뇨, 패혈증이다. <br/> <br/>암은 담배를 피우거나 비만, 과음하는 습관,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을 경우 발병위험이 높다. 전문가들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br/> <br/>암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혈압이었다. 혈압을 보면 심장과 혈관이 얼마나 튼튼한지 가늠할 수 있다. 혈압은 수축기 120㎜Hg 미만, 이완기 80㎜Hg미만이 정상이다. <br/> <br/>고혈압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최고위험인자다. 평소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br/> <br/>당뇨역시 많이 검색된 키워드다. 당뇨가 있다는 뜻은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는 뜻이다. 당뇨병은 음식을 신경써서 섭취하고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br/> <br/>마지막으로 패혈증도 상위 검색 키워드에 올랐다. 패혈증은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개에 물린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패혈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br/> <br/>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27일 “<span class='quot0'>건강한 상태 즉,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될 때에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작은 상처로 침투하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지만 면역체계가 약해지게 되면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게 돼 병을 얻기 쉽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려면 폐기능을 강화시켜 편도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편도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임파선이며 수없이 많은 임파구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곳이다. 목쪽에 임파선이 몰려있는 것도 심폐로 가는 중요 길목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0.txt

제목: [헬스파일]“편도 면역력 강화하면 패혈증 예방에 도움”  
날짜: 2017122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7133144001  
ID: 01100201.20171227133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효석 <br/>편강한의원 대표원장 <br/> <br/>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강 키워드는 무엇일까. 영국 공영방송 BBC는 구글 데이터 검색자료를 근거로 다음 4가지를 꼽았다. 바로 암과 혈압, 당뇨, 패혈증이다. <br/> <br/>암은 담배를 피우거나 비만, 과음하는 습관,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을 경우 발병위험이 높다. 전문가들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br/> <br/>암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혈압이었다. 혈압을 보면 심장과 혈관이 얼마나 튼튼한지 가늠할 수 있다. 혈압은 수축기 120㎜Hg 미만, 이완기 80㎜Hg미만이 정상이다. <br/> <br/>고혈압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최고위험인자다. 평소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br/> <br/>당뇨역시 많이 검색된 키워드다. 당뇨가 있다는 뜻은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는 뜻이다. 당뇨병은 음식을 신경써서 섭취하고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br/> <br/>마지막으로 패혈증도 상위 검색 키워드에 올랐다. 패혈증은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개에 물린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패혈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br/> <br/>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27일 “<span class='quot0'>건강한 상태 즉,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될 때에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작은 상처로 침투하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지만 면역체계가 약해지게 되면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게 돼 병을 얻기 쉽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려면 폐기능을 강화시켜 편도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편도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임파선이며 수없이 많은 임파구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곳이다. 목쪽에 임파선이 몰려있는 것도 심폐로 가는 중요 길목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1.txt

제목: [헬스파일] 침묵의 장기 ‘간’ 건강 지키는 방법은?  
날짜: 2017122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7100344001  
ID: 01100201.20171227100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태희 <br/>서울하이케어의원 대표원장 <br/> <br/>과로와 음주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침묵의 장기라 불리며 우리 몸의 화학공장으로 해독 기능까지 가진 간 건강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br/> <br/>간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음주는 물론 과로, 음식, 성생활 등 개인위생이다. 이중에서 만성 간염은 간세포가 망가지는 간경변증을 유발하여 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br/> <br/>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환자 수는 161만 명으로 국민 31명중 1명꼴로 암환자가 흔한 시대가 됐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10명당 1명이 암유병자로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r/> <br/>2015년도에만 암 발생은 21만4701명이다. 이중 간암은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5년 생존율은 33.6%에 불과해 폐암(26.7%), 췌장암(10.8%)과 더불어 나쁜 편이다. <br/> <br/>대한간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간암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바이러스 ▲알코올성 및 기타 만성질환 ▲간경변증 등이다. <br/> <br/>예방은 B형간염예방접종을 하고 C형간염바이러스는 예방주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방어하는 것이 최고다. <br/> <br/>주로 혈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소독되지 않은 주사바늘, 침, 문신 등은 조심해야 한다. 또 성적접촉이나 타액으로 전파가능성도 있다. <br/> <br/>과도한 음주도 문제다. 소주 4잔 이하는 크게 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성 간경변증과 간암의 발생을 유발한다. <br/> <br/>주요 증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면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한다. 오른쪽 윗배 통증, 팽만감, 체중감소, 심한 피포감이 있지만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대부분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br/> <br/>암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완치 가능성이 높은 간 절제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간암 환자의 약 20%정도만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간이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예후도 좋은 편이다. <br/> <br/>간 절제나 간이식이 어려울 경우 간동맥화학색전술과 최근 국내에 신의료기술로 도입된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치료 등을 선택해 볼 수 있다. <br/> <br/>특히 하이푸는 원발성 간암이나 췌장에서 간으로 전이된 경우, 간에서 폐로 전이된 경우, 유방에서 간으로 전이 경우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br/> <br/>혈관을 막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색전술과 열을 가해 암세포를 태우는 하이푸를 병행하면 각각 치료할 때보다 효과가 더 크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2.txt

제목: [헬스파일]“헬리코박터 제균(除菌) 치료로 장상피화생 호전되고, 위암 예방도 가능하다”  
날짜: 2017122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7094744001  
ID: 01100201.201712270947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나영 <br/>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br/> <br/>한국인의 상당수가 위장질환을 앓는다. 자극적이고 불규칙한 식습관, 잦은 스트레스 등에 의한 소하장애가 주원인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위염의 형태로 나타나다 점차 만성 위축성위염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br/> <br/>위축성위염이란 위의 표면인 점막이 만성 염증으로 얇아진 상태로, 만성 위염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다. 대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 위축성위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위 점막이 장 점막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는 장상피화생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인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무려 10.9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위암은 한국인에게서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되는 암이다. 그만큼 치료법도 많이 발전했고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상태를 살피며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에 앞서 위암을 일으키는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위암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므로, 빠르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br/> <br/>필자는 2006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상복부 불쾌감, 메스꺼움, 구토 등의 소화기계 증상을 보이거나 위암 정기 검진을 받은 환자 598명(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음성군 65명,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양성에서 제균 된 군 442명, 제균 되지 않은 군 91명)를 대상으로, 위축성위염과 장상피화생의 변화를 최대 10년 동안 전향적으로 추적 관찰했다. 그동안 1년, 2년, 3-4년, 5-10년 추적기간에 따라 위 전정부(위의 아랫부분)와 체부(위의 윗부분)에서 조직검사도 시행했다. <br/> <br/>그 결과, 위축성위염은 물론 장상피화생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의해 호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축성위염은 제균 후 1년 이내에 체부는 물론 전정부에서 많은 호전을 보여 헬리코박터 음성군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졌고, 장상피화생은 위축성위염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제균 후 체부는 3년 후에, 전정부는 5년 후부터 헬리코박터 음성군과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헬리코박터 제균치료로 위축성위염은 체부에서 68.6%, 전정부에서 50.0%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상피화생은 체부에서 44.4%, 전정부에서 33.9%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균 치료로 위축성위염뿐만 아니라 장상피화생도 호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br/> <br/>이 연구는 장상피화생이 이미 일어난 이후라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위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다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장상피화생이 호전되기까지는 위축성위염에 비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다. 따라서 위암 예방 효과를 보려면 가능한 한 젊은 나이 때부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br/> <br/> <br/>이 연구결과는 근간 국제 학술지 ‘앨러멘터리 파마콜로지 앤드 테라퓨틱스’(AP&T)에 게재될 예정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3.txt

제목: 보령바이젠셀, T세포 면역치료 플랫폼 면역항암제 임상 2상 추진  
날짜: 2017122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7093144001  
ID: 01100201.20171227093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보령바이젠셀(공동대표 김영석·김태규)은 26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의 T세포 면역치료제에 대한 제2상 임상시험연구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br/> <br/>보령바이젠셀은 내년부터 국내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EBV) 양성NK/T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2상 시험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br/> <br/>보령바이젠셀은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 제1호 회사로 지난해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지분투자를 통해 최대 주주 지위에 올랐으며, 올해 보령제약 자회사로 편입됐다. <br/> <br/>보령바이젠셀은 T세포 입양면역세포치료 기술을 보유한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분야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br/> <br/>특히 종양항원 특이 T세포 입양면역세포치료 기술은 환자/공여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 분리 후, 시험관에서 제조 배양한 종양 및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Cytotoxic T Lymphocytes, 이하 CTLs)를 생체 내에 주입하여 항원 특이적으로 암세포를 살해하고, 환자의 몸 안에 잔존하는 미세잔존암을 제거하고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는 종양치료기술로 꼽힌다. <br/> <br/>또한, 환자 자신의 면역체계(세포)를 이용해 항원을 발현하는 암 세포만을선택적으로 살해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일부세포는 기억세포로 환자의 몸에 남아서 재발을 방지해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r/> <br/>보령바이젠셀의 핵심 기술은 환자 및 정상인 혈액에서 채취한 T세포를 항원 특이적인 세포독성 T세포(CTLs)로 분화 배양 시키는 기술로, 표적항원에 따라 다양한 CTLs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미 여러 표적항원을 대상으로 CTLs 생산에 성공하였고, 연구자주도임상 및 응급임상 등을 진행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br/> <br/>2015년 5월 미국 유전자세포치료학회지 몰리큘러테라피(Molecular Therap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항암치료 및 자가이식을 받은 NK/T세포 림프종 환자 10명에게 EBV-CTLs를 투여한 결과 10명의 환자가 모두 생존하고 4년 무병 생존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환자를 5년 이상 장기추적조사(long-term follow up)한 결과다. <br/> <br/>보령바이젠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EBV-CTLs의 상업화 임상을 추진하였으며, 3상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3상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경우, 빠르면 2021년 임상2상 완료 후 품목허가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또한 후속 파이프라인으로단일 항원(Single-Antigen)이 아닌 다수 항원(Multi-Antigen)에 특이적인 CTLs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 비임상 및 임상1상 IND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4.txt

제목: 치매 의심환자 MRI 건보 적용  
날짜: 20171227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7183255002  
ID: 01100201.201712271832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내년부터 본인부담 30∼60% <br/>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br/>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br/> <br/>새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 환자는 치매 감별을 위해 찍는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기본 MRI 7만∼15만원, 정밀 촬영 15만∼35만원만 본인이 내면 된다. <br/> <br/>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된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촬영하는 MRI에 본인 부담금 30∼60%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최초 1회 촬영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로 찍거나 60세 미만일 경우는 80%를 본인이 내야 한다. <br/> <br/> 경도인지장애는 비슷한 연령대보다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다. 매년 이들의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된다. 그간 치매 MRI 검사는 경증 이상 치매로 진단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의심 단계에선 비급여로 본인이 전부 내야 했다. <br/> <br/>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451만9000원, 1인 가구 167만2000원) 이하인 국민은 질병 구분 없이 가구의 연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을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r/> <br/> 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기존보다 강화된 내년 1∼6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보고했다.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용·성형, 특실·1인실, 요양병원 비용 등은 제외된다. <br/> <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긴급의료비, 암환자의료비 등을 지원받거나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5.txt

제목: ‘사운드 오브 뮤직’ 출연 배우, 뇌암으로 사망  
날짜: 20171226  
기자: 우승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6142644001  
ID: 01100201.201712261426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일곱 남매 중 셋째 딸로 출연했던 배우 헤더 멘지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망했다. 향년 68세. <br/> <br/>CNN은 26일(현지시간) 헤더 멘지스가 뇌암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멘지스는 지난달 다형성신경교아종 진단을 받은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결국 지난 24일 숨을 거뒀다. <br/> <br/>아들 라이언 유리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24일 어머니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br/> <br/>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배우이자 재능 있는 무용가였으며, 미술과 영화에 조예가 깊었다는 점”이라며 “발이 넓은 사람이라 친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br/> <br/> <br/> <br/>1949년생인 멘지스는 1965년에 개봉한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본 트랩 대령의 셋째 루이자 역을 맡았다. <br/> <br/>멘지스는 1975년 배우 로버트 유리히와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와 여덟 손주를 두었다. 2002년 남편과 사별한 이후 ‘로버트 유리히 재단’을 세워 암 연구를 위한 기금을 모았다. <br/> <br/>우승원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6.txt

제목: [And 건강] “담배 전혀 안피우는데 폐암 4기라니…”  
날짜: 20171226  
기자: 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삽화=공희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6072744001  
ID: 01100201.201712260727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1. 경북 영천에 사는 전모(42·여)씨는 지난 6월 A형 간염을 치료하러 병원을 찾았다가 뜬금없는 폐암 4기 선고를 받고 당혹스러웠다. 담배 피우는 사람의 병이라고만 여겼던 폐암이 자신에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가슴 CT 영상에서 왼쪽 폐에 3~4㎝ 크기 암덩어리가 보였다. 암이 이미 간으로 퍼지는 등 상당히 진행됐지만 의심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br/> <br/>평생 담배를 입에 물지도 않았던 그녀에게 폐암의 씨앗을 던져준 건 뭘까. 남편에 의한 간접흡연이 의심됐다. 남편은 하루 2갑반씩 21년간 담배를 피워 온 골초였던 것. 전씨는 “가게와 집에서 남편이 담배 피울 때 무심코 곁에 있었던 게 화근인 것 같다. 담배연기가 싫다거나 하지 않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면서 때늦은 후회를 했다. <br/> <br/>#2. 흡연 경험이 없는 이모(61·여)씨 역시 자신에게 폐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아스럽다. 이씨 폐에선 3.8㎝ 암이 발견됐고 머리까지 번진 암세포가 뇌신경을 눌러 손에 마비가 왔다. <br/> <br/>의사와 상담을 통해 힌트를 얻었다. 이씨는 30년 넘게 주부로 가족의 삼시세끼를 챙겨 왔다. 매끼 육류와 생선 반찬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주방에서 고기와 생선을 구우며 가스 불 앞에서 하루 6시간 이상 보낼 때가 많았다. 창문을 닫은 채 조리하곤 했다. 주치의는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미세먼지)나 그을음 속에는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데,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오래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하필….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br/> <br/> <br/> <br/>여성 폐암 10명 중 8∼9명, 비흡연자 <br/> <br/>최근 발표된 중앙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새로 발생한 여성 폐암 환자는 7252명이다. 같은 기간 신규 남성 폐암 환자(1만7015명)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여성 폐암은 전국 단위 암 통계가 시작된 1999년보다 2.1배 증가했다. 연령표준화 암발생률로 따지면 2012년까지 매년 1.8%씩 늘어나다 이후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성 폐암 환자 진료 추이를 보면 지난해 2만7958명이 병원을 찾아 2012년(2만910명)보다 33.7% 늘었다. <br/> <br/>주목할 점은 폐암 여성 10명 가운데 8∼9명이 비흡연자란 사실이다. 흡연은 폐암의 주된 원인이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이 2003∼2015년 폐암 수술을 받은 여성 957명을 분석한 결과 92.7%는 담배 피운 경험이 없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최창민 교수는 “<span class='quot0'>남성에 비해 여성 흡연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성 폐암은 흡연에 의해서라기보다 다른 위험요인 노출이 주요 원인일 것</span>”이라고 추정했다. 최 교수는 “비흡연자나 여성의 경우 폐의 말단 가지 부위에 주로 생기는 선암이 많다. 이 유형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흡연 남성은 폐 중심부에 주로 생기는 편평상피세포암이나 소세포암이 많다. 비흡연 여성 폐암의 원인으로 간접흡연 노출, 조리 시 발암물질 흡입, 유전적 변이, 라돈·미세먼지 같은 환경공해 등이 거론된다. <br/> <br/>조리 시 발암물질 흡입 폐암 위험 <br/> <br/>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폐암학회 주최 여성 폐암의 날 행사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눈에 띈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는 2003∼2004년 건강검진 참여 비흡연 여성 600만여명 가운데 2015년 말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4만5880명을 대상으로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생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고연령, 주 2∼3회 이상 음주, 육식 위주 식사, 저체중, 다른 암 진단 등이 여성 폐암 발생을 높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폐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1'>1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신 여성의 경우 주 2∼3회 미만 음주한 경우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24.7% 높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알코올 자체가 폐암을 유발하기보다는 음주 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이 원인일 것</span>”이라고 추정했다. <br/> <br/>몸무게가 정상보다 적은 여성이 오히려 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점도 흥미롭다.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의 저체중일 경우 정상 체중(18.5∼22.9)보다 폐암 위험이 33.5%나 올라갔다. 과체중(23∼24.9)이나 비만(25 이상)일 때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방세포나 조직은 몸속에 들어온 발암물질을 녹여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저체중의 경우 지방세포가 적어 발암물질 억제 기능이 약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br/> <br/>또 육식 위주 식사 습관을 가진 여성은 채식 위주 여성보다 폐암 위험이 6.7% 높았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1'>육식 위주 식사를 하면 대장암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성 유기화합물(PAH·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 특히 삼겹살 생선 등을 굽거나 튀길 때 주의해야 한다. 식용유가 가열돼 유증기가 발생할 때 부타디엔 벤젠 아크로레인 포르말린 등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br/> <br/>국립암센터 한지연 폐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2'>고기나 생선을 태우거나 기름을 쓸 때 연기를 통해 여러 발암물질을 들이마시게 된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큰 발암물질은 입안에서 걸러지지만 초미세먼지(PM2.5) 같은 작은 입자는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폐세포를 자극한다”면서 “암은 확률 게임이다. 자극을 오래 많이 받으면 어느 순간 암세포가 된다”고 말했다. 주방에서 장시간 일하는 여성이나 조리사 등이 폐암 위험군인 셈이다. 따라서 굽거나 튀김 요리를 할 땐 뚜껑을 꼭 닫고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 요리가 끝난 뒤에도 15분 정도 창문을 닫지 말고 한 번 쓴 기름은 다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br/> <br/> <br/> <br/>비흡연 여성 폐암 관심·검진 지원 필요 <br/> <br/>여성 폐암 환자들은 남성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기 쉽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오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폐암학회 조사 결과 여성 폐암 환자가 겪는 우울감(여 37.1%, 남 24.4%) 두려움(여 45.7%, 남 27.8%) 걱정(여 61.2%, 남 49.8%)의 정도는 남성보다 높았다. 학회는 “유방암의 경우 핑크리본 캠페인처럼 사회적 지지가 많이 이뤄지지만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센터장은 “<span class='quot2'>비흡연 여성에게 발생하는 폐선암의 경우 최근 나온 표적 항암제에 잘 듣는 유전적 변이가 흡연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치료율이 높은 편</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수술 후 암이 재발하더라도 ‘재발하면 죽는다’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정부가 올 4월부터 만 55∼74세 흡연 고위험군 대상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비흡연 여성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맞춤형 검진 연구·개발이나 지원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span>”고 촉구했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7.txt

제목: [And 건강] 가천의대 길병원 폐센터 이재익 교수 “연 1회 저선량 폐CT 촬영이 최선의 조기 검진법”  
날짜: 2017122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6050455002  
ID: 01100201.201712260504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암은 외부에서 느낄 만한 자각증상이 없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거나 기침 가래 같은 감기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br/> <br/> 가천의대 길병원 폐센터 이재익(사진) 교수는 25일 “폐암의 경우 초기에는 절대 증상으로 조기 발견할 수는 없다. 일반 흉부X선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사선량이 적은 저선량 폐CT를 1년에 한 번 정도 찍어보는 게 현재로선 가장 좋은 조기 검진법”이라고 말했다. <br/> <br/>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다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비교적 치료의 모범답안이 있는 다른 암에 비해 폐암은 암 진행 단계와 발병 위치, 폐기능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 선암을 포함한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초기인 1·2기는 수술, 4기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한다. 문제는 3기다. 환자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질병 양상도 워낙 다양하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만 하는 경우, 수술 후 항암(혹은 방사선)치료, 수술 전 항암(혹은 방사선) 치료 등 여러 옵션이 가능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환자의 전반적 상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길병원이 지난해 말 도입한 인공지능(AI)닥터 ‘왓슨’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의사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 치료법 결정에 도움이 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지금까지 100여명의 환자에 적용했고 의사와 왓슨 간 진단 일치도는 다른 암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span>”고 했다. <br/> <br/>민태원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8.txt

제목: [And 건강] “담배 전혀 안피우는데 폐암 4기라니…” 비흡연 여성 폐암 증가 왜?  
날짜: 2017122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6050155002  
ID: 01100201.20171226050155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폐암 여성 93% “흡연 안했다” <br/>간접 흡연·조리시 연기 흡입 <br/>유전·라돈 등 환경공해가 원인 <br/> <br/>“고연령·음주·육식·저체중이 <br/>여성 폐암 발생 확률 높여” 결론 <br/> <br/>女환자, 남성보다 스트레스 심해 <br/>“<span class='quot0'>맞춤형 검진 연구개발·지원 필요</span>” <br/> <br/>#1. 경북 영천에 사는 전모(42·여)씨는 지난 6월 A형 간염을 치료하러 병원을 찾았다가 뜬금없는 폐암 4기 선고를 받고 당혹스러웠다. 담배 피우는 사람의 병이라고만 여겼던 폐암이 자신에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가슴 CT 영상에서 왼쪽 폐에 3~4㎝ 크기 암덩어리가 보였다. 암이 이미 간으로 퍼지는 등 상당히 진행됐지만 의심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br/> <br/> 평생 담배를 입에 물지도 않았던 그녀에게 폐암의 씨앗을 던져준 건 뭘까. 남편에 의한 간접흡연이 의심됐다. 남편은 하루 2갑반씩 21년간 담배를 피워 온 골초였던 것. 전씨는 “가게와 집에서 남편이 담배 피울 때 무심코 곁에 있었던 게 화근인 것 같다. 담배연기가 싫다거나 하지 않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면서 때늦은 후회를 했다. <br/> <br/>#2. 흡연 경험이 없는 이모(61·여)씨 역시 자신에게 폐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아스럽다. 이씨 폐에선 3.8㎝ 암이 발견됐고 머리까지 번진 암세포가 뇌신경을 눌러 손에 마비가 왔다. <br/> <br/> 의사와 상담을 통해 힌트를 얻었다. 이씨는 30년 넘게 주부로 가족의 삼시세끼를 챙겨 왔다. 매끼 육류와 생선 반찬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주방에서 고기와 생선을 구우며 가스 불 앞에서 하루 6시간 이상 보낼 때가 많았다. 창문을 닫은 채 조리하곤 했다. 주치의는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미세먼지)나 그을음 속에는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데,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오래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하필….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br/> <br/>여성 폐암 10명 중 8∼9명, 비흡연자 <br/> <br/> 최근 발표된 중앙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새로 발생한 여성 폐암 환자는 7252명이다. 같은 기간 신규 남성 폐암 환자(1만7015명)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여성 폐암은 전국 단위 암 통계가 시작된 1999년보다 2.1배 증가했다. 연령표준화 암발생률로 따지면 2012년까지 매년 1.8%씩 늘어나다 이후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성 폐암 환자 진료 추이를 보면 지난해 2만7958명이 병원을 찾아 2012년(2만910명)보다 33.7% 늘었다. <br/> <br/> 주목할 점은 폐암 여성 10명 가운데 8∼9명이 비흡연자란 사실이다. 흡연은 폐암의 주된 원인이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이 2003∼2015년 폐암 수술을 받은 여성 957명을 분석한 결과 92.7%는 담배 피운 경험이 없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최창민 교수는 “<span class='quot1'>남성에 비해 여성 흡연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성 폐암은 흡연에 의해서라기보다 다른 위험요인 노출이 주요 원인일 것</span>”이라고 추정했다. 최 교수는 “비흡연자나 여성의 경우 폐의 말단 가지 부위에 주로 생기는 선암이 많다. 이 유형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흡연 남성은 폐 중심부에 주로 생기는 편평상피세포암이나 소세포암이 많다. 비흡연 여성 폐암의 원인으로 간접흡연 노출, 조리 시 발암물질 흡입, 유전적 변이, 라돈·미세먼지 같은 환경공해 등이 거론된다. <br/> <br/>조리 시 발암물질 흡입 폐암 위험 <br/> <br/>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폐암학회 주최 여성 폐암의 날 행사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눈에 띈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는 2003∼2004년 건강검진 참여 비흡연 여성 600만여명 가운데 2015년 말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4만5880명을 대상으로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생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br/> <br/> 그 결과 고연령, 주 2∼3회 이상 음주, 육식 위주 식사, 저체중, 다른 암 진단 등이 여성 폐암 발생을 높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폐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2'>1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신 여성의 경우 주 2∼3회 미만 음주한 경우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24.7% 높았다</span>”며 “<span class='quot2'>알코올 자체가 폐암을 유발하기보다는 음주 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이 원인일 것</span>”이라고 추정했다. <br/> <br/> 몸무게가 정상보다 적은 여성이 오히려 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점도 흥미롭다.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의 저체중일 경우 정상 체중(18.5∼22.9)보다 폐암 위험이 33.5%나 올라갔다. 과체중(23∼24.9)이나 비만(25 이상)일 때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방세포나 조직은 몸속에 들어온 발암물질을 녹여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저체중의 경우 지방세포가 적어 발암물질 억제 기능이 약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br/> <br/> 또 육식 위주 식사 습관을 가진 여성은 채식 위주 여성보다 폐암 위험이 6.7% 높았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2'>육식 위주 식사를 하면 대장암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성 유기화합물(PAH·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 특히 삼겹살 생선 등을 굽거나 튀길 때 주의해야 한다. 식용유가 가열돼 유증기가 발생할 때 부타디엔 벤젠 아크로레인 포르말린 등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br/> <br/> 국립암센터 한지연 폐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3'>고기나 생선을 태우거나 기름을 쓸 때 연기를 통해 여러 발암물질을 들이마시게 된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큰 발암물질은 입안에서 걸러지지만 초미세먼지(PM2.5) 같은 작은 입자는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폐세포를 자극한다”면서 “암은 확률 게임이다. 자극을 오래 많이 받으면 어느 순간 암세포가 된다”고 말했다. 주방에서 장시간 일하는 여성이나 조리사 등이 폐암 위험군인 셈이다. 따라서 굽거나 튀김 요리를 할 땐 뚜껑을 꼭 닫고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 요리가 끝난 뒤에도 15분 정도 창문을 닫지 말고 한 번 쓴 기름은 다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br/> <br/>비흡연 여성 폐암 관심·검진 지원 필요 <br/> <br/> 여성 폐암 환자들은 남성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기 쉽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오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폐암학회 조사 결과 여성 폐암 환자가 겪는 우울감(여 37.1%, 남 24.4%) 두려움(여 45.7%, 남 27.8%) 걱정(여 61.2%, 남 49.8%)의 정도는 남성보다 높았다. 학회는 “유방암의 경우 핑크리본 캠페인처럼 사회적 지지가 많이 이뤄지지만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센터장은 “<span class='quot3'>비흡연 여성에게 발생하는 폐선암의 경우 최근 나온 표적 항암제에 잘 듣는 유전적 변이가 흡연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치료율이 높은 편</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3'>수술 후 암이 재발하더라도 ‘재발하면 죽는다’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1'>정부가 올 4월부터 만 55∼74세 흡연 고위험군 대상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비흡연 여성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맞춤형 검진 연구·개발이나 지원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span>”고 촉구했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9.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BMT센터, 세계 첫 조혈모세포 이식 7000례 달성  
날짜: 2017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6233155001  
ID: 01100201.2017122623315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BMT)센터가 세계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br/> <br/> 서울성모병원 BMT센터는 지난 1983년 국내 최초로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이식에 성공한 이래 34년 만인 지난 21일, 단일 기관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 7000례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br/> <br/> 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 암 환자에게 고용량 항암 화학 요법 혹은 전신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암세포와 조혈모세포를 모두 제거한 다음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새로 심어주는 치료법이다. 조혈모세포를 가족 및 타인으로부터 받는 동종 이식과 자기 것만을 쓰는 자가 이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은 동종 이식과는 달리 거부 반응, 이식편대숙주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다. <br/> <br/> 83년 동종(형제간) 조혈모세포 이식에 처음 성공한 서울성모병원 BMT센터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1985년), 타인간 조혈모세포이식(1995년), 제대혈이식(1996년), 비골수제거조혈모세포이식(1998년), 혈연간 조직형 불일치 조혈모세포이식(2001년) 등에 잇달아 도전, 모두 성공했다. <br/> <br/> 조사결과 그동안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의 연령은 10대 이하 23%, 20대 16.1%, 30대 20.6%, 40대 18%, 50대 15.5%, 60대 6.8%의 분포를 보였다. 질환별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17.3%,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11.4%, 다발성골수종 10.4%, 골수이형성 증후군 7.1%, 만성골수성 백혈병 6.2%, 악성 림프종 6.4% 기타 7.1%순으로 나타났다. <br/> <br/> 서울성모병원 BMT센터장 김동욱 교수(혈액내과)는 “<span class='quot0'>이식수술 7000례 돌파를 계기로 향후 5년 내 가톨릭BMT센터를 혈액질환자만 집중적으로 돌봐주는 전문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20.txt

제목: 암 이겨낸 220명 “치료 끝난 시점부터 건강습관 실천이 비결”  
날짜: 20171225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5184044001  
ID: 01100201.20171225184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암을 이겨낸 220여명의 건강 비결은 뭘까.</span>” <br/>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는 완치된지 5년 이상된 암 경험자 4000여명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 중 220여명이 어떻게 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는지 답을 보내왔다.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내 놓은 정답은 “습관이 가장 훌륭한 약”이라는 것이다. <br/> <br/>삶과 죽음의 질 연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 전문가인 윤 교수가 최근 암 경험자들의 건강관리 지침서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예문아카이브)’를 내 놨다. <br/>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경험자들이 암을 이겨낸 방법은 내가 수십년간 검증하고 국제적 인정을 받은 건강의 원리와 과학적으로 일치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암을 극복한 비법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 평범한 습관이었다</span>”고 말했다. <br/>그는 “<span class='quot1'>규칙적인 운동, 균형잡힌 식사, 긍정적인 생각,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생활의 기본만 지켜도 암을 예방하고 아픈 증상을 줄이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span>”고 했다. <br/> <br/>한번 암에 걸렸던 사람은 재발은 물론 만성질환이나 2차암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암 발생 초기에는 조기 진단과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재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 습관’이다. <br/>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1'>거대한 바위는 힘이 센 사람도 옮길 수 없지만, 바위를 쪼개서 조금씩 덜어내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span>”면서 건강한 습관을 반복하는 행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 관리는 암치료를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끝나는 시점부터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어떻게 지속하느냐에 따라 더 빨리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10대 수칙에 따라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정보를 가장한 광고나 근거없는 민간요법에 혼동되기 쉬운 의학 정보를 바로 잡고 암 경험자와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맞춤 건강법을 제시한다. <br/>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1'>출판 인세는 모두 환자와 사회를 위해 설립을 준비 중인 사회적 기업에 전액 기부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21.txt

제목: “만약 못 만났다면…” 집에 홀로 방치된 60대 구한 간호사  
날짜: 20171222  
기자: 최민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2143046001  
ID: 01100201.2017122214304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2일 서울 동작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째 상도1동을 책임지고 있는 방문간호사 김승신(57)씨는 최근 상도1동 내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강모(65)씨를 만났다. <br/> <br/>강씨는 피골이 상접한 채 허름한 내복 차림에 비틀거리며 겨우 문을 열어 줬다고 김 간호사는 전했다. <br/> <br/>강씨는 이사 온지 며칠이 지났지만 짐을 풀지 못한 채 얇은 이불만 깔아 놓은 상태였다. 끼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끓인 라면으로 때웠다. <br/> <br/>그동안 강씨를 돌봐주던 보호자마저 암 말기로 투병 중이어서 그를 돌봐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있었다. 오래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지만 장기간 병원에 가지 않아 투약을 못하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br/> <br/>김 간호사는 건강면접조사지로 건강상태와 복지요구도를 확인했다. 혈압과 당뇨수치가 높게 나와 관리방법을 안내했다. 담당 복지플래너와 함께 외부자원을 연계해 밑반찬과 이불 등을 제공하는 한편 집안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 짐정리를 도왔다. <br/> <br/>며칠 뒤 김 간호사가 재차 방문을 했을 때 혈압이 250/120㎜Hg로 높게 나왔다. 김 간호사는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으로 강씨를 개인병원에 이송한 후 진료를 받게 했다. 그결과 강씨의 혈압과 당뇨 수치가 차츰 안정을 찾았다. <br/> <br/>김 간호사는 정확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라매병원에 초기진료비를 신청했다. 정밀 진단 결과 뇌경색 후유증과 치매의심 판정을 받았다. 뇌경색은 시간이 많이 흘러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br/> <br/>김 간호사는 치매관리를 위해 동작구치매지원센터에 의뢰했다. 가사 간병 서비스를 신청해 혼자 생활할 때 불편을 겪지 않게끔 했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연계할 예정이다. <br/> <br/>강씨는 "<span class='quot0'>만약 방문간호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span>"며 "<span class='quot0'>동작구로 이사 온 건 정말 잘한 선택</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모현희 보건소장은 "<span class='quot1'>동별로 배치된 방문간호사들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면서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동작구는 올해 '찾아가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5472명에게 3098건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br/> <br/>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22.txt

제목: 암 발생 4년째 감소… 유방암 16년째 증가  
날짜: 2017122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2050005003  
ID: 01100201.2017122205000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5년 암 등록 통계 발표 <br/> <br/>‘과잉진단’ 갑상샘암 1위→ 3위 <br/>암 5년 생존율 71%로 높아져 <br/> <br/>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br/>암 걸릴 확률 男 38%·女 32% <br/> <br/>한국인의 암 발병률이 4년 연속 떨어졌다. 과잉진단 논란을 빚은 갑상샘암 진단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저출산·만혼 추세로 유방암은 16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br/> <br/>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2015년 암 등록 통계를 발표했다. 2015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는 21만4701명으로 전년보다 1.9%(4253명) 줄었다.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3%였다. 기대수명 79세인 남자는 암 발병률이 37.9%, 기대수명 85세인 여성은 32.0%였다. <br/> <br/> 갑상샘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이 감소한 반면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암 발생 1위를 지켰던 갑상샘암은 전년보다 19.5%(605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남녀 전체 암 발생 순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대신 2, 3위였던 위암과 대장암이 한 단계씩 올라섰다. 2012년까지 급증하던 갑상샘암은 2013년 일부 전문가가 과잉진단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다. <br/> <br/> 연령 표준화 암발생률(이하 암발생률)은 2015년 인구 10만명당 275.8명으로 2012년(324.0명) 이후 4년 내리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유방암 환자는 전년보다 798명(4.3%)이 늘었다. 주요 암의 발생률이 감소 추세지만 유방암만은 전국 단위 암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또 늦게 낳으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될 시간이 길어져 유방암 확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span>”고 말했다. <br/> <br/> 암 생존율은 계속 높아져 최근 5년간(2011∼2015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7%로 집계됐다. 10년 전(2001∼2005년)보다 16.7% 포인트 높아졌다. <br/> <br/> 1999년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생존하고 있는 암 유병자는 161만1487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31명당 1명이 암 치료 중이거나 암 완치 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49.4%)는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해 살고 있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23.txt

제목: [사회 공헌으로 나눔·성장-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 3대 핵심 ‘여성·자연생태·문화’ 전개  
날짜: 2017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2212055002  
ID: 01100201.20171222212055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br/> 특히 창업자와 CEO가 사회공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은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br/> <br/>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6년 사회공헌활동에 240억원을 집행했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여성과 함께 성장해 온 아모레퍼시픽은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아래 여성 자연생태 문화 등 3대축을 중심으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br/> <br/> 우선 여성암 환자 지원을 위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과 ‘핑크리본캠페인’, 여성 재취업을 돕는 ‘희망가게’ 등을 통해 여성의 건강과 웰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린사이클 캠페인’ ‘라네즈 리필미 캠페인’ ‘이니스프리 숲 캠페인’ 등 자연생태 보전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아름다운 자연과의 공존에 힘쓰고 있다. <br/> <br/> 아울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문화’를 육성하고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설화문화전’ ‘미쟝센 단편영화제’,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아시아의 미’ 연구사업, ‘여성과 문화’ 학술연구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사: 국민일보-1-24.txt

제목: 삼성화재 ‘태평삼대’, 식도암·간암 등 10대 주요 암 진단비 신설  
날짜: 2017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2204555002  
ID: 01100201.201712222045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화재는 3대 질병(암·뇌혈관 질환·심혈관 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건강보험 ‘태평삼대’를 판매하고 있다. <br/> <br/>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을 두 번째 진단 받았을 경우 2차 진단비를 지급한다. 재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첫 번째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br/> <br/> 또 5대 암(식도암, 췌장암, 뇌암, 뼈암, 백혈병)에 간암, 폐암, 담낭암, 담도암, 기관암을 추가한 10대 주요 암 진단비를 신설했다. 주요 암 진단을 받으면 최대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 여기에다 항암 방사선·약물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3대 질병으로 뇌병변, 심장·언어장애 등 1∼3급 장애판정을 받으면 5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도 면제받을 수 있다.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언론사: 국민일보-1-25.txt

제목: NH농협생명 ‘내맘같이NH유니버셜…’, 사망·가족수입 등 폭넓은 보장설계 가능  
날짜: 2017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2204455003  
ID: 01100201.2017122220445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부분 고객은 종신보험을 ‘죽어야 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NH농협생명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종신보험에 다양한 선택특약을 부가해 실용성을 높인 ‘내맘같이NH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_1710’을 판매하고 있다. <br/> <br/> 28가지 선택특약을 통해 사망, 가족수입, 재해, 질병, 수술, 입원, 실손의료비 등 폭넓은 보장설계가 가능하다.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망과 건강보장금액을 생애주기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기에는 사망보장을 2배로 늘리고, 노년기에는 건강보장을 2배로 확대하는 식이다. <br/> <br/>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 고객에겐 건강 상담, 병원 예약 대행, 치매 자가진단 및 예방훈련 프로그램 등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자는 의무납입기간 2년 이후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연 12회 이내에서 적립금을 인출해 활용할 수도 있다.

언론사: 국민일보-1-26.txt

제목: ‘갑상샘암 감소 효과’...암 발생 4년 연속 감소  
날짜: 20171221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1112844001  
ID: 01100201.201712211128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암 발생이 4년 연속 감소했다. 2009년 이후 국내 암 발생 1위를 차지하던 갑상샘암은 전년보다 크게 줄어 암 발생 순위가 3위로 내려앉았다.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은 증가했다.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7%에 달했다. 암 생존자는 160만명을 넘어섰다. <br/> <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 유병율 현황을 발표했다. <br/>2015년 신규 암 환자는 21만4701명(남 11만3335명, 여 10만1366명)으로 전년(21만8954명) 보다 1.9% 감소했다. 갑상샘암 위암 대장암 간암은 줄었고 유방암과 전립선암 췌장암은 증가했다. <br/> <br/>갑상샘암은 전년보다 6050명이 감소해 남녀 전체 암 발생 순위가 3위로 밀려났다. 각각 2, 3위였던 위암과 대장암이 한 단계씩 올랐다. <br/>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다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다. <br/> <br/>주요 암 가운데 위암 대장암 갑상샘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br/>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7%에 달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27.txt

제목: [헬스파일]겨울철 노인건강 위협하는 3대질환은?  
날짜: 2017122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0114844001  
ID: 01100201.20171220114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양윤준 <br/>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br/> <br/>겨울은 기온이 떨어지고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평소 관절이나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br/> <br/>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감염질환이나 호흡기질환에 취약하고, 추위로 움츠러든 몸이 자칫 미끄러운 눈과 빙판길을 만나 넘어 지기라도 하면 골절로 인해 큰 부상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겨울철 심장병, 뇌졸중 위험 증가 <br/>겨울철에는 사망률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를 보면 겨울에 심근경색 사망이 10%, 뇌졸중 사망이 20% 증가한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을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담배, 비만 등이 원인이다. <br/> <br/>겨울철에 이런 심뇌혈관질환 사망이 늘어나는 이유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br/> <br/>이 외에도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며, 비타민D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br/> <br/>겨울에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가 늘어나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 것도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사망 증가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br/> <br/>겨울철 심뇌혈관질환 발작을 예방하려면? <br/>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고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온도는 적어도 1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잠을 잘 때는 난방이나 전기담요 등을 이용해 체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을 할 때는 체온 발산이 주로 목이나 머리에서 발생함으로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br/> <br/>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등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고, 적절히 운동하고, 식사조절을 해야 하며,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날은 동맥경화 자극이 되므로 운동과 식사조절로 조절이 안 되면 약을 먹어서라도 조절해야 한다. <br/> <br/>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 <br/>노인이 겨울에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병은 낙상이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에 잘 걸리고, 시력 균형감각, 유연성 근력 등이 나빠지기 때문에 잘 넘어지게 되고, 골다공증으로 인해 쉽게 골절상에 걸린다. <br/> <br/>팔목 골절상은 활동에 큰 지장이 없지만, 허리나 히프 관절 부위 뼈가 부러지며 움직이기 힘들게 되어 여러 합병증이 잘 생기고, 심지어 사망률도 높아진다. <br/> <br/>대퇴부, 즉 히프 골절 노인 5명 중 1명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누워 지내면 면역력, 근력, 심폐지구력 등이 낮아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폐렴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폐렴은 면역력이 좋은 젊은 사람에게는 조금 성가신 질병 정도이지만 노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암이나 만성질환자의 직접 사망 원인 대다수가 폐렴일 정도로 폐렴은 주요 치명적 질병이다. <br/> <br/>따라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폐렴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낙상 골절로 누워있으면 욕창도 잘 생긴다. 욕창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주 위치를 바꿔줘야 한다. 골절상을 입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력 심폐 기능 등이 저하되고, 점차 일상 활동이 힘들고 귀찮게 될 수 있다. <br/> <br/>심리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져 더욱 활동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골절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급적 일찍 거동을 시작하는 재활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주위 가족이나 친지들이 낙상 노인을 격려하고 같이 활동해주는 등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br/> <br/>낙상으로 인한 부상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br/>낙상으로 인한 부상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우선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미끄러운 지역, 특히 응달이 진 곳은 피해야 한다. <br/> <br/>신발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이 좋다. 낙상 대부분은 의외로 집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욕실이나 화장실 물기를 조심해야 한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도움이 된다. <br/> <br/>실내는 어둡지 않게 조명을 밝혀야 하고 바닥에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이 없어야 한다. <br/>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경우에 버틸 수 있으면 덜 다친다. 즉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감각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이 된다. <br/> <br/>걷기나 게단 오르내리기 등 전신 운동을 하면 자연히 좋아진다. 물론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많이 약한 분, 낙상이나 발목 부상이 있었던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재활 훈련을 받는 것이 좋다. <br/> <br/>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한 발로 서서 기마자세 정도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이다. 넘어지지 않도록 의자나 책상 등에 손을 가볍게 짚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좋다. <br/> <br/>넘어지더라도 골절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골다공증을 관리해야 한다. 검사 결과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하면 약물 복용을 해야 한다. <br/> <br/>평소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많이 먹고, 멸치와 같은 잔 뼈 생선을 즐겨 먹는 것이 좋다.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어서 비타민D 생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br/> <br/>감기, 독감,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증가 <br/> <br/>겨울에는 감기, 독감,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다. 폐나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등이 창궐하는데, 온도와 습도가 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데다 건조하고 찬 공기와 코와 기관지 점막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br/> <br/>노인은 각종 병원체에 면역력이 약하고, 기관지 섬모 기능이 저하되어 나쁜 물질을 배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고, 회복하기 힘들어 악화되기 쉽다. <br/> <br/>또 노인은 감염질환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여겨지더라도 평소보다 신체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이 계시면 혹시 심한 질병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br/> <br/>즉, 일어나기 힘들어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세수나 옷 입기 귀찮아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등 기능 저하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br/> <br/>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br/>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우선 금연이 필수이다. 정부에서 금연 약물비용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여 금연하면 좋다. <br/> <br/>어르신 중 어떤 분은 나이가 70세 인데 이제 와서 금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 물론 금연을 가급적 어릴 때 시행해야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많아도 금연을 하면 이점이 생긴다. <br/> <br/>금연 8년 후에는 뇌졸중, 심장병 사망이 42%, 57% 감소하고 10년 후에는 암이 47% 줄어드는데, 특히 폐암은 79% 감소한다. 금연한지 한 달만 지나도 기침, 호흡곤란, 감염 위험이 줄어들고 기관지 기능이 좋아진다. <br/> <br/>따라서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금연은 해야 한다. 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내 분수, 어항, 젖은 빨래나 수건을 이용하면 좋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28.txt

제목: [헬스파일] 노인과 낙상  
날짜: 2017122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20112944001  
ID: 01100201.20171220112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은주 <br/>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br/> <br/>날씨가 추워지면서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일들 중의 하나가 겨울철 노인들의 낙상이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관의 여러 가지 노화현상으로 관절이나 뼈,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지며,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력과 청력이 현저하게 약해져서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며, 이로 인해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민첩성이나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br/> <br/>특히 겨울철엔 추위로 인해 몸을 움츠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 균형 잡기가 어려워진다. 설상가상으로 빙판길 보행 시엔 자칫하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노인들은 이럴 경우 손을 짚으면서 손목뼈, 어깨뼈의 골절이 젊은이들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대퇴골 근위부인 엉덩이뼈나 척추 뼈의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br/> <br/>최근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에서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약 2,500만 명이 골다공증 환자이며 이중 매년 120만 명 이상에서 골절이 발생한다고 한다. <br/> <br/>우리나라에서도 약 200만 명이 골다공증 환자로 추산되며, 매년 5∼10만 명에게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골다공증 예방 및 골절 예방의 중요성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노인층에서 낙상과 관련된 골절은 단순히 수술적인 치료에 따른 위험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장기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많은 내과적인 합병증이 동반된다. <br/> <br/>또한 전반적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감소, 간병과 의료비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고, 다행히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br/> <br/>더 나아가 이러한 두려움은 노년의 전반적인 일상의 활동을 위축시켜 외출이나 운동을 잘 안하고 집에만 있으려 한다거나 해서 더욱 더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br/> <br/>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나타내게 되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 <br/> <br/>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임상적으로 대퇴골 근위부 골절의 경우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회복기간이 약 6∼12개월 소요되며, 회복되더라도 약 3분의 1만이 이전 상태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br/> <br/>대개 골절이 발생하면 골절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못 움직이고 누워있게 됨으로 인하여 욕창, 폐렴, 폐색전증, 근육 위축과 같은 전신적인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므로 발병 첫 수개월 내 사망률이 30~55%에 달하며, 이러한 골절을 겪은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2년이라는 보고가 있다. 그러니 이쯤 되면 거의 암에 걸리는 것이나 진배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r/> <br/>그리고 많은 노인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배우자나 자식에게 의존하면서 병에 걸려 힘들게 사는 것인데, 대부분의 낙상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도 예전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한다거나, 침상에 누워 지내게 된다는 것을 볼 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다. <br/> <br/>낙상과 이와 관련된 골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낙상의 원인 중 내적인 요인으로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지는 게 문제이니 만큼, 균형을 잡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 약물들 특히 노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혈압 약이나 신경안정제와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작용으로 어지러움이 나타나는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br/> <br/>평소에도 균형감각을 높이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겨울엔 빙판길에 조심하도록 하고,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r/> <br/>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노인네들은 화장실에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 말은 집안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쉬운 환경을 미리 예방하고, 발에 걸리기 쉬운 전기 플러그나 기타 장애물을 없애주고, 집안 조명을 너무 어둡지 않게 항상 적당히 밝게 유지해서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을 없애주는 게 좋다는 것이다. <br/> <br/>만약 그래도 넘어지게 되는 경우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 되는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쉽게 허리뼈나 엉덩이뼈가 부러지기도 하므로, 간단한 타박상 정도로 쉽게 생각하고, 민간요법 등으로 버텨 보려고 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br/> <br/>노인들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일반인들에게도 교육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하겠으며, 의료인들도 낙상과 관련된 골절은 단순한 외과적인 질환이라기보다는 긴 회복기간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후유증을 가지는 전신적인 질환으로서 생각하고 환자를 대해야 하겠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29.txt

제목: 인하대, 제품융합디자인경진대회 주방용가전 제조업체 ‘더차칸’ 프로젝트팀 대상  
날짜: 20171219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9074644001  
ID: 01100201.201712190746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인하대 시각정보디자인학과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한 2017 제품융합디자인경진대회가 지난 18일 인하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br/> <br/> <br/> <br/> <br/>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문제 해결을 돕는 Problem Solving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주방용 가전 제조업체 ‘더차칸’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효정(22·문화콘텐츠 3년), 서지은(21·시각정보디자인 2년), 이윤학(24·시각정보디자인 2년), 이채린(22·시각정보디자인 3년) 학생팀이 제안한 새로운 CI와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디자인이 대상을 받았다. <br/> <br/> <br/> <br/> <br/> <br/>이어 다목적 LED 밴드를 만드는 업체 ‘네오팝’과 함께 한 최수빈(24·시각정보디자인 4년), 변유진(22·시각정보디자인 3년), 이송하(21·시각정보디자인 2년) 학생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내 위험 요소 감지 암 밴드를 실용성 있게 디자인 해 금상을 받았다. <br/> <br/> <br/> <br/> <br/> <br/>은상은 탄소나노튜브 제조·가공 전문업체 하이CNT와 프로젝트를 한 김승현(20·시각정보디자인 2년) 학생이, 동상은 네오팝과 밴드 디자인에 나선 주신영(22·시각정보디자인 3년), 석민경(22·시각정보디자인 3년), 이정혜(21·시각정보디자인 3년), 노하나(23·시각정보디자인 2년) 학생팀이, 장려상은 유선통신장비제조업체 삼보하이테크 기업과 함께 태극 문양을 한 CCTV 디자인을 선보인 하혜연(22·의류디자인 3년), 송주학(23·시각정보디자인 3년), 이재서(28·시각정보디자인 2년) 학생이 받았다. <br/> <br/> <br/> <br/> <br/> <br/>이번 대회는 삼보 하이테크, ㈜하이CNT, 모닝아트, 더차칸, 네오팝 등 5개 업체와 학생 10개 팀이 참가했다.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30.txt

제목: 이해인 수녀 신작 산문집 ‘기다리는 행복’ 출간  
날짜: 20171219  
기자: 강주화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9211544001  
ID: 01100201.20171219211544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이해인(72·사진) 수녀는 19일 서울 용산구 ‘성 분도 은혜의 뜰’에서 열린 산문집 ‘기다리는 행복’(샘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에 대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행복하다”며 “시작할 때는 막연히 두렵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왔다. 누가 축하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자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br/> <br/> ‘기다리는 행복’은 내년 수도서원 50주년을 맞아 낸 책이다. 첫 서원 후 1년간 쓴 미공개 단상 140여편이 수록돼 있다. 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다. 그는 “암 투병 9년 동안 단 한 번도 병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다. <br/> <br/> <br/> 수술받기 전에 주치의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수녀님, 몸을 크게 수리해서 더 좋은 몸을 가진다고 생각해주세요’였는데, 큰 용기를 받았다. 언어가 주는 영향력을 그때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투병하는 이들과 노년에 다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도 담겨 있다. <br/> <br/> 이 수녀는 “묵상과 기도를 하며 160권 가까운 일기와 노트가 있다. 짬짬이 몇 줄이라도 써서 저금하듯이 생각의 조각들을 노트나 기억 속에 넣었다가 누가 글을 써 달라고 하면 빼서 쓰곤 한다”고 글 쓰는 방법을 소개했다. 메모가 글의 원천인 셈이다. <br/> <br/> 그는 “우리의 문제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 잘못을 보기보다는 항상 탓을 다른 데로 돌리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나 자신도 전쟁을 겪고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딱하고 김정은이 밉고 성토하게 되지만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했나 반성하게 됐다”고도 했다. <br/> 앞으로 그는 예쁜 그림동화를 써서 내고 싶다고 한다. <br/> <br/>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31.txt

제목: [포토]온천원 보호지구 추구하는 북한산 비젠 온천  
날짜: 20171219  
기자: 강민석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9093344001  
ID: 01100201.20171219093344001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에 위치한 북한산 비젠온천은 ph9.1의 알칼리성 온천으로 온천물에 다량 함유된 셀레늄은 비타민에 1970배에 달하는 천연 황산화제 성분으로 류마티스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게르마늄은 모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br/> <br/>북한산 비젠 온천은 지하 972미터에서 오랫동안 10기압의 높은 압력을 받고 있던 36.9도의 온천수가 땅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셀레늄과 게르마늄을 방출하는데, 이 때 방출된 셀레늄과 게레마늄은 온천 목욕시 삼투압 현상으로 인체내의 노폐물을 빠져 나가게 해준다. <br/> <br/>북한산 비젠 온천은 고양시 최초로 정부의 검사와 철저한 자체관리로 고양시 온천허가 1호를 받았다. <br/> <br/>1996년 온천 1호공으로 400톤이었던 하루 양수량이 2012년 온천 2호공으로 765톤으로 늘어났다. <br/> <br/>참고로 하루 765톤이면 매일 4,000여명이 목욕할 수 있는 양이다. <br/> <br/>온천법 제 10조,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하면 온천수 적정 양수량이 온천공 최소 2개공을 통하여 1,000㎡/d 이상이거나, 3개공을 통하여 1,000㎡/d 미만일 경우에 30,000㎡이상의 온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온천 개발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온천원 보호지구로 시장·군수가 지정한다고 되어있다. <br/> <br/>김철호 북한산 비젠온천 대표는 “ 북한산 비젠 온천 인근인 은평 뉴타운,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원흥지구등이 새롭개 개발되어 현재 건물로는 턱없이 공급이 적은 편이다. <br/> <br/>따라서 온천공 1개를 더 개발하여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받아서 양어시설, 온실 관광시설, 스키장 ,골프장, 수영장등을 갖춘 복합 워터파크로 개발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휴양단지로 만들어 나가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r/> <br/>강민석 선임기자 kang1960218@gmail.com

언론사: 국민일보-1-32.txt

제목: 샤이니 종현 이어 개그우먼 최서인까지… 비탄에 빠진 연예계  
날짜: 20171219  
기자: 온라인뉴스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9092244001  
ID: 01100201.201712190922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본명 김종현·27)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8일 암투병 중인 개그우먼 최서인(본명 최호진·34)도 숨져 연예계가 슬픔에 빠졌다. <br/> <br/>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종현이 서울 강남구에 예약한 한 레지던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낮 12시 해당 레지던스에 2박 일정으로 투숙 예약을 했고, 오후 4시42분쯤 친누나에게 “<span class='quot0'>나 보내 달라, 마지막 인사에요</span>”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누나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레지던스 문을 열었을 때 종현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r/> <br/>종현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다. 보컬그룹 '2AM' 멤버 조권은 “2008년 같은 해 데뷔 꿈을 이루기 위해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겠지, 그 마음 소중히 간직 한채 이젠 힘들지 않았으면해. 반짝이던 아이가 별이 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했다. <br/> <br/>래퍼 딘딘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비보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시던 모습 잊지 않을게요. 친해지고 싶었어요 형.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br/> <br/>작사가 김이나는 "<span class='quot1'>세상의 어느 별이 질 때 서럽지 않겠냐만 유독 내 마음에 사무치는 별이 졌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 공간의 가벼움과 그가 졌을 무게의 간극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었지만 아무 기록도 안 남기기엔 그 또한 서러운 마음이라</span>"라고 애도했다. <br/> <br/>그룹 원더걸스 예은도 종현이 작곡한 이하이의 '한숨'을 너무 좋아했다면서 “따뜻한 위로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기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br/> <br/> <br/> <br/> <br/>난소암으로 투병하던 개그우먼 최서인도 이날 사망했다. 2014년 난소암 수술을 받은 최서인은 암이 재발해 세상을 떠났다. 최서인은 세종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SBS 공채 10기 개그우먼으로 데뷔했다. 2011년부터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하며 '썸&쌈'과 연애토크쇼 '연애학 개론'에서 박나래와 호흡을 맞췄었다. <br/> <br/>고인과 함께 ‘코미디 빅리그’에서 출연해온 개그맨 김인석은 “<span class='quot2'>정말 착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가슴이 아프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심성이 착하고 참 재주 많은 친구였는데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span>”고 SBS에 말했다. <br/> <br/>온라인뉴스부

언론사: 국민일보-1-33.txt

제목: ‘코빅’ 출신 개그우먼 최서인 난소암 투병 중 사망…향년 35세  
날짜: 20171219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9063644001  
ID: 01100201.201712190636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개그우먼 최서인(본명 최호진)이 암 투병 중 35세 나이로 결국 숨졌다. <br/> <br/>tvN은 18일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했던 최서인이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숨졌다고 이날 밝혔다. 빈소는 서울 고려대학병교 구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발인은 20일이다. <br/> <br/>세종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한 최서인은 SBS공채 10기 개그우먼으로 데뷔했다. 2011년 tvN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해 ‘겟잇빈티’ ‘썸&쌈’ 등의 코너로 주목받았다.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34.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39) 부천성모병원 부인암클리닉] 다학제협진시스템 가동… 부인암 파수꾼 역할  
날짜: 2017121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9050056002  
ID: 01100201.2017121905005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자궁은 질과 맞닿은 목 부분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와 몸체인 자궁체부, 난소와 나팔관 등 부속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자궁암이라고 하면 자궁 경부와 체부 쪽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을 일컫는다. 난소암은 말 그대로 난자를 생산하는 부속기 난소에 생기는 암을 통칭한다. <br/> <br/> 가장 큰 골칫거리는 난소암이다. 질 출혈, 분비물 증가 등 비교적 초기부터 이상 증상을 보이는 자궁암과 달리 발병 초기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br/> <br/>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부인암클리닉 이해남(47) 교수는 18일 “<span class='quot0'>실제 난소암 진단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지각 발견되고 있다</span>”며 주의를 당부했다. <br/> <br/> 난소암은 암세포가 복강 내 다른 장기로 튀어버린 다음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치료율과 5년 생존율이 자궁암에 비해 낮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난소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비율을 높이는 게 곧 부인암의 완치와 암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 정도</span>”라고 지적했다. <br/> <br/> 자궁암은 이와 반대다. 난소암에 비해 치료율과 생존율이 높은 편이다. 주요 증상인 질 출혈과 분비물 증가로 인해 발병초기인 2기 이내 조기 발견되는 비율이 높고 그만큼 빨리 대처할 수 있어서다. <br/> <br/> 인천·부천지역 부인암 지킴이 역할 <br/> <br/>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는 1990년 인천·부천 지역 최초로 부인암 클리닉을 개설한 이래 27년째 수도권 서남부 지역 부인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다. <br/> <br/> 이곳을 찾는 여성 환자는 연인원 2만여명이다. 연평균 15%씩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약 40%가 부인암 환자들이다. <br/> <br/> 현재 산부인과 이해남 교수와 이대우(43) 교수팀이 부인암 클리닉을 이끌고 있다. 이해남 교수는 96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2007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년 6개월간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시스템 생물학을 익히고 돌아와 암 특이 단백질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공공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암을 치료할 때 문제가 되는 약제내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활동하며 이대우 교수와 함께 부인암 클리닉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br/> <br/> 이대우 교수는 9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부인종양학 임상강사,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임상조교수를 지냈다. 지난 한 해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치료백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br/> <br/> 자궁경부암 치료백신 개발연구는 현재 독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2상 임상시험까지 완료돼 상업화 단계에 와 있다. 이 연구가 끝나면 자궁경부암은 암 백신으로 예방은 물론 치료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 방사선종양학과 등과 최강 협진체제 구축 <br/> <br/> 부인암은 발생 부위가 골반 안쪽이라 조금만 발견이 늦어도 복강 내 주변 장기로 전이돼 있기 일쑤다. 난소암의 경우 간 주위의 횡경막과 복강 내로, 진행성 자궁경부암은 인접한 직장 쪽으로 잘 옮겨 붙는다. <br/> <br/> 이 때문에 이해남·이대우 교수팀은 부인암 환자를 만나면 처음부터 전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과 교수들과 공동 운영하는 다학제협진시스템을 가동한다. 최선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br/> <br/> 협진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삼삼오오 모이는 형식과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br/> <br/> 정기 협진은 산부인과 이해남·이대우 교수팀은 물론 혈액종양내과 이국진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윤세철·유미나 교수, 영상의학과 임현욱 교수, 병리과 이희정 교수 등 7명이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회의다. <br/> <br/> 수시 협진은 급히 의견을 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이들만 일부 참여하는 형태다. 환자의 몸속에 일어난 아주 작은 변화와 이상 증세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다. <br/> <br/> 이해남·이대우 교수팀은 간이나 직장 쪽에 전이가 이뤄진 난소암일 때도 치료 전 간담췌외과 나건형 교수, 대장항문외과 안창혁 교수 등과의 협진을 통해 완벽한 치료계획을 짜고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중기 이상 진행 단계라도 수술할 때는 전이암까지 동시에 제거해줌으로써 환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br/> <br/> 난소암 치료에 유전자분석 적극 활용 <br/> <br/> 자궁암 절제수술은 대부분 복강경을 이용한다. 절개부위와 수술 후 흉터를 최대한 줄여주려는 배려다. 복강경으로 자궁암을 도려내면 수술 상처가 작고 출혈도 적어 수혈 부담을 덜 수 있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른 이점도 있다. <br/> <br/> 다만 난소암은 개복수술을 원칙으로 한다. 대부분의 난소암은 암세포가 난소 껍질 부위(상피) 쪽에 발생하고 복강 내로 잘 번진다. 수술 중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뱃속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시행하는 개복수술이 낫다. <br/> <br/> 이해남·이대우 교수팀은 이와 함께 난소암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 상담도 적극 시행 중이다. 특정 유전자(BRCA1, 2)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여성은 유방암뿐 아니라 난소암에 걸릴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br/> <br/> 몇 해 전 미국의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멀쩡한 가슴과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이유도 부모로부터 돌연변이 BRCA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었다. <br/> <br/> 이해남 교수는 현재까지 이런 유형의 난소암 환자가족 40여명을 찾아내 관리 중이다. 이들은 모두 난소암 환자가 1명 이상 나타난 가계에 속한 여성들이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35.txt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최고시청률 7%…“고마웠다 인희야”  
날짜: 20171218  
기자: 이담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8110644001  
ID: 01100201.201712181106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1회 3.2%로 시작한 tvN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마지막회 6.2%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최고 시청률은 7%에 달했다. <br/> <br/> <br/> <br/>시청자들은 입을 모아 마지막 인희(원미경 분)와 정철(유동근 분)의 마지막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다. 죽음을 앞둔 인희가 정철에게 “당신은 나 없어도 괜찮지? 잔소리 안 하고 좋지 뭐?”라고 묻자 정철은 단호히 “싫어”라고 답했다. “나 보고 싶을 거 같아? 언제? 어느 때?”라는 질문에 “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술 먹을 때, 술깰때, 잠자리 볼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그놈 대학 갈 때, 정수 대학 졸업할 때, 설날 부침할 때, 추석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라고 힘겹게 답했다. <br/> <br/>인희는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라며 괜스레 장난치다 “여보 이쁘면 뽀뽀나 한 번 해줘라”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키스 후 다정히 껴안았다. 인희의 울음이 터지자 정철은 토닥이며 “고마웠다. 인희야”라고 인사를 남겼다. 해당 영상에 한 누리꾼이 남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키스신이다”라는 극찬은 많은 공감을 받았다. <br/> <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연출 홍종찬)은 21년 만에 리메이크된 노희경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온 중년 주부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4부작 드라마다. 해당 작품은 2013년 수학 능력 시험 모의고사 지문으로 등장해 시험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어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br/> <br/>이번 리메이크는 원미경·유동근·김영옥·최지우·최민호 등 출연 배우들의 열연과 영화처럼 촘촘한 연출·각본이 더해져 호평 속에 종영했다. 닐슨코리아 기준 3%대로 시작한 이 드라마는 최종화에서 3포인트 증가한 6.2%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17일 순간 최고 시청률은 7%대까지 치솟았다. 종편, 케이블 동시간대 1위는 물론 2049연령대의 시청률에도 1위를 차지하며 전 연령대 시청자에게 모두 사랑받았다. <br/> <br/>이담비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36.txt

제목: [이지현의 두글자 발견 : 위로] 내 상처, 이웃 섬김의 힘 되다  
날짜: 20171216  
기자: 이지현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6000156001  
ID: 01100201.20171216000156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예수를 믿는다고 생의 고통이 면제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달아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의 늪에 빠질 때 히브리 단어 ‘헤세드’를 떠올린다. 이 단어는 영어성경(NIV) 시편 13편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된다. 주님의 확고한 언약적 사랑과 백성을 향한 위로를 의미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 <br/> <br/> 지난 13년 동안 소아암 환우와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온 배길선(63·한빛사랑하우스 관리위원) 권사는 ‘상처 입은 위로자’다. <br/> <br/>그는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섬기는 사랑의 원천으로 사용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고후 1:4∼5) <br/> <br/> 아들 떠나보낸 ‘상처’ <br/> <br/> “자녀가 몇 명이세요?” 배 권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두 명이라고 말해야 할지 세 명이라고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들만 셋이었다. 그중 종수는 든든한 맏아들이었다. <br/> <br/> 1996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종수가 허리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에선 ‘다발성 전이암’이라고 진단했다. 암세포가 이미 간과 신장까지 퍼져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들은 “엄마,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나요?”라며 통곡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진단받은 지 2개월 만에 아들은 하늘나라로 떠났다. 세상에 어둠만 가득했다. 동네 마트에조차 가지 않고 몇 달 동안 집 안에 갇혀 살았다. <br/> <br/> 멍하니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 모임에서 병원 봉사활동을 권유받았다. 불현듯 암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겁만 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다른 환아 부모들에게 전해주고 자신과 같은 후회를 막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br/> <br/> “자녀를 잃은 엄마들 중에는 아이 생각이 나서 아이가 입원했던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이나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 저처럼 아이와 함께했던 기억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병원봉사를 시작할 때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br/> <br/> 그가 처음 찬양봉사를 간 곳은 아들이 불과 1년 전에 입원했던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병실이었다. 투병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br/> <br/> “울음을 삼키느라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양 후 마음이 편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쳤어요. 그렇게 98년에 시작한 화요찬양봉사를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br/> <br/> 매주 화요찬양봉사로 시작한 병원봉사는 신촌세브란스 소아암 백혈병 병동 봉사,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학교 봉사로 이어졌다. 매주 매달 철이 바뀌어도 그들 곁을 지켰다. 그렇게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줬다. <br/> <br/> “아이가 항암치료를 받으면 토하고 마르기 일쑤인데 이를 지켜보는 부모는 말 그대로 피눈물이 나고 애가 타들어 가요. 병원에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애써 차린 밥을 몇 술 뜨지도 않고 온종일 실랑이를 하다 결국엔 맘에 없는 말을 내뱉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들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br/> <br/> 그는 환자 가족들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 아들이 투병 중일 때 어떤 사람은 병문안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래” “십일조 도둑질한 거 아니야”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단이 많아” 등의 말로 상처를 줬다. 오히려 두 손을 꼭 잡아주며 “힘내 내가 기도할게”라는 짧은 말이 위로가 됐다. 소아암 환아를 둔 엄마들에게 “힘내세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병원학교에서 봉사하며 엄마들을 계속 만나며 이들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들었다. <br/> <br/> 하나님의 타이밍 <br/> <br/> 지방에서 서울로 소아암 치료를 다니던 민지(가명) 엄마는 치료받는 동안 아이와 함께 묵으려고 찾아간 모텔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민지를 언뜻 본 주인이 전염병 환자 대하듯 황급히 쫓아내는 통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br/> <br/> 항암치료 받는 아이들은 입덧하는 것같이 먹고 싶은 게 떠올랐을 때 바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먹는다. 그걸 잘 알던 그는 집에서 전화로 엄마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메뉴를 주문받아 만들어 병원으로 배달해줬다. 집도 신촌세브란스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br/> <br/> “열무김치 비빔밥, 김치전, 만두 등을 1시간 안에 만들어 갖다주면 아이들이 잘 먹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열무김치 비빔밥을 고추장에 비벼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려요.” <br/> <br/> 이런 과정을 통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환아와 보호자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3년이 지나도 쉼터 마련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랐지만 가장 섬세하고 완벽하셨다. <br/> <br/> 2004년 1월 4일. 오래전부터 쉼터 마련을 계획하던 연세대 의과대학 소아혈액종양과 유철주 교수가 연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빛사랑후원회’를 결성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다. 박홍이 한빛사랑후원회장(연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은 벽돌을 직접 그린 종이를 대학총장부터 동료 교수들에게 나눠주며 장당 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으며 모금운동을 했다. 정기후원자들도 생겨났다. <br/> <br/> “유 교수님은 제게 ‘오랫동안 쉼터 마련을 위해 기도해온 것으로 안다며 쉼터가 마련되면 상주할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하지요’라고 말했고요.” <br/> <br/> 2004년 10월 5일, 한빛사랑후원회는 신촌세브란스 병원과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쉼터 ‘한빛하우스’를 개소했다. 1층엔 방 5개, 2층에는 사무실 공동 공간, 3층엔 방 4개가 있다. 한빛사랑후원회는 2008년엔 연세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이사진과 전문인력을 만나 현재의 ‘소아암NGO한빛’으로 탄생했다. <br/> <br/> 배 권사는 하나님은 벽돌과 빵을 번갈아 가며 주셨다고 말했다. 힘들어서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도망가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하면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셨다. 어느 날 한글이 서툰 베트남 사람인 동후 엄마가 한글 문자를 보내왔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셨을 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같습니다. 저도 한국 생활 잘 적응해서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권사님 그때 만들어주신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전 몸은 아팠지만 진짜 거기 있을 때 좋았어요. 청와대랑 청계천에도 데리고 가 주셨잖아요”라는 장거리 전화가 걸려온다. 그제야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투정을 부렸죠”라며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br/> <br/> 이제 그는 “댁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한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동후 승훈 민규 예진… 한빛하우스에서 만난 아이들 모두가 나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촌세브란스 원목실에서 자원봉사하는 남편 이규현(64) 목사와 함께 쉼터 사역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꾸려가고 있다. <br/> <br/> ▒ 위로에 하나 더 <br/> <br/> 종교 묻지 않고 예배 강권도 않는 소아암 환우 쉼터 ‘한빛하우스’ <br/> <br/>“배 권사님, 오늘은 잔치국수 해주세요.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요.” <br/> <br/>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한빛하우스(사진)계단을 ‘쿵쾅쿵쾅’ 힘차게 오르는 동민(가명·6)이는 즐거워 보였다. 지난해 가을 감기인 줄 알고 찾아간 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서울로 오면서 이곳에 머물게 됐다. 동민이는 이곳을 좋아한다고 했다. “전 여기가 좋아요. 시골 우리 집보다 훨씬 넓어요. 와 나는 집이 두 개예요. 시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하하.” <br/> <br/> 배길선 권사는 항암치료라는 힘든 시기를 견디는 아이들과 부모를 더 가까이 돕기로 마음먹고 지내던 집을 정리하고 거처를 아예 한빛하우스로 옮겨서 24시간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 13년째다. 잘 치료되고 건강을 찾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뻤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날도 있다. 그럴 때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해준다. “<span class='quot0'>저 역시 여전히 먼저 떠나보낸 아들 종수가 그립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span>” 서로 가슴 한편에 아픈 상처를 품고 살기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br/> <br/> 한빛하우스는 각층마다 주방이 있다. 밑반찬과 필요한 식자재를 제공해주고 하루에 한두 번씩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받는다. 닭고기 참치김밥 떡볶이 생선구이 튀김 육개장 사골국 등을 만들어 올려준다. 한 달 평균 30명이 머물고 있다. <br/> <br/> 그는 쉼터 이용자들의 종교를 묻지 않고 예배를 드리자는 말도 하지 않는다. “저희는 예배를 드려요. 그동안 이곳을 거쳐 간 사람들 중에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려도 돼요?’라고 말하며 들어오기도 해요. 또 ‘거기 있을 때 진작 예배드리지 않은 게 후회돼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을 강요했으면 아마 신앙생활 못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말해요.” <br/> <br/> 쉼터에 머무는 사람들은 배 권사 부부가 상주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말한다. 어떤 말이라도 물어볼 수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기에 든든하다. <br/> <br/> 소아암 NGO 한빛에 의하면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은 약 2만5000명이며, 연간 신규 발생 소아암 아이들은 1200명에 달한다. 이들은 투병기간이 평균 최소 2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소아암 치료병원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에서 온 환아는 치료비 외 숙박·생활비 등이 막대하다.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쉼터는 전국에 17곳뿐이다. <br/> <br/>글=이지현 선임기자 jeehl@kmib.co.kr, 사진=신현가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37.txt

제목: [이지현의 두글자 발견-위로] 내 상처, 이웃 섬김의 힘 되다  
날짜: 20171215  
기자: 이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5135944001  
ID: 01100201.201712151359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예수를 믿는다고 생의 고통이 면제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달아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의 늪에 빠질 때 히브리 단어 ‘헤세드’를 떠올린다. 이 단어는 영어성경(NIV) 시편 13편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된다. 주님의 확고한 언약적 사랑과 백성을 향한 주님의 위로를 의미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 <br/> <br/> <br/> <br/> 지난 13년 동안 소아암 환우와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온 배길선(63·한빛사랑하우스 관리위원) 권사는 ‘상처 입은 위로자’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섬기는 사랑의 원천으로 사용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고후 1:4~5) <br/> <br/> 상처 입은 위로자 <br/> “자녀가 몇 명이세요?” 배 권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질문이다. 두 명이라고 말해야 할지 세 명이라고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들만 셋이었다. 그중 종수는 든든한 맏아들이었다. <br/> <br/> 1996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종수가 허리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에선 ‘다발성 전이 암’이라고 진단했다. 암 세포가 이미 간과 신장까지 퍼져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아들은 “엄마,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나요?”라며 통곡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진단 받은 지 2개월 만에 아들은 하늘나라로 떠났다. 세상에 어둠만 가득했다. 동네 마트에조차 가지 않고 몇 달 동안 집 안에 갇혀 살았다. <br/> <br/> 멍하니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비슷한 처치의 엄마들 모임에서 병원 봉사활동을 권유받았다. 불현듯 암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겁만 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다른 환아 부모들에게 전해주고 자신과 같은 후회를 막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br/> <br/> “자녀를 잃은 엄마들 중에는 아이 생각이 나서 아이가 입원했던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이나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 저처럼 아이와 함께 했던 기억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병원봉사를 시작할 때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br/> <br/> 그가 처음 찬양봉사를 간 곳은 아들이 불과 1년 전에 입원했던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병실이었다. 투병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br/> <br/> <br/> <br/> “울음을 삼키느라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양 후 마음이 편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쳤어요. 그렇게 98년에 시작한 화요찬양봉사는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br/> <br/> 매주 화요찬양봉사로 시작한 병원봉사는 신촌세브란스 소아암 백혈병 병동 봉사,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학교 봉사로 이어졌다. 매주 매달 철이 바뀌어도 그들 곁을 지켰다. 그렇게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줬다. <br/> <br/> “아이가 항암치료를 받으면 토하고 마르기 일쑤가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부모는 말 그대로 피눈물이 나고 애가 타들어 가요. 병원에 안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애써 차린 밥을 몇 술 뜨지도 않고 온종일 실랑이를 하다 결국엔 맘에 없는 말을 내뱉고 후회하고 가슴아파하는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들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br/> <br/> 그는 환자 가족들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 아들이 투병 중일 때 어떤 사람은 병문안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래” “십일조 도둑질 한 거 아니야”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단이 많아” 등등의 말로 상처를 줬다. 오히려 두 손을 꼭 잡아주며 “힘내 내가 기도할게”라는 짧은 말이 위로가 됐다. 소아암 환아를 둔 엄마들에게 “힘내세요 제가 함께 기도 할게요”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병원학교에서 봉사하며 엄마들을 계속 만나며 이들의 어려운 사정이야기를 들었다. <br/> <br/> 하나님의 타이밍 <br/> 지방에서 서울로 소아암 치료를 다니던 민지(가명) 엄마는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와 함께 묵으려고 찾아간 모텔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민지를 언뜻 본 주인이 전염병 환자 대하듯 황급히 쫓아내는 통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br/> <br/> 항암치료 받는 아이들은 입덧하는 것 같이 먹고 싶은 게 떠올랐을 때 바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먹는다. 그걸 잘 알던 그는 집에서 전화로 엄마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메뉴를 주문받아 만들어 병원으로 배달해줬다. 집도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br/> <br/> “열무김치 비빔밥, 김치전, 만두 등을 1시간 안에 만들어 갖다 주면 아이들이 잘 먹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열무김치 비빔밥을 고추장에 비벼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려요.” <br/> <br/> 이런 과정을 통해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환아와 보호자들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3년이 지나도 쉼터 마련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랐지만 가장 섬세하고 완벽하셨다. <br/> <br/> 2004년 1월 4일. 오래전부터 쉼터마련을 계획하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혈액종양과 유철주 교수가 연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빛사랑후원회’를 결성했다. 회원 한분 한분이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다. 박홍이 한빛사랑후원회 회장(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은 벽돌을 직접 그린 종이를 대학총장부터 동료 교수들에게 나눠주며 한 장당 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으며 모금운동을 했다. 정기후원자들도 생겨났다. <br/> <br/> “유 교수님은 제게 ‘오래 동안 쉼터마련을 위해 기도해온 것으로 안다며 쉼터가 마련되면 상주할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하지요’라고 말했고요.” <br/> <br/> 2004년 10월 5일, 한빛사랑후원회는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인접한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에 쉼터 ‘한빛하우스’를 개소했다. 1층 방 5개, 2층 사무실 공동공간, 3층 방 4개가 있다. 한빛사랑후원회는 2008년엔 연세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이사진들과 전문인력을 만나 현재의 ‘소아암NGO한빛’으로 탄생했다. <br/> <br/> 배 권사는 하나님은 벽돌과 빵을 번갈아 가며 주셨다고 말했다. 힘들어서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도망가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하면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셨다. 어느 날 한글이 서툰 베트남 사람인 동후 엄마가 서툰 한글 문자를 보내왔다. <br/> <br/>“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셨을 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같습니다. 저도 한국 생활 잘 적응해서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br/> <br/>또 “권사님 그때 만들어주신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전 몸은 아팠지만 진짜 거기 있을 좋았어요. 청와대랑 청계천에도 데리고 가 주셨잖아요”라는 장거리 전화가 걸려온다. 그제야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투정을 부렸죠”라며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br/> <br/> 이제 그는 “댁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한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동후 승흔 민규 예진… 한빛하우스에서 만난 아이들 모두가 나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촌세브란스 원목실에서 자원봉사하는 남편 이규현(64) 목사와 함께 쉼터 사역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꾸려가고 있다. <br/> <br/>□ 위로에 하나 더 <br/>“배 권사님. 오늘은 잔치국수해주세요.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요.” <br/> <br/> <br/> <br/>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한빛하우스 계단을 ‘쿵쾅쿵쾅’ 힘차게 오르는 동민(가명·6)은 즐거워 보였다. 지난해 가을 감기인 줄 알고 찾아간 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서울로 오면서 이곳에 머물게 됐다. 동민은 이곳을 좋아한다고 했다. “전 여기가 좋아요. 시골 우리 집보다 훨씬 넓어요. 와 나는 집이 두 개예요. 시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하하.” <br/> <br/> 배길선 권사는 항암치료라는 힘든 시기를 견디는 아이들과 부모를 더 가까이 돕기로 마음을 먹고 지내던 집을 정리하고 거처를 아예 한빛하우스로 옮겨서 24시간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 13년째이다. 잘 치료되고 건강을 찾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뻤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날도 있다. 그럴 때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준다. <br/> <br/>“<span class='quot0'>저 역시 여전히 먼저 떠나보낸 아들 종수가 그립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span>” <br/> <br/>서로 가슴 한편에 아픈 상처를 품고 살기에 서로에게 위로가 돼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br/> <br/> 한빛하우스 각층마다 주방이 있다. 밑반찬과 필요한 식자재를 제공해주고 하루에 한 두 번씩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 받는다. 닭고기 참치김밥 떡볶이 생선구이 튀김 육계장 사골국 등 만들어 올려준다. 한 달 평균 30명이 머물고 있다. <br/> <br/> 그는 쉼터 이용자들의 종교를 묻지 않고 예배를 드리자는 말도 하지 않는다. <br/> <br/>“저희는 예배를 드려요. 그동안 이곳을 거쳐 간 사람들 중에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려도 돼요?’라고 말하며 들어오기도 해요. 또 ‘거기 있을 때 진작 예배드리지 않은 게 후회돼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을 강요했으면 아마 신앙생활 못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말해요.” <br/> <br/> 쉼터에 머무는 사람들은 배 권사 부부가 상주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말한다. 어떤 말이라도 물어 볼 수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기에 든든하다. <br/> <br/> 소아암 NGO 한빛에 의하면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은 약 2만5000명이며, 연간 신규 발생 소아암 아이들은 1200명에 달한다. 이들은 투병기간이 평균 최소 2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소아암치료병원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에서 온 투병생활은 치료비외 숙박 생활비 등이 막대하다.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쉼터는 전국에 17곳 뿐이다. <br/> <br/>이지현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38.txt

제목: 영면 든 호스피스 환자, 신체·장기 기증으로 사랑 전해  
날짜: 20171215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5095344001  
ID: 01100201.201712150953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한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의 따뜻한 사랑 나눔이 매서운 한파를 녹이고 있다. <br/> <br/>국제성모병원은 폐암 말기로 호스피스병동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9일 끝내 사망한 양모(87) 씨 가족들이 고인의 생전 유지에 따라 의학 발전을 위해 가톨릭의대에 신체를, 병원 측에 안구를 각각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살아생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양 씨에 대해 가족들은 평소에도 이웃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br/> <br/>쉽지 않았을 신체 및 안구 기증 결정에 유족들은 “아직 국내에서 신체·장기 기증이 활발하지 않지만, 기증에 대한 아버님과 어머님의 생각은 남다르셨다”며 “이미 신체·장기 기증에 대한 동의를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고인의 아내 최영순(82) 씨 역시 신체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고 있다. <br/> <br/>이러한 사연은 인천 국제성모병원서 열리고 있는 호스피스 사진전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다큐멘터리 100일의 기록 호스피스’를 통해 알려졌다. <br/> <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올해 7월부터 100일간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일상을 담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국제성모병원 로비에서 진행됐다. 양·최씨 부부가 이번 사진전에 모델 로 참여해서다. <br/> <br/> <br/>병원 로비에서 걸려있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유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최영순 씨는 “<span class='quot0'>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span>”라며 쑥쓰러운 표정을 지었다(사진). <br/> <br/>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팀 서현정 사회복지사는 “<span class='quot1'>호스피스 환자분이 신체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두 내외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39.txt

제목: 한·중 “회담·전화·서신 활용,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날짜: 20171215  
기자: 베이징=강준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5050155004  
ID: 01100201.20171215050155004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양국 정상회담서 ‘긴밀한 소통’ 합의 <br/> <br/>文, 한반도 평화·안정 위해 <br/>여러 형태의 3자 협의 제안 <br/> <br/>경제·의료 등 교류협력 강화 <br/>미세먼지 공동 저감 노력도 <br/> <br/>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 간 전화 통화를 비롯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단절됐던 정상 간 긴밀한 논의 채널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또 경제·통상 분야 중심의 양국 교류를 국회와 정당을 비롯해 정치·외교·안보 분야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각급 고위급 전략적 대화 채널도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했다. <br/> <br/>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0'>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서신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span>”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접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전화 통화는 취임 직후 한 차례밖에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는 상시 통화를 비롯해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자는 데 두 분이 공감했다</span>”고 전했다. 이어 “전임 정부 시절을 비롯해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br/> <br/>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小多者) 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발언이 오가는 과정에서 공감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대북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서는 미국의 정확한 의도 파악이 먼저라는 데 공감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다시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br/> <br/> 양 정상은 경제·의료·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중단된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상호 투자 확대도 장려키로 했다.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br/> <br/>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사자성어 ‘관왕지래’(觀往知來·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를 언급하며 “<span class='quot2'>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발전시키고, 평화·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br/> <br/> 시 주석은 “<span class='quot3'>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 협력자로서 지역 평화 수호와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 있어서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넓은 협력의 비전을 갖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나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문 대통령과 전략적인 소통과 효율을 강화하면서 양측 이익을 심화시키고,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아 양국 관계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span>”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난징대학살 80주년을 맞아 추모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했다. <br/> <br/>베이징=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40.txt

제목: 신동빈 회장의 결심공판, '명과 암'  
날짜: 20171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4101444003  
ID: 01100201.20171214101444003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1-41.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NK세포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연구 본격화  
날짜: 2017121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4094644001  
ID: 01100201.201712140946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사진 왼쪽)은 최근 바이오기업 ㈜이뮤니스바이오(대표 황성환)와 자연살해세포(이하 NK세포) 기반의 면역세포치료제 및 간암 등 5개 주요 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임상연구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국제성모병원은 앞으로 NK세포 기반의 면역세포치료제 및 면역항암제를 개발, 산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br/> <br/>김영인 병원장을 단장으로 20여 명의 임상교수 등으로 구성된 면역세포치료사업단도 발족시켰다. <br/> <br/>이뮤니스바이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포배양기술을 기반으로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과 국제성모병원의 임상 및 연구개발 기술을 접목, NK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치료제와 면역항암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국제성모병원은 이밖에도 간암, 폐암, 췌장암, 뇌종양, 림프종 등 5개 암에 대한 임상 연구 진행과 함께 치료가 어려운 류마티스나 건선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r/> <br/>김영인 병원장은 “면역항암제는 최근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1세대 화학항암제나 암 관련 유전자를 인식해 암을 공격하는 2세대 표적항암제와 달리 환자의 면역세포 활동을 활성화 해 암을 치료하는 개념으로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br/> <br/>이번 공동 연구로 면역항암제 개발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대학병원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42.txt

제목: [헬스파일] 겨울철 남모를 고통, 치핵  
날짜: 2017121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4093844001  
ID: 01100201.20171214093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평화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외과 교수 <br/> <br/>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신체 활동량이 줄고 몸을 움츠리게 된다. 또한 적은 활동량으로 수분 섭취가 적어지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치핵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br/> <br/>차가운 바람은 항문과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와 치핵환자들의 증상이 심해지거나 악화되게 한다. 평소 남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치핵에 관한 궁금증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br/> <br/>항문관 내에는 정상적으로 혈관과 결합조직으로 구성된 항문 융기라고 불리는 주름으로 된 구조물이 있다. 항문 융기는 항문관 내에 방사선으로 세 곳에 위치하며 주로 배변 시 항문관을 보호하거나 변실금을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br/> <br/>그러나 이러한 항문 융기를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배변습관 등으로 인하여 약화되거나 울혈 되어 항문 탈출이나 출혈 및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치핵’이라고 정의하며 흔히 치질로 알려져 있다. <br/> <br/>치핵의 발병 원인으로는 흔히 저 식이 섬유로 인한 변비나 오랫동안 변기에 앉아 있는 배변습관, 음주, 임신, 연령 증가 등 매우 다양하다. <br/> <br/>대표적으로 섬유가 부족한 식이는 장통과 시간을 늘려 변을 작고 딱딱하게 하고 배출하기 위해 많이 애쓰게 만들며, 이로 인하여 항문 융기를 지지하는 결체조직을 약화 시켜 항문 융기를 튀어나오게 하거나 항문관 울혈을 유발하여 탈출과 출혈 등의 치핵 증상을 유발한다. <br/> <br/>치핵은 이론상 내치핵과 외치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치핵은 항문입구에서 안쪽으로 2~3㎝에 위치한 치상선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을 기준으로 상방에서 발생하는 치핵이며, 외치핵은 치상선 하방에서 발생하는 치핵이다. 내치핵과 외치핵의 뚜렷한 구분 없이 치상선에 걸쳐 발생하는 혼합형 치핵의 빈도도 비교적 흔한 편이다. <br/> <br/>내치핵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신경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통증 보다는 출혈이나 탈출이 주증상이며, 진행 정도에 따라 출혈만 있는 1기, 배변 시 탈출되었지만 배변 후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2기, 배변 시 탈출되나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3기, 손으로 밀어 넣어도 원 위치로 환원되지 않는 4기로 분류한다. <br/> <br/>외치핵은 내치핵과 달리 분류법이 없으며,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에 주로 통증을 유발하며, 특히 항문 융기에 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푸른 색의 콩알 같은 모양을 보이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br/> <br/>내치핵은 진행정도에 따라 눈에 보일 수 있는 반면, 외치핵은 항문입구에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쉽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br/> <br/>치핵의 치료는 크게 약물을 사용하는 보전적 치료와 수술 등의 침습적 치료로 분류할 수 있다. 보전적 치료로는 배변 시 과도하게 힘주지 않고 5분 이상 오래 변기에 앉아 있지 않는 배변습관이 중요하다. <br/> <br/>쉽게 배변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수분과 야채, 과일과 같은 고 식이 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좌욕을 시행함으로써 항문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항문근육을 이완 시켜주고 항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치핵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다. <br/> <br/>이러한 비약물적 치료와 더불어 치핵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연고나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지속된다면 경화요법이나 고무밴드 결찰술 등의 치료가 시도 될 수 있고, 치핵조직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적 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 <br/> <br/>수술적 치료는 전형적인 치핵 절제술이 주로 시행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치핵의 수술적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치핵 수술 후 통증이 비교적 적은 수술로써 원형문합기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치핵으로 인하여 처진 모양의 항문을 원래의 생리적, 해부학적 위치로 교정하여 치핵을 치료하는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br/> <br/>치핵 예방에 좋은 생활습관으로는 먼저 치핵이 배변 습관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변기에 않아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br/> <br/>과거에는 많은 환자들이 신문을 들고 화장실에 가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배변을 보러 간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변기에 앉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배변 시 변비로 인해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면 이 또한 치핵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따라서 배변을 편하게 하기 위해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채, 과일과 같은 고 식이 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Q&A <br/> <br/>1. 치핵 수술 부작용으로 괄약근에 손상이 올 수 있나요? <br/> <br/>치핵 절제 수술은 항문 괄약근 표면에 위치한 치핵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괄약근 손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또한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원형문합기를 이용한 수술인 경우에도 일부 괄약근이 포함되어 제거될 경우도 있으나 항문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손상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br/> <br/>2. 오래 서있으면 치핵에 걸리나요? <br/> <br/>치핵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문헌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병인론적으로 오래 서있게 되면 항문 주위로 울혈이 발생하여 치핵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br/> <br/>3. 치핵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br/> <br/>치핵 초기인 경우 배변 시 혹은 배변 후 항문출혈을 경험할 수 있는데, 통증이 없으면서 선홍색의 출혈이 발생할 때 치핵을 의심할 수 있다. <br/> <br/>그러나 치핵 이외에도 대장암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고령,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체중 감소 및 배변습관 변화 등의 대장암 증상이 있는 환자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br/> <br/>외치핵은 육안으로 탈출되어 있는 치핵을 관찰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며, 내치핵은 2기 이상인 경우에 탈출된 치핵을 관찰하거나 손으로 촉지함으로써 자가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와 같이 치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항문 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br/> <br/>4. 치핵은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초기 치핵 관리법은 없나요? <br/> <br/>초기에는 약물 및 연고 사용, 고 식이 섬유 섭취, 좌욕 등의 보존적인 방법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으나 치핵 조직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경우,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 <br/> <br/>따라서 치핵은 반드시 수술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전적 치료로 호전이 없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br/> <br/>5. 치핵은 또 재발할 확률이 높나요? <br/> <br/>치핵의 가장 확실한 치료는 수술이지만 치핵 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변습관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 수술 후 이와 같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핵은 비교적 재발이 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 통계 자료에서 각종 질환 중 치료 후 재발률 1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치핵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꾸준한 배변습관 등의 관리가 중요하다. <br/> <br/>6. 치핵은 대장암이나 다른 암으로 발전 될 확률이 높나요? <br/> <br/>항문출혈과 같이 치핵과 대장암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핵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치핵과 대장암은 관련성이 없고, 치핵이 대장암이나 다른 암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br/> <br/>7. 비대 사용 습관이 치핵 발생률을 낮춰주나요? <br/> <br/>비대 사용 습관이 치핵의 발생률을 낮춘다는 문헌적 근거는 없으나, 비데를 사용함으로써 항문 청결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문 주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항문 주위 혈관의 울혈을 감소시켜 치핵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8. 술을 많이 마시면 치핵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br/> <br/>치핵이 있는 환자가 과음하게 되면 다음 날 치핵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치핵의 발생원인 중 하나는 항문 주위 혈액이 정체되는 것인데,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항문 주변으로 유입된 혈류가 정체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술은 치핵에 상당히 해롭다고 할 수 있으며, 과음으로 인하여 치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43.txt

제목: 유방재건 재수술,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철저한 재수술 계획 필요해  
날짜: 2017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4090044001  
ID: 01100201.2017121409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으로 인해 가슴을 절제하고 재건수술까지 마쳤지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유방절제술과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시행했는데 유방암이 재발하거나, 보형물 재건을 했는데 구형구축이 발생한 경우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복원된 가슴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양쪽 가슴의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도 재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br/> <br/>더성형외과 옥재진 원장은 “어떤 수술이든 재수술이 더 어렵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부작용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같은 이유로 또 다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더욱 완벽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유방재건 재수술에 대해 설명했다. <br/> <br/>처음 수술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형물 재건을 하고 구형구축이 발생했다면 삽입했던 보형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자가조직으로 재수술을 해야 한다. 자가조직 재건은 배나 등에서 피부조직을 이식하기 때문에 흉터가 길게 남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 피부를 이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구형구축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없다. 하지만 한 번 구형구축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구형구축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전 보형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하기도 한다. 유방재건 재수술 방법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br/> <br/>피부조직을 이용한 재건수술의 경우에는 조직의 괴사나 장액종이 생길 수 있다. 복부조직 재건을 했다면 또 다시 복부로 재건을 하기에는 뱃살이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조직 재건이나 보형물 재건으로 재수술을 해야 한다. 등조직 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등은 배보다 피부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등조직으로 재건을 한 경우에는 복부조직 재건이나 보형물 재건으로 재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br/> <br/>유방암은 초기에만 발견한다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일명 착한암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암’이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가슴을 절제하고도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유방재건술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건수술을 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을뿐더러 이왕 수술하는 거 더 예쁜 가슴을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때문에 꼭 부작용이 생기지 않더라도 단순히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수술을 고민하기도 한다. 절제하지 않은 반대쪽 가슴을 수술하지 않았을 때 비대칭으로 인한 불만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래 가슴이 너무 작거나 혹은 크거나 처짐이 심하다면 미용성형을 통해 복원한 가슴과 대칭을 맞추는 것이 수술 후 만족도가 훨씬 높다. <br/> <br/>유방재건 재수술은 일반 재건수술보다 훨씬 고난도의 수술이다. 옥재진 원장은 “<span class='quot0'>재수술을 잘못 받을 경우 계속되는 재수술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부작용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계획을 철저히 세운 뒤 재수술을 진행하기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44.txt

제목: 국가 대장암 검진 비용, 내년 1월부터 전액 무료  
날짜: 20171214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4183855001  
ID: 01100201.20171214183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새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장암 기본 검진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br/> <br/>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br/> <br/> 지금까지 국가 5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만 전액 무료였다. 나머지 4대 암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만 50세 이상이 매년 받아야 하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분변잠혈검사’(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br/> <br/>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분변잠혈검사 비용 3500원 가운데 350원을, 대장내시경 검사비 15만원 가운데 1만50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궁경부암처럼 대장암 검진도 무료로 바뀐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상대적으로 낮은 대장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span>”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가 대장암 수검률은 56.8%로 위암(72.2%) 자궁경부암(66.8%) 유방암(63.6%) 등에 비해 낮았다. <br/> <br/>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대장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대장암 발견에 효율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분변잠혈검사 대신 1차 검진으로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분변잠혈검사는 불편함 때문에 꺼려하고 이상이 발견돼도 대장내시경 검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span>”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비용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뒤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45.txt

제목: 양현종 골든글러브까지 전무후무 3관왕...KIA, 5명 배출해 싹쓸이  
날짜: 20171213  
기자: 이상헌 이경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3191144001  
ID: 01100201.20171213191144001  
카테고리: 스포츠>야구>한국프로야구  
본문: 올 시즌 프로야구의 대미를 장식한 골든글러브의 주인공들이 가려졌다. 양현종(KIA 타이거즈)은 투수 부문에서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돼 정규시즌·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이어 전무후무한 3관왕 금자탑을 쌓았다. 36년 프로야구 역사에서 최초다. <br/> <br/>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7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열었다. <br/> <br/>가장 마지막에 시상된 투수 부문은 모두의 예상대로 양현종의 차지였다. 양현종은 올 정규시즌에서 1995년 이상훈(당시 LG 트윈스) 이후 22년 만에 토종 선발 20승에 성공했고, 올 시즌 KIA의 통합우승을 견인해 이미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MVP를 차지한 상태였다. 골든글러브 수상으로 양현종은 정규시즌·한국시리즈 MVP,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차지한 사상 최초의 선수가 됐다. <br/> <br/> <br/> <br/>수상 직후 양현종은 “이 자리까지 서게끔 많은 도움을 준 허영택 사장과 조계현 단장, 김기태 감독,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너무 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하늘에 있는 두환이와 이 영광을 함께하겠다”고 울먹이며 소감을 마쳤다. ‘두환이’는 양현종과 동갑내기인 야구선수인 이두환이다. 양현종과는 유소년대표팀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고 2007년 신인드래프트에서 두산에 지명을 받았다. 2012년 암 투병 중 사망했다. <br/> <br/> <br/> <br/> <br/> <br/>KIA는 이날 10개의 골든글러브 가운데 5개를 휩쓸었다. 외야수 부문에서 이적생 최형우와 로저 버나디나가 황금장갑을 차지했다. 2루수 부문에서는 안치홍이, 유격수 부문에서는 김선빈이 수상의 영광을 각각 안았다. 지명타자 부문 수상자인 박용택(LG 트윈스)이 “요즘 시상식장을 보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온통 KIA 판인 것 같다. 너무 부럽다”고 말한 농담이 과언이 아니었다. 개인 통산 4번째 수상이고 지명타자로서는 첫 수상이었지만, 그의 수상 소감은 “내년 시즌에는 LG트윈스 동생들이 더욱 많이 후보로 선정됐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br/> <br/>1루수 골든글러브는 6년 만에 KBO 무대에 복귀한 이대호가 차지했다. 외야수 부문에선 올해 최다안타(193안타)의 주인공인 손아섭이 최형우, 버나디나와 함께 수상자로 선정됐다. <br/> <br/>포수 부문은 삼성 라이온즈에 새롭게 둥지를 튼 강민호가 차지했다. 개인 통산 5번째 수상이고 2013년 이후 4년 만이었다. 정든 롯데를 떠나 삼성으로 옮긴 강민호는 수상 소감 도중 울먹이며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롯데 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팬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야구를 못할 때까지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br/> <br/>이날 최다득표의 영광은 올 시즌 46홈런으로 홈런왕에 오른 3루수 부문의 최정(SK 와이번스)에게 돌아갔다. 최정은 총 357표 중 326표(득표율 91.3%)를 받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정은 “먼저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트레이 힐만 감독을 코칭스태프, 함께 뛰어 준 선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며 “항상 응원해 주신 팬 분들께도 감사하고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가족에게도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br/>가장 근소한 표차로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된 선수는 2루수 부문 안치홍이었다. 그는 총 357표 140표를 받았다. 박민우는 134표를 받아 첫 골든글러브 첫 수상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br/> <br/>한편 구단별로는 롯데가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KIA의 뒤를 이었다. 삼성, LG, SK에서는 1명씩의 수상자가 나왔다. 지난 시즌 통합우승 이후 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던 두산 베어스는 올 시즌엔 단 1명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지 못했다. NC 다이노스, 한화 이글스, kt 위즈, 넥센 히어로즈도 빈 손으로 돌아갔다. <br/> <br/>이상헌 이경원 기자 kmpaper@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46.txt

제목: 한국노바티스, ‘가화맘사성 캠페인’ 사내 전시회 개최  
날짜: 2017121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2101244001  
ID: 01100201.201712121012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한국노바티스(대표 클라우스 리베)는 12일 여성 암 환우를 위한 ‘가화맘사성’ 캠페인을 되짚어 보는 사내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br/> <br/>전시회에는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총괄 크리스토프 로레즈와 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곽창희) 모금실장 신용혜 사관이 참석했으며, 한국노바티스 전 직원이 함께 전시회를 관람했다. <br/> <br/>가화맘사성 캠페인의 프로그램 중 ‘가화맘사성 클래스’에 참가한 여성 암 환우가 4주 간 만든 팝아트와 캘리그라피 작품, ‘가화맘사성 가족여행’에서 촬영한 사진이 전시됐다. <br/> <br/>전시회 중에는 크리스토프 로레즈 항암제사업부 총괄이 구세군자선냄비본부에게 여성 암 환우를 위한 기부금을 전하는 기부금 전달식도 가졌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노바티스 전 직원이 함께 모금에 동참했다. <br/> <br/>가화맘사성은 여성 암 환우와 환우의 가족들을 위해 한국노바티스와 구세군자선냄비본부가 기획한 캠페인이다. 전체적으로 ‘가화맘사성 클래스’, ‘가화맘사성 가족여행’, ‘가화맘사성 반찬배달’ 등 3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br/> <br/>‘가화맘사성 클래스’는 여성 암 환우에게 팝아트 또는 캘리그라피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22명이 참가했다. <br/> <br/>‘가화맘사성 가족여행’은 여성 암 환우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으로 총 36명이 1박2일 간 여행을 다녀왔다. <br/> <br/>여성 암 환우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단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가화맘사성 반찬 배달’은 약 160명에게 12월 한 달 간 총 8회 제공할 예정이다. <br/> <br/>정모(51·여) 씨는 “지난 해 암 진단 후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으며 많이 힘들던 시간을 보냈는데, 가화맘사성 캠페인을 통해 캘리그라피를 배우며 새로운 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고, 마음의 치유도 받은 것 같아 즐거웠다”고 말했다. <br/> <br/>크리스토프 로레즈 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총괄은 “<span class='quot0'>한국노바티스가 2017년 새롭게 준비한 가화맘사성 캠페인이 많은 암 환우들의 관심과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운영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캠페인에 참가해 준 모든 암 환우와 가족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암 환우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캠페인을 운영하겠다</span>”고 전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47.txt

제목: 하리수 근황, 페미니즘 공부 중 “읽을 수록 어려워...”  
날짜: 20171212  
기자: 민다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2174644001  
ID: 01100201.2017121217464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방송인 하리수가 페미니즘 도서에 심취해 있다는 근황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br/> <br/>하리수는 최근 페미니스트 한서희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한서희는 11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트렌스젠더와 관련해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그중에 “트렌스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하리수는 공개적으로 한서희를 비판했다. <br/> <br/>하리수는 설전 중 “<span class='quot0'>병 때문에 혹은 암에 걸려 자궁적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글에 따르면 그분들도 다 여자가 아닌 거죠?</span>”라는 발언을 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몇몇 누리꾼들은 “많은 트렌스젠더들이 ‘여성스럽다’는 의미를 일반화시키고 고착화한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칭하면서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적했다. <br/> <br/>하리수는 11월 13일 “<span class='quot0'>악성 댓글을 보고 흥분된 상태로 오해를 살만한 글을 썼다</span>”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이 크다는 걸 재차 깨달았다며 거듭 사과했다. <br/> <br/>이후 11월 21일 하리수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두 권의 책 사진과 함께 “페미니스트 관련 서적 두 권째... 읽을수록 어렵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공부하려는 모습이 멋있다”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그녀를 응원했다. <br/> <br/>이틀 후 “두 편의 외국 서적 후 한국의 이민경 님이 쓰신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라며 새로운 책을 소개했다. <br/> <br/> <br/> <br/> <br/> <br/> <br/>이후에도 ‘이갈리아의 딸들’ ‘나쁜 페미니스트’ ‘포비아 페미니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등 다양한 페미니스트 도서 사진을 올리며 페미니즘 공부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br/> <br/>11일에는 “소설책이었다니! 추천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라며 베스트셀러 2위인 ‘82년생 김지영’ 책 사진을 게재했다. <br/> <br/>누리꾼들은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후에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br/> <br/>민다솜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48.txt

제목: [헬스파일] COPD 환자, 담배보다 100배 나쁜 입호흡부터 고쳐야  
날짜: 2017121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2134444002  
ID: 01100201.201712121344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남선 영동한의원 대표원장 <br/> <br/>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들은 증상 개선을 바란다면 입호흡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 COPD 환자 10명 중 7명이 입호흡 습관을 가져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br/> 입호흡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겨울철 찬 공기가 코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바로 들어가 폐·기관지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기침, 가래, 숨참 등 COPD 증상도 더 심해진다. <br/> 기침 가래 호흡곤란은 COPD 환자를 괴롭히는 3대 증상이다. 여기에 반복되는 산소부족까지 겹치게 되면 전신 무기력증이 동반되기 십상이다. 입호흡은 산소부족을 부채질하는 빌미로 작용한다. 그 결과 COPD 환자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만다. <br/> 한 예를 들어보자. <br/> 얼마 전 만성C0PD 진단을 받은 의사 K씨. 현재 나이 71세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하루 2갑씩 피는 헤비스모커였다. <br/> 그런데 이상이 생겼다. 3년전부터 숨이 찼다. 평지에서도 걷기가 힘들 정도로 숨이 찼다. 한번 어디라도 가려고 하면 몇 번씩이나 조금 걷다가 쉬기를 반복해야 했다. 숨이 차서다. 장기간 다량의 담배를 피워온 게 병을 부른 원인이었다. <br/> 호흡기내과를 방문, COPD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산소치료도 받고 있으나 증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좀 낫는가 싶다간 다시 악화되기를 거듭했다. 그야말로 증상도 치료도 일진일퇴였다. <br/> 검사결과 폐기능은 계속 떨어져 이젠 본래 건강했을 때 수준의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K씨는 현대의학만으로는 COPD 치료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한방 치료도 시도했으나 차도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치료시기를 놓친 탓이다. <br/>한국인의 COPD 유병률은 10%로 알려져 있다. 사망원인 질환 순위로는 8위에 올라있다. 암과 당뇨, 심뇌혈관질환 못지않게 COPD도 폐섬유화증, 천식 등 폐기관지질환과 함께 사망위험이 높은 병으로 꼽히고 있다는 얘기다. <br/>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45세 이상 남성의 19.4%, 여성의 7.9%가 COPD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그렇다고 지레 겁 먹을 필요는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br/> 만성COPD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 필자가 영동한의원에서 개발, 최근 40년간 연인원 100만여 명의 환자에게 투약,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한약, ‘金氏(김씨)녹용영동탕’과 ‘김씨공心(심)단’은 호흡기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심폐기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 <br/> 더욱 주목되는 것은 임상연구결과 두 한약은 만성COPD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br/> 특히 김씨녹용영동탕과 김씨공심단을 동시에 투여하는 칵테일요법은 3대 COPD 증상, 기침과 가래, 숨이 찬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다른 어떤 처방 보다도 효과가 탁월하다. <br/> 한의학의 폐치료 주안점은 우선 기침과 담(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있다. 그러자면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게 해주고 폐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다. 김씨녹용영동탕과 김씨공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br/> 이 같은 한방치료와 함께 폐재활을 방해하는 입호흡 습관을 고치고, 코호흡을 통해 건강한 폐로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병행하면 COPD를 이겨내는 것이 가능하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49.txt

제목: 술 안마셔도 생기는 지방간, 남성-대장암 여성-유방암 위험 2배 높인다  
날짜: 2017121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2103844001  
ID: 01100201.20171212103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술 안 마셔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암 뿐 아니라 대장암과 유방암 위험도 2배 가량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한주, 건강의학과 최재원 김기애 교수팀은 2004~2005년 건강검진을 받은 2만5947명을 평균 7.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은 환자(8700여명) 중 남성에서 대장암,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나타날 위험이 각각 배 가량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br/> <br/> <br/>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5% 넘게 쌓인 상태를 말한다.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 그 중 대부분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관련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br/> <br/>연구결과 남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서 지방간이 없는 남성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2.01배 높았다. 또 여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서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방간이 없는 여성보다 1.92배 높았다. 간암 발생 가능성은 무려 16.73배 높았다. <br/> <br/>이한주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지방간과 간암의 관계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다른 암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span>”고 말했다.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겉보기에 비만이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데, 서구식 식습관으로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간 여부를 꾸준히 체크하고 운동과 식이 요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럽간학회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50.txt

제목: [And 건강] 수술≠수혈… 피를 아껴야 생명을 구한다  
날짜: 2017121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2050555001  
ID: 01100201.201712120505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환자 혈액관리(PBM) 개념 국내서도 급부상 <br/> <br/> 출혈 많은 정형외과·산부인과·암 수술 <br/> 조혈 촉진제·철분제로 수혈 최소화 <br/> 혈액 재사용 ‘셀 세이버’도 많이 활용 <br/> “<span class='quot0'>저출산·고령화로 피 부족… PBM 필요</span>” <br/> 10개 병원선 무수혈·최소 수혈 수술 중 <br/> <br/>러시아인 아르카디(53)씨는 지난달 중순 한국에서 다리뼈에 생긴 6㎝ 암(대퇴골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전혀 받지 않았다. 외국인 피로 수혈 받는 것에 대해 걱정이 컸던 그는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얘기에 귀가 솔깃했다. <br/> <br/> 수술을 집도한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는 11일 “<span class='quot1'>뼈암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혈을 보충하려면 최소 3유닛(팩)의 혈액(적혈구제제)을 넣어줘야 하지만 사전에 수혈대체 치료를 시행해 그럴 필요가 없었다</span>”고 했다. 수술 1주일 전 두 차례 조혈 촉진제를, 수술 2∼3일 전부터는 고용량 철분제를 투여했다. 두 약물 모두 혈액 성분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br/> <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환자는 빈혈이 많기 때문에 헤모글로빈(혈색소) 수치를 검사해서 기준보다 낮을 경우 이를 올리는 치료를 한 뒤 수술에 들어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응급 상황에 대비해 2유닛의 혈액을 따로 준비해 뒀지만 쓰지 않았다</span>”고 했다. 암 제거 후에는 수술 부위에 피를 멎게 하는 지혈제를 3시간 동안 넣어줬다. 이를 통해 흘러나오는 피의 양도 3분의 1 아래로 줄였다. 아르카디씨는 빠른 건강 회복세를 보이며 조만간 퇴원을 앞두고 있다. <br/> <br/>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출혈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혈이 이뤄진다. 이처럼 ‘수술=수혈’이라는 의료 현장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수술 전후, 수술 도중에 출혈을 줄이는 여러 보완적 조치를 취해 수혈을 최소화하자는 ‘환자 혈액관리(PBM·Patient Blood Management)’개념이 국내에서도 부상하고 있다. <br/> <br/> 2014년 창립된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KPBM)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 학회들이 수혈의 적정화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수혈대체 치료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수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PBM을 도입해 혈액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선 고려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10여곳에서 무수혈 혹은 최소수혈 수술을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 <br/> <br/>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PBM 개념과 수혈대체 치료 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한 ‘국가 수혈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내고 의료기관 보급에 적극 나섰다. <br/> <br/> 젊은층 헌혈 감소, 고령층 수혈 증가 <br/> <br/> PBM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혈액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자는 286만6330명으로 전년보다 7% 줄었다. 4년 연속 증가세였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헌혈의 73% 정도를 차지하는 10대와 20대 헌혈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게 영향을 줬다. 만 16∼19세는 전년보다 12%, 만 20∼29세는 11.7% 줄었다. <br/> <br/>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추위와 방학으로 젊은층의 헌혈 감소가 두드러진다. 반면 연말연시에는 건강검진과 연계해 암 등 질병 수술이 많아 혈액 수요가 늘어난다. 11일 0시 기준 혈액(적혈구제제) 보유량은 4.1일분으로 혈액 부족 징후를 나타내는 ‘관심’ 단계다. <br/> <br/> 엄태현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교수는 “헌혈을 많이 하는 10, 20대는 감소하는 반면 수혈을 많이 받는 50대 이상 고령 인구는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혈액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PBM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 김영우 교수는 “고령화가 되면 암 심장 관절 등의 수술이 늘어난다. 고령 환자들은 빈혈이 많은 데다 혈관 상태가 약하고 지혈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수술 중 출혈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그만큼 수혈 요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br/> <br/>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조건적 수혈이 정답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수혈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혈액형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수혈사고뿐 아니라 혈액형은 문제없더라도 수혈은 남의 피가 몸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면역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수혈 부작용은 2663건 신고됐다.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675건), 호흡곤란(92건), 저혈압(26건) 순이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급성 폐손상도 4건 있었다. 예전에 수혈로 종종 발생했던 에이즈나 B, C형간염 등의 감염은 검사기법 발달로 많이 사라졌다. 수혈을 최소화하면 이런 위험에서 상당수 벗어날 수 있다. <br/> <br/> 의료비도 아낄 수 있다. 혈액제제 1유닛(400cc) 제조비용은 60만∼80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br/> <br/> 반면 병원에서 혈액제제 1유닛의 처방 비용은 5만원 정도다. 수혈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암 환자의 본인 부담은 5%(2500원), 다른 질환자는 20%(1만원)로 저렴하다. 수혈 비용의 80∼95%는 국가가 부담하는 셈이다. 수혈을 최소화하면 혈액 관련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 <br/> <br/> 김영우 교수는 “<span class='quot2'>여기에 더해 최근 10년간 수혈이 암 환자의 치료 경과를 안 좋게 하고 수술 후 합병증, 입원기간,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 혈액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span>”고 말했다. 2015년 국제마취과학회공개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PBM 도입 시 수혈률(10∼95%), 사망률(68%까지), 입원기간(16∼33%), 합병증 발생률(41%까지), 의료비용(10∼24%)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은 PBM 도입 후 혈액 사용량이 25%, 영국은 10%, 호주는 41%가량 줄었다. <br/> <br/> 관행적 수혈, 혈액 부족 초래 <br/> <br/> 반면 한국의 혈액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혈액 사용량은 41유닛으로 일본(26.3유닛) 호주(27유닛) 등에 비해 훨씬 많다. 이렇게 혈액을 많이 쓰는 데는 적혈구제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마구 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 평가를 하지 않아 급여 청구액이 삭감되지 않는다. 수혈용 혈액을 많이 쓸수록 환자의 중증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병원이 마다할 리 없는 것이다. <br/> <br/>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정재 교수는 “정부가 제정한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 의사들이 많지 않다. 과한 수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과 효과 좋은 수혈 대체 치료가 개발돼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수혈 남용의 이유”라고 말했다. <br/> <br/> 국가 수혈 가이드라인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7.0g/㎗ 이하일 때(정상은 13∼14g/㎗) 수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침인 만큼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사는 환자 나이나 체력, 임상적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br/> <br/> 박종훈 교수는 “<span class='quot1'>하지만 상당수 의사들이 1920년대 제시된 ‘헤모글로빈 수치 10.0g/㎗ 이하일 때 수혈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행적으로 수혈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바뀐 가이드라인(7.0g/㎗ 이하)만 충실히 지켜도 혈액 사용량의 80%를 줄일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용역 연구에서 ‘국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는 14.9%에 불과했다. <br/> <br/> 출혈이 많은 척추·관절 등 정형외과 질환, 자궁근종 등 산부인과 질환, 암 수술 등에서 수혈대체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수술 전 빈혈이 있는 경우 조혈 촉진제나 고용량 철분제를 주사해 이를 보충해준다. 수술 중에는 혈액 회수 및 재주입 장비인 ‘셀 세이버’도 많이 활용된다. 수술 중 흘러나오는 피를 모아 원심분리기로 적혈구 성분만 걸러내 다시 환자에게 집어넣어주는 것이다. 일종의 혈액 재활용이다. 다만 고용량 철분제(1회 주사 15만∼20만원)와 셀 세이버(20만∼30만원)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 환자 부담이 크다. <br/> <br/> 이런 방법을 통해 무릎 관절 및 엉덩이 관절 수술의 경우 수혈률을 22∼97%에서 10% 아래로, 위암은 20%에서 5%대로, 자궁 적출술은 20%에서 5∼10%대로 낮출 수 있다. <br/> <br/> 이정재 교수는 “<span class='quot3'>예전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엔 수혈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고 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일반인도 느는 추세</span>”라고 했다. <br/> <br/> 박종훈 교수는 “수혈이 중요한 치료 수단이던 1900년대 만들어진 ‘피가 생명을 구한다(blood save lives)’는 개념이 1980년대까지 의료계를 지배해 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피를 아껴야 생명을 구한다(save blood, save lives·2015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 제목)’로 수혈 의학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헌혈 늘리기 정책에만 몰두해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적정한 수혈을 위한 의료계 교육과 대국민 캠페인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 엄태현 교수는 “반드시 필요한 수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혈을 대체할 방식이 개발됐으니 의료 현장에서 꼭 수혈이 필요한 상황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자는 게 PBM”이라고 말했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51.txt

제목: KIST, 암세포 장벽 무너뜨리는 나노 물질 개발  
날짜: 20171212  
기자: 이형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2180455001  
ID: 01100201.201712121804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둘러싼 두꺼운 세포외벽을 허물고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나노물질을 개발했다. <br/> <br/>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테라그노시스연구단 김인산(왼쪽 사진)·양유수(오른쪽) 박사팀은 암세포 장벽을 분해하는 나노물질을 개발해 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br/> <br/> 기존의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면역세포와 세포외 기질 등에 막혀 한계를 노출해 왔다.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물질 ‘효소 엑소좀’은 암 세포 주변에 두텁고 치밀하게 쌓여 약물과 면역세포의 전달을 방해하는 세포외벽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실험용 생쥐에 투여한 결과 암 세포로 침투되는 약물과 면역세포의 양이 증가했으며 암세포의 성장도 멈췄다. <br/> <br/> 엑소좀은 세포 간 정보교환을 위해 분비하는 나노 크기의 물질로 단백질 전달체로 활용될 수 있다. KIST 연구팀은 엑소좀의 기능에 주목하고 암세포 외벽의 주된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단백질 히알루로니다아제를 결합시켜 효소 엑소좀을 만들어냈다. 외국에서도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활용한 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팀은 이 물질을 엑소좀에 결합해 진전된 효과를 보이는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 <br/> <br/>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52.txt

제목: 조기 발견 어려운 난소암, 피 몇방울로 알아낸다  
날짜: 20171211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1161144001  
ID: 01100201.201712111611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피 몇 방울로 난소에 생긴 종양이 암인지 단순 양성 혹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br/>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용범 교수팀은 혈액 검사만으로도 암세포를 검출하고 난소 종양의 악성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온코타깃’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난소암은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함께 3대 여성암 중 하나로, 최근에는 폐경기 여성뿐 아니라 20, 30대 젊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발생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여성암 중 가장 낮은 5년 생존율을 보일만큼 치료가 힘들다.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3기 이상에서 암을 발견할 확률이 80%에 육박하는 탓이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될 가능성이 높아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br/> <br/>난소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양성인지 악성인지 감별해야 한다. 문제는 직접 종양 조직을 떼내 검사하는 것 외에는 감별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검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br/> <br/>이에 연구팀은 2015~16년 난소 종양을 진단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혈중암세포연구단에서 개발한 새로운 검출기를 이용해 5ml의 소량 혈액에서 암세포를 검출한 뒤 검사 결과를 기존 검사법들이 도출한 결과와 비교했다. <br/> <br/>그 결과 기존 혈액 검사나 감별진단법이 민감도 16.7~50%, 특히도 39~65.9%의 정확도(영상검사 민감도 83.3%, 특이도 53.7%)를 갖는데 비해, 혈중 암세포 검출은 특히 1기 병기의 조기 난소암 진단에 있어 100%의 민감도와 55.8%의 특이도를 보였다. <br/> <br/>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환자로 판별하는 지표다. 특이도는 질환이 없는 사람을 비질환자로 판별하는 지표다. 혈액 중 암세포 검출 민감도가 100%라는 것은 질병이 있는데, 진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을 만큼 정확하다는 의미다. 즉 기존 혈액 검사나 CT, MRI 같은 영상검사 보다 더 정확한 검사라는 얘기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난소암의 조기 진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난소암 생존율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53.txt

제목: 암 치료 수지상면역세포 백신치료, 중입자치료가 대세  
날짜: 20171211  
기자: 전재우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1153155001  
ID: 01100201.20171211153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로 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발 빠른 대처로 암치료에 선진의료를 표방하는 최첨단의학기술 시스템이 준비가 잘 되어있다. 따라서 면역세포치료 기술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치료법도 다양하다. 그 중 일본에서 치료실적과 연구논문발표 등 여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면역세포치료전문병원 세렌클리닉(SerenClinic) 병원그룹의 수지상세포 백신요법이 일본 내에서 특별이 주목 받고 있다. <br/> <br/>이 병원은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를 이용한 ‘박셀?’(Vaccell) 이라는 백신요법으로, 환자의 혈액에서 성분채혈과정을 거쳐 단구세포(monocyte)를 추출하여 WT1(인공항원) + 환자의 유전자검사를 통한 WT1을 환자의 HLA유전자형과 일치하는 부분만 사용하여 수지상세포백신을 제작한다. <br/> <br/>이를 통해 고 활성화된 수지상세포는 환자 개개인의 암 특성에 대한 정확한 모든 정보를 환자의 체내에 있는 림프구(면역세포)세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명령을 내려 암세포 제거하는데 있어 극대화시키는 치료법이다. 이런 백신을 한꺼번에 제작하여 냉동보관 후, 2주 간격으로 그때그때 해동하여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br/> <br/>WT1(인공항원)은 일명 암 표적으로 실제로 수지상세포백신치료를 할 경우 어떤 암 항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 WT1펩타이드는 75종류의 인공항원 가운데 9개 항목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의 권위 있는 학회지 Clinical Cancer Reserch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br/> <br/>이런 암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WT1펩타이드는 오사카대학의 하루오 스기야마 박사가 발견하고 일본의 최대 세포배양기관(CPC)인 (주)테라에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세렌클리닉병원그룹에서 독점사용하고 있다. <br/> <br/>‘획득면역반응’이라 일컫는 HLA Class-Ⅰ(HLA-A), HLA Class-Ⅱ(HLA-DQ, DR, DB) 등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수많은 펩티드로 연결된 WT1 단백질 중에서 환자의 암항원과 일치하는 것만을 분리해 사용하며, 이와 더불어 환자의 암 종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합한 인공 암항원(MUC-1, CEA, Her2, PSA)도 추가로 인식시킴으로써 암에 대한 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br/> <br/>이와 다른 방식의 치료는 중입자치료로 전이되지 않은 국소암에서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이된 말기 환자에서는 치료가 해당 되지 않는다. 또한 치료가 가능한 환자라도 치료 후 잔존암에 대해서는 중입자치료에서는 대처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러나 중입자 치료 후 잔존암 제거에 수지상세포치료와 같은 면역세포치료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br/> <br/>수지상세포치료는 반듯이 중입자와 같은 치료를 거친 후에 시도되는 것은 아니고 중입자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초기와 말기암 모두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한 환자수도 11,420건(2017년 6월 현재)에 이르고 이는 일본 내에서도 독보적인 치료실적이다. <br/> <br/>한편 세렌클리닉과 한국법인Agency인 티시바이오 주식회사(대표 이상우)는 공식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암환자들에게 치료 서포트를 함과 동시에 중입자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최첨단 치료를 받고 있는 국내 환자 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언론사: 국민일보-1-54.txt

제목: [특별기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필요하다  
날짜: 2017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1202355002  
ID: 01100201.20171211202355002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질병의 다양화로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개인별 질병 및 건강관리, 조기진단 및 최적 치료법 도출, 감염병 감시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br/> <br/> 미국에서는 1억명 이상의 당뇨 환자 데이터를 분석, 저혈당 쇼크를 사전에 예측해 조기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민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의료기관이 의료정보 생성 인증 업자에게 정보 제공시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철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료정보를 민간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br/> <br/> 우리나라는 우수한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와 함께, 병원 정보통신(IT) 인프라도 우수하여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활용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br/> <br/>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진료정보, 청구정보, 암 정보 연구, 조사 정보 등의 연계를 통해 공익적 목적의 연구에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r/> <br/>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감염병 유입 예측과 감염병 진단·치료, 자살예측모형 구축, 치매예방서비스 개발 등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br/> <br/> 물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반대의 목소리도 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br/> <br/>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질병의 예측력 향상, 치료방법 개선,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비 절감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먼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법과 제도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공고히 다져야 한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br/> <br/> 빅데이터의 무궁한 발전에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br/> <br/>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언론사: 국민일보-1-55.txt

제목: [원자력병원이 전하는 건강톡] 아파도 침묵하는 肝 정기검진이 해답  
날짜: 20171211  
기자: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1202255001  
ID: 01100201.20171211202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여러 가지 물질을 저장·합성하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화학 공장의 역할을 한다. 간세포는 활발히 재생되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에도 잘 견디고 회복되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간경화, 간암 등으로 진행되어 기능을 못하게 된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어도 간은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br/> <br/> <br/> <br/> 술 마시는 사람만 주의해야 하나? <br/> <br/>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70% 가량은 B형간염바이러스 때문입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바이러스를 가진 어머니로부터 출생 전후에 감염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고, 연령이 높아지면 간암까지 발생합니다. 간암 환자의 10%는 술이 원인으로 과도한 음주는 간경화를 유발하고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B형 및 C형간염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밖에 간암 환자의 10% 가량은 C형간염바이러스가 원인이고, 나머지는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에 의한 지방간질환 때문입니다. <br/> <br/> <br/> <br/> 특별한 증상이 느껴지나? <br/> <br/> -간은 신경 세포가 없어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암의 증상은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며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등이 있습니다. 간암이 많이 진행되면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 오거나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만으로 질병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br/> <br/> <br/> <br/> 피검사로 진단할 수 있나? <br/> <br/> -간암은 혈액검사와 영상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합니다. 혈액검사는 간암 표지자인 알파태아단백(AFP)과 프로트롬빈(PIVKA-II) 등을 검사합니다. 이들 표지자는 간암 환자의 혈액에서 주로 상승하는 물질로서 간암의 진단뿐만 아니라 간암 환자의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할 때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나 초기 간암 환자들은 표지자가 상승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초음파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검사가 진단에 더 중요합니다. <br/> <br/> <br/> <br/> 암이 많이 진행돼도 수술 할 수 있나? <br/> <br/> -간암 수술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간암이 간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절제가 가능하고, 절제 후 남은 간의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상당히 큰 크기의 간암도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암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평소 초음파검사로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간암 발견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br/> <br/> <br/> <br/> 나이가 많은데 치료 가능할까? <br/> <br/> -간 기능과 전신상태가 양호하고 심각한 동반질환이 없다면 나이가 많더라도 간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간암의 치료기술이 발달하고 신약들이 개발되어 큰 고통 없이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나이프 등 첨단 방사선 장비들은 암세포에만 집중적으로 고선량 방사선을 쪼여 고령으로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한 원자력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료기관들은 첨단 방사선 장비들을 이용한 간암치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r/> <br/> <br/> <br/> 평소 예방은 어떻게 하나? <br/> <br/> -간암은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선행 간질환들의 원인을 제거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은 B형간염, C형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지방간질환입니다. B형간염은 바이러스 억제 치료제를 적기에 사용하면 간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C형간염도 최근 치료제들이 쏟아져 나와 적기에 사용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금주 또는 절주, 지방간질환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치료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B형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받고, C형간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평소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체중관리를 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br/> <br/>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news.com <br/> <br/>◇도움말=원자력병원 간암센터 한철주 소화기내과·김상범 외과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1-56.txt

제목: “임신 중 비타민D 부족땐 신생아 성장 악영향”  
날짜: 20171211  
기자: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1173755002  
ID: 01100201.20171211173755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span class='quot0'>임신부나 태아에게 비타민D 부족하면 태어날 때 저체중이나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span>” <br/> <br/> 이탈리아 파르마대학 내분비내과 지오반니 파세리(Giovanni Passeri) 교수(사진)는 최근 영진약품이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타민D D3BASE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타민D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비타민D의 권위자인 파세리 교수는 이날 ‘비타민D 결핍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세계 데이터를 보면 비타민D 결핍이 만연하다. 부족일수도, 결핍일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태양에 노출됐을 때 비타민D가 몸에서 생성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출생부터 전 생애에 걸쳐 보충해줘야 한다. 태어나면서 결핍이 있으면 생애 전주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br/> <br/> 국내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90%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D는 뼈 건강 이외에도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파세리 교수는 “비타민D는 건강에 중요하다. 부족한 경우 뼈나 조직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만 등을 약기하는 신체대사에도, 심각한 경우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임신 중 부족하면 태어날 때 저체중이나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후 1∼2년에는 심각하게 부족할 경우 뼈나 심장에 영향을 줘 구루병 등도 야기할 수 있다. 그만큼 산모나 신생아에게 비타민D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 비타민D 결핍은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파세리 교수는 “비타민D는 체내에서 생성하는 호르몬이다. 유럽의 경우 신생아나 어린이에게 심각한 비타민D 결핍이 있는 경우 치료 프로토콜이 있다”며 “연령별, 환자상태별로 다르지만 혈중농도 30ng/㎖ 이하인 경우 약 투여를 고려하고, 20ng/㎖ 이하인 경우는 꼭 투여를 한다.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br/> <br/> 파세리 교수는 “이탈리아의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비타민 D투여를 결정한다. 혈액테스트를 통해 부족 여부를 측정하고, 골연화증이나 골대사 증상을 보이면 비타민D가 낮을 확률이 많아 투여하기도 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외출이 적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노인질환으로 약을 많이 복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D를 낮추는 요소파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상수치에 도달하기 위해 1주에 2번, 2∼3개월에 거쳐 2만5000IU를 투여하고, 이후부터는 수치 유지를 위해 빈도수를 낮춰 투여한다”며 “이탈리아에서는 한번 유지처방을 받으면 평생 동안 지속한다. 하지만 비타민D는 기본적으로 몸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잉 투여돼도 지방에 저장되거나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br/> <br/>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1-57.txt

제목: 명작의 귀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노희경 “어머니 보낸 후 쓴 글”  
날짜: 20171210  
기자: 문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10114744004  
ID: 01100201.20171210114744004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명작으로 유명한 노희경 작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또다시 안방극장을 울렸다. <br/> <br/>tvN 새 토일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9일 첫 방송됐다. 4부작의 단막극이지만 첫 회부터 닐슨코리아 기준 평균 시청률 3.2%를 기록하며 의미 있게 출발했다. <br/> <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중년 부인이 말기 암 진단을 받고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린 드라마다. 1996년 동명의 드라마가 방영됐고, 당시 제33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br/> <br/>21년 만에 리메이크됐지만, 20대 초반 시청자들에게도 익숙한 스토리다. 시나리오 일부가 지난 2013년 수능 모의고사 국어영역 지문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험이 끝난 후 “시험 도중 눈물을 흘렸다”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등의 후기가 전해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br/> <br/>노희경 작가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노 작가는 “<span class='quot0'>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음속에 담아둔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작품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실제 내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그리움을 많이 담았다</span>”고 고백했다. 이어 “이 작품 덕분에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며 “나의 발판이 됐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br/> <br/>시청자에게 ‘가족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졌던 1회에 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회는 10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br/> <br/>문지연 객원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58.txt

제목: 치밀유방, 석회화가 뭐지?…알쏭달쏭 유방암 검진 결과 통보  
날짜: 2017120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8145244001  
ID: 01100201.201712081452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5대 국가 암 검진에 포함돼 있는 유방암 검진. 유방암을 찾아내기 위해 시행하는 선별 검사는 바로 유방 촬영이다. 이는 유방 조직을 납작하게 눌러서 X선을 투과시킨 사진을 확대 현상해 판독하는 방법이다. <br/> 현재까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마다 유방 실질 조직의 양이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br/> <br/>그런데 검진 결과 통보서에 쓰여있는 내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몰라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다. <br/> 우선 '치밀 유방'. 병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유방의 실질 조직이 매우 촘촘하다는 것을 표현한 용어다. 치밀유방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방 촬영 판독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유방촬영 사진을 판독할 때 주로 집중해서 보는 이상소견은 크게 두 가지로, 미세석회화와 증가 음영이다. <br/> <br/>치밀유방인 경우 확대 디지털 사진의 배경(유방실질조직)이 하얗게 나타난다. 검은색 색종이와 회색 색종이에 각각 소량의 맛소금을 뿌렸을 때 어느 편이 더 잘 보이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br/> <br/> 미세 석회화 및 증가 음영이 매우 미미하게 생겨있는 경우 유방 실질조직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치밀유방인 경우 유방초음파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서 유방암을 더 철저하게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유방촬영 검사에서 치밀유방 판정을 받았다면, 유방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다. <br/> 다음은 양성 석회화. 석회화라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든 정상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단순 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고, 종양에 의한 주위구조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다. <br/> 하지만 이 판정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아마도 ‘양성’ 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다. 한글로는 똑같이 쓰지만 양성(陽性 또는 良性)의 반대말은 음성(陰性) 또는 악성(惡性)이다. <br/> <br/> 유방촬영 결과에서 흔히 등장하는 ‘양성(良性)’ 은 ‘악성(惡性)’ 의 반대말이다. 즉 ‘암과 관련된 소견이 아닌 석회화’ 라고 생각하면 된다. 치밀유방이 아니면서 양성 석회화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다면, 현재 병은 없고 과거 염증을 앓았던 흔적쯤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 경우 추가검사는 필요 없고, 원래의 검진 일정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br/> <br/>그럼 미세 석회화는 뭘까. 석회화가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유방암인 유관 상피내암의 경우 유방촬영에서 초기부터 미세석회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세석회화가 보였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추가적인 확진 검사(유방초음파, 필요시 세침흡인/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br/>종괴(결절), 증가음영 또는 비대칭 이라는 표현이 있다. 유방촬영 검사에서 정상이 아닌 구조물 종괴, 증가음영, 정상인 쪽에 비해 다르게 보이는 음영 등이 그 예다. 유방촬영 검사결과만으로는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판정 유보 통보를 하게 된다. 또 미세 석회화를 동반하지 않는 몇 가지 종류의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판정을 내리게 된다. 암이 아닌 혹에 의한 것인지, 암에 의한 것인지, 혹은 그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전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추가적인 확진검사를(대부분 유방초음파) 받아야 한다. <br/> <br/>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장 가정의학과 김종우 교수는“<span class='quot0'>치밀유방이 병은 아니지만 유방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아야 놓치는 암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검진 결과 통보서에 미세석회화 혹은 판정유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전문의 진료와 더불어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59.txt

제목: [사설] 안보 위협하는 북핵 용인론, 어림없는 소리다  
날짜: 2017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6153855001  
ID: 01100201.20171206153855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뒤 미국과 중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용인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이를 인정한 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7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고조됐을 때 미국 일부 학자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북핵은 이제 현실이라고 말하며 동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br/> <br/>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어림없는 소리다. 북핵 용인론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한반도 안보지형을 바꾸려는 북한의 의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북한은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폐기 대신 비확산 및 추가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한 체제 인정 및 김정은 정권의 안위 보장을 뛰어넘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붕괴를 노리는 것이다. 여기에 집권 초기 북핵 해법 방향을 모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를 놓고 중국과의 전략적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북핵 용인론은 한때 그럴 듯하게 포장됐다. <br/> <br/>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분명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한·중·일 정상을 잇달아 만나 북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에 확고하게 합의하면서 북핵 용인론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북핵 용인론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반발하는 중국의 일부 학자가 제기하는 희망사항에 불과하게 됐다. <br/> <br/>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뿐이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일치된 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제재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상식이다.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중국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안보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전쟁 없이 풀겠다고 공언했던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마저 최근 “<span class='quot0'>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span>”며 중국에 경고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암 덩어리를 키우고 결국은 중국의 이익을 위협하게 될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북핵문제에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과 줄다리기를 하는 미국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식의 어정쩡한 모습으로는 결코 중국을 설득할 수 없다.

언론사: 국민일보-1-60.txt

제목: [헬스파일] 당뇨환자가 췌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날짜: 20171206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6105844001  
ID: 01100201.20171206105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도재혁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br/> <br/>얼마 전 갑자기 당뇨가 생긴 50세 남성 A씨. <br/> <br/>작년에 복부 CT검사를 비롯한 종합건강검진을 했을 때 혈당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었다. <br/> <br/>그런데 최근 배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되어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고 뜻밖의 결과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검사결과 췌장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br/> <br/>A씨는 큰 충격과 함께 절망감으로 말을 잃었다. 이렇듯 췌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왔다고 얘기들을 한다. <br/> <br/>췌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2.7%로 다른 암에 비해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조기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쉽게 전이되어 평균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아 국내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가장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췌장암의 조기 진단이 어려운 까닭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현재까지 유전적 요인과 함께 흡연과 지방 성분이 많은 식사를 하는 사람이 췌장암 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그런데, 최근 가족력이 없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가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br/> <br/>실제, 프랑스 국제질병예방연구소의 알리스쾨히리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췌장암 환자 가운데 약 50%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췌장암이 있는 당뇨병 환자 중 50% 이상이 10년 이상 당뇨를 앓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또한, 국립암센터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대상자와 중앙암등록본부의 국가암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흡연, 당뇨, 비만이 췌장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랜 기간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여 약 2배 정도 췌장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췌장암에 의한 이차적인 내분비 기능 장애가 당뇨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췌장에 암이 생긴다면 이로 인해 당뇨병 같은 이차적인 내분비기능 장애가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br/> <br/>5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췌장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함께 췌장암이 발견될 당시 약 50~60%의 환자에서 당뇨병이 동반되거나 과반수 이상이 2년 이내에 당뇨병이 생기고, 췌장암 환자가 수술을 통해 췌장암을 제거한 후 3개월 내에 당뇨병이 호전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br/> <br/>당뇨병에 의해 췌장암이 발생한 건지 췌장암에 의해 2차적으로 당뇨병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당뇨병을 장기간 앓고 있거나, 당뇨병의 가족력도 없는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나 평소에 잘 조절 되었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췌장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br/> <br/>현재, 췌장암의 진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들은 혈액검사, 혈청종양표지자, 초음파검사, 복부CT, 복부MRI, 내시경적 역행성담췌관 조영술(ERCP),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EUS), 양성자방출 단층촬영(PET) 등이 있는데, 검사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어느 검사가 가장 적합한 검사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복부CT가 현재까지 췌장암을 초기에 진단하는데 있어 유용한 검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흔히 CT라고 하는 전산화 단층촬영은 초음파검사보다 췌장암을 진단하거나 병기를 측정하는데 유용한데 검사자에 따른 오류가 적으며 병변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영상이 더 세밀하여 1㎝정도의 암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r/> <br/>췌장암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복부CT는 호흡을 멈추는 아주 짧은 시간에 내부 장기를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져 췌장 부위 진단에 정확도가 높고, 짧은 시간 동안 조영제의 투여 속도와 촬영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더욱 선명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으며, 수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br/> <br/>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췌장암 발생 위험은 1.8배로 높아지며,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의 당뇨병 유병률은 28~30%로 일반인(7~9%)의 3배 이상이기 때문에, 당뇨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사람과 가족력 없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우선 복부 CT 등을 포함한 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권한다. <br/> <br/>이외에도 만성췌장염 환자,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 췌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정기적으로 복부 CT 등을 포함한 검사를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br/> <br/>췌장암의 고위험군에 있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되기만 하면 수술을 통해 40%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61.txt

제목: ‘자코메티’ 결코 걷지 않고도 가장 멀리 가는 사람  
날짜: 2017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6092455001  
ID: 01100201.20171206092455001  
카테고리: 문화>미술\_건축  
본문: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의 작품을 처음 접한 것은 2014년 11월 오스트리아 빈 레오폴트미술관에서였다. 당시 에곤 실레(1890∼1918)에 대한 글을 쓰고 있던 나는 세계 최고의 실레미술관이라고 하는 레오폴트미술관에 들렀다가 마침 이 미술관에서 개최한 자코메티의 특별전까지 관람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br/> <br/> 온종일 실레와 자코메티의 작품 속에 빠져 있던 나는 그날 밤 실레의 생가가 있는 툴른을 향해 떠났는데, 어두운 창밖을 보며 이 두 작가의 유사성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것은 실레와 자코메티는 같은 시대, 같은 나라의 작가들이 아니었음에도 예술을 향한 어떤 고집 때문에 지독한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고, 그 결과 이들의 작품(회화 조각 드로잉)에는 바짝 마르고 앙상한 인간들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br/> <br/> 그날 내가 본 자코메티의 조각 중 특히 기억되는 작품은 그때까지의 예술 경매가 최고 액수를 기록했던 ‘걸어가는 사람Ⅰ’(1960년 작, 2010년 2월 런던 소더비경매에서 1억416만 달러에 거래됨)의 원본이랄 수 있는 ‘걸어가는 사람’(1947년 작)이다. <br/> <br/> 1947년은 자코메티 예술의 전환기를 연 중요한 해다. 이 해에 자코메티 예술의 원숙미를 드러낸 실물 크기인 ‘걸어가는 사람’ ‘가리키는 남자’(2015년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4130만 달러로 경매 사상 최고 조각품이라는 기록을 세움) ‘여인상들’(키 크고 날씬한 여인상들) 등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나왔다. <br/> <br/>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Ⅰ’에 비해 상체를 곧추세운 형태다. 어디론가 걸어갈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이는 작품이다. 다음 해 만든 ‘빗속을 걸어가는 남자’는 훨씬 보폭이 크고 상체를 기울여 서둘러 걷고 있다. 1960년에 나온 ‘걸어가는 남자Ⅰ’은 이 두 작품의 중간쯤 되는 보폭과 상체의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그 자세는 움직이려는 힘과 내면의 표정까지 보여주는데,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남자들 조각은 부상당한 자신의 발에 대한 미학적 메타포로 보인다. 피라미드 광장을 걸어가던 서른일곱의 자코메티는 술 취한 미국 여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리를 다쳤다. 수술 후 의사로부터 평생 절룩거리거나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처지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고 한다. <br/> <br/> 자코메티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몇 사람이 있다. 평생 동안 모델이 되어준 동생 디에고 자코메티, 26세 나이에 48세의 자코메티와 결혼한 아네트 암, ‘도둑 일기’의 프랑스 작가 장 주네(1910∼1986), 자코메티보다 열일곱 살 어린 일본인 철학교수 야나이하라 이사쿠, 매춘부 캐롤린 등을 꼽아야 할 것이다. <br/> <br/> 1951년에 도쿄대학 총장을 지낸 야나이하라 다다오(‘성서강의’의 저자)의 아들로 알베르 카뮈 ‘이방인’을 일본어로 번역한 철학자 야나이하라 이사쿠는 1955년 가을 프랑스에서 자코메티와 만난다. 36세의 철학자였던 야나이하라는 다음 해 봄이 오자 이집트에 들러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때 자코메티는 야나이하라에게 자신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자코메티로부터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1605∼1665)가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의 모델이 되어준 것 말고는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던 야나이하라는 자코메티를 떠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집트 방문을 연기하고 포즈를 잡기 시작했다. 자코메티의 처음 계획은 일주일 정도 모델을 스케치한 후 일본으로 보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나이하라의 귀국은 자꾸만 늦춰졌고 일본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다. 밤새도록 같은 표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의 깊이를 좋아했던 자코메티와 천년 동안이라도 모델을 설 자신이 있었던 오사카대 철학과 교수는 서로 친밀해져 열정적인 집착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코메티의 전기를 쓴 미국인 제임스 로드의 ‘자코메티, 영혼을 빚어낸 손길’(을유문화사)에 따르면 어느 날 저녁 자코메티는 그림을 그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자코메티의 아내 아네트는 남편의 일본인 친구와 콘서트에 다녀오던 길에 그를 호텔로 유혹해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순진하고 진실하고 싶었던 야나이하라는 자코메티에게 “화가 났느냐”고 물었고 자코메티는 “매우 기쁘다”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br/> <br/> 그날 저녁 작업이 끝난 후 자코메티는 볼 일이 있다면서 부인과 모델을 남겨놓고 떠났고, 아네트는 모델에게 호텔로 갈 것을 제안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랬다. 자코메티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한다면 더 어색할 것이다. 나는 매우 기쁘다”고 공언했다. 아네트는 어떤 죄책감도 없이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여자였다. 일본에서의 계속된 연락으로 인해 철학교수는 12월 중순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자코메티 부부로부터 다음 해 여름방학에 다시 파리로 돌아올 것을 요청받았다. 비행기 요금과 생활비 일체를 제공한다는 조건이었다. <br/> <br/> 그렇게 몇 년간 이 기이한 우정이 계속되는 사이 아네트는 자코메티에게 진절머리를 냈고, 58세의 자코메티는 21세의 매춘부 캐롤린에게 빠져들었다. 자코메티는 아네트에게 멋진 옷을 사주지 않고, 오히려 더 본질적이라며 삭발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캐롤린에게는 수백만 프랑의 다이아몬드 팔찌와 진주목걸이와 승용차를 선물했다. 포주들에게 돈을 뜯기면서도 자코메티는 캐롤린에게는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믿었다. <br/> <br/> 이 특이한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자코메티의 예술은 정점을 찍었다. 스위스 출신의 자코메티가 선택한 나라 프랑스에서는 그를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딴판이었다. 1955년에 세 나라에서 자코메티의 기념비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런던 대영제국 예술평의회 갤러리, 독일 세 도시의 미술관 전시회.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집행위로부터는 다음 해 6월에 열리는 비엔날레의 프랑스 전시관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품을 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초대받지 않았더라면 더 기뻤을 것이라며 한 나라를 대표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비엔날레의 수상자 후보가 되는 것도 정중히 거절했다. 이 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이 10개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베네치아의 여인들’인데, 한국 조각가 유영호의 ‘그리팅 맨(인사하는 남자)’처럼 양팔을 겨드랑이에 바짝 붙이고 서 있는 여성들의 가느다란 작품을 선보였다. <br/> <br/> 장 주네는 1954∼57년 자코메티의 모델을 한 작가다. 피카소가 자신이 읽은 예술가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한 장 주네의 글 ‘자코메티의 아틀리에’(열화당)는 한 예술가의 창조성이 다른 사람의 창작의 재료가 된, 예술에서 드문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평자들은 자코메티의 예술이 20세기의 불안과 실존적 고독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지만, 주네의 평은 누구의 평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절박한 자코메티의 가슴을 열어 보여준다. “<span class='quot0'>자코메티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더욱 더 견딜 수 없어지는데, 그것은 이 예술가가 거짓된 외양이 벗겨진 후 인간에게 남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자기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을 치워 버릴 줄 알기 때문인 것 같다.</span>” <br/> <br/> 자코메티가 오늘날과 같이 세계 미술사의 거장으로 우뚝 선 데에는 그의 특별한 개성을 빼놓을 수 없다. 자코메티의 서 있는 인물상은 전부 발이 비밀에 싸여 있다. 받침대 위에서 막 걸을 채비를 하고 있는 그의 발들은 뭉쳐져 있는 진흙 속에서 발을 빼내는 듯, 아니면 구름 속에서 나온 듯 신비함으로 싸여 있다. 그의 발은 어느 작품도 팔(八)자형이라고 하는 외측 방향으로 열려 있지 않다. 장 주네는 “그처럼 전설적인 내반족(발이 안쪽으로 휘는 형)에 사로잡힌 마력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지점이 자코메티의 장인정신을 모두 찬미하기는 하지만 이유가 정반대로 나뉘는 부분이라고 본다. 그는 머리 어깨 팔 골반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발로는 우리를 매혹시킨다”고 썼다. <br/> <br/> 얼핏 보면 자코메티의 삶은 일본인 친구와 아내 아네트, 거리의 여자 캐롤린이 뒤죽박죽 얽혀 있어 무척 무질서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최고의 작품들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자코메티의 경우를 보거나 그에게 영향력이 지대했던 다른 예술가들-사르트르, 피카소, 장 주네, 사뮈엘 베케트-의 예를 보면 예술가들의 성취력(예술성)은 현실의 일상적 무게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하는 점과 그 벗어난 행동들이 모두 발가벗겨지더라도 그것으로부터도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물론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나 그들의 예술성은 그 고통을 자양분으로 피어난다. <br/> <br/> 부스스하게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허약하고 골격만 있는 청동 쪼가리들. 그래서 섬뜩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인간들. 그의 조각품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좌대위에 고정돼 있다. 그럼에도 사르트르는 “<span class='quot1'>아무도 (자코메티의 조각보다) 더 멀리 갈 수 없다</span>”고 말했다. 이 불일치는 무엇인가. 한 발자국도 가지 않은 것과 누구보다도 멀리 걸어간 거리, 자코메티는 그 절대적인 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동성을 각자가 판단하도록 관객에게 넘긴다. <br/> <br/><소설가·언론인>

언론사: 국민일보-1-62.txt

제목: 기대수명 82.4세 건강수명 64.9세… 17.5년 환자로 산다  
날짜: 20171206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전진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6075144001  
ID: 01100201.201712060751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한국인의 수명은 늘어나는 데, 정작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줄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10년 전보다 3년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병에 시달리는 기간도 그만큼 늘었다. 여성은 4년 전보다 2.5년을 더 병마와 싸워야 한다. 고령화 속도를 건강 나이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br/> <br/>통계청은 5일 ‘2016년 생명표’를 발표하고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0.3년 증가한 82.4년이라고 밝혔다. 신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가 기대수명이다.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온 사망신고를 토대로 추정한 지표다. 기대수명은 2006년 78.8년에서 10년 사이 3.6년이 늘어났다. <br/> <br/>여성의 기대수명(85.4년)이 남성(79.3년)보다 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성은 1.4년, 여성은 2.3년 더 살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여자의 경우 일본,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35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br/> <br/>지난해 출생아의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 6.1년은 전년 대비 0.1년, 10년 전 대비 0.6년 감소한 수치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1970년 7.1년에서 1985년 8.6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r/> <br/>기대수명이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수명은 64.9년이었다. 전체 기대수명 중 17.5년은 병에 시달리는 것이다. <br/> <br/>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기간은 점점 늘고 있다. 남성의 유병기간은 14.6년, 여성은 20.2년으로 2012년 조사 때(남성 12.5년, 여성 17.7년)보다 길어졌다. 이에 따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2012년과 비교해 남성은 0.3년, 여성은 1.3년 감소했다. <br/> <br/>건강 나이를 깎아 먹는 최악의 질병으로 암이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심장 질환(11.8%), 뇌혈관 질환(8.8%), 폐렴(7.8%) 순이었다. 폐렴에 따른 사망 확률은 10년 전보다 5.2% 포인트나 증가했다. <br/> <br/>이런 질병이 없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기대수명이 대폭 올라간다. 암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출생한 아이들의 기대수명은 3.9년이 더 늘어난다. 심장질환(1.5년)도 마찬가지다. 3대 사인으로 꼽히는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이 전혀 없다면 7.1년의 기대수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br/> <br/>한편 고령화 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 올해 환갑을 맞은 이들은 평균 82∼87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남성은 22.5년, 여성은 27.2년을 더 살 수 있는 셈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2.9년 늘었다. <br/> <br/>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63.txt

제목: 홍준표 “좌파광풍 오래 못가… 품격? ‘암덩어리님’이라 하나”  
날짜: 20171206  
기자: 하윤해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6050556005  
ID: 01100201.20171206050556005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홍준표(사진)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span class='quot0'>좌파 광풍시대가 오래 가지 않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내부 혁신에 주력해 좌파 광풍이 멈출 때를 대비하겠다</span>”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span class='quot1'>문재인정부의 지난 7개월은 초보 정권의 난폭운전, 보복운전, 역주행</span>”이라고 비판했다. <br/> <br/> 홍 대표는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span class='quot1'>혐의가 있으면 (이 전 대통령을) 한번 불러서 조사하시죠</span>”라며 “<span class='quot1'>‘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어떻게 막겠나</span>”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겠나”라며 “무슨 국가를 흔드는 범죄도 아니고 댓글 몇 개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을 듣고 기가 막힌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br/> <br/> 홍 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특활비도 문제 삼아야지, 바로 직전 정부만 문제 삼는 건 안 된다”면서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의원 (수사를) 물타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과거 정부도 다 조사해 실태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막말·품격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는 친박(친박근혜)을 겨냥해 ‘암덩어리’, ‘고름’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암덩어리가 맞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나”라고 되물은 뒤 “‘암덩어리님’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흠 잡을 게 없으니까 품격을 가지고 흠을 잡는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br/> <br/> 홍 대표는 한국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span class='quot1'>국회의원한테 동료 의원을 제명해 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span>”며 “<span class='quot1'>두 분은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span>”고 말했다. 또 “(국회) 원내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다음 원내대표가 나오면 원내 일에도 관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중립이라고 하면 표를 중간에 찍나. 그럼 무효표가 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중립지역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br/> <br/>글=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64.txt

제목: 기대수명 82.4세 건강수명 64.9세… 17.5년 환자로 산다  
날짜: 20171206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6050155002  
ID: 01100201.201712060501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통계청 ‘2016년 생명표’ 발표 <br/> <br/>기대수명 10년전 비해 3.6년 ↑ <br/>여성이 남성보다 6.1년 길어 <br/>OECD보다 男 1.4년 女 2.3년↑ <br/>향후 암 사망확률 21.3% 1위 <br/>심장질환 11.8%로 뒤이어 <br/> <br/>한국인의 수명은 늘어나는 데, 정작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줄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10년 전보다 3년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병에 시달리는 기간도 그만큼 늘었다. 여성은 4년 전보다 2.5년을 더 병마와 싸워야 한다. 고령화 속도를 건강 나이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br/> <br/> 통계청은 5일 ‘2016년 생명표’를 발표하고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이 전년 대비 0.3년 증가한 82.4년이라고 밝혔다. 신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가 기대수명이다.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온 사망신고를 토대로 추정한 지표다. 기대수명은 2006년 78.8년에서 10년 사이 3.6년이 늘어났다. <br/> <br/> 여성의 기대수명(85.4년)이 남성(79.3년)보다 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성은 1.4년, 여성은 2.3년 더 살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여자의 경우 일본,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35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br/> <br/> 지난해 출생아의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 6.1년은 전년 대비 0.1년, 10년 전 대비 0.6년 감소한 수치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1970년 7.1년에서 1985년 8.6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r/> <br/> 기대수명이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수명은 64.9년이었다. 전체 기대수명 중 17.5년은 병에 시달리는 것이다. <br/> <br/>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기간은 점점 늘고 있다. 남성의 유병기간은 14.6년, 여성은 20.2년으로 2012년 조사 때(남성 12.5년, 여성 17.7년)보다 길어졌다. 이에 따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2012년과 비교해 남성은 0.3년, 여성은 1.3년 감소했다. <br/> <br/> 건강 나이를 깎아 먹는 최악의 질병으로 암이 꼽힌다. 지난해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심장 질환(11.8%), 뇌혈관 질환(8.8%), 폐렴(7.8%) 순이었다. 폐렴에 따른 사망 확률은 10년 전보다 5.2% 포인트나 증가했다. <br/> <br/> 이런 질병이 없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기대수명이 대폭 올라간다. 암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출생한 아이들의 기대수명은 3.9년이 더 늘어난다. 심장질환(1.5년)도 마찬가지다. 3대 사인으로 꼽히는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이 전혀 없다면 7.1년의 기대수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br/> <br/> 한편 고령화 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 올해 환갑을 맞은 이들은 평균 82∼87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남성은 22.5년, 여성은 27.2년을 더 살 수 있는 셈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2.9년 늘었다. <br/> <br/>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65.txt

제목: [현장] “함께 예배 드리며 힘든 삶 이겨내요”  
날짜: 20171206  
기자: 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6000004001  
ID: 01100201.2017120600000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달 30일 오후 돈의동사랑의쉼터(소장 장경환 사관).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 서울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암환자들이 대한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이 쉼터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br/> <br/> 3.3㎡(1평) 남짓한 쪽방에서 생활하는 주민 가운데 파악된 암환자는 25명 정도. 이 가운데 10명이 쉼터 암환자 자조(自助)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암환자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얻는 모임이다. 이들 가운데는 망백(望百·91)을 맞은 강정식 할머니도 눈에 띄었다. 장 사관이 강 할머니를 향해 “<span class='quot0'>젊을 때는 쌀가마니도 두 개씩 들었다</span>”고 말하자 강 할머니는 “맞아, 틀림없어”라고 맞장구를 쳤다. <br/> <br/> 자조 모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송가로 시작됐다. 박자는 틀리고 쉰 목소리가 났다. 장 사관은 “<span class='quot0'>젊을 때처럼 건강하지는 않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span>”라며 사무엘상 17장 일부를 환자들과 함께 읽었다. <br/> <br/> 설교가 끝나자 쉼터 직원인 주선영씨가 동그란 성탄 트리와 솔방울, 벨 등 장신구를 들고 들어왔다. 각자 집에 설치할 성탄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환자들은 트리에 장신구를 달며 만들기에 집중했다. 도중에 강 할머니는 캐럴 ‘징글벨’을 목청껏 불렀다. 맞은편 할아버지는 손뼉을 치면서 “할머니 100점”이라고 외쳤다. <br/> <br/> 박동기(62)씨는 쉼터에서 막내다. 쪽방에서 17년을 머문 그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을 세공하는 공장 사장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서 설비를 시공하기도 했다. 박씨는 대장암이 위로 전이돼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돌봐 줄 가족은 없다. 그는 “암환자들끼리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 돌보며 격려한다”며 “함께 드리는 예배도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쌀을 배달하기도 하며 구세군 봉사 활동을 5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br/> <br/> 자조모임 회원들은 경기도 안산 대부도 등에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영화도 보고 건강 공부도 한다. 쉼터는 이들에게 쌀과 도시락을 제공하며 목욕과 세탁도 돕는다. 주씨는 “암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소소한 얘기를 나누며 기운을 북돋아 드린다”며 “대장암과 위암, 혈액암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br/> <br/> 취업알선과 의료지원도 쉼터의 몫이다. 쪽방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입주를 지원하거나 예방접종과 무료진료도 돕는다. 공동 장례를 치러주기도 한다. 장 사관은 “<span class='quot0'>힘들고 아픈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으키는 게 구세군 쉼터의 역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신앙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삶의 질을 개선해 주민들의 자활을 돕는 데 힘을 쏟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사진=신현가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66.txt

제목: 의사-AI 왓슨 '암 처방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  
날짜: 20171205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5181444001  
ID: 01100201.201712051814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의료진과 암 진단 인공지능(AI) 왓슨의 의견 일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장암(결장암) 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한 의사와 왓슨의 ‘강력 추천’ 분야 의견 일치율이 55.9%로 과거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br/> <br/>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는 5일 ‘IBM Watson for Oncology 도입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및 심포지엄’에서 "<span class='quot0'>의료진과 왓슨의 치료 방침 중 강력추천 부분에서 의견 일치율이 7% 향상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span>"고 밝혔다. <br/> <br/>길병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IBM사의 왓슨을 임상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7개병원이 왓슨을 도입했다. <br/> <br/>외과 백정흠 교수는 지난해 12월 센터 개소 이후부터 올해 11월까지 환자 5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 결과, 대장암(결장암) 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진과 왓슨의 ‘강력 추천’ 분야 의견 일치율은 55.9%로 과거 이뤄진 후향적 연구 48.9%에 비해 7% 포인트 높아졌다. 의견 일치 분야를 ‘강력 추천’뿐 아니라 ‘추천’으로 확대시키면 대장암(결장암) 환자의 의료진과 왓슨의 의견 일치율은 78.8%였다. <br/> <br/>과거 이뤄진 후향적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대장암 환자(결장암) 6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력 추천’ 분야 의견 일치율은 48.9% 였다. <br/> <br/> <br/>왓슨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과거 임상 사례를 비롯해 선진 의료기관의 자체 제작 문헌과 290종의 의학저널, 200종의 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강력 추천’, ‘추천’, ‘비추천’으로 나눠서 해당하는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이중 강력 추천과 추천이 실제 환자에게 권장되고 있다. <br/> <br/>이 같은 일치율 향상은 의료진이 왓슨이 제공한 치료 방법에 대해 신뢰도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 암센터는 왓슨 다학제 진료 시 최대 6명의 전문의 의견과 우리나라의 의료적 특수성, 환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br/> <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1'>과거에 비해서 ‘강력 추천’ 의견 일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진들이 왓슨의 의견에 동조했다는 점을 의미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일부라도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의료진과 왓슨의 ‘강력 추천’과 ‘추천’을 포함한 의견 일치율은 대장암(결장암) 분야가 78.8%로 가장 높았다. 대장암 중 직장암 분야가 77.8%, 위암이 72.7%의 일치율을 보이며 높았다. <br/> <br/>인공지능 암센터 다학제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0%를 넘었다. <br/> 인공지능 암센터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체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왓슨암다학제 진료’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94%에 달했다. <br/> <br/>인공지능 암센터는 왓슨암다학제 진료 시 주치의를 포함한 5~6명의 의료진과 왓슨 포 온콜로지의 의견을 바탕으로 치료 방침을 정하고 있다. <br/> <br/>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병원추진단장 이언 단장은 “<span class='quot2'>왓슨 암 다학제는 6명의 의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 별로 최대 180분 진료가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2'>게다가 왓슨은 수많은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진료 방침을 결정하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인공지능 헬스케어를 활용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어 향후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환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67.txt

제목: 홍준표 “친박, 암덩어리 맞아…‘암덩어리님’이라 해야하나"  
날짜: 20171205  
기자: 최민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5152944001  
ID: 01100201.20171205152944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을 '암덩어리'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암덩어리가 맞다”고 밝혔다. <br/> <br/>홍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암덩어리가 맞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면 좋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br/> <br/>이어 "내가 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4번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품격을 운운하는 건 참 어이가 없다. 흠잡을 게 없으니 품격을 흠잡는다"고 지적했다. <br/> <br/>한편 홍 대표는 이른바 '계파'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우리 당에 계파가 없다고 본다. (계파가 없으니) 소위 중립이라는 게 있겠나"라며 "(원내대표) 선거에 중도, 중립이라고 하는데 그럼 표를 중간에 찍나.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중도층은 결국 스윙보트(부동층 유권자)"라고 말했다. <br/> <br/>그는 "친홍(親홍준표)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 기준으로 하면 90%가 나하고 친하지만 계파라고 할 사람은 한명도 없다"며 "친박계 수장도 출당이 됐는데 어떻게 계파가 있을 수 있겠나. 그건 말장난"이라고 강조했다. <br/> <br/>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2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주영, 한선교, 조경태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중립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친홍계나 친박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당 내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계파에 속하지 않은 중립의원들이 단일화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br/>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68.txt

제목: 홍준표, ‘막말’ 지적에 “품격으로 가장 논란된 분은 노무현”  
날짜: 20171205  
기자: 권중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5145644001  
ID: 01100201.201712051456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훈토론회에서 자신의 ‘언어습관’에 대한 지적을 받자 “<span class='quot0'>품격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분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논란만 됐을 뿐 (품격을) 사람을 재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할 일 없는 분들의 말</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홍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패널이 홍 대표의 ‘말’에 대해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그는 “<span class='quot0'>한국당이 지금 품격을 논할 때인가</span>”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신봉한다”고도 했다. <br/> <br/>특정 계파를 ‘암’이나 ‘고름덩어리’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암 덩어리가 맞으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품격 있게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람은 죽을 때가 됐을 때 본질을 숨긴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며 언어습관을 바꿀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br/> <br/>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span class='quot1'>국회의원들에게 동료 의원을 제명하라는 요구는 너무 가혹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두 분은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span>”고 했다. 친박 청산이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이냐는 질문에는 “그 말은 듣기가 좀 그렇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책임당원의 74%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인적청산, 조직혁신을 거친 뒤 연말에는 신보수주의를 선언해 정책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br/> <br/>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망나니 칼춤’이라고 비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span class='quot2'>혐의가 있으면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시라</span>”며 “<span class='quot2'>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어떻게 막겠나</span>”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겠나. 국가를 흔든 범죄도 아니고 댓글 몇 개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혔다. 수사를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br/> <br/>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69.txt

제목: 韓 기대수명 82.4세, 건강수명 64.9세… 17.5년 ‘환자’로 산다  
날짜: 20171205  
기자: 태원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5133644001  
ID: 01100201.201712051336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국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17.5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살지만 노년에 ‘환자’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기대수명은 82.4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3년 이상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64.9세에 불과했다. <br/> <br/>◇ 17.5년을 아픈 상태로 보내는 한국인 <br/> <br/>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 즉 건강수명은 64.9년이다. 노년의 17.5년을 아픈 상태로 보내게 된다는 뜻이다. 유병기간은 여자가 20.2년으로 남자(14.6년)보다 길었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비율은 78.8%. 이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2년(81.2%)보다 2.4%포인트 줄었다. 수명이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짧아졌다. <br/> <br/>유럽연합(EU)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남자는 전체 기대수명의 81.6%를 건강한 상태로 보내 EU의 80.4%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 여자는 76.4%로 EU 평균(76.0%)과 유사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강기대수명은 68.5년으로 건강수명보다 3.6년 더 길었다. 실제 아픈 상태인데도 주관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보내는 기간이 3.6년이란 뜻이다. <br/> <br/>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수명은 더 늘어났지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사회조사 등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병원에 가는 일수가 늘었고 초고령층의 요양병원 생활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병원에 자주 갔더라도 감기 등이 경증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예전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br/> <br/>◇ 사망원인 1위, 여전히 암 <br/> <br/>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3%였다.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높다. 심장질환(11.8%) 뇌혈관 질환(8.8%) 폐렴(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출생아가 3대 사인(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5.3%, 여자 38.8%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사망원인은 암(27.1%) 심장질환(10.1%) 폐렴(8.3%), 여자는 암(16.4%) 심장질환(13.0%) 뇌혈관질환(9.4%) 순이었다. <br/> <br/>암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은 전년보다 남자는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했다.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은 남녀 모두 감소했다.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은 전년보다 남자는 0.7%포인트, 여자는 0.5%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암에 의한 사망확률은 40세 이후 연령이 많아질수록 남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심장질환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망확률이 늘어났다. <br/> <br/>지난해 출생아는 암에 걸리지 않을 경우 남자는 4.9년, 여자는 2.9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 각각 기대수명이 1.5년, 1.4년 늘어나고 뇌혈관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1.1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br/> <br/>◇ 60세 남성, 앞으로 22.5년 더 산다 <br/> <br/>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4세였다. 1년 전보다 0.3년(약 4개월) 길어졌다. 남자 아이는 79.3년, 여자 아이는 85.4년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6.1년으로 역대 최저다. 1년 전보다는 0.1년 감소한 것으로, 1985년(8.6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계속 줄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 아이의 기대수명은 1.4년, 여자는 2.3년 더 길었다. OECD 35개 회원국 순위로는 남자 15위, 여자 4위였다. <br/> <br/>남녀의 기대여명은 전 연령층에서 길어졌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앞으로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뜻한다. 40세 남녀는 앞으로 각각 40.4년, 46.2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60세 남녀의 경우 22.5년, 27.2년 더 살 것으로 기대됐다. <br/> <br/>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57.9%, 여자 78.4%였다. 이는 10년 전보다 남자 아이는 14.0%포인트, 여자 아이는 10.4%포인트 늘었다. <br/> <br/>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0.txt

제목: 2016년 출생아 82.4세까지 산다… 암 없으면 4년 더 살아  
날짜: 20171205  
기자: 백상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5120044001  
ID: 01100201.2017120512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3대 사망원인(암·심장·뇌혈관질환) 중 하나인 암 질환만 피해도 한국인의 수명이 4년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통계청은 5일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서 2016년에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4년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대비 0.3년 늘어났다. 남자(79.3년)보다 여자(85.4년)의 수명이 더 길다. 생명표는 기대여명(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출생아의 기대여명은 기대수명이라고 함)과 기대여명에 미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br/> <br/> <br/> <br/>특정 사망원인이 제거될 경우를 가정하면 수명은 얼마나 더 길어질까. 통계청에 따르면 암 질환만 잘 관리해도 평균 수명이 3.9년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남자(4.9년 증가)가 여자(2.9년 증가)보다 암질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통계청은 심장질환을 제거하면 수명이 평균 1.5년 늘어나고, 뇌혈관질환을 제거하면 평균 수명이 1.1년 늘어날 것으로 봤다. 3가지 질환을 모두 피할 수 있다면 평균 수명은 7.1년 더 늘어난다. <br/> <br/>자살을 제거하면 수명이 0.8년 길어진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는 1996년(0.5년)과 2006년(0.7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최근 자살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r/> <br/> <br/> <br/>한국인의 기대수명(2016년 출생아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기대수명(79.3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77.9년)보다 1.4년, 여자 기대수명(85.4년)은 OECD 평균치(83.2년)보다 2.2년 높았다. 반면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한국이 6.1년으로 OECD 평균치(5.2년)보다 0.9년 높았다. <br/> <br/>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1.txt

제목: 50대 남성, 뱃살, 고혈압·당뇨병…전립선암 '3대 복병'  
날짜: 20171205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5115644001  
ID: 01100201.201712051156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50대 남성들에게 전립선암 경고등이 켜졌다.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과 복부 비만 환자들의 전립선암 발생률도 높게 나왔다. 50대 남성, 만성질환, 복부 비만이 전립선암 3대 고위험군으로 꼽혔다. <br/> <br/>대한비뇨기과학회와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2017 한국인 전립선암 발생 현황’을 5일 발표했다. 2006~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연령 소득 동반질환별 전립선암 발생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br/> <br/>분석 결과 전립선암 발병은 10년 전 대비 50대가 55%, 60대는 37%, 70대는 24%, 80대는 14% 증가했다. 특히 50대 남성의 전립선암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다른 연령대 대비 50대에서 전립선암 증가폭이 큰 이유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조기 발견을 위해 50대의 전립선암 정기검진이 더욱 강화돼야 함을 보여준다. <br/> <br/> <br/>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도 전립선암을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질환과 전립선암 발생률을 분석했더니 고혈압 환자는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1.45배 높았다. 고혈압 있는 남성의 경우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br/> <br/>당뇨병 환자는 1.29배,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1.4배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았다. 현재까지 만성질환과 전립선암 발생간의 상관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만성질환을 가진 국내 환자에서 전립선암 발생이 더 많다는 것은 이들 환자에서 전립선암에 대해 각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br/> <br/>아울러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복부비만 남성이라면 전립선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부 둘레가 90cm 이상인 비만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1.32배 높았다. <br/> <br/> <br/>조진선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회장(한림대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연령, 동반질환 등 고위험 요소가 있는 이들에게는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전립선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전립선을 둘러싼 지방이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연구 보고 등이 있는 만큼,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는 비만 예방 및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식생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r/> <br/>홍성후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홍보이사(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도 “<span class='quot0'>전립선암은 조기 검진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전립선 내에 국한된 전립선암의 경우 생존율이 100%에 달하지만 전립선을 벗어난 진행암인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42.1%로 크게 떨어진다</span>”고 말했다. <br/> <br/>다음은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권고하는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 <br/> <br/>1.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채소 섭취 <br/> <br/>2. 일주일 중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 <br/> <br/>3.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적정체중을 유지 <br/> <br/>4. 5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전립선암 조기검진 <br/> <br/>5.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연 1회 전립선암 조기검진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2.txt

제목: 전립선암 위험요인은 '나이'… 50대 남성 고위험군  
날짜: 20171205  
기자: 최민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5105844001  
ID: 01100201.20171205105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립선암 3대 고위험군으로 50대 이상, 복부비만,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꼽혔다. <br/> <br/>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20세 이상 성인 남성 전수의 연령, 소득, 동반질환별 전립선암 발생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br/> <br/> <br/> <br/>분석 결과 50대 남성에서 전립선암 증가율이 타 연령에 비해 높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복부비만이 있는 남성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다. 이에 학회는 이들을 전립선암 3대 고위험군으로 꼽고 주의를 당부했다. <br/> <br/>전립선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나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전립선암 발생 및 유병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립선암은 40세 이하의 남성에서는 드물다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60세 이후 급격히 늘어난다. <br/> <br/>전립선암은 10년 전 대비 50대는 55%, 60대는 37%, 70대는 24%, 80대는 14%가 증가해 50대 남성의 전립선암 증가폭이 가장 컸다. 다른 연령대 대비 50대에서 전립선암 증가폭이 큰 이유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조기 발견을 위해 50대의 전립선암 정기검진이 더욱 강화돼야 함을 시사한다. <br/> <br/>동반질환과 전립선암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 환자는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1.45배 더 높았다. 고혈압이 있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당뇨병 환자는 1.29배, 이상지질혈증 환자 는 1.4배 더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았다. <br/> <br/>현재까지 만성질환과 전립선암 발생간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만성질환을 가진 국내 환자에서 전립선암 발생이 더 많다는 것은 이들 환자에서 전립선암에 대해 각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 <br/>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복부비만 남성은 전립선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만 여부에 따른 전립선암 발생 여부 결과 복부 둘레 90㎝ 이상의 복부 비만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1.32배 더 높았다. <br/> <br/>조진선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회장(한림대 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연령, 동반질환 등의 고위험 요소가 있는 이들에게는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전립선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전립선을 둘러싼 지방이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연구 보고 등이 있는 만큼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는 비만 예방 및 적정 건강 체중 유지를 위한 식생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홍성후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홍보이사(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전립선암은 조기검진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환으로 전립선 내에 국한된 전립선암의 경우 생존율이 100%에 달하지만 전립선을 벗어난 진행암인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42.1%로 크게 떨어진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3.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38) 대장항문질환 전문 대항병원] 조기대장암 ‘내시경 이용 제거’ 국내 최다 시술  
날짜: 20171205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5050355001  
ID: 01100201.20171205050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과 항문, 특히 항문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곳이다. 병이 생겨도 감추고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찾아 치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그릇된 정보와 뜬소문을 좇아 잘못된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잖다. <br/> <br/> 모든 병이 그렇듯이 대장항문질환도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쉽고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을 느끼면 지체 없이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방문, 조기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 대항병원(병원장 김도선·대장항문외과 전문의)은 이럴 때 꼭 필요한 전문병원이다. 대장항문 부위에 말 못할 병이 생겼을 때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요즘처럼 추위가 시작될 때 도지기 시작하는 치질(치핵)에서부터 치명적인 대장암에 이르기까지 대장항문질환 전문가들의 집합체로 입소문이 나 있다. <br/> <br/> “의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진단에서부터 수술, 항암치료에 이르기까지 주치의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는 ‘일대일(1:1) 전담 주치의 시스템’으로 더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대항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글 중 일부이다. 대항병원은 이 외에 전문 코디네이터가 대장항문질환에 관한 고민을 언제든지 해결해주는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환자편의제일주의 및 고객중심 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br/> <br/> 치질수술 후 재발률 0.5% 미만 <br/> <br/> 대장항문질환 수술 시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재발이다. 그러나 대항병원 의료진의 치질 수술 후 재발률은 0.5% 미만에 그친다. 대항병원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수술 후 재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br/> <br/> 그만큼 환자들의 믿음과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한번 받아본 이들은 으레 ‘평생고객’이 되고, 다른 환자를 자진해서 소개하는 홍보전령이 된다. <br/> <br/> 대항병원 김도선 병원장은 4일 “<span class='quot0'>단순한 치질도 원형 자동문합기(PPH), 치핵절제술, 고무밴드결찰술, 경화요법 등 여러 치료법 중 최적의 환자 맞춤 치료법을 골라 치료효과를 극대화해온 덕분</span>”이라고 말했다. 대항병원은 특히 항문수술 후 통증을 최소화해주는 치질 치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 동시에 위·대장내시경 검사 진행 <br/> <br/>대항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대장내시경 검사와 동시에 용종 절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장내 물혹의 일종이다. <br/> <br/> 타병원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 시 이런 용종이 발견되면 절제수술 일정을 따로 잡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환자는 장을 두 번 비워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br/> <br/> 하지만 대항병원에선 용종 발견 즉시 바로 절제수술까지 진행하는 원스톱 대장용종 진료 시스템을 가동해 환자 편의를 높여주고 있다. <br/> <br/> 이 원칙은 검사 도중 진행형 대장암이 발견됐을 때도 거의 똑같이 지켜진다. 이때는 즉각 대장암센터와의 협진체계를 작동시켜 환자맞춤 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만 달라질 뿐이다. <br/> <br/> 대항병원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소화기내과 의료진과 협력해 위내시경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br/> <br/> 조기대장암, 내시경만으로 치료 <br/> <br/> 대항병원은 2011년 8월 내시경점막하절제술(ESD) 시술 1000건을 세계 최초로 돌파했다. 이후 현재까지 시술건수는 총 2500여건에 이른다. 국내 최다 시술실적이다. 2009년에는 크기가 무려 14㎝나 되는 거대 용종을 잘라내는 데 이 치료법을 적용, 성공을 거뒀다. <br/> <br/> ESD 시술이란 한마디로 조기대장암을 수술 없이 특수 내시경만으로 제거하는 비(非)수술요법을 가리킨다. 조기대장암은 암세포가 근육층까지 파고들지 않고 대장 점막 또는 점막하층까지만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br/> <br/> 이 경우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환부까지 삽입해 용종을 잘라내듯 암을 도려내는 특수 내시경 시술이 ESD다. 외과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 없고, 수술 흉터도 남지 않는 게 장점이다. <br/> <br/> 조기대장암이라도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로 제거하면 적어도 7∼1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하지만, ESD 시술로 대체하면 3∼4일 후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br/> <br/> 대장암 복강경수술 성공률도 높아 <br/> <br/> 대항병원은 복강경 대장암 수술에서도 국내 대학병원 암센터들과 대등한 성적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대장암 2, 3기 수술 성공률이 각각 96%, 85%에 이르기 때문. <br/> <br/> 대항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장암 적정성 평가’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에서도 최우수 1등급 평가를 받았다. <br/> <br/> 대항병원은 2001년 국내 최초로 탈장전문치료센터도 개설,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25㎜정도만 피부를 절개하고 시술하는 무통·무흉 탈장 치료법을 개발, 탈장 환자들을 돕고 있다. 최소 절개로 흉터가 적고 입원 및 회복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br/> <br/> 1% 나눔 봉사 운동 전개 ‘훈훈’ <br/> <br/> 대항병원은 ‘봉사 속의 사랑’이라는 비전을 갖고 사회소외계층 지원과 불우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 준다’는 뜻으로 결성한 봉사모임 ‘사랑나누미’다. 이 모임은 전 임직원이 다달이 급여의 1%씩을 떼어 모으는 기부금과 병원 측 출연금을 더해 불우이웃 및 환자 돕기 성금으로 사용하는 ‘사랑나누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4.txt

제목: 국내 첫 폐암 진행 막는 한약 제제 나오나  
날짜: 20171204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4122444001  
ID: 01100201.201712041224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최초로 폐암 진행을 막아주는 한약 제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br/>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유화승 교수팀과 경방신약(주)이 공동 연구를 통해 폐암 치료 한약제제인 ‘삼칠충초정(HAD-B1)'의 국내 임상 2상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r/> <br/>삼칠충초정은 1740년 청나라 왕유덕이 지은 한의서 ‘외과증치전생집’에서 기원한 처방이다. 동충하초 인삼 등 8가지 한약재로 구성돼 있으며 폐암 환자에 오랫동안 암 증식 억제 및 표적 치료 약물 부작용 감소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br/> <br/>이번 연구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양성인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에 있어 1세대 표적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세대 표적 치료 약물인 ‘아피티닙’과 삼칠충초정을 함께 사용할 경우,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지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아피티닙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먹는 항암제다. <br/> <br/>폐암은 현재 암 발생률 및 사망률 1위다. 최근 표적 치료 항암제로 인해 치료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내성이나 부작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팀은 EGFR 중 돌연변이 폐암세포 H1975 세포를 이용해 삼칠충초정의 폐암 증식 먹제 및 표적 치료 약물의 부작용 감소 효능을 확인했다. 또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약물 안전성도 확인했다. <br/> <br/>연구결과 삼칠충초정은 폐암 증식과 관련되는 성장인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정상세포 증식과 관련되는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폐암의 진행을 막았다. 항암제 ‘아피티닙’과 동시에 사용할 때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br/>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유화승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폐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한약제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향후 의·한방 협력 연구를 통해 다기관 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최초 폐암 치료 한약제제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5.txt

제목: [국가의 역할로 본 ‘출산 2제’] 美, 자궁 이식 여성 출산 성공  
날짜: 20171204  
기자: 장지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4214955001  
ID: 01100201.201712042149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미국에서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이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했다. <br/> <br/>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베일러대 의료센터에서 자궁 없이 태어난 여성이 다른 여성으로부터 자궁을 이식받은 지 1년여 만에 출산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대학 측은 가족 요청에 따라 출산 여성의 신원과 아기의 성별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자궁 기증자는 이미 아이 둘을 낳은 36세 간호사라고 밝혔다. <br/> <br/> 그동안 영국 중국 일본 터키 등에서 자궁 이식 수술은 이뤄졌으나 출산까지 성공한 국가는 스웨덴밖에 없었다. 스웨덴에서는 예테보리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에서 2014년 처음 자궁 이식으로 출산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8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br/> <br/> 자궁 이식 출산은 선천적으로 자궁 없이 태어났거나 암 등 질병으로 자궁을 제거한 여성들이 임신을 원할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만 약 5만명의 자궁 이식 출산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로선 자연 임신은 불가능해 인공수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40주를 거의 채우는 경우가 드물고 32∼36주 사이에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이 이뤄졌다. <br/> <br/> 자궁 이식은 영구적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아기 1, 2명을 낳은 뒤 다시 제거됐다. 게다가 아직은 감염 등 문제로 자궁 이식 출산의 성공률은 높지 않다. 또 지금은 ‘실험 기금’에서 지원되지만 일반화되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진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자궁 이식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인공수정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미국에서는 2∼3개월 뒤로 기간을 단축했다. <br/> <br/>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6.txt

제목: [주간 브리핑] 경기 호조세, 내년에도 이어질까  
날짜: 20171204  
기자: 안규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4214455001  
ID: 01100201.20171204214455001  
카테고리: 경제>국제경제  
본문: 이번 주에는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기 동향을 진단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는다. 최근의 경기 호조세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br/> <br/> KDI는 오는 6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 4월 한국 경제가 올해에는 2.6%, 내년엔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5%로 올라섰던 것을 고려해 KDI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높여 잡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2%, 3.0%로 높였다. <br/> <br/> 앞서 한국은행은 5일 ‘10월 국제수지’와 ‘11월 말 외환보유액’을 공개한다. 지난 9월엔 수출이 늘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122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었다. 이와 같은 ‘서프라이즈’ 실적이 10월에도 이어졌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황금연휴에 따른 해외 관광객 증가로 적자가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원화 초강세’가 외환보유액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도 관심사다. <br/> <br/> 같은 날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과 사망확률 등을 담은 ‘2016년 생명표’를 내놓는다. 앞서 2015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1년으로 전년보다 0.3년 증가했고 앞으로 5대 사망원인 중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기획재정부는 8일 ‘2017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고 지난달의 우리 경제 수출·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진단한다. <br/> <br/>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7.txt

제목: [미래의학포럼] “인공지능, 병원간 편중 해소… 의료 평준화 이끌어 낼 것”  
날짜: 20171201  
기자: 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201193055001  
ID: 01100201.20171201193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앞으로 의사가 혼자 진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든 진료실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되는 날이 몇 년 안에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br/> <br/> 30일 열린 2017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병원추진단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진료 그리고 문재인케어’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길병원은 지난해 12월 암 진단용 인공지능 IBM 왓슨(Watson)을 도입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이후 5개 병원이 왓슨을 추가로 도입했다. <br/> <br/> 이 단장은 왓슨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 병원 간 편중 문제를 해소, 의료의 평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암환자 70%가 이른바 ‘빅4 병원’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가는 이유는 많은 경험을 보유한 만큼 실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빅4 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병원 쏠림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br/> <br/> 또 “수많은 환자 사례가 담긴 왓슨을 활용하면 진료의 정확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1년간 시행해보니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덧붙였다. <br/> <br/> 분야별 전문의들은 암환자 상태를 살펴보고 왓슨의 진단을 참고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단장은 “암환자당 30분의 진료가 이뤄진다. 반면 인공지능 진단에는 6명의 의사가 참여해 180분 진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 <br/> 문재인케어와 관련, 의료비가 새는 곳을 우선 막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장은 “문제는 이 비용을 나라가 감당할 수준인지 짚어봐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의료비를 막아야 한다”며 “일단 돈이 새는 부분을 막고 재정이 투입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글=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romeok@kukinews.com, 사진=윤성호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78.txt

제목: 불치병 앓던 30대 여성, 치과에서 이뽑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져  
날짜: 20171130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30123444001  
ID: 01100201.201711301234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불치병을 앓던 30대 여성이 치과에서 이를 뽑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 <br/> <br/>몸무게가 28㎏에 불과한 이 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골격근 위축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불치병 환자였다. <br/> <br/>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10분쯤 광주 한 대학 치과병원에서 A(34․여)씨가 썩은 이를 뽑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br/> <br/>병원 측은 119구급대를 불러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A씨를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으나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쯤 숨졌다. <br/> <br/>경찰은 A씨가 선천적으로 근육과 심장이 퇴화하는 근이영양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br/> <br/>A씨는 치아가 몇개 남지 않을 만아 식사 등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충치를 뽑는 치료를 하던 참이었다. <br/> <br/>2개월 전 유일한 혈육인 언니가 같은 병으로 숨진 후 A씨는 홀로 지내온 A씨는 앞서 같은 병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는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경찰은 A씨의 친척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br/> <br/>근이이양증은 진행성 근육 소모성 질환으로 가족력이 강한 유전성 불치병이다. <br/> <br/>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79.txt

제목: 암 극복 선진의료로 중입자선·수지상세포 백신치료 주목  
날짜: 2017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30104045001  
ID: 01100201.2017113010404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암 치료에 있어 선진의료로 화두가 되고 있는 중입자선 치료 그리고 최신의 세포치료, 수지상세포백신치료가 암 환자들 사이에서 화자되고 있다. <br/> <br/>이러한 치료들은 아직 국내에는 그 개념이 도입돼 있지 않았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진료 대상은 아니지만 선진적인 의료 기술 등에 대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 진료와의 병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장래의 보험도입을 위한 평가 대상인 의료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중입자 치료와 수지상세포 백신치료(세포치료)가 그 대상이다. <br/> <br/>중입자선 치료는 일본이 최초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암 치료방법이다. 일본 중입자 센타에서 보고되고 있는 중입자 치료 대상으로 등록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환자의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본의 중입자 치료를 가이드하고 있는 ㈜세렌코리아에서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문의하는 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수지상세포 백신치료는 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법으로 세포치료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암 치료방법을 말한다. 암은 면역계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체 내의 면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질병이다. 암을 공격하는 세포를 배양해서 치료하는 기존의 NK세포치료나 림프구활성화 치료가 있지만, 인체 내의 면역시스템 자체를 작동시켜주는 수지상세포(보스세포:면역사령관)를 이용한 수지상세포 백신치료가 최신의 세포치료이며, 특히 세렌클리닉 그룹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지상세포 백신치료의 경우, 여러 대학병원에서 임상이 이루어져 그 결과에 대한 연구논문이 세계의 유명한 의ㆍ과학 잡지에 실렸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십 편의 논문이 수지상세포 백신치료의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되어 인정받고 있다. <br/> <br/>중입자 치료는 전이가 없는 암 치료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는 재발/전이가 된 암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입자 치료와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병용해 치료할 경우, 업스코팔효과(Abscopal effect)를 기대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암 치료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br/> <br/>방사선 치료와 면역세포치료의 병용에 대한 논문이 최근 발표되고 있어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 경향이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80.txt

제목: [데스크시각-정승훈] 빅브라더? 빅데이터!  
날짜: 2017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30174355001  
ID: 01100201.20171130174355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사용자 몰래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호한 조치를 공언했다. 위치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구글은 새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익히 알려졌듯 구글은 10년쯤 전부터 검색어를 감시해 독감 발생을 추적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사용자들이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는 횟수 등을 분석해 독감의 유행 가능성 등을 보건당국보다 훨씬 빨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빨리 알고 빨리 경보를 내리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문제는 그런 정보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차지하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br/> <br/> 구글은 검색어 정보만 모으는 기업이 아니다. 구글 자회사인 베릴리는 미국인 1만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유전자와 운동, 수면습관 등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선 연구(Baseline Study)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4년간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와 센서 등으로 참가자들의 활동과 신체정보를 데이터로 축적한다. 구글 창업자의 전 부인이 설립한 바이오 기업 ‘23앤드미(23 and Me)’는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개인용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소비자들이 검사 키트를 구매해 자신의 타액을 용기에 담아 보내면 이 회사는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10가지 주요 질병에 걸릴 확률을 알려준다. 결과를 내놓는 근거가 그동안 어디에선가 축적했던 개인의 생체정보 빅데이터일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br/> <br/> 개인의 일상생활 대부분이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대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궁무진하다. 구글 외 애플·아마존·페이스북이나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집한다. 거대 기업을 ‘빅브라더’로 경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br/> <br/> 따지고 보면 개인의 생체정보와 관련한 최고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우리 정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체계는 국민의 다양한 생체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게 암환자 관련 데이터다. 한국에선 암 확진 판정을 받으면 너나할 것 없이 민감한 환자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동의서를 쓴다. 암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5년간 제공하면 그 기간 동안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것은 병원과 의료진의 노력 외에도 이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건강보험체계가 큰 힘이 됐다. <br/> <br/> 빅데이터에 대한 고민은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로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경쟁력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대부분은 신상정보여서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는 지점이 많아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를 활용할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br/> <br/> 당장 공공기관 사이에도 서로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 그런데도 각 부처에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보다 먼저 빅데이터의 관할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언론이 빅데이터에 대해 ‘활용’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산업’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전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도 종합적인 빅데이터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br/> <br/>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저서 ‘호모 데우스’에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선 개인주의와 인본주의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전망이 현실화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미 빅데이터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철학의 문제가 됐다. <br/> <br/>정승훈 사회2부장 shju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81.txt

제목: 연명의료 시범사업 40일… 7명 ‘존엄한 죽음’ 택했다  
날짜: 20171129  
기자: 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공희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9073044001  
ID: 01100201.20171129073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한 환자가 지난 40일간 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은 가족 의견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됐다. 2명은 스스로의 의지로 치료를 멈췄다.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약 2200명에 육박했다. <br/> <br/>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전국 13개 기관에서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br/> <br/>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임종기·말기 환자가 대상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은 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는 10개 기관(중복 2개)에서 진행 중이다. <br/> <br/>존엄사를 택한 환자 7명 가운데 2명은 작성해둔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의 치료를 유보·중단했다.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치료를 멈춘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건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 중 2명 이상의 진술로 치료를 유보·중단했다. 자녀 2명이 “평소 부모님은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진술할 경우 앞으로도 치료 중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환자는 대체로 1주일 이내에 사망했다. <br/> <br/>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비교적 성과가 뚜렷했다. 시행 첫 주 203건에서 매주 100여건씩 늘어 5주째에는 한 주에 685건이나 작성됐다. 여성(69%)이 남성(31%)보다 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는 70대가 748건(34%)으로 많았다. <br/> <br/>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를 고려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달리 당장 임박한 임종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진행한 상담 건수는 총 44건인데 실제 계획서를 작성한 건수는 11건(사망자 2명 포함)에 그쳤다. 10명은 말기 암환자였고 1명은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자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사를 밝힌 환자는 보통 의사와 30분∼1시간이 소요되는 상담을 2∼3회 갖는다. <br/> <br/>복지부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 8일 위원회는 현재 4가지로 제한된 유보·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에 다른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임종기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명의료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의 시행을 2019년 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br/> <br/>아울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있는 말기환자는 의사 1명의 판단으로도 임종과정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결했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개정안 준비 작업과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별도 수가 개발,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법 시행을 위한 체계 정비를 위해 시범사업 종료일인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작성할 수 없다. <br/> <br/>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82.txt

제목: 연명의료 시범사업 40일… 7명 ‘존엄한 죽음’ 택했다  
날짜: 20171129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9050556001  
ID: 01100201.201711290505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임종문화 달라지나 <br/> <br/>2명은 본인·5명은 가족 결정으로 <br/>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br/> <br/>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br/>눈에 띄게 늘어 2200명 육박 <br/> <br/>복지부, 존엄사 기준 완화한 <br/>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추진 <br/> <br/>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한 환자가 지난 40일간 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은 가족 의견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됐다. 2명은 스스로의 의지로 치료를 멈췄다.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약 2200명에 육박했다. <br/> <br/>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전국 13개 기관에서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br/> <br/>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임종기·말기 환자가 대상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은 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는 10개 기관(중복 2개)에서 진행 중이다. <br/> <br/> 존엄사를 택한 환자 7명 가운데 2명은 작성해둔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의 치료를 유보·중단했다.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치료를 멈춘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건은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 중 2명 이상의 진술로 치료를 유보·중단했다. 자녀 2명이 “평소 부모님은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진술할 경우 앞으로도 치료 중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환자는 대체로 1주일 이내에 사망했다. <br/> <br/>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비교적 성과가 뚜렷했다. 시행 첫 주 203건에서 매주 100여건씩 늘어 5주째에는 한 주에 685건이나 작성됐다. 여성(69%)이 남성(31%)보다 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는 70대가 748건(34%)으로 많았다. <br/> <br/>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를 고려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달리 당장 임박한 임종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진행한 상담 건수는 총 44건인데 실제 계획서를 작성한 건수는 11건(사망자 2명 포함)에 그쳤다. 10명은 말기 암환자였고 1명은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자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사를 밝힌 환자는 보통 의사와 30분∼1시간이 소요되는 상담을 2∼3회 갖는다. <br/> <br/> 복지부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 8일 위원회는 현재 4가지로 제한된 유보·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에 다른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임종기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명의료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의 시행을 2019년 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br/> <br/> 아울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있는 말기환자는 의사 1명의 판단으로도 임종과정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결했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개정안 준비 작업과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별도 수가 개발,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 법 시행을 위한 체계 정비를 위해 시범사업 종료일인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작성할 수 없다. <br/> <br/>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83.txt

제목: 요즘 한국당 고민은 ‘洪의 거친 입’  
날짜: 20171129  
기자: 하윤해 이종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9050155003  
ID: 01100201.20171129050155003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나경원 “혁신의 큰 걸림돌” <br/>한선교 “도 넘긴지 오래됐다” <br/>‘反洪 전선’ 현실화 분위기 <br/> <br/>홍 “보수 팔아 선수만 채운 <br/>사람들이 당 대표 팔아” <br/> <br/>요즘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고민은 홍준표 대표의 거친 말이다. 홍 대표의 ‘막말’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홍 대표 측은 “<span class='quot0'>홍 대표가 사용하는 정치 언어가 솔직하고 직설적일 뿐인데 내용을 새겨듣지 않고 막말이라고 덧칠해 비난부터 한다</span>”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r/> <br/> 나경원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span class='quot1'>지금 보수의 혁신과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 대표의 막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막말을 더 이상은 인내하기 힘들다</span>”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초반부터 홍 대표는 겁박과 막말로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span class='quot2'>바퀴벌레로 시작해 이젠 암 덩어리, 더 나아가 고름이란 막말까지 나오고 말았다</span>”며 “<span class='quot2'>모른 척하고 넘기기엔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긴 지 오래됐다</span>”고 주장했다. <br/> <br/> 홍 대표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친박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까지 홍 대표 공격에 가세한 것이다. ‘반홍 전선’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홍 대표는 이들의 비난에 대해 “<span class='quot0'>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보수 팔아 선수(選數)만 채운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당대표 팔아 원내대표 하겠다고 나서는 것</span>”이라며 독설로 응수했다. 나 의원과 한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자신을 비난한 것이라고 깎아내린 것이다. <br/> <br/> 홍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돼지 발정제’ 논란으로 홍역을 겪었다. 한국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친박을 겨냥해 ‘바퀴벌레’ ‘계파의 개’ ‘암 덩어리’ ‘고름’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비박(비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span class='quot2'>친박 청산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홍 대표의 거친 입도 거부감을 자아낸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에 대해 홍 대표의 한 측근은 “홍 대표는 이해하기 쉬운 명쾌한 언어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친박 등이 자기 살 궁리를 위해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측근은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조언해도 홍 대표가 듣지 않는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br/> <br/> 홍 대표는 또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의 개명 과정을 설명하며 “<span class='quot0'>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분이 자기가 내 이름을 개명해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span>”라고 주장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예정인 이주영 의원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당초 홍 대표가 청주지검 초임 검사 시절 개명하는 데 청주지법 판사였던 이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span class='quot2'>홍 대표가 자꾸 적을 늘린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한국당은 다음달 12일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선거 날짜와 관련해 홍 대표는 7일을, 정우택 원내대표는 15일을 각각 주장하며 감정싸움을 벌여 왔다. “<span class='quot3'>당 투톱이 사소한 것으로 다툰다</span>”는 비난이 거세지자 12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br/> <br/>글=하윤해 이종선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84.txt

제목: 요즘 한국당 고민은 ‘홍준표의 거친 입’  
날짜: 20171129  
기자: 하윤해 이종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9050044001  
ID: 01100201.20171129050044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요즘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고민은 홍준표 대표의 거친 말이다. 홍 대표의 ‘막말’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홍 대표 측은 “<span class='quot0'>홍 대표가 사용하는 정치 언어가 솔직하고 직설적일 뿐인데 내용을 새겨듣지 않고 막말이라고 덧칠해 비난부터 한다</span>”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r/> <br/>나경원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span class='quot1'>지금 보수의 혁신과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 대표의 막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막말을 더 이상은 인내하기 힘들다</span>”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초반부터 홍 대표는 겁박과 막말로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br/> <br/>한선교 의원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span class='quot2'>바퀴벌레로 시작해 이젠 암 덩어리, 더 나아가 고름이란 막말까지 나오고 말았다</span>”며 “<span class='quot2'>모른 척하고 넘기기엔 홍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긴 지 오래됐다</span>”고 주장했다. <br/> <br/>홍 대표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친박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까지 홍 대표 공격에 가세한 것이다. ‘반홍 전선’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홍 대표는 이들의 비난에 대해 “<span class='quot0'>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보수 팔아 선수(選數)만 채운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당대표 팔아 원내대표 하겠다고 나서는 것</span>”이라며 독설로 응수했다. 나 의원과 한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자신을 비난한 것이라고 깎아내린 것이다. <br/> <br/>홍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돼지 발정제’ 논란으로 홍역을 겪었다. 한국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친박을 겨냥해 ‘바퀴벌레’ ‘계파의 개’ ‘암 덩어리’ ‘고름’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비박(비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span class='quot2'>친박 청산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홍 대표의 거친 입도 거부감을 자아낸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홍 대표의 한 측근은 “홍 대표는 이해하기 쉬운 명쾌한 언어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친박 등이 자기 살 궁리를 위해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측근은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조언해도 홍 대표가 듣지 않는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br/> <br/>홍 대표는 또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의 개명 과정을 설명하며 “<span class='quot0'>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분이 자기가 내 이름을 개명해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span>”라고 주장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예정인 이주영 의원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당초 홍 대표가 청주지검 초임 검사 시절 개명하는 데 청주지법 판사였던 이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 대표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span class='quot2'>홍 대표가 자꾸 적을 늘린다</span>”고 지적했다. <br/> <br/>한국당은 다음달 12일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선거 날짜와 관련해 홍 대표는 7일을, 정우택 원내대표는 15일을 각각 주장하며 감정싸움을 벌여 왔다. “<span class='quot3'>당 투톱이 사소한 것으로 다툰다</span>”는 비난이 거세지자 12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br/> <br/>하윤해 이종선 기자 justic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85.txt

제목: [일과 신앙] 하나님 은혜로 7전8기… “빵터졌어요”  
날짜: 20171129  
기자: 춘천=글·사진 전병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9000555003  
ID: 01100201.20171129000555003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강원도 춘천의 빵집 ‘유동부 치아바타’를 운영하는 유동부(48) 대표는 칠전팔기의 주인공이다. 7번 사업이 망했고, 아들은 암에 걸렸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끝내 재기했다. 지난 23일 이 빵집을 찾았다. 암과 사투(死鬪)했던 아들 태정(22) 씨는 건강을 회복해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다. <br/> <br/> 유 대표의 학력은 중학교 2학년 중퇴다. 난봉꾼인 아버지가 무서워 집을 뛰쳐나와 전남 순천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다. 3년간 구로공단의 연탄보일러를 만드는 철공소에서 일하다 제빵기술을 배우려고 춘천 빵집 ‘만나당’을 찾았다. <br/> <br/> 그곳에서 1년간 기술을 배워 경기도 광명에 제과점을 냈다. 그러나 망했다. 슈퍼마켓을 차렸다가 또 망했다. 책 대여점, 우유대리점, 제과점, 조각케이크 제조업, 베이커리 카페를 순서대로 차렸다 다 망했다. 2014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정씨가 흉선암에 걸렸다. <br/> <br/> “<span class='quot0'>그땐 방법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었습니다.</span>” 절체절명의 위기를 회상하는 유 대표의 눈엔 습기가 어렸다. <br/> <br/> 그런데 그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춘천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를 같이 섬기던 성도가 “제빵 기술로 재기하라”며 자기 카페 안의 작은 공간을 내줬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 위 테이블이었다. <br/> <br/> 치아바타를 생각하게 된 건 그 즈음이었다. 방사선 치료를 받던 아들이 “빵이 너무 먹고 싶다”고 했다. 먹으면 탈이 날줄 알았지만 너무 간절해 햄버거를 먹게 뒀다. 아들은 먹자마자 온몸을 긁었다. 긁다 못해 때렸다. 그때 아들 같은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빵이 어디 없을까 생각했다. <br/> <br/> 수소문 끝에 치아바타를 알게 됐다. 치아바타는 설탕과 버터를 쓰지 않는 건강빵이다. 밀가루와 물, 소금만 사용해 7일간 저온 숙성한다. 유 대표는 러시아와 호주산 유기농 밀을 사용하고 과일의 과즙을 이용해 단맛을 냈다. 이를 통해 몸에는 좋지만 맛이 없다는 치아바타의 단점을 보완했다. <br/> <br/> 2014년 6월 19일 첫 번째 빵을 아들에게 건넸다. 이를 먹은 태정씨는 괜찮았다. 같은 교회의 아토피·당뇨 환자에게도 줬다. 이들 모두 아무렇지도 않았다. <br/> <br/> 유 대표는 그 테이블에서 치아바타를 만들어 팔았다. 2년여가 지나자 입소문이 났다. 특히 아토피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 ‘유동부 치아바타’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강원민방과 SBS, KBS1 등 공중파가 이 빵집을 소개했다. <br/> <br/> 주문이 폭주했다. 매장은 165㎡(50평)대로 옮겼다. 새벽예배 때문에 오전 판매를 포기하고 오후부터 빵을 내놓지만 하루에 빵 800∼1000개를 팔았다. 매출은 월 8000만원. <br/> <br/> 사업 목표를 묻자 그는 “신제품을 만들려는 시도가 곧 위기라는 인식으로 처음에 이 빵을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기억하고 그 뜻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는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춘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제빵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 <br/> <br/> 또 다른 간증도 재밌다. 그는 1988년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다. 2001년 어느 날 ‘내가 믿는 예수가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의문은 중학교 사회과부도를 통해 해결했다. “중고서점에서 연대표를 보게 됐는데 ‘BC4년 예수 탄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가 역사 속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을 가짜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br/> <br/>춘천=글·사진 전병선 기자 <br/> <br/>junb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86.txt

제목: 中 부패청산 가속… 중앙군사委 주임 조사 중 자살  
날짜: 20171129  
기자: 강창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9234755001  
ID: 01100201.20171129234755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장양(66) 주임(상장·한국의 대장급)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28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2기 체제의 부패청산 작업도 1기 못지않게 혹독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br/> <br/> 전직 광저우군 지휘관 측근에 따르면 장 주임은 지난 23일 오전 베이징 자택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 사실은 앞서 인민해방군 모든 지휘관에게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장 주임은 이미 숙청된 궈보슝,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부패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궈 전 부주석은 지난해 7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쉬 전 부주석은 2015년 군사재판을 앞두고 암으로 숨졌다. 두 사람 모두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그동안 보도된 장 주임의 혐의는 ‘심각한 기율 위반’이다. 이는 통상 부정부패를 완곡히 일컫는 표현이다. 지난 1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은 장 주임이 팡펑후이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상장)과 함께 지난달 30일 중앙군사위 청사에서 구금 상태로 조사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중앙군사위 위원 11명 중 2명의 동시 구금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당시 산케이는 전했다. <br/> <br/>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87.txt

제목: 나경원 “홍준표 고름·암덩어리 막말… 더이상 참기 어렵다”  
날짜: 20171128  
기자: 최민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153044001  
ID: 01100201.20171128153044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span class='quot0'>지금 보수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span>"이라고 밝혔다. <br/> <br/>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1'>어제도 홍 대표는 고름, 암덩어리의 막말을 쏟아냈다</span>"며 이 같이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원내대표 선거는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선택이 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구태·기득권·부패 등 당에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안보와 경제위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대한민국의 유능한 보수정당, 신뢰할 수 있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장이 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어 나 의원은 "<span class='quot0'>그러나 원내대표 선거 초반부터 홍 대표는 겁박과 막말로 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보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막말을 더 이상은 인내하기 어렵다</span>"고 비판했다. <br/> <br/>앞서 홍 대표는 27일 당 홍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친박(親박근혜)계를 향해 “<span class='quot2'>고름을 그대로 두고 상처를 그대로 두고 적당히 봉합해서 가게 되면 상처가 덧나지 않겠나</span>”라며 “<span class='quot2'>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암덩어리는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span>”고 비난했다. <br/> <br/>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88.txt

제목: ‘합법적 존엄사’ 시범사업 한달…말기환자 7명 연명치료 중단 사망  
날짜: 20171128  
기자: 백상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120045001  
ID: 01100201.2017112812004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환자나 가족이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7명의 말기 암환자가 존엄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이들도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크게 늘고 있지만 말기·임종기에 있는 환자들만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11건에 그쳐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br/> <br/>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를 실제로 중단한 사례는 7건으로 조사됐다. <br/> <br/> <br/> <br/> <br/> <br/>◇연명의료 중단 7건…아직 신중한 환자 많아 <br/> <br/>연명의료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을 통해 치료효과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을 말한다. 내년 2월부터는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제시된 4가지 또는 일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달리 의사가 환자의 뜻을 담아 작성한다. <br/> <br/>말기 환자나 환자가족들은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명의료계획서 상담을 받은 이는 44명이었지만 실제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었다. 이들 중 10명은 암환자였고, 1명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었다. <br/> <br/>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2건이었고,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이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가 1건이었다. <br/> <br/> <br/> <br/> <br/>◇‘웰다잉’ 관심 높아져…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0명 돌파 <br/> <br/>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1주차 203건에서 3주차 977건으로 늘었고, 5주째인 지난 24일 2197건으로 집계됐다. 여성(1515명, 69%)이 남성(682명, 31%)보다 배 이상 많았다. <br/> <br/>연령별로는 70대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570건)와 50대(38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충청, 대전에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br/> <br/>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지난 8일 연명의료결정법 상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법안 개정도 검토중이다. 권고사항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에 말기·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내에 회생이 어려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를 포함시키고,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br/> <br/>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의료기관 2곳과 비영리단체 3곳 등 5곳에 진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종합병원 7곳과 강원대병원 등 국공립 종합병원 3곳 등 10곳에서 관리하고 있다. <br/> <br/>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89.txt

제목: "항암치료 중 사우나 온천 삼가야"...림프부종으로 감각 떨어져 '화상 위험'  
날짜: 2017112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110244001  
ID: 01100201.201711281102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항암치료 바로 알면, 두렵지 않아요.</span>” <br/>대한종양내과학회(이사장 임영혁)가 매년 11월 26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선포하고, 항암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발벗고 나섰다.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이해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br/> <br/>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종양내과학회 주최 ‘제1회 항암치료의 날’ 선포식 이후 ‘토크 콘서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이어졌다. 항암치료에 대한 암 환자들의 궁금증을 대학병원 교수들이 풀어주는 시간이었다. <br/> <br/>Q1.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이대목동병원 이경은 교수) <br/> <br/>A :먼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술 전후로 완치를 위해서 받는 치료인지, 완치는 어렵지만 삶의 질을 조절하고 생존 기간을 늘리기 위한 치료인지입니다. <br/> <br/> 수술 전후로 받는 치료의 경우, 근거중심 의학에 의해서 여행사 패키지처럼 치료 패키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적 국제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병을 완치하기는 어렵지만 조절해서 잘 살겠다 하는 의미로 검사를 할 때는 2주기, 3주기, 4주기 같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br/>항암제는 암을 일정 비율씩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기에서 4주기, 보통 두 달 전후로 CT를 보는데 CT를 통해서 항암치료 전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br/> <br/>Q2. 유방암 치료 중입니다. 항암치료 후 머리가 예전처럼 다시 자라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이대목동병원 이경은 교수) <br/> <br/>A: 유방암 환자가 탈모를 많이 겪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항암 환자에게 탈모는 항암치료 입문단계라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암제는 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에는 비교적 빠르게 분화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모근세포, 장 점막세포, 혈액세포 입니다. 항암제가 몸에 들어가면 이들 세포가 덩달아 분열에 장애를 받습니다. 모근세포가 장애를 받을 때 탈모가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다른데, 같은 항암제라도 사람에 따라 또는 항암제에 따라서 발생 시점은 다르지만 치료 개시 2-3주 차에 탈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탈모 정도는 약제마다 다른데 의학적인 기준에는, 50% 미만이 빠지는지 50% 이상이 빠지는지를 항암제 독성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br/>  <br/>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30%만 빠져도 베개나 세면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엄청 빠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탈모는 항암치료에 어느 정도 따라오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제에 따라 좀 빠지다 마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유방암의 경우 거의 100% 탈모가 옵니다. <br/> <br/> 회복은 당연히, 무조건 됩니다. 모든 항암치료 종결 후 2개월 지난 후부터 자라기 시작해 6개월에서 1년이면 가발 없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자랍니다.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는 신체적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정서적, 감정적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서로 위로 해주면서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부작용입니다. <br/> <br/>Q3. 돼지고기, 소고기 먹어도 되는지, 먹어선 안되는 음식이 있는지? 건강보조식품과 관련, 복용에 문제 없는지?(답변: 화순전남대병원 조상희 교수) <br/> <br/>A: 먹는 것은 환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염두에 두실 것은 혈액암과 고형암에 있어서 면역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따라서 골수이식이나 고용량 항암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날 것을 드시지 않는 게 좋지만, 대부분의 고형암 치료는 면역계를 많이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암이 아닌 나머지 분들은 고기를 포함한 모든 과일, 모든 음식 다 드셔도 되고, 밀가루 음식도 다 드셔도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br/> <br/> 다만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 장기 일부분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똑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으면 설사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셔보시고 탈이 있는 종류나 조리법은 피하고, 괜찮다면 다 드셔도 됩니다. 식욕이 떨어질 경우 좋아하던 음식 찾아먹는 것이 오히려 식욕을 빨리 되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 거지만, 본인이 복용하는 항암제가 얼마나 면역계를 파괴하는 것인지는 담당 종양내과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br/> <br/> <br/> <br/>Q4. 독감 예방접종,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답변: 경상대병원 이경원 교수) <br/> <br/>A: 감염내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암 치료 하는 암환자들도 반드시 계절성 독감백신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계절성 독감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br/> 왜 암 환자들에게 왜 백신을 권고 하냐면, 주로 면역 저하자들의 경우 계절성 독감이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백신을 맞아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이 환자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독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해서 권고하고 있다. 백신 접종 시점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br/> <br/>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13가와 23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3가를 먼저 맞도록 권고하고 있고 12개월 지나서 23가 맞도록 감염내과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br/> <br/>마지막으로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MMR등 생백신을 맞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고, 항암제 치료 중단 후에도 전문의와 상의하여 접종이 필요합니다. <br/> <br/>Q5. 항암화학요법이 무척 힘들다고 하는데, 치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답변: 화순전남대병원 조상희 교수, 경상대병원 이경원 교수) <br/> <br/>A: 대개의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탈모와 구토 입니다. 종양내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탈모가 두렵다면, 탈모가 덜한 약제부터 제안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요청에 최대한 맞는 약제를 선택해서 좋은 치료성과가 날 수 있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의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언제든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고민을 말씀하시면 최대한 항암치료를 쉽게,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 <br/> <br/>Q6. 면역항암제 관련 질문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언제까지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 경상대병원 이경원 교수) <br/> <br/>A" 면역항암제는 반응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지금의 가이드라인입니다. <br/> <br/> <br/> <br/>Q7. 항암치료 중인 환자분께서 항암치료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약을 투여할 때는 괜찮은데 한 번이라도 약을 복용 안 하면 힘들다고 하시면서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함을 호소하십니다. (답변: 화순전남대병원 조상희 교수) <br/> <br/>A: 약 용량은 적정 수준 이상을 먹어야 유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암제가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면 제 용량을 제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복용이 어려우시면, 적정 선상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량 결정은 종양내과 전문의와 직접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r/> <br/> <br/> <br/>Q8. 담도암을 앓고 6년이 지났습니다. 설사와 복통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황발작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과 약도 복용 중입니다.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이대목동병원 이경은 교수) <br/> <br/>A: 담도암을 앓고 6년이 지났다면,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치료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br/> 우리가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5년이 지나면 암 재발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담도암 치료 후 6년이 지났으면 비교적 훌륭하게 관리를 잘하신 것입니다. <br/> 담도암의 특성상 수술을 크게 했을 수 있고 방사선 치료도 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와 복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증상을 겪을 때마다 혹시 재발인가 싶은 생각을 하는 습관이 생겨서 정신적 어려움까지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 환우 분들도 항암치료 경과를 보기 위해서 검사 받고, 의사를 만나기까지 3-4일이 더 걸리는데, 검사 후에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후에 의사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3개월 잘 지내시고 다음 검사 때가 되면 또 두려워하십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안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주변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본인이 힘든 부분은 정신과 도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정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br/> <br/> <br/> <br/>Q9. 자궁경부암으로 투병 중이신 환자분께서 목욕탕 또는 수영장에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답변: 이대목동병원 이경은 교수) <br/> <br/>A: 수영장 가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우나, 목욕탕, 온천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상인도 사우나 또는 목욕탕에서 너무 뜨거우면 현기증이 날 수 있는데, 항암치료 받은 분께서 이런 이유로 2차 부상을 당하면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꼭 사우나나 목욕탕을 가야 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가시기를 권합니다. 항암치료 후 림프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부종은 완치가 어렵고, 조절이 쉽지 않은데 림프부종이 있을 경우 감각이 떨어져 화상을 입어도 잘 모를 수 있고,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탕은 림프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br/> <br/> <br/>Q10. 다발성골수종 환자입니다. 자가 골수이식 안 하면 안됩니까? (답변: 경상대병원 이경원 교수) <br/> <br/>A: 가이드라인에서는 65세 미만 젊은 다발성골수종 환자는 자가골수이식을 먼저 시도해보게 되어있고, 그 이상 연령에서는 자가 골수이식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br/> <br/>우리나라는 다발성골수종환자가 초반에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유럽에 비해 적습니다. 자가골수이식을 하더라도 초반에 약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좋은 치료제 처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의사 입장에서 아쉬운 점입니다. 자가골수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 해 보시길 권합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90.txt

제목: 수술 어려운 재발성갑상선암도 고주파 앞에선 기 죽는다!  
날짜: 2017112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101444001  
ID: 01100201.20171128101444001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사진]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백정환 교수가 갑상선암이 목에 재발한 환자를 고주파절제술로 치료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br/>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김모(65) 씨는 2013년 갑상선유두암으로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후 2년간은 재발 없이 잘 지냈지만, 지난 해 봄 갑자기 갑상선 주변 목으로 암이 재발되었다.  <br/> <br/>암은 기관지까지 침범해 수술로 제거하기에는 위험한 상태였다. 의사의 권유로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김씨는 영상의학과에서 고주파와 방사선을 이용해 기관지까지 재발된 암을 잘 제거한 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br/> <br/>수술을 하지 않고 고주파로 갑상선에 생긴 양성 ‘혹’을 제거하는 고주파 절제술이 악성인 갑상선 재발암에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아산병원은 영상의학과 백정환 교수팀이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술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은 고령의 환자나 수술자체가 어려운 부위에 발생한 61개의 갑상선 재발암을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한 결과, 시술 후 종양의 크기가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br/> <br/>갑상선 재발암의 고주파절제술은 국소마취만 한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전극을 재발암에 정확하게 삽입한 후 고주파 전류를 통하게 되면 섭씨 100도 정도의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마찰열로 종양 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다. <br/> <br/>갑상선암이 수술 부위나 경부(목)에 재발했지만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 등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재수술이 어렵거나 환자가 외과적인 재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발암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br/> <br/>특히 신경이나 혈관들이 밀집해 있는 갑상선주변의 목에 발생한 갑상선 재발암에서의 고주파절제술은 갑상선 안에만 국한된 양성종양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암조직만을 파괴해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고난도의 치료 기술이 요구된다. <br/> <br/>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백정환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목의 림프절에 갑상선암이 재발한 환자 39명에서 고주파절제술을 이용해 병변을 제거했다.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병변을 가지고 있어 치료한 총 종양의 개수는 61개였으며, 이들 종양은 치료 결과 종양의 크기가 평균 95% 감소했다. <br/> <br/>특히 최근에는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고주파나 에탄올 치료와 같은 영상중재시술이 갑상선 재발암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br/> <br/>이번 연구에서도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재발암을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령자는 92세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고주파 치료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 <br/> <br/>또한 갑상선암이 기관지를 침범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목 밖으로 재발암이 튀어나와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 갑상선암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조절하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인 치료법이라 할지라도, 갑상선 주변에 지나가는 여러 주요혈관, 신경과 같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쉼’, ‘통증’과 같은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치료받은 모든 환자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br/> <br/>백 교수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의 재발암 환자 등 수술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최근 고주파 절제술은 갑상선 재발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br/> <br/>갑상선 재발암에서 고주파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선도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 혹은 다른 기저 질환으로 수술이 위험하거나, 재발한 환자들의 경우 고주파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91.txt

제목: [And 건강] 암 4기 말기 “포기하지 마세요”  
날짜: 20171128  
기자: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072744001  
ID: 01100201.201711280727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태석(72)씨는 2002년 날벼락 같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폐암 4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항암치료에 들어갔지만 힘들어 '이러다 암세포보다 먼저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럭저럭 항암치료를 견뎌냈는데, 암이 전혀 줄지 않아 절망감은 더 컸다.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의사에게 "공기 좋은 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겠다"고 통보했다. <br/> <br/>그때 담당 의사가 표적 항암제가 새로 나왔다며 임상시험 참여를 권했다. 이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았다.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치료제다. 구토나 탈모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br/> <br/>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몇 년 후 암이 CT 영상에서 사라진 걸 확인했다. 이씨는 이후 직장생활과 봉사·종교 활동을 하며 15년째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br/> <br/>2005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A씨(38·여)는 5년 뒤 검진에서 폐와 간까지 암이 퍼진 4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사로부터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말기’라며 낙담해 이를 거부했다.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3년 후 배에 복수가 차는 증상으로 병원에 다시 왔다. 암은 다른 장기로 심하게 번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주치의는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6개월간 항암치료를 진행했고 종양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현재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정상생활하고 있다. <br/> <br/>이씨와 A씨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 주최로 열린 1회 항암치료의 날(매년 11월 26일) 선포 행사에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암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례로 소개됐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조금의 희망이라도 보려는 긍정적 마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span>”이라며 비슷한 처지의 암 환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의료진, 암환자 등 100여명은 아낌없는 박수로 격려했다. <br/> <br/>A씨 사례를 소개한 종양내과학회 임영혁(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암 4기는 말기(末期)가 아니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단계</span>”라면서 “<span class='quot1'>남은 수명이 3∼6개월 이내로 예측돼 수술·항암 등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하고 임종을 준비하는 말기와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암 4기 판정을 받으면 치료를 포기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span>”고 말했다. <br/> <br/>아주대병원 이현우 교수는 4년 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거부했던 B씨를 사례로 들었다. 암이 간까지 퍼졌지만 의료진은 B씨에게 항암치료를 권유했다. 표적 치료제로 암이 작아지면 간 절제 수술로 완치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득했지만 B씨는 공기 좋은 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 이 교수는 “B씨는 체중이 줄고 식사를 하지 못해 결국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지만 그땐 이미 폐와 복강 등 다른 장기까지 암이 번져 손쓸 수 없었다. 얼마 안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워했다. <br/> <br/> <br/> <br/>암 생존자 증가… 항암치료 불안·편견 여전 <br/> <br/>27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전국 단위 암 통계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생존하고 있는 암 경험자는 146만4935명에 달한다. 국민 35명 가운데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 후 살고 있다.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0%를 넘었다.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br/> <br/>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건 국가 암검진 제도 등을 통한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몸 속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과 싸우게 하는 치료제) 등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뛰어난 최신 항암치료법이 속속 등장해 완치에 이르는 환자들이 늘고 치료 과정에 삶의 질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다. <br/> <br/>하지만 항암치료에 대한 대중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항암치료가 효과적인 생명연장 수단임에도 여전히 불안과 편견으로 치료를 기피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도 한다. 종양내과학회가 최근 20∼59세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80.6%가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거나 들어봤어도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답했다. 또 항암치료 시 우려되는 점으로 64.6%가 ‘부작용’을 꼽았다. 7.2%는 “자연치유나 민간요법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br/> <br/> <br/> <br/>전문가들은 최근 일반 항암제의 경우도 식욕부진이나 구토, 통증 등 견디기 힘든 부작용을 90% 조절 가능한 약제가 나와 있어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말한다. 이현우 교수는 “<span class='quot2'>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암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나빠지는 건 암이 진행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최근 많이 개발되는 표적 항암제의 경우 구토나 탈모에 대한 염려가 없다. 다만 얼굴 피부에 가벼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나 이 또한 조절 가능하다. <br/> <br/>이 교수는 아울러 “<span class='quot2'>항암치료를 마다하고 자연요법이나 산삼약침, 한방치료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매달리다 상태가 나빠져 후회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자연요법을 받더라도 항암치료를 병행 해야지 아예 포기하면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br/> <br/>현재 개발 중인 항암 신약들은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 또는 조직 환경을 표적(타깃)으로 한다. 이런 표적 항암제의 경우 효과는 더욱 향상되고 독성은 낮아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암 치료 후 생존 가능성도 높여준다. 모든 암 종에서 표적 치료제 1∼2종이 개발돼 있다. <br/> <br/>최근 주목받는 면역 항암제는 폐암과 흑색종(피부암) 치료에 쓰이고 있으며 신장암 방광암 대장암 위암 등에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r/> <br/>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 <br/> <br/>항암 신약에 암 환자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점은 해결 과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의 82%는 항암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br/> <br/>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 지난해 암 환자 및 보호자 1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은 경제적 요인(37.3%)이었고 정신적(31.9%) 육체적(27.6%) 사회적(2.7%)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br/> <br/> <br/> <br/>특히 암을 진단받은 과거와 치료받는 현재의 어려움을 비교했더니 다른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반면 경제적 요인은 유일하게 증가했다(3.96점→4.14점, 최고 5점). 평균 암 치료 비용은 2877만원이었고 71.6%(2061만원)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암제 값으로 지출됐다. 암환자 10명 가운데 9명(95%)은 항암제 가격이 비싸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br/> <br/>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는 경제성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2년 넘게 거린다. 지난 10년간 등재된 307개 신약 중 항암제의 32%만이 2년 내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했다.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span class='quot3'>항암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발생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이 때문에 암 환자들이 메디컬 푸어(의료 빈곤층)로 전락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지난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기준 비급여 약제에 대한 선별 급여’(건강보험에 등재됐으나 투여 대상, 사용량 등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본인부담 발생) 방안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미 비급여로 쓰이고 있는 고가 항암제나 국내에 새로 들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는 치료제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빠져 있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2'>정부가 2022년까지 고가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정부 5년차여서 암 환자 메디컬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span>”고 전망했다. 항암 신약의 국내 허가와 동시에 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여주고 나중에 가격을 평가해 결정하는 ‘선(先)보험 등재, 후(後)평가’ 등 보장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92.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37)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 유방재건 성형수술에 ‘초음파절삭술’ 세계 첫 도입  
날짜: 2017112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050555001  
ID: 01100201.201711280505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인적 치료, 언제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애쓰는 의료진, 유방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기능 진료기관…. <br/> <br/>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유방암센터(센터장 박우찬·유방외과 교수)를 가리키는 수식어들이다. 허튼 표현이 아니다. 실제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는 해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방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br/> <br/> 이 센터에서 수술 받은 유방암 환자들의 5년 평균 생존율도 2003∼2007년 기준 95%에 이른다. 이는 2008∼2012년 기준 국내 전체 의료기관 평균치 91.3%보다 3.7%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89.2%(2004∼2010년), 일본의 89.1%(2003∼2005년)보다도 높다. <br/> <br/> 박우찬 유방암센터장은 27일 “<span class='quot0'>‘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의 진료’를 좌우명으로 삼아 환자와 가족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 도와온 덕분이라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아랫배 살 이용 유방재건성형 <br/> <br/>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유방 전(全)절제 수술보다 유방보존 수술을 선호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유방암 수술 중 유방 일부를 남겨둔 수술(65.9%)이 유방 전체를 제거한 수술(34.1%)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br/> <br/> 문제는 전절제술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다. 대개 암이 너무 크거나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퍼진 상태일 때다.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는 이 경우에도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아랫배 살만을 이용한 재건성형수술을 통해 유방을 되찾아줘 여성의 상징을 잃는 데 따른 상실감을 줄여주고 있다. 유방암은 암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수술 후 유방을 잃게 될 환자들의 상실감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br/> <br/> 보통 유방재건 성형수술은 환자 자신의 아랫배, 또는 등 근육을 떼어다 붙여주거나 유방보형물을 삽입해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br/> <br/>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 재건 시 대부분 환자 자신의 아랫배 지방조직만 떼어다 붙이는 방식을 고수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br/> <br/> 특히 성형외과 오득영 교수팀은 이 수술에 ‘초음파절삭술’을 도입, 수술시간을 90분가량 단축시키고 유방재건성형 효과도 배가시켜 호평을 받고 있다. 초음파절삭술이란 가위처럼 생긴 초음파절삭기를 칼처럼 사용, 조직을 정교하게 재단하는 수술법을 말한다. 일반 수술칼과 달리 절단과 동시에 지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 대장, 갑상선, 복강경 수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유방재건 성형수술에 적용하기는 세계적으로 오 교수팀이 처음이다. <br/> <br/> 유방암 환자 장기생존 예측모델 개발 <br/> <br/>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는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된 유방암 4기(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박우찬 센터장과 함께 일하는 유방외과 채병주 교수팀이 개발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 장기생존 예측모델’이 그것이다. <br/> <br/> 채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진단이 곧 사망선고로 여겨지기 쉬운 유방암 4기 환자들도 수술이 가능하고, 특히 겨드랑이 쪽으로 접근해 암을 도려낼 수 있을 때는 3년 생존율을 87.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br/> <br/> 유방암 4기 환자들의 5년 평균 생존율은 기껏해야 20∼3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같은 4기 환자라도 어떤 환자들은 더 오래 생존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br/> <br/> 채 교수팀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장기생존 유방암 4기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분모를 찾아 나섰다. 이어 1990∼2014년 사이 전이성(4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 2232명의 생존율을 치료방법에 따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유방 및 겨드랑이 쪽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A그룹)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B그룹)의 생존율이 큰 편차를 보였다. A그룹의 경우 62,6%가 3년 이상 장기 생존, B그룹 환자들보다 진단 및 치료 후 평균 31개월을 더 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br/> <br/> 채 교수는 이에 대해 “<span class='quot1'>전이성 유방암 환자라 하더라도 수술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유방 및 겨드랑이 쪽으로 암 절제수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 균형 있는 생활습관, 조기발견 노력 중요 <br/> <br/> 유방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술, 담배를 삼가고 균형 있는 식생활과 체중조절이 필요하다. 평소 주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동물성 지방섭취를 줄여 비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br/> <br/>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노력도 필요하다. 암이 생기더라도 일찍 발견하면 부분절제수술만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여성의 상징인 유방도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서다. <br/> <br/>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는 방문 당일 진찰과 동시에 유방촬영 및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까지 필요한 검사를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해주고 있다. <br/> <br/> 아시아 최초로 도입, 가동 중인 3차원 유방초음파 스캐너는 단 10분 만에 유방조직을 찍어 3D 입체 영상으로 유방 내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보여줘 유방암 조기발견에 도움을 준다. 이 검사로 유방암이 확실시 될 때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단층(PET-CT) 촬영 등과 같은 정밀검사(수술 전 검사)를 즉각 진행,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br/> <br/> 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40세 이후 유방암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경우엔 30대부터 관심을 갖고 유방암 정기검진을 일찍 시작하는 게 권장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93.txt

제목: [And 건강] 암 4기≠말기 “포기하지 마세요”… 항암치료 ‘편견과 진실’  
날짜: 20171128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050057002  
ID: 01100201.20171128050057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부작용 줄인 표적·면역 항암제 <br/>잘 몰라 치료 포기하는 환자 많아 <br/>항암 신약 사용 시기 놓치기 일쑤 <br/> <br/>항암제 건강보험 안돼 큰 부담 <br/>‘先 보험등재 後 평가’ 도입 등 <br/>보장성 높일 제도 보완 시급 <br/> <br/>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태석(72)씨는 2002년 날벼락 같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폐암 4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항암치료에 들어갔지만 힘들어 '이러다 암세포보다 먼저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럭저럭 항암치료를 견뎌냈는데, 암이 전혀 줄지 않아 절망감은 더 컸다.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의사에게 "공기 좋은 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겠다"고 통보했다. <br/> <br/> 그때 담당 의사가 표적 항암제가 새로 나왔다며 임상시험 참여를 권했다. 이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았다.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치료제다. 구토나 탈모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br/> <br/>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몇 년 후 암이 CT 영상에서 사라진 걸 확인했다. 이씨는 이후 직장생활과 봉사·종교 활동을 하며 15년째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br/> <br/>2005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A씨(38·여)는 5년 뒤 검진에서 폐와 간까지 암이 퍼진 4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사로부터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말기’라며 낙담해 이를 거부했다.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3년 후 배에 복수가 차는 증상으로 병원에 다시 왔다. 암은 다른 장기로 심하게 번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주치의는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6개월간 항암치료를 진행했고 종양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현재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정상생활하고 있다. <br/> <br/> 이씨와 A씨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 주최로 열린 1회 항암치료의 날(매년 11월 26일) 선포 행사에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암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례로 소개됐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조금의 희망이라도 보려는 긍정적 마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span>”이라며 비슷한 처지의 암 환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의료진, 암환자 등 100여명은 아낌없는 박수로 격려했다. <br/> <br/> A씨 사례를 소개한 종양내과학회 임영혁(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암 4기는 말기(末期)가 아니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단계</span>”라면서 “<span class='quot1'>남은 수명이 3∼6개월 이내로 예측돼 수술·항암 등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하고 임종을 준비하는 말기와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암 4기 판정을 받으면 치료를 포기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span>”고 말했다. <br/> <br/> 아주대병원 이현우 교수는 4년 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거부했던 B씨를 사례로 들었다. 암이 간까지 퍼졌지만 의료진은 B씨에게 항암치료를 권유했다. 표적 치료제로 암이 작아지면 간 절제 수술로 완치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득했지만 B씨는 공기 좋은 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 이 교수는 “B씨는 체중이 줄고 식사를 하지 못해 결국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지만 그땐 이미 폐와 복강 등 다른 장기까지 암이 번져 손쓸 수 없었다. 얼마 안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워했다. <br/> <br/> 암 생존자 증가… 항암치료 불안·편견 여전 <br/> <br/> 27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전국 단위 암 통계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생존하고 있는 암 경험자는 146만4935명에 달한다. 국민 35명 가운데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 후 살고 있다.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70%를 넘었다.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5년 넘게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br/> <br/>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건 국가 암검진 제도 등을 통한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몸 속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과 싸우게 하는 치료제) 등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뛰어난 최신 항암치료법이 속속 등장해 완치에 이르는 환자들이 늘고 치료 과정에 삶의 질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다. <br/> <br/> 하지만 항암치료에 대한 대중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항암치료가 효과적인 생명연장 수단임에도 여전히 불안과 편견으로 치료를 기피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도 한다. 종양내과학회가 최근 20∼59세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80.6%가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거나 들어봤어도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답했다. 또 항암치료 시 우려되는 점으로 64.6%가 ‘부작용’을 꼽았다. 7.2%는 “자연치유나 민간요법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br/> <br/> 전문가들은 최근 일반 항암제의 경우도 식욕부진이나 구토, 통증 등 견디기 힘든 부작용을 90% 조절 가능한 약제가 나와 있어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말한다. 이현우 교수는 “<span class='quot2'>많은 환자들이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암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나빠지는 건 암이 진행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 최근 많이 개발되는 표적 항암제의 경우 구토나 탈모에 대한 염려가 없다. 다만 얼굴 피부에 가벼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나 이 또한 조절 가능하다. <br/> <br/> 이 교수는 아울러 “<span class='quot2'>항암치료를 마다하고 자연요법이나 산삼약침, 한방치료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매달리다 상태가 나빠져 후회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자연요법을 받더라도 항암치료를 병행 해야지 아예 포기하면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현재 개발 중인 항암 신약들은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 또는 조직 환경을 표적(타깃)으로 한다. 이런 표적 항암제의 경우 효과는 더욱 향상되고 독성은 낮아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암 치료 후 생존 가능성도 높여준다. 모든 암 종에서 표적 치료제 1∼2종이 개발돼 있다. <br/> <br/> 최근 주목받는 면역 항암제는 폐암과 흑색종(피부암) 치료에 쓰이고 있으며 신장암 방광암 대장암 위암 등에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r/> <br/>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 <br/> <br/> 항암 신약에 암 환자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점은 해결 과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의 82%는 항암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br/> <br/>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 지난해 암 환자 및 보호자 1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은 경제적 요인(37.3%)이었고 정신적(31.9%) 육체적(27.6%) 사회적(2.7%)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br/> <br/> 특히 암을 진단받은 과거와 치료받는 현재의 어려움을 비교했더니 다른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반면 경제적 요인은 유일하게 증가했다(3.96점→4.14점, 최고 5점). 평균 암 치료 비용은 2877만원이었고 71.6%(2061만원)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암제 값으로 지출됐다. 암환자 10명 가운데 9명(95%)은 항암제 가격이 비싸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br/> <br/>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는 경제성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2년 넘게 거린다. 지난 10년간 등재된 307개 신약 중 항암제의 32%만이 2년 내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했다.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span class='quot3'>항암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발생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이 때문에 암 환자들이 메디컬 푸어(의료 빈곤층)로 전락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지난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기준 비급여 약제에 대한 선별 급여’(건강보험에 등재됐으나 투여 대상, 사용량 등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본인부담 발생) 방안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미 비급여로 쓰이고 있는 고가 항암제나 국내에 새로 들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는 치료제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빠져 있다. <br/> <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2'>정부가 2022년까지 고가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정부 5년차여서 암 환자 메디컬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span>”고 전망했다. 항암 신약의 국내 허가와 동시에 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여주고 나중에 가격을 평가해 결정하는 ‘선(先)보험 등재, 후(後)평가’ 등 보장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94.txt

제목: [오늘의 설교] 아모스, 평범함으로 일하다  
날짜: 2017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000055003  
ID: 01100201.20171128000055003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아모스 7장 10∼17절 <br/> <br/>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한국교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을 어디로부터 삼아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세속화와 대형화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성도들의 삶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br/> <br/>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문제의 중심에는 성직주의가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제시했던 ‘만인사제론’은 성도들이 목회자와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모두가 서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br/> <br/> 아모스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전반에 걸쳐 드러난 그들의 부정의와 부패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팝니다.(암 2:6∼7)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금합니다.(암 2:12) <br/> <br/> 그뿐 아니라 그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그만큼 마음껏 쓰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팽배해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본주의와 꼭 닮은 행태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을 ‘바산의 암소’에 비유하며 그들의 불의함(암 4:1)을 폭로합니다. 아모스는 또 사람들이 월삭과 안식일 때문에 장사하지 못함을 한탄하는(암 8:5∼6) 모습을 고발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단지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정의와 부패 때문이라고 아모스는 말합니다. <br/> <br/> 그렇게 부패한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모스는 너무나 평범한 농부이자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자 그는 백성들을 향해 강하게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재앙(1∼3절)을 경고합니다. 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휩쓰는 불의 심판(4∼6절)을, 이어 다림줄(7∼9절) 경고를 하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연신 소리칩니다. <br/> <br/>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먀사는 아모스를 꾸짖으며 떠나라 하지만(10∼13절), 말씀에 사로잡힌 아모스는 아마샤를 저주하며 더 크게 예언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한다’고 소리칩니다.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br/> <br/> 성직자들이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평범한 이들을 불러 일하십니다. 교회개혁은 성직자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엘리트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아모스들을 찾으십니다. 시대의 부정의와 부패를 비판하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기다리는(암 9:11) 말씀의 사람, 아모스와 같은 성도들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평범한 아모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br/> <br/>김승환 목사(청주 청북교회)

언론사: 국민일보-1-95.txt

제목: 한국교회가 잊은 피득 선교사… 그 쓸쓸한 무덤을 찾다  
날짜: 20171128  
기자: 김나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000005002  
ID: 01100201.20171128000005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가 누구입니까. 한국인이 구약 성경을 읽게 해 준 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을 잊어버리고, 이 분의 묘지도 방치한 채 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은인을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br/> <br/> 박준서 연세대 명예교수는 2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찾아낸 피터스 목사의 묘지 사진이 들려있었다. 사진 속 묘지는 누가 봐도 찾는 이 없이 방치된 쓸쓸한 무덤이었다. <br/> <br/>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한국명 피득, 1871∼1958) 목사는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인물이다. 권서인(勸書人)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글을 배운 지 3년 만에 번역한 ‘시편촬요’는 구약성경 한글번역의 효시로 꼽힌다. 러시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러시아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일본 나가사키로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에게 세례를 준 미국 선교사 이름을 따라 ‘피터스’로 개명한 뒤 미국성서공회가 파송한 권서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br/> <br/> 구약학을 전공한 박 교수는 올해 초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연구교수 생활을 마칠 무렵, 로스앤젤레스(LA) 인근에 은퇴선교사 시설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 때부터 피터스 목사의 묘지를 찾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LA에 그렇게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목사들에게 물으니 피터스 목사 묘지는커녕 피터스 목사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span>”고 했다. <br/> <br/> 그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피터스 목사가 패서디나 인근 ‘마운틴 뷰’ 공용묘지에 안장됐음을 확인했다. 미국에 머물던 아들과 함께 지난 7월 땡볕에 공용묘지를 찾아갔다. 관리사무실에서도 피터스 목사의 묘지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해 대략적인 구역만 알 수 있었다. 묘역 구석에 잔디와 잡초로 덮여있는 묘비를 손으로 일일이 닦으며 이름을 확인하다 드디어 구석에서 피터스 목사의 묘비를 찾았다. <br/> <br/> 구약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사실은커녕, 그가 목사였음을 알려주는 ‘Rev’ 표시 하나 없는 무덤 앞에서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span>”고 했다. 그는 같은 공용묘지에서 찍은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아르메니안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의 묘비로, 깨끗하게 잘 관리된 묘비 위에 공적이 표시된 표석이 함께 갖춰져 있었다. <br/> <br/>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마르틴 루터는 기리면서, 정작 우리에게 처음 구약성경을 전해준 피터스 선교사를 거의 망각하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성경 없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겠느냐</span>”고 말했다. <br/> <br/> 박 교수는 평생 구약학을 가르쳐온 학자이자 선생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피터스 목사를 모르는 한국의 목사들이 “<span class='quot1'>선생님이 왜 안 가르쳐주셨냐</span>”고 반문하더라는 것이다. 피터스 목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니’(383장) 등 우리에게 친숙한 찬송가의 작사자이기도 하다. 또 서울 강남구 세곡교회를 비롯해 내곡교회 등 10여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br/> <br/> 그럼에도 그의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의 가족 역시 한국에서 선교 사역 중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캠벨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돼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피터스 목사는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선교사로 와 있던 에바 필드와 재혼했지만 그녀 역시 암으로 숨을 거뒀다. 결국 피터스 목사는 1941년 은퇴한 뒤 미국 패서디나 소재 은퇴선교사 주거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다 1958년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이다. <br/> <br/> 박 교수는 한국에 들어온 뒤 제자들과 함께 이달 초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지 묘역에 피터스 목사의 업적을 담은 기념비를 세워주고 싶다</span>”고 했다. 아울러 현재 양화진 묘역에 안장돼있는 캠벨 여사와 에바 필드 여사 묘역에도 피터스 목사의 업적을 알리는 공적비를 세우고 싶다고 했다. 피터스 목사 기념 강좌 등도 계획하고 있다. <br/> <br/>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한국교회가 피터스 목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이룩한 공적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에 동참해주리라 믿는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96.txt

제목: 세종과학기지 30주년… ‘남극체험단’ 발대식  
날짜: 20171128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8213455001  
ID: 01100201.201711282134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해양수산부는 16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남극체험단’이 28일 발대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남극체험단은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반인 남극체험프로그램으로 지난 7∼8월 공모를 진행했다. 총 670명이 응모해 4명의 체험단원이 선정됐다. <br/> <br/> 정승훈(27)씨는 “<span class='quot0'>2012년 혈액암으로 남극에 가고 싶다는 꿈을 접었지만 항암치료를 마치고 이번 체험단에 선발돼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span>”고 선발소감을 밝혔다. 정씨는 현재 암을 극복한 본인의 경험을 살려 혈액암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화작가 전현정(44·여)씨는 “<span class='quot1'>남극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줄 동화를 집필하겠다</span>”는 포부를 밝혔다.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근무하는 공승규(34)씨와 취업준비생 이소영(25·여)씨는 각각 영상제작과 인디밴드 활동 경험을 살려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성과를 노래와 영상으로 제작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br/> <br/> 극지안전훈련과 남극환경보호 교육을 이수한 체험단은 다음달 9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1일 남극에 도착한다. 이들은 5박6일간 세종과학기지에 머물면서 남극 연구와 기지관리 활동, 펭귄서식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br/> <br/>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97.txt

제목: 하리수에 이어 유아인까지 저격한 한서희…페미니스트 논란 ‘시끌’  
날짜: 20171127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7092144001  
ID: 01100201.201711270921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트랜스젠더 하리수와 설전을 벌여 이목을 끌었던 한서희가 이번엔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한 배우 유아인을 저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br/> <br/> <br/> <br/>한서희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유아인의 SNS 게시물을 캡처한 화면을 올린 뒤 “여성이니까 여성인권에만 힘쓴다. 흑인한테 백인인권 존중하는 흑인인권운동하라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페미 코스프레하고 페미 이용한건 내가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br/> <br/>한서희가 캡처한 유아인의 게시물은 “여성이니까 여성 인권에만 힘쓴다는 말은 남성들에게 남성이니까 남성 인권에만 힘쓰라는 말과 같다. 타인의 이해와 존중을 원한다면, 개인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하라는 말씀 드렸던 것”이라는 글이 담겼다. <br/> <br/>이는 유아인이 최근 ‘애호박’ 발언으로 여혐 논란에 휩싸인 것에서 비롯됐다. 한 네티즌이 유아인에 대해 “<span class='quot0'>20미터 정도 떨어져 보기엔 좋은 사람일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냉장고 열다가 채소 칸에 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 있으면 가만히 들여다보다 갑자기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하고 코 찡끗할 것 같음</span>”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본 유아인은 “<span class='quot1'>애호박으로 맞아봤음?(코 찡끗)</span>”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br/> <br/>네티즌들은 “애호박으로 때린다니... 한남 돋는다”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한남은 한남충의 줄임말로 한국 남자와 발레 충을 합한 신조어다. 이후 유아인과 네티즌 사이엔 설전이 벌어졌다. <br/> <br/>결국 유아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에는 자신의 유년시절 제사문화를 통해 느꼈던 성차별에 대한 일화가 담겼다. <br/> <br/>앞서 한서희는 트랜스젠더 하리수와 트랜스젠더의 여성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한서희는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추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냐”는 글을 올렸다. <br/> <br/>이에 하리수가 발끈하며 “<span class='quot2'>암에 걸려 자궁 적출한 사람도 여성이 아니냐</span>”고 반박했다가 자궁암 환자들을 비하한 발언이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결국 하리수는 사과한 뒤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98.txt

제목: [And 라이프] 국수의 변신  
날짜: 2017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7050055001  
ID: 01100201.201711270500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결혼식 등 잔치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인 국수. 따끈한 국물이 좋아서 겨울철에 찾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는 국수가 최근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br/> <br/> 세면, 소면, 중면, 우동면, 칼국수면 등 면의 굵기가 우선 다양해졌다. 밀을 통째로 갈아 만들었다는 통밀국수를 비롯해 쑥, 흑미, 연근, 녹차 등을 넣어 향미를 높이고 색깔을 입힌 국수들도 나와 있다. 최근에는 일반 생면에 비해 26배의 항산화력을 가진 ‘해죽순생면’이 등장해 ‘건강 국수’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해죽순생면은 최근 항산화 식품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해죽순’을 첨가한 국수다. 해죽순은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해변에서 자라는 야자수의 일종인 니파팜의 어린 꽃대를 건조시켜 차(茶)나 나물 등으로 가공한 것이다. 나파팜이 죽순과 닮아서 바다에서 나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해죽순’으로 불린다. <br/> <br/> 해죽순생면은 해죽순을 국내에 소개한 ㈜황금손이 제조 특허를 받아 농업회사법인 다선㈜이 생산, 시판 중이다. 배대열 ㈜황금손 회장은 26일 “<span class='quot0'>해죽순 분말이 5% 첨가된 해죽순생면 1인분 180g에는 660㎎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어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600㎎을 충족시킬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폴리페놀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염증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거나 신속히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선 노화방지, 비만해소, 고혈압이나 당뇨병, 암 등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해죽순은 폴리페놀의 보고로 알려진 마늘보다 220배 이상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다.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00g당 폴리페놀 함유량이 해죽순은 1만7344㎎이고 마늘은 77㎎이다. <br/> <br/> 해죽순생면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선 이찬복 사장은 “<span class='quot1'>해죽순 생면은 폴리페놀의 특성인 수렴성(收斂性)으로 인해 물에 끓이거나 끓인 후에도 장시간 쫄깃한 탄력을 유지해 식감이 뛰어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해죽순에 들어 있는 여러 미네랄과 아미노산 성분이 조합을 이뤄 감칠맛을 내 풍미도 일품</span>”이라고 소개했다. 또 해죽순생면은 소화가 잘돼 평소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br/> <br/> ㈜황금손은 해죽순생면 외에 고소한 맛이 일품인 해죽순누룽지, 해죽순콩고기 등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br/> <br/>김혜림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99.txt

제목: 5년 前 암으로 세상 뜬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보낸 생일 꽃다발  
날짜: 20171127  
기자: 장지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7211855001  
ID: 01100201.2017112721185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베일리 셀러스는 21살 생일을 맞아 꽃다발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마이클 윌리엄 셀러스다. 아버지 마이클이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 5년 치 꽃배달 예약을 해둔 덕분에 베일리는 17살 생일부터 꽃다발을 받을 수 있었다. <br/> <br/> 최근 21살이 된 베일리는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편지와 꽃다발을 받았다. 마이클은 편지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네가 나를 생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걸 원하지 않아. 아빠는 지금 정말 좋은 곳에 와 있단다”라고 썼다. <br/> <br/> 베일리는 올해 마지막으로 받은 꽃다발과 카드,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아버지가 너무나 그립다”고 전했다(사진). 베일리의 사연은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25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좋아요’를 누르고 6만건이 넘는 리트윗이 이뤄졌다. <br/> <br/>장지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00.txt

제목: [초대석] 정무영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원천기술 개발로 新산업 창출… 글로벌 경쟁력 높이겠다”  
날짜: 20171127  
기자: 김연주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7202555002  
ID: 01100201.201711272025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해수전지는 UNIST(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기술이다. 무한한 자원인 해수를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다. <br/> <br/>올해 UNIST는 한전·동서발전과 협력해 3년간 50억을 투입, 10kWh급 해수전지팩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해수전지는 울산화력발전소에 시범 구축될 예정이다. 세계 유일의 기술인만큼 해외 수출도 기대된다. <br/> <br/> ‘연구는 양보다 질이다’는 정무영 UNIST 총장(사진)의 철학과 연구진들의 똘똘 뭉친 협력이 있어 가능한 성과였다. 정 총장은 “<span class='quot0'>원천 기술을 개발해 이에 근거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제품은 기술 선진국에 수출할 예정이다</span>”고 밝혔다. <br/> <br/> <br/> <br/>-취임 후 그간의 소회를 전한다면. <br/> <br/>▷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연구를 위해 노력했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어차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왕 할 거면 전략적으로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양보다 질’,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기초에 더 충실하게 임했다. 이제 학교 건물도 완공됐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그간의 9년이 UNIST의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눈을 돌려 지역사회, 국가, 인류에 공헌하는 ‘상생’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 <br/> <br/> <br/> <br/>-UNIST의 설립 배경이 궁금하다. <br/> <br/>▷UNIST는 2008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개교했다. 국립대학 유치를 희망해 온 울산 시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도시인 울산의 특색을 잘 살린 대학의 설립이었다. 세계 수준의 설비, 교원을 확보해 성장하던 UNIST는 2015년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br/> <br/> <br/> <br/>-출범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있다고 들었다. 대표적인 성과를 전한다면. <br/> <br/>▷UNIST는 개교 9년차 신생기관이지만 2017 각종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THE(Times Higer Education) 대학평가에서 국내 5위, 세계 45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 THE 대학평가, US뉴스랭킹 모두에서 논문 피 인용수 부문 국내 1위를 평가받았다. <br/> <br/>교원의 경쟁력도 입증 받았다. 세계적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발표한 2017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s)에 로드니 루오프, 조재필, 김진영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3명의 HCR 연구자를 보유한 국내 대학은 UNIST와 성균관대가 유일하다. <br/> <br/>하지만 욕심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무대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무대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중이다. <br/> <br/>-짧은 기간 내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UNIST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br/> <br/>▷연구 목표를 뚜렷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 것이 큰 성장 동력이 됐다고 본다. 평소 단순히 좋은 논문을 쓰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말고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데 큰 목적을 가지라고 말한다. 근본적 목적이 확실히 서면 연구를 할 때 방향도 서고, 목표도 잘 세울 수 있다. 뚜렷한 목적, 그에 따른 목표 설정 덕분에 UNIST가 짧은 기간 안에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본다. <br/> <br/> 융합연구가 활발한 것도 그간의 성과에 한 몫 했다. 서로 다른 분야가 똘똘 뭉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시너지가 크다. UNIST는 학부생 때부터 2개의 전공을 전공하며 서로 다른 분야 간 융합을 배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만든 연구 브랜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전 세계 유일한 해수 전지 개발은 이런 융합연구의 결과물이다. <br/> <br/> <br/> <br/>-수출형 연구브랜드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br/> <br/>▷앞서 말한 융합연구가 곧 연구 브랜드 사업과 직결된다. UNIST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탑 10 연구중심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분야를 잘 선정한다면 글로벌 탑 10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 현재 UNIST에서는 총 14개 중점분야를 선정해 연구 중이고, 그 중 3개의 분야가 선발 주자로 나서고 있다. <br/> <br/> 첫 번째로 해수전지다. 해수전지는 바닷물의 나트륨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처럼 시설이 바다에 잠겨도 전력이용이 가능해 시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나트륨 이온만 빼내 에너지를 저장한 후 남은 해수 담수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크다. <br/> <br/> 췌장암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기존 내시경의 크기 내에서 광음향-초음파 내시경을 구현하면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소화기 암들의 조기 발견과 정밀 진단이 가능하다. <br/> <br/>AI 신경망칩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2진법 기반의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3진법을 기반으로 해 소비전력이 적으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 <br/> <br/>-유니스파크에 대해 설명하자면. <br/> <br/>▷심혈을 기울여 디자인 한 UNIST의 창업 공간이다. 유니스파크는 UNIST와 SPARK(불꽃)이 합쳐진 이름으로 ‘유니스트인들이 불꽃 튈 정도의 열정으로 창업 활동을 만들어나갈 장’이라는 의미다. 회의실, 세미나실뿐만 아니라 주방을 만들어 라면도 끓여 먹고, 차 한 잔도 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현재 총 12개 팀이 입주해있다. <br/> <br/> <br/> <br/>-평소 학생들과는 어떻게 소통하나. <br/> <br/>▷학생들과 직접 만나 자주 소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틈틈이 페이스북에 들어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핀다. 학부생·대학원 학생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대부분 반영해서 고친다. 학생회의 얘기를 통해 학교 측에서 잘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어 귀 기울여 듣고 있다. 매번 만나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요구사항에 대해 잘 듣고 반영한다면 그게 소통 하는 것 아닐까 한다. <br/> <br/>김연주 쿠키뉴스 기자 rkyj77@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1-101.txt

제목: [뉴스룸에서-민태원] ‘죽음, 듣고 말하고 보자’ 캠페인을  
날짜: 2017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7173355002  
ID: 01100201.201711271733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년 세월은 짧다. 기자는 지난해 1월 15일자 본보 ‘세상만사’ 코너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의 성패가 2018년 2월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의 준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하위 법령을 빨리 정비해 연명의료 결정(중단·유보)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명의료 관리 컨트롤타워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시급히 지정하라고 했다.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결정 전담조직 및 인력, 호스피스 등 임종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진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국민에게 웰다잉법의 취지와 바람직한 임종 문화를 알릴 루트를 자주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경시나 인간 존엄성 훼손 등 부작용을 낳아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웰다잉법이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br/> <br/> 하지만 정부의 준비는 굼떴고 시간은 금방 갔다. 지난 8월에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선정됐고 지난달 중순 달랑 3개월짜리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10개 시범사업 기관에서 한 달 여간 이뤄진 웰다잉은 10건이 채 안 되는 걸로 알려졌다.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의사에게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도 비슷한 수준에 그쳐 한마디로 실적이 저조하다. 하루 500∼1000명이 연명의료 관련 처치를 받고 숨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웰다잉 선택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건강할 때는 존엄한 죽음을 말하지만 막상 죽음을 앞둔 상황에 처하면 환자나 가족의 선택이 달라지기도 한다. 의사들은 여전히 말기 혹은 죽음에 임박했음을 환자에게 알리기 꺼린다. 연명의료 결정 절차가 복잡해 시행과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br/> <br/> 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정부가 2년간 연명의료 결정의 두 주체인 환자(크게는 국민),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사석에서 만난 한 대학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웰다잉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게 되는 내년 2월이 걱정된다</span>”고 했다. 그는 “대다수의 시범사업 비참여 기관의 준비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의료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불가피하고 환자-의사 간 소송도 잇따를 수 있다”고 했다. <br/> <br/>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웰다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병원 내 연명의료결정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의사들에게는 환자·가족에게 죽음을 알리는 방법이나 대처법, 연명의료결정의 절차 등을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선종(善終·좋은 죽음) 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br/> <br/> 아시아에서 웰다잉의 교과서로 통하는 나라가 대만이다. 지난해 취재차 대만을 찾았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곳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대만인들은 말기 암이나 치매 등 질병으로 임종에 가까워지면 스스럼없이 무의미한 생명연장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2000년 만들어진 자연사법에 따라 대만인은 19세를 넘으면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건강보험 IC카드에 표시할 수 있다. <br/> <br/> 1990년대 초부터 10년간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한 덕분에 선종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고 한다. 특히 국민배우와 현직 방송앵커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죽음, 듣고 말하고 보자(Facing death, Must listen, Must talk, Must see)’ 캠페인은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만이 아시아 ‘죽음의 질 1위’ 국가로 평가받는 데는 이런 민관의 오랜 노력이 자양분이 됐다. <br/> <br/> 이제 한국판 ‘죽음, 듣고 말하고 보자’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연 광고처럼 TV 라디오 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정부 기관이나 관련 학회 차원의 전국 순회 교육도 괜찮다. <br/> <br/>민태원 사회부 차장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02.txt

제목: [아직 살만한 세상]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  
날짜: 20171126  
기자: 민다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6162344001  
ID: 01100201.201711261623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span class='quot0'>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span>” <br/>“<span class='quot0'>너는 내가 받은 가장 귀한 보석</span>” <br/> <br/>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베일리 셀러스가 21번째 생일을 맞아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보낸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마이클 윌리엄 셀러스,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br/> <br/>베일리가 16살 소녀일 때 아버지 마이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7번째 생일을 맞은 베일리 앞으로 꽃다발이 배달됐습니다. 꽃다발 속에는 "사랑하는 딸, 생일 축하해"라고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 마이클이 매년 딸의 생일마다 꽃배달을 예약해둔 것이었습니다. 이후 18살, 19살, 20살 생일에도 베일리는 아빠의 사랑을 배달 받았습니다. <br/> <br/> <br/> <br/>최근 21살 생일을 맞은 베일리는 아빠로부터 마지막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이 편지를 “<span class='quot1'>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span>”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베일리 네가 나를 생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아빠는 지금 정말 좋은 곳에 와있단다"라며 담담하게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br/> <br/>“<span class='quot0'>너는 내가 받은 가장 귀한 보석</span>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거야.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너 자신에 충실해 항상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기 바라. 언제든 너와 함께 할 거야.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곳에 있을게.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br/> <br/>베일리는 올해 마지막으로 받은 꽃다발과 카드.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아버지가 너무나 그립다” 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에 전세계 많은 네티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25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6만 건이 넘는 리트윗이 이뤄졌습니다. <br/> <br/>누리꾼들은 “너무 감동적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계속 편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br/> <br/> <br/>[아직 살만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살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br/>민다솜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03.txt

제목: [아직 살만한 세상] “마지막으로 바다를…” 말기환자 위해 앰뷸런스 돌린 구급대원  
날짜: 20171124  
기자: 안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4143244001  
ID: 01100201.201711241432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의 사명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것이다. 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 같은 말이다. 최근 호주의 한 구급대원은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렀다.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내달리던 그는 고심 끝에 차를 돌렸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다. <br/> <br/>호주 ‘퀸즈랜드 앰뷸런스 서비스’(QAS)는 22일(현지시간) 인터넷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바닷가에 구급차용 이동식 침대가 세워져 있고, 그 곁을 QAS 소속 구급대원이 지키고 서 있는 장면이었다. 침대에는 이 대원이 이송하던 여성 환자가 누워 있었다. 대원은 환자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한동안 이 곳에 머물렀다. <br/> <br/>침대에 누워 있던 여성은 말기 암환자였다. 집에서 요양하던 중에 상태가 악화돼 앰뷸런스를 요청했다. 의료진은 더 이상 손을 쓰기 어려워 집에 보냈고, 환자도 집에서 통증을 견디며 버티다 너무 힘겨워 구급차를 부른 터였다. 이번에 병원으로 실려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출동한 대원은 매뉴얼대로 암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녀를 구급차에 싣고 내달렸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길에 환자가 입을 열었다. <br/> <br/>구급차에는 대원 2명이 타고 있었다. 환자는 그 중 한 명에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평소 즐겨 찾던 하비 베이의 근처 바닷가 풍경을 병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거였다. 두 대원은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암이 많이 전이돼 있고, 그래서 퇴원한 것이었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수 있음을 아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얽매여 환자의 ’소원’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한다. <br/> <br/>구급차는 방향을 돌렸다. 바닷가에 들르려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하지만, 그 길을 택했다. 하비 베이 해변에 도착한 뒤 그녀가 침대에 누운 채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해줬다. 그 곁에서 한참을 서 있던 대원은 환자에게 물었다. <br/> <br/> <br/>“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br/>“평화로워요. 모든 게 좋네요.” <br/> <br/> <br/>구급대원과 침대에 누운 환자의 뒷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해변 관리인이 찍은 거였다. 그는 낯선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했다가 사연을 알고 난 뒤 ’따뜻한 이야기’라는 생각에서 QAS에 제보했다. 이를 전해 들은 QAS는 “때로는 구급대원에게 약품이나 응급처치 숙련도보다 ‘공감 능력’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면서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두 대원에게 박수를 보냈다. <br/> <br/> <br/>[아직 살만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살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br/>안태훈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04.txt

제목: “수능, 그 자체로 내 꿈이었다” 만학도 175명 ‘특별한 도전’  
날짜: 20171124  
기자: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사진=이병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4071944001  
ID: 01100201.20171124071944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23일 오전 6시45분 서울 마포구 홍익대부속여고 앞.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목도리를 꽁꽁 싸맨 할머니 12명이 올해 수능을 보는 고3 만학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생학교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인 이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6시30분부터 모여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다. <br/> <br/>7시15분쯤 ‘힘내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학교 고3 이수련(62)씨가 교문 앞에 도착한 것이다. 평생의 꿈이었던 수능을 보게 된 그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다.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하나, 건강이 우선인데’라는 생각에 포기하려 한 적도 있었다. 그는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수능을 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도전했다”며 “수능은 내게 그 자체로 ‘꿈’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40여명 할머니 응원단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으로 들어갔다. <br/> <br/>25분 뒤인 40분쯤 도착한 이명순(86) 할머니는 이번에 수능에 응시한 일성여중고 175명 만학도 중 최고령자였다. 그는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다”며 “수능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 고맙다”고 말했다. 응원 나온 일성여중고 만학도들은 이씨와 포옹을 나누며 격려했다. <br/> <br/> <br/> <br/>곧이어 도착한 안금석(52)씨는 중국동포였다. 안씨는 “<span class='quot0'>딸이 중국에서 대학시험을 칠 때 그 맘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맘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기분</span>”이라며 웃었다. 수능에 앞서 구체적인 포부도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어린 시절 중국에서 어렵게 살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맘이 아프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에 사는 재중동포들의 열악한 삶을 보고 사회복지사가 돼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span>”고 말했다. 그도 할머니응원단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고사장으로 들어섰다. <br/> <br/>할머니 응원단의 열기는 수능 응원 나온 어린 학생들에게도 밀리지 않았다. 만학도 할머니들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능 치는 학우들을 응원했다. <br/> <br/>서대문구 가재울고 1학년 권가인(16)양은 “우리도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나왔지만 할머니들은 더 대단하신 것 같다”고 감탄했다. 오전 5시에 일어나 응원을 준비했다는 일성여중고 고2 정무순(68)씨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벌써 3번째 수능응원을 왔다”며 “내년에 우리가 이런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br/> <br/>만학도 할머니들은 지진피해를 본 포항의 수험생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일성여중고 고2에 재학 중인 이순희(63)씨는 “<span class='quot1'>지진 때문에 애기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span>”며 “<span class='quot1'>걱정 말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이수련씨도 고사장에 들어가기 앞서 “<span class='quot2'>지진으로 수능을 미룬 건 잘한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어린 친구들이 걱정 속에서 수능 보는 게 마음이 아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기를 계속 기도해 왔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05.txt

제목: “수능, 그 자체로 내 꿈이었다” 만학도 175명 ‘특별한 도전’  
날짜: 20171124  
기자: 이형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4050056005  
ID: 01100201.20171124050056005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자궁내막암 이겨낸 60대 <br/>최고령인 86세 이명순씨 <br/>“시험 치를 자격 얻어 감사” <br/> <br/>시험장인 홍대부속여고 앞 <br/>후배 만학도의 열띤 응원전 <br/>“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br/>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br/> <br/>23일 오전 6시45분 서울 마포구 홍익대부속여고 앞.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목도리를 꽁꽁 싸맨 할머니 12명이 올해 수능을 보는 고3 만학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생학교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인 이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6시30분부터 모여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다. <br/> <br/> 7시15분쯤 ‘힘내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학교 고3 이수련(62)씨가 교문 앞에 도착한 것이다. 평생의 꿈이었던 수능을 보게 된 그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다.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하나, 건강이 우선인데’라는 생각에 포기하려 한 적도 있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수능을 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도전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수능은 내게 그 자체로 ‘꿈’이었다</span>”고 말했다. 이씨는 40여명 할머니 응원단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으로 들어갔다. <br/> <br/> 25분 뒤인 40분쯤 도착한 이명순(86) 할머니는 이번에 수능에 응시한 일성여중고 175명 만학도 중 최고령자였다. 그는 “<span class='quot0'>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수능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 고맙다</span>”고 말했다. 응원 나온 일성여중고 만학도들은 이씨와 포옹을 나누며 격려했다. <br/> <br/> 곧이어 도착한 안금석(52)씨는 중국동포였다. 안씨는 “<span class='quot1'>딸이 중국에서 대학시험을 칠 때 그 맘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맘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기분</span>”이라며 웃었다. 수능에 앞서 구체적인 포부도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1'>어린 시절 중국에서 어렵게 살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맘이 아프다</span>”며 “<span class='quot1'>한국에 사는 재중동포들의 열악한 삶을 보고 사회복지사가 돼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span>”고 말했다. 그도 할머니응원단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고사장으로 들어섰다. <br/> <br/> 할머니 응원단의 열기는 수능 응원 나온 어린 학생들에게도 밀리지 않았다. 만학도 할머니들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능 치는 학우들을 응원했다. <br/> <br/> 서대문구 가재울고 1학년 권가인(16)양은 “우리도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나왔지만 할머니들은 더 대단하신 것 같다”고 감탄했다. 오전 5시에 일어나 응원을 준비했다는 일성여중고 고2 정무순(68)씨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벌써 3번째 수능응원을 왔다”며 “내년에 우리가 이런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br/> <br/> 만학도 할머니들은 지진피해를 본 포항의 수험생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일성여중고 고2에 재학 중인 이순희(63)씨는 “<span class='quot2'>지진 때문에 애기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span>”며 “<span class='quot2'>걱정 말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이수련씨도 고사장에 들어가기 앞서 “<span class='quot3'>지진으로 수능을 미룬 건 잘한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어린 친구들이 걱정 속에서 수능 보는 게 마음이 아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기를 계속 기도해 왔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06.txt

제목: 고령 시대 금융상품, 보장범위 늘고 촘촘해졌다  
날짜: 20171124  
기자: 홍석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4212955001  
ID: 01100201.2017112421295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야 하고, 현재의 만족을 미래를 위해 잠시 양보할 필요도 있다. 금융사들은 이런 기본 원리를 지킨 고령층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촘촘하게 만든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br/> <br/> 교보생명의 ‘교보미리미리CI보험’은 큰 병이 되기 전 작은 병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완치율이 높아 CI(중대한 질병)에서 제외됐던 중대한갑상선암, 중증세균성수막염 등 중증뇌질환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보장한다. <br/> <br/> 삼성화재의 ‘태평삼대’는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암, 뇌혈관 질병, 심혈관 질병)을 집중 보장한다. 여기에 고객 요청이 많았던 급성 뇌경색 진단비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신설했다. <br/> <br/> 고령화 시대인만큼 실버세대 맞춤형 상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의 ‘NH All100플랜 사랑남김신탁’은 장례비 등 유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혜택을 담았다. KB국민은행 ‘KB금지옥엽신탁’은 사후에도 손주의 생일이나 대학입학, 자동차구입, 결혼 같은 이벤트를 챙길 수 있도록 돕는다. IBK기업은행의 ‘나이야가라통장’은 실버세대를 위한 건강·여행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07.txt

제목: 삼성화재 ‘태평삼대’ 암, 뇌·심질환 진단·치료 등 단계별로 보장  
날짜: 2017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4212855001  
ID: 01100201.20171124212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화재는 지난 2월에 3대 질병(암, 뇌질환, 심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건강보험 ‘태평삼대’를 내놓았다. 이 보험은 한국의 사망원인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뇌혈관 질병, 심혈관 질병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장애는 물론 사망까지 단계별로 위험을 보장한다. <br/> <br/> ‘태평삼대’에는 그동안 고객 요청이 가장 많았던 급성 뇌경색 진단비(최대 2000만원 보장)를 신설했다.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두 번째 진단 시 2차 진단비를 지급해 재발 걱정도 덜어준다. 다만 첫 번째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br/> <br/> 기존 식도암, 췌장암, 뇌암, 뼈암, 백혈병의 5대 고액 암에 간암, 폐암, 담낭암, 담도암, 기관암을 추가한 ‘10대 주요 암 진단비’ 담보도 새로 만들었다. 주요 암 진단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항암 방사선·약물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br/> <br/> 3대 질병에 따른 뇌병변, 심장·언어장애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5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준다.

언론사: 국민일보-1-108.txt

제목: 교보생명 ‘미리미리CI보험’, 큰 병 되기 전 작은 병부터 예방하게 도와줘  
날짜: 2017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4212755001  
ID: 01100201.201711242127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교보생명의 ‘교보미리미리CI보험’은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개념의 CI(중대한 질병)보험이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치매 등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으로, CI 전 단계의 질병은 물론 CI와 연관성이 높은 만성질환과 합병증으로까지 보장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br/> <br/> 이 상품은 완치율이 높아 CI에서 제외됐던 중대한갑상선암, 중증세균성수막염 등 중증뇌질환을 보장한다. 뇌출혈, 뇌경색증 등 중증질환 9종도 추가로 주계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당뇨·고혈압 등에 따른 합병증(당뇨병 진단·인슐린 치료, 안질환·실명, 족부절단)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CI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기 이상의 만성 간·폐·신장질환을 새롭게 보장한다. 재진단암특약을 통해 암 전이·재발에 따른 치료비와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2.5∼3.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

언론사: 국민일보-1-109.txt

제목: NH농협생명 ‘내맘같이…’,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선택특약 부가  
날짜: 2017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4212655001  
ID: 01100201.20171124212655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NH농협생명은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과 다양한 선택특약을 부가해 ‘죽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내맘같이NH유니버셜종신보험(무)\_1710’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주계약으로 사망을 보장하면서 유니버셜 기능을 부가해 자유납입이 가능하다. <br/> <br/> 계약자는 의무납입기간 2년(24회) 이후에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 연 12회 이내에서 적립금을 인출해 활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br/> <br/>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1000만원부터 25억원까지.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이상 고객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케어서비스는 24시간 365일 건강상담 및 해외 긴급 의료서비스 지원, 병원 예약 대행, 암 진단 시 자녀 타액 유전자 검사, 치매 자가진단 및 예방 훈련 프로그램, 종양 전문 간호사 1대 1 케어 서비스, 병원 방문 시 차량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언론사: 국민일보-1-110.txt

제목: “암 투병 세비야 감독 힘내세요”  
날짜: 20171124  
기자: 김태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4210555001  
ID: 01100201.20171124210555001  
카테고리: 스포츠>월드컵  
본문: 지난 22일(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아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세비야와 리버풀의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E조 5차전 경기. <br/> <br/> 세비야는 리버풀의 호베르투 피르미누(2분·30분)와 사디오 마네(22분)에게 잇따라 골을 허용해 0-3으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쳤다. 하프타임 때 세비야의 에두아르도 베리조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이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을 알렸다. 자극을 받은 세비야 선수들은 불끈 힘을 내 후반전에 기적처럼 세 골을 몰아쳐 3대 3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 사연을 접한 스페인 축구인들이 베리조 감독 돕기에 나섰다. <br/> <br/> 세비야의 호세 카스트로 회장은 23일 스페인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베리조 감독은 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가 건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며 감독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br/> <br/> 축구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guanteTot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베리조 감독의 쾌유를 기원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br/> <br/> ‘AguanteToto’는 인내를 뜻하는 스페인어 ‘aguante’와 베리조 감독의 별명인 ‘토토’를 합쳐 만든 단어다.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등 프리메라리가 팀들도 해시태그를 이용해 응원 메시지 전달에 동참했다. <br/> <br/> 베리조 감독의 몸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6번째 UCL 본선에 오른 세비야는 2승 2무 1패(승점 8)로 E조 2위에 올라 있다. <br/> <br/>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11.txt

제목: 英대학 연구팀 “하루 커피3잔, 오히려 건강에 좋다”  
날짜: 20171123  
기자: 안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3171245001  
ID: 01100201.2017112317124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적당한 커피 소비(하루 3잔)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br/> <br/>영국의학저널(BMJ, British Medical Journal)은 최근 하루 일정량의 커피를 마셨을 때 해보다 득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다. 사우스햄튼 대학 연구진은 커피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0건의 연구 논문을 토대로 커피가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하루 3잔 정도의 커피는 건강에 도움을 줬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15%,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9%까지 줄었다. 특히 커피를 3장 이상 마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간질환과 암의 발생률을 줄여주는 것이었다. 간암은 34%, 대장암은 17%까지 더 감소했다. <br/> <br/>하지만 커피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임신한 여성의 경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유산 위험이 커진다.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여성들에게 하루에 200mg 이상의 카페인과 두 잔 이상의 인스턴트 커피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또한 커피를 통해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골절 위험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br/> <br/>또 커피는 본래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다. 일부러 병을 고치거나 각종 질병을 예방하려고 커피를 마시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의 엘리세오 구알라 교수는 “<span class='quot0'>커피를 건강상 이유로 더 많이 마시려고 하면 안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적당한 커피의 섭취는 이로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커피를 더 많이 섭취해 생기는 영향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또 “커피에 종종 설탕과 우유 또는 크림을 넣어 마시는데 커피와 별개로 이 자체가 건강을 나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 <br/>전문가들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커피’를 마셔야 한다고 조언한다. 설탕이 보통 이상으로 들어가 있거나, 우유나 크림,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낵이 포함된 커피와 일정량 이상의 섭취는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좋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면 불안감과 불면증 등을 각종 질병을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다음은 사우스햄튼 대학 연구진이 내놓은 카페인 섭취량이다. <br/>◇머그잔 1잔의 인스턴트 커피: 100㎎ <br/>◇머그잔 1잔의 필터 커피:140㎎ <br/>◇머그잔 1잔의 티:75㎎ <br/>◇머그잔 1잔의 콜라:40㎎ <br/>◇250ml 의 에너지 음료:최대 80㎎ <br/>◇보통 크기의 초콜릿 바:25㎎ 이하 <br/>◇보통 크기의 밀크 초콜릿 바:10㎎이하 <br/> <br/>안태훈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12.txt

제목: 백혈병소아암후원회, 소아암 어린이에 시민들 성금 650만원 전달  
날짜: 20171123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3153544001  
ID: 01100201.201711231535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사)백혈병소아암후원회(대표 김숙현)는 23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 방향)에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이봄이(가명·12)양에게 후원금 65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br/>  <br/>후원금은 올해 초부터 10개월 동안 안성휴게소를 이용한 시민들이 낸 것이다. <br/> <br/>이 양은 두 살 때 감기인 줄 알고 찾았던 병원에서 '소아암'을 진단 받았다.  <br/> <br/>이 양의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슬픔과 함께 치료비와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했다. <br/> <br/>하지만 후원회 도움으로 이 양의 부모는 희망을 찾게 됐다. <br/> <br/>이 양은 현재 뇌병변 장애 2급이며 지적장애 3급이다.   <br/> <br/>하지만 완치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씩씩하게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br/> <br/>박우필 안성휴게소장은 "<span class='quot0'>안성휴게소는 앞으로도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span>"이며 "<span class='quot0'>이봄이 양이 잘 이겨내 건강해지길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 <br/> <br/>김숙현 백혈병소아암후원회 대표는 "<span class='quot1'>치료비와 생활고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환아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안성휴게소 임직원께 감사 드린다</span>"며 "<span class='quot1'>백혈병과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치료비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br/>말했다.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13.txt

제목: 초음파집속치료 하이푸, 폐 전이 간암에도 효과  
날짜: 20171123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3092944001  
ID: 01100201.20171123092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사진]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이 최근 중국 쓰쵠성에서 열린 하이푸 국제 학술대회에서 최신 임상연구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하이케어의원 제공 <br/>암 치료법은 외과적 절제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항암요법 등 비수술적치료를 한다. <br/> <br/>최근 국내에 도입되어 간암과 자궁근종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하이푸’가 췌장, 폐, 유방 등에서 간으로 전이된 암을 치료한 발표가 잇따라 나와 비수술요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br/> <br/>10㎝이상 크기의 거대 자궁근종도 수술하지 않고 ‘하이푸’로 치료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임상연구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br/> <br/>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이 지난 17~18일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한중 하이푸포럼’에서 ‘하이푸(HIFU) 치료효과 증대’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목을 받은 최신 임상연구경험은 그중 한 사례다. <br/> <br/>김 원장은 이날 ▲췌장에서 간으로 전이된 경우 ▲간에서 폐로 전이된 경우 ▲유방에서 간으로 전이 경우 등 다양한 암 치료 사례를 발표했다. <br/> <br/>한 췌장암 환자(50세, 여성)의 경우 하이푸 시술과 동맥 내 두 차례의 항암치료를 시행한 결과 암 크기가 상당히 줄었고, 참기 힘들만큼 아픈 복통 등도 크게 호전됐다고 소개했다. <br/> <br/>김 원장은 간암이 폐로 전이된 환자(46세, 남성)의 경우에도 ‘하이푸’와 동맥내 혈관치료, 면역항암치료, 면역세포 치료 등 하이브리드복합요법으로 치료, 약 2달만에 종괴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br/> <br/>다발성 폐암전이가 멈추고 암 크기가 줄며 기침, 가래 등 폐암의 전형적인 증상이 사라지는 등 신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했다. <br/> <br/>하이푸 치료는 유방암 환자(35세,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었다. 여러개의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된데다가 항암제 내성으로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못하는 상황에서 하이푸 치료와 동맥 내 항암주사를 병행하는 치료를 시도했다.  <br/> <br/>그 결과 간 전체에 퍼져있던 2㎝크기의 암성 종괴 10여개가 약 2개월만에 CT 영상에서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대폭 줄어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김 원장은 이날 약 14㎝ 크기의 거대 자궁근종 환자에게 ‘하이푸’ 치료와 조영제, 동맥 내 혈관치료를 병행하여 3개월 만에 완치시킨 사례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br/> <br/>자궁근종은 하이푸 치료 주 적용대상 질환으로, 보통 첫 시술 3개월 후 종양 부피의 30~50%가 줄어들고 1년 후 70~80%가 소멸되는데 이번 케이스는 단 1회 치료 후 석달만에 근종이 완전히 사라져 큰 관심을 끈 경우다. <br/> <br/>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초음파 조영제와 동맥 혈관 색전술을 병행할 경우 기존 ‘하이푸’ 시술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거대자궁근종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인체에 무리 없는 강력한 초음파 장비 <br/>높은 온도로 열에 약한 암세포 괴사 <br/> <br/>한편 ‘하이푸(HIFU, High Intensive Focused Ultrasound)'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에 신의료 기술로 등재된 비수술 치료법이다. <br/> <br/>0.8~3.5MHz의 고강도 초음파로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인데 고강도 초음파를 <br/>암세포에 모아서 집속시키면 1~2초안에 온도가 섭씨 65~100℃로 상승하면서 열에 약한 암세포의 괴사가 일어나는 원리를 가진 의료장비이다. <br/> <br/>‘하이푸’치료는 ▲전이가능성 차단(암세포가 전이 못하도록 신생혈관까지 파괴하여 암전이 차단) ▲인체에 부담 없는 치료(초음파는 인체에 해가 없는 파장으로 내성이 없음) ▲비수술 치료(암 종양만 사명하고 인체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을 별로 주지 않음) ▲치료부위 면역세포 활성화(종양주변에 열충격 단댁질을 생성하여 면역세포 활성화)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 가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14.txt

제목: 가족 모두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뇌질환, ‘치매와 뇌졸중’  
날짜: 2017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2100044001  
ID: 01100201.2017112210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그에 걸맞은 건강한 노후생활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많은 노년층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이 중 뇌 관련 질환에 걸리게 되면 단순히 질환에 걸린 본인 뿐만이 아니라 이를 간병해야 하는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뇌질환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br/> <br/>대표적인 뇌질환 중 하나는 바로 치매다.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치매라고 부르게 되는데, 국내 치매 환자는 2016년말 기준 69만명에 달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r/> <br/>치매의 초기 증상은 바로 기억력 감퇴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우리의 뇌가 각종 질환으로 지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본인이 체험한 일중 일부분을 잊어버리거나 행동장애, 기억력장애, 판단장애 등을 나타내는 증상으로,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특정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예전에 겪었던 일보다는 최근에 겪었던 일이 더 기억나지 않게 된다. <br/> <br/>특히 나이가 들면 으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치매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갔다가 증상을 키워 간병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노년에 접어든 부모님이 부쩍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치매 평가 기억력 검사인 MMSE(간이인지검사)나 CDR(치매 진단표), GDS(인지장애평가) 등을 통해 부모님의 인지능력을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MRI나 혈액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br/> <br/>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하는 또 하나의 뇌질환이 있으니, 바로 뇌줄중이다. 뇌졸중은 암, 심근경색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3대 질환 중의 하나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일컫는 단어다. <br/> <br/>뇌졸중이 발생하면 뇌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사망률 자체도 높으며, 사망을 피했다 한들 사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재활도 힘들고 일상생활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간병인들도 힘들게 하는 질환이다. <br/> <br/>구리 참튼튼병원 신경과 한도훈 원장은 “나이가 들게 되면 온 몸의 기관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 중 뇌는 인체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인데, 이 기관이 손상되면 사망에 이르거나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며, “특히 이러한 뇌질환은 뇌혈관의 손상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연이 필수며,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15.txt

제목: 저출산 속 위기의 산부인과, 위험한 ‘필러 영업’  
날짜: 20171122  
기자: 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일러스트=이은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2071544001  
ID: 01100201.20171122071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주요 산부인과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새 수입원 창출을 위해 필러(보충제)를 이용한 여성의 질 성형 시술에 나서고 있다. 기존 성기능 향상 시술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 내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불법 광고까지 하고 있다. 필러 시술은 출산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법적 기준이 모호해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얼굴 안면부의 주름 개선 목적으로만 필러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다른 목적의 사용에 대해선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얼굴 성형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부인과는 공개적으로 질 성형 시술에 필러를 사용하고 있다. 허가된 목적 외에도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얼굴 성형 목적으로 판매가 허가된 필러를 병원이 구입한 뒤 의사가 생식기 성형시술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용하면 합법이 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span class='quot0'>필러를 허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전문의 사이에는 여성 생식기에 이물질을 주입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물질로 인해 유착이 생길 수 있고, 골반 장기에 천공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등으로 출혈이 생기면 필러가 골반 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 폐동맥색전증을 유발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폐동맥색전증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하면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수일 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br/> <br/>손인숙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런 시술은 여성의 건강에게 전혀 좋을 게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필러는 보통 대사 작용으로 체내에서 사라지지만 잔여물이 남을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손 교수는 “<span class='quot2'>근육운동이나 케겔 운동 등으로 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술은 추천하지 않는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김용범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맹장수술이나 암 치료 등이 여성의 임신·분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임상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필러 시술의 경우 그런 연구가 이뤄진 바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연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근거도 없으며 적어도 10년은 그 영향을 두고 봐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필러를 이용한 질 성형 시술이 버젓이 자행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광고도 범람하고 있다. 산부인과마다 경쟁적으로 필러 시술 능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팸플릿, 포스터 등의 광고를 제외한 온라인 광고는 불법이다. <br/> <br/>복지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불법 광고를 한 의료기관 76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여성 생식기 필러 광고가 11건, 유방 필러 광고가 1건이었다. 식약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이를 알려 광고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의공문을 내려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불법 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r/>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학문적 근거가 없는 시술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시술 자체는 환자 특성별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br/> <br/>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일러스트=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16.txt

제목: 저출산 속 위기의 산부인과, 위험한 ‘필러 영업’  
날짜: 20171122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2050355001  
ID: 01100201.20171122050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새 수입원 창출 위해 경쟁적으로 ‘질 성형시술’ <br/> <br/>이물질 유착·피부 괴사 등 <br/>부작용 우려로 안전성 논란 <br/>얼굴 성형외 원칙적 금지 <br/>法기준 모호해 제재 마땅찮아 <br/>“간편하고 조기 회복” 광고 <br/>작년 불법 광고 11건 적발 <br/> <br/>주요 산부인과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새 수입원 창출을 위해 필러(보충제)를 이용한 여성의 질 성형 시술에 나서고 있다. 기존 성기능 향상 시술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 내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불법 광고까지 하고 있다. 필러 시술은 출산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법적 기준이 모호해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다. <br/> <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얼굴 안면부의 주름 개선 목적으로만 필러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다른 목적의 사용에 대해선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얼굴 성형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부인과는 공개적으로 질 성형 시술에 필러를 사용하고 있다. 허가된 목적 외에도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얼굴 성형 목적으로 판매가 허가된 필러를 병원이 구입한 뒤 의사가 생식기 성형시술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용하면 합법이 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span class='quot0'>필러를 허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 전문의 사이에는 여성 생식기에 이물질을 주입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물질로 인해 유착이 생길 수 있고, 골반 장기에 천공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등으로 출혈이 생기면 필러가 골반 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 폐동맥색전증을 유발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폐동맥색전증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하면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수일 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br/> <br/> 손인숙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런 시술은 여성의 건강에게 전혀 좋을 게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필러는 보통 대사 작용으로 체내에서 사라지지만 잔여물이 남을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손 교수는 “<span class='quot2'>근육운동이나 케겔 운동 등으로 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술은 추천하지 않는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김용범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맹장수술이나 암 치료 등이 여성의 임신·분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임상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필러 시술의 경우 그런 연구가 이뤄진 바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연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근거도 없으며 적어도 10년은 그 영향을 두고 봐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필러를 이용한 질 성형 시술이 버젓이 자행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광고도 범람하고 있다. 산부인과마다 경쟁적으로 필러 시술 능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팸플릿, 포스터 등의 광고를 제외한 온라인 광고는 불법이다. <br/> <br/>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불법 광고를 한 의료기관 76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여성 생식기 필러 광고가 11건, 유방 필러 광고가 1건이었다. 식약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이를 알려 광고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의공문을 내려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불법 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r/> <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학문적 근거가 없는 시술행위를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시술 자체는 환자 특성별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br/> <br/>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일러스트=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17.txt

제목: [청사초롱-이나미] 존엄한 노년을 소망한다  
날짜: 2017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2173255001  
ID: 01100201.201711221732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면 올 한 해 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실수를 했나, 짚어 보는 게 습관이 됐다. 나이 들수록 후회와 부끄러움이 더 진해진다. 치기나 경험 부족이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추하게 늙어간다” “벌써 치매가 온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처신하는 것이 더 두렵다. 올해는 특히 모교에 돌아가게 되면서, 나이만 들었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 절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적지 않다. 후배들에게 정신 치료를 전수해 주는 분야가 내 전공이지만, 정신분석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너무 많이 발전한 진료 환경도 낯설기 때문이다. 다양한 신약, 새로운 의료기술들 때문에 마치 도시 구경 처음 하는 촌사람처럼 압도된다. 까마득한 후배들에 비해 너무 많은 것에 무지한 선배이기에, 후배들에게 귀찮고 성가신 존재는 아닌지 걱정된다. 가능하면 쓸데없이 나서지 않으려는 이유다. <br/> <br/> 어쩌면 이런 경험들은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 아닐까 싶다. 젊은이들에 비해 경험했던 정보도 더 많고, 삶의 지혜도 웅숭깊어서 노인들에게 절로 공경심이 생겨 변화가 거의 없었던 농경사회와 달리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현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연장자가 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조금씩 퇴보해 가는 나이가 든 이들로서는 나눠줄 지식도 지혜도 말라가는 것 같으니 방해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긴다. <br/> <br/> 물론 멋진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병든 곳도 많아져 젊은이들에게 힘든 것을 맡기며 편하게 지내고 싶은 유혹도 잘 물리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 젊은이에게도 깍듯하게 존대하고, 동등하게 대접하니 오히려 존경받기도 한다. 경험이 많고 살면서 알게 된 지식도 많아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의 실수나 단견을 지적하고 싶을 순간도 많을 터인데, 그런 마음도 잘 참아내는 것 같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얻은 지식은 지혜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나가기 마련이니, 급하게 가르치려 드는 게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일까.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더 보람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도 갖고 있다. 그런 롤모델이 있다 해도, 앞으로 닥칠 노년의 삶은 여전히 두렵다. 연명의료기에 의존하거나 치매에 걸린 채 간병인에게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맡겨야 하는 연옥의 시간에 갇히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몸과 마음의 총기가 사라진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비교적 건강한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br/> <br/> 의학이 발전되지 않아 병들면 자연스럽게 죽어갔던 과거에는 오히려 죽음 준비가 덜 복잡했을 것도 같다. 지금은 워낙 의술이 좋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기계들의 도움으로 한없이 무의미하게 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해도 이유 없이 찾아오는 만성질환, 암, 낙상, 뇌질환의 끝자락을 견디는 것이 죽음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의사나 보호자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맨 정신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현재의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타깝다. 가족에게 둘러싸여 따뜻하게 보살핌 받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박제된 신화만 고집하기보다는 연명기기에 고문 받지 않도록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암으로 오래 고생했지만 낫는다는 희망이 없었던 프로이트는 안락사를 선택했는데 그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내게 있는지 모르겠다. <br/> <br/> 젊은이가 누려야 할 축복과 권리를 빼앗은 채 소음과 쓰레기만 배출하는 쓸모없는 노인이 되지 않기를, 떨어져 소멸하는 낙엽이나 때가 되면 죽기 위해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코끼리처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감히 소망하게 되는 추운 겨울이다. <br/> <br/>이나미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언론사: 국민일보-1-118.txt

제목: [인터뷰] ‘3층 남매’ 구한 소방관, 암수술 받아 복대 차고 구조 나섰다  
날짜: 20171121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1163044001  
ID: 01100201.201711211630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정인근(54·소방경·사진) 인천서부소방서 원당119안전센터장은 지난 20일 오전 10시45분 한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큰불이 났다는 주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신장암 수술을 받은 지 채 한 달이 안돼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허리에 차고 있던 복대를 고쳐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br/> <br/>정 센터장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땐 불이 2~3층으로 번져있었고, 맹렬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왔다. 정 센터장은 황급히 빌라 뒤편을 살폈다. 불이 건물 전면을 뒤덮고 있어 뒤편에 주민들이 대피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예상대로 3층 복도 창틈으로 “살려달라”는 주민들의 외침이 들렸다. 이들은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br/> <br/>이 때 한 주민이 “아이들이 있다”고 소리쳤다. 정 센터장은 주민들 사이로 5살 A양과 3살 B군 남매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조에 나섰다. 불길과 연기가 사나워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정 센터장은 사다리를 이용해 이들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남매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키가 1m 남짓한 남매가 스스로 뛰어내리기에는 난간은 너무 높았다. 정 센터장은 함께 대피해 있던 주민들에게 남매를 아래로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남매를 맨손으로 무사히 받아냈다. <br/> <br/>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현장에 도착해서 봤더니 3층에서 주민들이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사다리를 가져올 틈이 없어 맨손으로 받았다</span>”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관 29년 차인 그는 “<span class='quot0'>콘크리트 바닥에 아이들이 떨어져 다칠까봐 걱정했는데 무사히 구해내 무척 뿌듯하다</span>”고 했다. <br/> <br/> <br/> <br/>정 센터장의 활약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3층은 물론 5층에 대피해 있던 주민 8명을 직원들과 함께 달려가 무사히 구조해내기도 했다. <br/> <br/>정 센터장에게 구조된 남매는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어린 남매와 빌라 주민들의 생명을 구한 정 센터장은 현장 출동 당시 지난달 25일 신장암 수술을 받아 허리에 복대를 차고 있었다. 11월 한 달은 회복을 위해 쉴 예정이었지만 2주 먼저 복귀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그는 “병원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리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당시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받은 환자라는 생각보다 소방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뿐” 이라고 겸손해 했다. <br/> <br/>인천 서부소방서는 아이들을 구한 정 센터장과 함께 남매를 구하는데 도움을 준 주민을 찾아 유공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19.txt

제목: ‘자라나라 머리머리’ 모낭 생성하는 탈모 치료제 개발... 1000만 탈모인들의 희망 될까  
날짜: 20171121  
기자: 이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1143144001  
ID: 01100201.201711211431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모낭을 재생시키는 탈모치료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탈모 치료제가 머리카락을 빠르게 자라게 했다면 새 방법은 망가진 모낭(머리카락의 뿌리가 있는 주머니)을 다시 살리는 효과가 있어 더 근본적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 5명 중 한명이 탈모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녹시딜’과 ‘피나스테리드’를 이용한 기존 탈모 치료제는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이미 진척된 탈모에는 효능이 없고,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 부작용도 많았다. <br/> <br/>과학자들은 세포에서 다양한 병리 현상을 조절하는 ‘윈트 신호전달계’가 암이나 비만과 같은 질병 외에도 발모와 모발 줄기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발모를 조절하는 구체적 단백질과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br/> <br/>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최강열 연세대 교수 연구팀이 윈트신호전달계를 조절해 모발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인 ‘CXXC5’를 발견하고 이를 타깃으로 하는 재생성 발모제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br/> <br/>연구진은 실험용 생쥐와 사람의 모유두세포(모낭 중심에 있는 세포)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세포 밖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디셰벌드’라는 단백질에 ‘CXXC5’ 단백질이 결합하면 신호전달계 기능이 떨어져 머리카락 형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 단백질은 흔히 탈모 진행 환자의 두피 조직에서 발견된다. <br/> <br/>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두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하는 펩티드(소량의 아미노산 결합 물질)를 만들고 신호 전달계를 다시 깨우는 활성화제와 함께 사람 세포와 생쥐에 집어넣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의 생성에 관여하는 성체줄기세포의 분화가 다시 촉진되며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이 복구되는 ‘재생성 발모 효과’가 나타났다. <br/> <br/>지난 100년간 한 번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정설처럼 받아들여져왔다. 하지만 2007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 연구진이 모낭 재생을 통해 머리카락이 다시 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탈모가 진척된 환자의 치료 가능성이 처음 제시됐다. 국내 연구진의 이번 연구는 이 치료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약물을 이용해 탈모 치료는 물론 피부조직의 손상까지 재생시키는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는 지난 10월 피부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피부과학 연구지’에 발표됐다. 탈모 분야 권위자인 루이스 갈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례적으로 이 학술지에 이번 국내 연구진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br/> <br/>이현지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20.txt

제목: 폐암 2명 중 1명 "심각한 정신적 고통"...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각  
날짜: 20171120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151744001  
ID: 01100201.201711201517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폐암 환자 2명 중 1명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폐암 환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남성보다 더 컸다.  <br/>  <br/>대한폐암학회는 지난 9월 전국 7개 대학병원에서 폐암 환자 386명(남성 270명·여성 1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br/> <br/> 디스트레스는 암 환자가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포괄하는 용어로 암 환자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br/> <br/> 폐암학회는 폐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를 10점 척도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의료진 상담이 필요할 정도(4점 이상)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54.4%였다. <br/> 4점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비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56.1%)이 남성(53.6%)보다 더 높았다. <br/>  <br/> 세부 분석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관찰됐다. 우울감(여성 37.1%·남성 24.4%), 두려움(여성 45.7%·남성 27.8%), 슬픔(여성 37.1%·남성 23.7%), 걱정(여성 61.2%·남성 49.8%) 등 정서와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br/>  <br/> 신체적 고통의 경우 소화불량(여성 39.7%·남성 21.9%), 코 건조 및 코막힘(여성 28.1%·남성 13.7%), 피부 건조 및 가려움(여성 37.1%·남성 26.3%), 손발 저림(여성 40.5%·남성 28.1%) 등으로 대부분 여성이 더 큰 고통을 호소했지만, 성생활(여성 2.6%·남성 9.6%)에 대한 디스트레스는 남성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폐암학회 홍보위원장인 류정선 인하대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조사에서 폐암 환자 2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여성 환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의료진과 주변인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하지만 경도 이상의 불안감 또는 우울증을 가진 폐암 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은 고작 33%에 불과했다. <br/> <br/> 폐암학회 홍보위원인 안희경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1'>사회적 인식 때문에 폐암 환자 대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폐암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치유해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폐암학회는 오는 2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여성 폐암, 당당하게 이겨내자'를 주제로 폐암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21.txt

제목: 국내 연구진, ‘모낭 재생’ 탈모치료 물질 개발  
날짜: 20171120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140644001  
ID: 01100201.201711201406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모낭을 재생시키는 새로운 탈모치료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br/> <br/>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강열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윈트신호전달계(Wnt signaling pathway)’를 조절해 모발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CXXC5)을 발굴하고, 이를 타깃으로 하는 재생성 발모제를 개발 중이다. <br/> <br/>윈트신호전달계는 세포내에서 다양한 생리·병리현상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전달계로써 암, 골다공증, 비만, 상처 치유, 모발 형성 등 치료제 개발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br/> <br/>머리카락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기존 탈모치료제는 이미 진척된 탈모에 효능이 없고 남성호르몬 억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 이를 극복할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했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물질은 혁신신약(first-in-class) 약물로써 탈모 치료는 물론 피부조직의 손상까지 재생시키는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이 연구는 피부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0월 20일자에 게재됐으며, 루이스 갈자(Luis A. Garza) 존스홉킨스 대학교수가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br/> <br/>최근 윈트신호전달계가 발모 및 모발 줄기세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됐지만, 발모를 조절하는 단백질이나 구체적인 조절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br/> <br/>이에 연구팀은 CXXC5(CXXC-type zinc finger protein 5) 단백질이 디셰벌드(Dishevelled) 단백질에 결합해 윈트신호전달계의 활성을 저해하고, 이는 모발 형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생쥐모델 실험과 인간 모유두세포(인체 모낭의 중심 세포) 연구를 통해 밝혔다. <br/> <br/>최강열 교수는 “이 연구는 모발 형성 조절에 관련된 단백질을 발굴하고, 이를 제어해 모발 재생을 촉진하는 신물질을 개발한 것"이라며 "탈모 치료뿐 아니라향후 손상된 피부조직 상처 및 아토피 치료 등에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향후 연구계획을 밝혔다. <br/> <br/>이 연구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지원사업(집단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1-122.txt

제목: 김한겸 교수, 4마이크론 위에 펼쳐진 생의 신비 전시회 개최  
날짜: 2017112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101144001  
ID: 01100201.201711201011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고려대 구로병원은 병리과 김한겸 교수가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갤러리 류가헌에서 현미경 사진 전시회 ‘노마드 인 어 스몰 월드(Nomad in a small world)’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br/> <br/>노마드 인 어 스몰 월드는 병리 진단을 위해 4마이크론의 얇은 두께로 잘라낸 환부 조직을 현미경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형태를 김한겸 교수의 섬세하고 예술적인 감각으로 세상에 투영해 작품화 한 사진전이다. <br/> <br/>36년 동안 병리과 전문의로서 바라본 현미경 너머의 세상에 대한 헌정 예술과 다름없는 이번 전시회는, 노쇠하고 병들어 생명의 귀퉁이에서 떨어져 나온 조직들에게서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하는 생(生)과 사(死)의 신비가 녹아들어 있다. <br/> <br/>울창한 숲,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의 벚꽃, 용맹한 전사의 목숨을 노리는 메두사의 형상이 그려진 작품 속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날카로운 의사의 눈으로, 때로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무한한 상상력이 뒤섞인 예술가의 눈으로 살아온 김 교수의 인생도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br/> <br/>그는 현재 고려대 구로병원 건강검진센터 소장과 호스피스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몽골, 아프리카, 러시아, 네팔, 캄보디아 등 지구 곳곳을 누비며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베일에 싸인 극지 의학을 밝히기 위해 쇄빙선을 타고 남극을 항해하기도 했다. <br/> <br/>격정적이고 열정적이었던 그가 받아들였던 실재(實在)의 세상이 현미경에 투영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재탄생한 것이 바로 ‘노마드 인 스몰 월드’이다.  <br/> <br/>마치 이데아(idea)와 현상세계처럼 현미경 속 작은 환부에는 인간의 세상이 오밀조밀하게 재현(mimesis; 미메시스)돼 있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작품들로 꾸며졌다. <br/> <br/>특별한 전시회인 만큼 수익금도 특별하게 쓰일 예정이다. 전시회가 끝난 후 말기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금으로 호스피스회에 기부된다. <br/> <br/>전시회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월요일은 쉰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23.txt

제목: 유방섬유선종 제거, 맘모톰수술 시 체크할 사항은  
날짜: 2017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080044001  
ID: 01100201.2017112008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얼마 전 유방암을 걱정한 유명 헐리우드 배우가 가슴절제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유방암은 갑상샘(갑상선) 암에 이어 한국 여성에게 두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암으로 유방암의 조기진단을 위해서 40세 이후 여성에게는 1~2년 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소 자가체크 중 가슴에 멍울이 느껴져 유방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br/> <br/>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은 아니다. 가슴에 멍울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다수는 양성종양인 섬유선종인 경우가 많다. 섬유선종은 가임기 여성의 가슴에 자주 나타나는 양성종양으로 여성호르몬의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유선말단과 유방조직 변이가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섬유선종은 초음파검사에서 대부분 발견이 되며, 크기가 크지 않거나 증상이 없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크기가 커지거나 악성종양과 감별이 안 되는 수술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의 가슴은 임신과 출산, 수유 등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술에 앞서 건강과 치료의 목적, 미용적인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br/> <br/>요즘엔 가슴섬유선종 수술에 일명 맘모톰수술이라고 하는 진공흡인기구를 이용한 수술법이 흔히 시행된다. 작은 구멍이 있는 수술바늘로 종양의 완전한 절제가 가능하며, 정상 유선조직을 보존하면서 거대 섬유선종과 다발성종양제거가 가능하며, 시술부위가 움푹 패이는 유방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절개를 하지 않으므로 봉합할 필요가 없고 출혈, 통증, 흉터도 거의 없으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br/> <br/>담소유병원 이성렬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진공흡인기구를 이용한 유방섬유선종 제거 수술은 10분 내외로 짧은 수술이지만 충분한 수술경험이 필요한 까다로운 수술인 만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24.txt

제목: [김양균 기자의 현장보고] 싸늘한 ‘乙지옥’… 정당하기에 버틴다  
날짜: 2017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202655001  
ID: 01100201.20171120202655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을지재단 소속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의 파업이 42일째를 맞고 있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요원해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는 “<span class='quot0'>병원의 타협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span>”고 말하고, 병원은 “최선의 제안을 했다”며 선택지는 노조에게 달렸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교수협의회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면서도 은근히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내걸기도 했다. 이들 모두가 원하는 건 파업을 끝내는 것이지만, ‘종결’에 이르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br/> <br/>“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지금도 최악인데 더 무너질 게 있겠는가.” 15일 서울 을지병원에서 만난 한 조합원의 일갈이다. 을지병원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기자회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타 노조, 정당 등도 연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 ‘을지병원 파업승리를 위한 노원지역대책위’는 이러한 지지의 결과물이다. 대책위의 강미경 집행위원장은 “파업 처음부터 연대해왔다. 을지병원의 운영 행태는 환자의 안전에 적잖은 우려를 가져온다. 이 파업은 노동권과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라고 말했다. <br/> <br/> 을지병원에선 그동안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겸 의료법인 을지병원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사임했으며, 이승진 병원장이나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교수협의회도 호소문을 발표했다. 당초 박 이사장의 사임으로 파업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박 이사장이 떠나며 남긴 호소문은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의 가슴에 생채기만 냈다. <br/> <br/> 박 전 이사장은 ‘호소문’에 “<span class='quot1'>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개인의 신상을 들춰내며 협박을 주저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을지병원을) 최악의 병원으로 매도하고 있다</span>”고 썼다. “<span class='quot2'>설립자님과 저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span>”한다거나 “<span class='quot2'>노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 협박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span>”고도 적었다. 사실상 현 을지병원 파업사태의 책임이 노조에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해당 ‘호소문’은 병원 입구와 로비 곳곳에 붙어있다. <br/> <br/> 노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ㅅ노조원은 기자에게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이 이사장 아닌가. 병원 외래만 운영되면 문제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을지스럽다’거나 ‘을지옥’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다. 열악한 을지병원의 상황을 빗댄 표현마저 나도는 상황에서 박 전 이사장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br/> <br/> 호소문에 분통이 터진 건 비단 조합원뿐만이 아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기자에게 박 전 이사장의 호소문에 대해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본인(박 전 이사장) 때문에 을지병원이 이 지경이 됐다. 새 병원(의정부 을지병원)을 건립한다면서 노조 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 이렇듯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여러 뒷말이 오가는 가운데, 한 병원 측 인사는 사임의 의미에 대해 “<span class='quot3'>서울-대전 을지병원에 사태 해결을 맡긴 것</span>”이며 “<span class='quot3'>세간의 소문처럼 재단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span>”고 말해 확대해석 자제를 요구했다. 이 말대로라면 파업 사태 해결의 ‘열쇠’는 서울 및 대전 을지병원의 이승진, 홍인표 병원장에게 달렸다는 이야기다. <br/> <br/> 그러나 이들이 재단 산하 조직의 이사 등을 맡으며 직간접적으로 재단과 연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선택이야말로 재단의 바람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인사는 기자에게 “<span class='quot4'>재단이 병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 파업 사태는 재단 소관이 아니</span>”라는 다소 모호한 말을 전했다. 서울-대전 병원장 사이에도 난감한 기류가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인사는 “<span class='quot5'>두 병원장(이승진, 홍인표)도 서로 눈치를 볼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교수협의회’의 ‘호소문’도 눈에 띈다. 이들의 호소문은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면서도 “환자를 담보로 하는 투쟁을 지속한다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누적된 불만이 많겠지만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등의 구절에선 노조에 대한 묘한 뉘앙스가 묻어난다. 이날 만난 ㄱ조합원은 말했다. “이곳에 임금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다. 후배들에게까지 우리가 겪은 불합리함을 답습하게 할 수 없어서 나온 것이다. 파업은 우리야말로 가장 간절히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br/> <br/> ‘을지 네트워크’에서 노조는 ‘별종’이다. 병원은 파업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한다. 이사장은 파업으로 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했으며, 교수들은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라면 거대한 조직 같지만, 이삼십 대 간호사들이 주를 이룬다. 가장 낮은 위치의 직원들이 뭉친 조직이 병원을 망치는 ‘암 덩어리’로 치부되고 있다. <br/> <br/>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준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서로 알려주는 셈이다.”(ㅂ조합원) <br/> <br/> 을지병원 파업과 관련해, 윤소하 의원은 “을지병원은 (적폐가) 망라돼 있다. ‘백화점’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승진 병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병원 재경국장이 ‘병원 재정이 어려운데 노조의 요구가 심하다’고 말하더라. 임단협은 밤을 새서라도 진행돼야 한다. 국회에서도 을지병원 사태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1-125.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고려대안암병원 유방센터, 토탈케어로 건강한 ‘이브의 삶’ 부축  
날짜: 20171120  
기자: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201055001  
ID: 01100201.201711202010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센터(센터장 정승필·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첨단 기기를 갖추고 환자가 센터 내에서 진단·검사·수술 스케줄까지 잡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수술, 재건, 항암치료, 호르몬치료, 재활치료가 이뤄진다. 이에 대한 환자들의 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유방건강의 토탈케어를 제공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br/> <br/>◇원래 유방모양 유지하고 흉터 최소화하는 유방암 종양성형수술법 권위자=유방센터는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촬영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정확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한 후, 최소절개를 통해 유방보존술과 피부보존유방절제술, 유방재건술을 실시한다. 특히 유방암 수술 후에도 원래대로의 유방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의 회복과 건강을 고려해 암 전이 정도에 따라 수술범위와 술기가 결정된다. <br/> <br/> 수술 전후 검사는 물론 항암치료, 항호르몬치료, 방사선치료 등에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치료 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지치료도 함께 시행된다. 수술의 경우 유방암 종양성형 수술법이라는 최신 수술법을 이용 암을 제거함과 동시에 남아있는 자가유방조직을 이용해 원래의 유방모양을 최대한 유지한다. 암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흉터 최소화를 위해 유륜주위 또는 유방 밑 주름을 이용해 암을 제거한다. 수술 후 필연적으로 생기는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해 삶의 질을 높인다. 정승필 교수는 “암이라는 질병 자체도 건강에 큰 적이지만, 과도한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다.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 <br/> <br/> ◇흉터 없는 첨단 로봇유방재건수술, 하이브리드 유방재건술=최근에는 절개범위가 적고 좁은 부위에서도 자유로운 수술이 가능한 로봇 수술이 유방재건술에 활용된다. 유방센터 윤을식 교수(성형외과)가 지난 2012년 중순부터 로봇 유방재건술을 성공시키며 흉터없는 유방재건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br/> <br/> 유방재건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자가조직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자가조직을 이식할 때는 배나 등의 조직을 떼어 이식한다. 로봇을 이용한 유방재건은 자가조직 중 등 근육을 이용할 때 가능하다. 등의 근육을 절개해 가슴 부위로 옮겨 유방을 재건하는 광배근 유경피판술이라고 하는데, 이 수술방법에 유용하다. <br/> <br/> 로봇을 이용한 유방재건의 가장 큰 장점은 흉터가 적다는 점이다. 기존 등근육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인 광배근 유경피판술은 피부 이식 여부와 상관없이 2∼30㎝ 가량의 흉터가 등 부위에 남는다. 하지만 로봇수술을 이용하면 겨드랑이에 3㎝ 가량의 절개만으로 충분하다. 흉터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술 후 입원기간도 기존 2주에서 3∼4일로 훨씬 줄어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 <br/> <br/> 최근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 근육으로 보형물을 감싸는 하이브리드 유방재건술로 재건하여 보형물과 자가조직의 장점을 고루 얻을 수 있다. 단순히 보형물만 삽입하면 보형물이 비쳐보이거나 피부가 주름져 보이기도 하고, 보형물 주위에 피막이 형성돼 유방이 딱딱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등 근육으로 보형물을 덮어줌으로서 피막 구축은 물론 유방 비대칭도 예방한다. <br/> <br/> 윤을식 교수는 “로봇수술은 기존의 수술방법에 비해 기능적, 미용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유방재건은 기존방법들의 장점을 배가시킨 방법으로 환자들이 수술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26.txt

제목: 쓸모 많은 NGS… 그런데 왜 쓸모없게 되어갈까  
날짜: 20171120  
기자: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190855002  
ID: 01100201.201711201908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4차 산업혁명을 전문가들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풀어낸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들 수 있다. 이를 의학 분야와 접목한 영역 중 하나가 ‘정밀의료’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와 생활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NGS(Next-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이다. <br/> <br/> NGS는 인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암의 진단이다. 유전자 변이 유무를 유전자 패널과 비교·분석해 암 발생 여부를 파악하거나 발생가능성을 예측한다. 이에 정부는 정밀의료의 발전과 환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NGS 유전자패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조건부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정밀의료의 기반이 되는 NGS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도 표적항암제를 선택할 수 없고, 정확한 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이나 관리체계가 부족해 제대로 된 활용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br/> <br/>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NGS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핵심쟁점을 크게 ▶비용효과성의 판단과 적용범위 ▶표적함암제 등 치료영역과의 연계부족 ▶기술적, 인적 전문성과 검증 문제 3가지로 꼽는다. <br/> <br/> 먼저, 비용효과성의 판단과 적용범위의 문제에 대해 서울대의대 의료정보학교실 김주한 교수(시스템 바이오 정보의학 연구센터장)는 제도 설계의 부실과 사회적 합의의 부족으로 풀이했다. NGS는 MRI와 같은 진단검사이기에 거의 모든 질환에 쓰일 수 있는 범용성을 갖지만 어떤 환자에게 언제 써야할지 구체적인 설계 없이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편입돼 합리적 적용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비용효과적인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NGS는 MRI와 유사한 문제를 갖는다. 정확히 어떤 질환, 어떤 문제에 검사가 이뤄져야하는지를 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고, 들인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며 “보험재정과 환자의 필요, 의학적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br/> <br/> 여기에 치료영역과의 연계성 부족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정밀진단은 결국 적절한 치료법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의 보험체계는 필수유전자만 포함된다면 검사가 가능하고 보험급여가 지급되지만 정작 표적항암제 등 치료법과는 연계가 되지 않아 진단과 관계없이 급여여부가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br/> <br/> 고대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열홍 교수(정밀의료사업단장)는 “<span class='quot0'>4기 혹은 재발이나 전이가 돼 표적치료제를 쓸지를 고려해야하는 환자에게만 패널검사를 해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고 어떤 약을 쓸지를 고민해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해야한다</span>”며 범위를 좁혀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br/> <br/> 기술적, 인적 전문성과 검증 문제도 있다. NGS는 진단을 위한 기술이기에 유전자 변이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유전자 패널과 인증된 연구실,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초기기술의 한계로 인해 패널의 표준화나 기술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분석가들의 숙련도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 학계 관계자는 “기초 연구자 입장에서 NGS가 보험급여로 풀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 환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연구용으로 갔어야 한다”면서 “정밀의료 차원에서 NGS는 가장 필요한 기술이지만 어디까지 보험을 적용해야할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조건부 선별급여가 적용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수백 가지 패널과 쓰임에 따라 유효성 등의 검증을 위한 근거 축적의 어려움 ▶일부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또는 연구적 호기심에 편승한 오남용 ▶건강보험법 상 검사 수탁기관의 전문기업 배제 등의 문제들도 풀어야할 숙제로 파악됐다. <br/> <br/> 한편, 복지부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신기술의 적용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며 해당 사안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 사안별로 논의를 거쳐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나 약제와 행위가 분리된 보험급여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span>”고 말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김주환 교수 또한 “<span class='quot2'>결국 NGS의 정책적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인 효용과 평등한 접근권,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학계와 환자 간의 역학관계</span>”라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상황과 표적항암제 또는 유전자 가위 등 치료법과의 연계가능성과 보험급여 지급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br/> <br/>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1-127.txt

제목: “내부고발 보복” “평소행실 문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끌  
날짜: 20171120  
기자: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190655001  
ID: 01100201.2017112019065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 내홍을 앓고 있다. 최근 소속 의사 ㄱ교수를 해고한데서 비롯된 잡음이다. ㄱ교수가 분회장으로 있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이하 의사노조)는 의학원 측에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노조는 ㄱ교수가 병원 임상실험 비리를 내부 고발해왔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학원은 ㄱ의사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많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결정이 났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br/> <br/> 어떻게 된 걸까? 의학원의 ㅇ의학원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수탁을 받아 ‘폐암환자에게 수지상세포 면역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해왔다. ㅇ의학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임상시험의 결과가 성공적이며 4년째 모두 재발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ㄱ교수는 임상시험 대상 7명의 환자 중 3명에게서 폐암이 재발 및 전이됐고, 그 중 2명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br/> <br/> 이에 대해 의학원은 ㄱ교수의 ‘내부고발’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학원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참가를 희망한 15명의 암 환자 중에 두 명이 사망했지만, 사망 시점은 치료 이후 11개월, 2년이 경과한 뒤였으며 면역치료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질환(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두 명의 환자에게서 전이가 발견됐지만, 한 명은 치료 중에 뇌로 전이가 됐고 현재도 생존해 있으며, 다른 한 명은 다른 종류의 폐암이 발견돼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의학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해당 환자에게서 발병한 ‘다른 종류의’ 폐암은 임상시험과는 연관이 없다고도 밝혔다. <br/> <br/> ㄱ교수의 해고 사유 역시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ㄱ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span class='quot0'>임상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로 ㅇ원장은 다각도에서 전 방위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0'>2015년부터 저를 해고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span>”고 주장했다. <br/> <br/> 이에 대해 의학원 측은 ▶하급자(간호사)에 대한 인격 모독, 괴롭힘 등으로 인한 기관 주의조치 ▶복무불량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향응수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과실 ▶대기발령 기간 중에 응급실 근무태도 불량 등이 ㄱ교수의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밝혔다 <br/> <br/> ㄱ교수가 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의사노조’도 새로운 갈등의 한 축이다. 현재 의학원에는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한다. 300여명의 병원 직원이 가입한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회’와 ㄱ씨가 주도해 설립한 의사노조가 그것이다. ㄱ교수는 입장문에서 “12명의 의사들은 의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의사 노조를 통해서 이러한 적폐를 의료현장에서도 해결하고자 했다”며 “최초의 의사노조 탄생을 방해하려 한다. 의사노조를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싹을 자르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br/> 이에 대해 의학원 측은 “이미 복수노조로 인정된 상태”라며 “의사노조 설립을 방해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의학원 관계자는 “(의사노조의) 노조원이 누군지도 모른다. 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라 복수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ㄱ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r/> <br/>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1-128.txt

제목: [건강 나침반] 환자 위한 위험분담제 지속가능한 운용 기대  
날짜: 2017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190455001  
ID: 01100201.20171120190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한종양내과학회는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해석’ 특별 세션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통한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다른 많은 질환이 있음에도 특히 암환자들을 위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양전문의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특성상 효과적이지만 고가 치료를 오랜 기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이로 인한 ‘메디컬푸어’를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br/> <br/> 2016년 11월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에서 발표한 암환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암환자는 1년에 평균 2800만원을 치료비용으로 쓰고 있고, 이 중 60%가 약값이며 이 중 60%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에 사용된다. 항암제를 쓰다가 도중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69%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br/> <br/> 정부는 현재 제한적인 보험급여 시스템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2013년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항암신약에 대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면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를 적용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은 치료제의 환자 본인부담 감소액이 연간 1300억원으로 환자가 받는 혜택이 상당히 크다. 실제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를 받은 대장암 치료제의 경우 지난 3년간 약 3000명 이상의 암환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분담제가 꼭 필요한 항암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에 기여한 바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br/> <br/> 시행 4년차를 맞아 위험분담제 재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당국은 위험분담제 적용 중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약제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평가자료를 기본으로 업데이트된 임상효과 자료 및 가격변화 등을 반영해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환급형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입증돼 도입됐고 이미 많은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약제를 다시 계약하는 기준이 환자의 접근성 유지와 확대가 아니라 비용효과성 여부 그 자체만이 될까 봐 우려의 마음이 든다. <br/> <br/> 위험분담제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비교 대상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정부가 제시한 제도 취지만큼 환자에게 효과적인 약제 접근성을 최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위험분담제 재계약을 위한 평가방법이 오히려 접근성 장애로 작용해 제도운영이 소극적으로 변질될까 걱정이 든다. 이러한 우려는 ‘재평가’에 있어서는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 입장에서는 위험분담제를 통해 사용중인 약제의 재평가 기준이 환자들이 경험한 혜택이나 진료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만 그 초점이 맞춰질까 우려스럽다. <br/> <br/> 문재인 정부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약속한 만큼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필요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환자 보장성 강화 제도인 위험분담제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환자들이 필요한 약제를 처방 받아 치료할 수 있도록 재평가가 현명하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br/> <br/>김봉석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언론사: 국민일보-1-129.txt

제목: 세계적 연주자 옌스 린더만, CML환자위한 감동 무대  
날짜: 20171120  
기자: 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190355001  
ID: 01100201.20171120190355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암환자들을 위해 연주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이들에게 음악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캐나다 출신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옌스 린더만(Jens Lindemann)이 국내 만성골수성백혈병(CML) 환자들을 위한 무대에 올랐다. 지난 16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CML Day)을 기념해 열린 ‘희망 톡케스트라’에서 배종훈 감독이 이끄는 서리풀 오케스트라와 함께 클래식 음악부터 리드미컬한 탱고까지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다. <br/> <br/> 당초 린더만은 지난 12일 열린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날 함께 연주한 배종훈 감독에게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의 취지를 듣고는 출국 일정을 열흘간 미루고 선뜻 재능기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br/> <br/>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 내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다. 다행히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먹는 항암제로 지속적 치료를 받고 관리하면 장기 생존이나 완치길이 열리고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은 이러한 환자와 가족들의 질병극복 의지와 희망을 북돋기 위해 만들어졌다. <br/> <br/> 린더만은 개인적으로도 혈액암과 인연이 깊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트럼피터 라이언 앤서니(Lyan Anthony)와 함께 결성한 ‘암을 날려버리자’는 의미의 캔서블로우(Cancer Blows) 재단의 부회장이기도 하다. 5년 전 혈액암 투병 중인 앤서니의 제안으로 세계적 트럼피터 20명이 함께 만든 재단에서는 혈액암 및 다발성골수종의 치료와 암 연구를 위한 기금모음, 연구비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br/> <br/> 그는 “혈액암은 쉽게 낫지 않는 매우 어려운 병이다. 트럼펫을 불 듯 나쁜 암을 불어 없애겠다(Blow)는 마음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암을 각인시키고 암연구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평화연주회 이후 바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배 감독의 제안을 듣고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린더만은 “친구 앤서니는 암투병 중이지만 무대에서 만큼은 히어로다. 그가 연주할 때 보여주는 미소와 열정은 관객들에게 큰 희망을 준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내년에는 앤서니도 함께 한국에 와서 암환자들을 위한 감동의 연주회를 열고 싶다”고 제안했다. <br/> <br/> 린더만과 배종훈 감독의 인연은 대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 감독이 UCLA 유학시절 린더만은 같은 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지휘자와 트럼피터로 인연을 쌓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번 방문해 연주회를 함께 했다. 린더만은 “배 감독과는 눈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아챌 정도로 자연스럽게 통하는 친구”라며 “한국 관객들은 감격과 감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열정이 대단해 매번 좋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br/> <br/> 이번 ‘희망 톡케스트라’에서는 재즈, 블루스, 탱고 등 일상생활에서 즐길만한 다양하고 풍부한 연주가 이어졌다. 린더만은 특히 이번 공연의 포인트로 ‘사랑의 음악’이라 불리는 탱고를 꼽았다. 그는 “탱고는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추는 춤이다. 트럼펫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랑의 감동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CML의 날을 기념한 이번 ‘희망 톡케스트라’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와 루산우회(서울성모병원 CML 환우회)의 공동주최 및 서울시 서초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의 강의와 함께 서초문화 재단의 서리풀 오케스트라(지휘자 배종훈)와 트럼피터 옌스 린더만의 공연이 이어졌다. <br/> <br/> 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30.txt

제목: 지긋지긋 허리 통증… “척추암 아닐까”  
날짜: 20171120  
기자: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190355002  
ID: 01100201.201711201903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흔히들 겪는 만성통증 중 대표적인 것은 허리통증이다. <br/> <br/> 허리가 아픈 원인은 대개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 질환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척추암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 허리통증을 누구나 겪는 증상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진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 <br/> <br/> <br/> Q. 척추에도 암이 생길 수 있나? <br/> <br/>-척추는 뇌에서 연결되는 신경줄기인 척수를 보호하고,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는 뼈입니다. <br/> <br/> 이러한 척추에도 암이 생길 수 있으며,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암은 척추에서 처음 생겨나기 시작하는 원발성 척추암과 기존에 다른 암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척추에 전이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유방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등에서 척추 전이암이 잘 생기고, 소화기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등은 척추 전이암의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br/> <br/> Q. 통증은 암의 전조 증상? <br/> <br/>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입니다. 통증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목, 등, 허리가 아프거나 신경을 눌러서 팔, 다리가 저리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척추뼈를 갉아 먹게 되면 척추가 부러지는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심한 급성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br/> <br/> <br/> <br/> Q. 척추 디스크병과 어떻게 구별하나? <br/> <br/> -증상만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허리통증과 다리가 당기는 통증이 생겼을 때 대개 척추 디스크병으로 진단하여 물리치료, 약물요법 등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척추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척추뼈, 신경, 인대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어 척추암 진단에 제일 중요한 검사입니다. 뼈 스캔(bone scan),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등의 검사는 몸 전체를 보여주는 검사로서 기존 암의 척추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br/> <br/> <br/> Q. 수술로 완치 되나? <br/> <br/> -수술로 암 덩어리를 제거하여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고, 약해진 척추뼈를 튼튼하게 보강시켜 줍니다. 암세포가 척추신경을 눌러 하지마비가 생긴 후 48시간이 지나면 수술로 신경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암세포에만 집중적으로 고선량의 방사선을 쪼여 암세포를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원리의 방사선 수술인 사이버나이프 치료가 척추암에 가장 적합한 치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척추암 수술은 종양의 완전 제거가 어렵고 출혈,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경험이 필요 합니다. 원자력병원의 경우 800건 이상의 척추암 수술 실적과 함께 사이버나이프 치료도 1000건 이상으로 국내 최다 치료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br/> <br/> <br/> <br/> Q.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br/> <br/> -척추암 수술 후 눌린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거나, 척추뼈를 충분히 보강하지 못한 경우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 보조기착용, 약물복용, 고주파치료, 신경차단술, 척수신경자극술,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자력병원은 척추암의 수술 뿐 만 아니라 수술 후 통증치료를 위한 다양한 치료법을 도입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br/> <br/> <br/> <br/> Q.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은? <br/> <br/> -쿠션 등을 허리에 받쳐 앉고,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잠깐 서 있거나 걷는 자세를 취한 후 다시 앉도록 합니다. 물건을 들 때는 가급적 5kg 이상 드는 것을 피하고, 무릎을 굽혀 물건을 가슴에 가깝게 안듯이 들어 올리며 절대 허리를 구부려 들지 않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급적 침대를 이용하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상반신을 바로 일으키지 않고 옆으로 구르기를 해 침대의 가장자리에 엎드린 듯 한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내리며 손을 짚고 일어납니다. <br/> <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news.com <br/> <br/><도움말: 원자력병원 척추암센터 장웅규·조원익(신경외과)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1-131.txt

제목: 동성제약 “光역학치료 대중화 열겠다”  
날짜: 20171120  
기자: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20185755001  
ID: 01100201.201711201857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9일 대구경복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첨복단지) 내에 동성제약연구소 대구암센터를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동성제약 임직원을 비롯해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첨복재단 이재태 이사장, 동원약품 현수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양구 대표는 “<span class='quot0'>동성제약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해에 동성제약연구소 대구암센터가 완공돼 더욱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구암센터를 통해 부작용이 적고 종양선택적인 광감각제를 올해 안에 개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대구암센터가 광역학치료의 대중화를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새로 문을 연 동성제약연구소 대구암센터는 지난 2014년 12월 대구시와 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올해 3월 착공해 지난 9일 준공식을 열었다. 대구시 동구 동내동 첨복단지 내에 위치한 대구암센터는 2층 규모로 1층은 연구지원팀과 두피케어연구소, 2층은 광역학 신약개발연구소로 운영된다. <br/> <br/> 동성제약은 대구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광역학치료의 대중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 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미 지난 2016년 6월부터 첨복단지 내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광역학치료와 항암치료영역에서의 혁신신약 후보 물질을 공동 연구해오고 있다. <br/> <br/> 또한 신약개발연구소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음향역학치료(SDT, Sono Dynamic Therapy)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음향역학치료방식은 광역학치료법과 유사하게 개복이나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암세포를 죽일 수 있으며 반복치료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졌다. 향후 동성제약은 광역학치료법 또는 음향역학치료 법을 췌장암, 위암, 담도암 등에 적용시키는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br/> <br/> 동성제약이 100년 기업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광역학치료는 칼이 아닌 빛을 이용한 암치료법으로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수술요법에 비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적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치료법이다. 빛에 잘 반응하는 광감각제를 몸에 주입하면 정상세포보다 종양세포에 더 많이 쌓이는 성질을 이용해 광감각제를 종양부위에 흡수시킨 뒤 그 부위에 레이저광을 쬐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박도현 교수와 함께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광역학치료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가시적인 임상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br/> <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32.txt

제목: "조부모의 지나친 사랑, 손자 건강엔 악영향" 英 연구결과  
날짜: 20171119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9173544001  
ID: 01100201.20171119173544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영국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조부모가 키운 아이는 부모가 양육한 아이보다 건강이 더 좋지 못하고 심지어 암 발병율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지난 15일 BBC와 인디펜던스 등에 따르면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연구팀은 “조부모의 양육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손자 손녀들의 나쁜 습관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관대’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조부모가 키운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흡연, 과체중, 운동 부족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암 발병율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연구팀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18개국 56개 연구의 자료를 분석했고, 몸무게와 다이어트 상황, 활동 능력, 흡연 여부 등에 초점을 뒀다. <br/> <br/>관련 논문은 국제학술지 Plos One 최신호에 게재됐다. <br/> <br/>연구팀은 연구에서 조부모들이 고단백, 고지방의 식품을 상대적으로 더 먹이려 하는 경향이 있고 과자 등을 보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br/> <br/>또한 조부모가 돌보는 동안 손자나 손녀는 운동을 매우 적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이번 연구를 주도한 스테파니 챔버스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조부모들은 보건 당국의 정보 전달 주요 대상이 아닌데 이번 연구를 통해 조부모가 아이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1-133.txt

제목: 무릎인공관절 여전히 부담스럽기만 할까  
날짜: 2017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7153044001  
ID: 01100201.20171117153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무릎관절염은 암질환과 함께 치료 여부가 노후 삶의 질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문제는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릎관절염 말기에 시행되는 인공관절 수술 부담은 매우 커 치료기피 및 합병증 동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무릎관절염 치료는 정녕 큰 부담을 감수하고 수술을 결정해야만 할까? <br/> <br/>북미관절경학회(AANA) 마스터코스와 이탈리아 리졸리 정형외과 연구센터(Rizzoli Orthopaedics institute)를 비롯해 스위스·벨기에 무릎관절센터를 거치며 국내 무릎관절 수술 권위자로 꼽히는 연세건우병원 무릎수술팀 조승배 원장은 무릎관절염 말기라도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부담없이 손상된 부분만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부분인공관절’ 수술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br/> <br/>조승배 원장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공관절 수술은 모든 무릎관절과 인대를 제거한 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전치환술로 15∼25㎝가량 광범위 절개가 필요하며,슬관절 전체를 깎으면서 출혈이 발생하는데 뼈는 피부, 혈관과 달리 출혈 발생 시 지혈이 쉽지 않아평균 출혈량이 1500㎖에 이른다. 따라서 수혈이 필수적이며 평균 20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부와 근육의 절개 범위가 넓고 슬개골과 인대를 제거하여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입원 기간도 3, 4주나 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br/> <br/>“그러나 말기 관절염이라도 적기에 내원한다면 관절염으로 손상된 부분만 인공관절로 치환이 가능하다. 부분인공관절 수술은 7㎝ 내외 미세절개 만으로 가능하며 평균 출혈량도 300㎖ 이하라 수혈부담이 없다. 또한 슬개골, 십자인대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 수술 후 무릎을 완전히 굽힐 수 있을만큼 기능회복이 우수하고, 수술 통증이 크게 경감되어 평균입원기간도 7일 정도로 전치환술에 비해 4배가량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br/> <br/>부분인공관절 수술은 말기 관절염 환자의 치료부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조 원장은 말기로 진행되기 전 지속적인 통증과 무릎양 변형이 보인다면 보다 빨리 병원을 찾길 권했다. <br/> <br/>이어서 조 원장은 “무릎관절염은 완치는 어렵다. 그러나 발병 이후 조기치료를 시작한다면 말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심한 통증과 생활의 불편을 겪을 일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줄기세포 뿐 아니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 같은 유전자 치료제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통증완화와 부분적인 기능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모든 치료 혜택은 환자분들이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통한 조기내원이 관건이다”고 전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34.txt

제목: [이지현의 두글자 발견-슬픔] 슬퍼 우는 자, 울게 하라  
날짜: 20171117  
기자: 이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7143344001  
ID: 01100201.201711171433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우리는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슬픔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슬픔도 우리 인생에 기쁨만큼 중요한 감정이다. 슬픔을 통해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이 있으므로 기쁨이 존재한다. 이런 슬픔을 기쁨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이 슬픔이란 감정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br/> <br/> <br/> <br/>2015년 개봉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 5가지 감정이 11살 소녀 라일리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의인화된 5가지 감정의 캐릭터들은 낯선 환경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 <br/> <br/>영화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 정의한 인간의 기본 감정(분노 혐오 공포 기쁨 슬픔 놀람)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 ‘슬픔’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감정인지를 알게 됐다. 자세나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슬픔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와주거나 배려하게 한다. 따라서 슬픔은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는 감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이란 감정이 위로를 만날 때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 극중에서 가출한 라일리를 돌아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슬픔에서 비롯된 추억이었다. 하키 경기에서 진 라일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감싸주고 위로해 주자 슬펐던 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형성된다. 슬픔이 위로를 만난 순간 행복으로 전환된 것이다. <br/> <br/> 말할 수 없이 큰 사별의 슬픔 <br/>슬픔이란 감정은 일반적으로 소중했던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喪失感)의 표현이다. 돈을 잃어버리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도 슬프지만, 사별로 인한 슬픔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사별 이후 겪는 슬픔은 단순히 ‘sad'(슬픔)가 아닌 ’grief'(비탄)이며 죄책감, 후회, 수치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감정이다. 우리 주위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아픔으로 인한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 2016년 사망자는 28만명. 이로 인한 사별의 아픔을 겪는 이는 최소 4인 가족 기준으로 112만 명에 달한다. <br/> <br/>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위로의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적합하지 않은 성경구절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span class='quot0'>하나님은 견딜만한 시련을 주신다</span>”는 것이다. 말씀 자체는 맞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는다. <br/> <br/>백혈병과 뇌종양으로 어린 두 자녀를 3개월 사이에 잃은 K 집사는 장례식장에 오신 목사님이 “<span class='quot1'>하나님은 감당할만 한 시련을 주신다</span>”고 말하자 “<span class='quot1'>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감당해보세요</span>”라고 되받아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아이가 투병하는 동안 주위에서 “<span class='quot2'>집사님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span>” “<span class='quot2'>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span>” “<span class='quot2'>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돌아보세요</span>” “<span class='quot2'>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거야</span>”라는 말을 들을 때 위로가 아닌 상처를 받았다. <br/> <br/>상담가들은 재난당한 가정을 찾아가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 그들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위로란 것이다. 함께 있어주며 “힘내세요. 기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위로해 드릴 말을 찾아도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 <br/> <br/>매월 셋째주 수요일, 서울 신촌로 ‘한빛사랑하우스’엔 소아암환자들의 생일잔치에 보낼 도시락을 싸기 위해 6~7명의 어머니들이 모인다. 봉사자들은 모두 자녀를 가슴에 묻은 어머니들이다. 이곳에서 만난 B 권사는 20년 전 19세 아들을 다발성암으로 잃었다. 아이가 떠난 후 절망 속에 집안만 있을 때 한 친구가 다가와 손을 잡으며 “힘내, 기도할께”라고 말해줬다고 한다. 그는 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다. 이후 병원에서 찬양봉사를 시작했고 현재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아직까지 아들 또래의 청년들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span class='quot2'>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span>”라고 말하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자녀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라고 했다. <br/> <br/> 상실을 경험한 이들을 돕는 방법 <br/>슬픔은 표현할 때 치유되기 시작한다. 표현 방법은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상담가나 교회 사역자, 전문적 상담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또 기도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고인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br/> <br/>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울음을 받아 줄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만약 내가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슬픔의 감정을 눈물로 표현하는 것을 마음이 약해진 것이라 생각하고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등의 공감의 말이 필요하다. <br/> <br/>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정을 토로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표현이기도 하다.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눈물을 멈췄을 때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게 효과적인 상담법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상실수업’에서 상실감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서는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쏟아내야 할 눈물이 충분히 빠져나오기 전에 울음을 억지로 멈추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슬픔을 삶의 의미로 전환 <br/>‘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윤득형(46) 회장은 2015년 ‘슬픔학개론’을 출간하면서 국내에 ‘슬픔학’이란 낯선 용어를 처음 소개했다. 최근 서울 경희궁길 각당복지재단에서 만난 그는 슬픔도 학문적 연구대상이 돼야 하며, 이 분야가 한국에서 상담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br/>현재 애도(슬픔)상담 전문가교육을 하고 있는 그는 슬픔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자녀를 잃은 9명의 부모들이 어떻게 슬픔을 극복했는지를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적 영성이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br/> <br/>“9명의 부모들은 정기적으로 교회 활동, 성경읽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 소속감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깊은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속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br/> <br/>그는 슬픔 치유를 위해 ‘감정적 재배치’와 ‘공간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했다. 감정적 재배치란 슬픔이 삶을 압도 하지 않도록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두는 것이다. <br/> <br/>“생각을 금하거나 심리적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간적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장소, 또는 가까운 박물관, 카페 등에 고인을 추모할 만한 장소를 두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슬픔과 기쁨, 눈물과 웃음, 감사와 후회를 경험하면서 슬픔은 서서히 치유될 것입니다.” <br/> <br/> <br/> <br/>그는 대학교 1학년 때 루게릭병으로 3년간 투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평생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 슬픔치유상담을 공부했다. 미국 시카고신학대학원에서 목회심리학을 공부했고,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br/> <br/>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졌다. 그들의 부재로 여전히 상처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상실을 이제 다르게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예레미야 31:13) <br/> <br/> <br/>슬픔에 하나 더 - 눈물의 영성 <br/> <br/>“더러는/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흠도 티도,/금가지 않은/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더욱 값진 것으로/드리라 하올 제/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김현승의 시 ‘눈물’ 전문) <br/> <br/>네 살된 아들을 병으로 잃은 시인이 그 아픔을 믿음으로 달래며 쓴 시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라 그 분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우는 것은 컴퓨터를 리셋하는 일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감정적인 눈물’이 심리치료의 효과가 있다. <br/> <br/>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회개의 눈물에 의해 육신의 눈에 끼어있던 안개가 벗겨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 <br/> <br/>방지일(1911~2014) 목사는 생전에 ‘눈물의 신학’을 강조했다. 눈물의 신학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시 56:8)라는 말씀에 근거해 자신과 이웃,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힘이 눈물에서 시작된다는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다. 방 목사는 ‘주님이 병에 담으시는 세 가지 눈물’을 “첫째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인식하고 참회할 때 나오는 회개의 눈물, 둘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극치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감사의 눈물, 셋째 지옥의 비탈길을 달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라”고 했다.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감사의 눈물이 있으며, 감사의 눈물이 있을 때 사랑의 눈물이 나온다. <br/> <br/>‘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비관론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눈물의 사람이 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해달라는 말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채 살아가기 위해 먼저 눈물의 사람이 돼야 한다. 눈물이 걷힌 뒤, 맑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 많으심,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br/> <br/>이지현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35.txt

제목: 간암치료, 암세포 사멸과 면역력 증진 동시에 이뤄져야  
날짜: 2017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6121544001  
ID: 01100201.201711161215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2014년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간암은 전체 암 발생률 6위에 해당하지만 사망률은 2위로 집계됐다. 이처럼 간암이 다른 암 발생률에 비해 유독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유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r/> <br/>보통 1기~4기로 분류되는 암은 대부분이 알고 있듯 조기에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3기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확률이 커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치료방법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br/> <br/>이에 정부에서는 암 예방 및 조기발견과 치료율 향상을 위해 정기건강검진을 장려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는 추세다. <br/> <br/>이와 함께 간암치료를 위한 치료방법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양방과 한방을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몸 속 암 세포를 사멸하고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양∙한방 이중병행 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br/> <br/>간암치료에 이용되는 양방치료는 흔히 알고 있는 수술과 항암화학치료, 방사선치료의 3대 표준치료가 대표적이며, 한방에서는 면역단과 산삼약침을 비롯해 한방 항암치료제를 통한 면역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br/> <br/>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한방 항암치료제는 옻나무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치료제인데, 실제로 옻나무는 현재까지 발견된 천연 물질 중 암세포가 전이할 때 분비하는 VEGF 나 MMP-2와 MMM-9 같은 전이효소를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물질 중에 하나라 암세포의 재발과 전이를 억제 하며,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여 주목 받고 있다. <br/> <br/>양ㆍ한방 통합 암 치료를 제공하는 용인 암요양병원 ‘신갈백세요양병원’에서도 옻나무추출 진액으로 구성된 ‘백세 칠정단’을 이용, 암 환자들의 암 치료와 면역력 증진을 통한 생존율 향상에 힘쓰고 있다. <br/> <br/>용인에 있는 신갈 백세요양병원 임철성 원장은 “모든 암 치료가 마찬가지지만 간암치료도 눈에 보이는 종양을 먼저 대학병원 3대 표준치료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성이 강한 항암치료로 인해 환자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고통도 만만치 않다" 며 눈에 보이는 종양을 제거했다면 그 다음엔 암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산성음식인 고단백 고탄수화물 식이는 철저하게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멀리하여 면역력을 높여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 고 전했다. <br/> <br/>또한 "현실에선 평생 굳어진 식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설마 하는 ‘방심’ 때문에 불행히 재발되거나 전이 되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종양의 제거와 더불어 철저한 식이조절과 면역증진 치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r/> <br/>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는 동안 한방과 같은 항암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암환자가 무엇을 먹어야 하며,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내려놓으며, 암환자에게 맞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배워서 평소 좋지 않은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병원을 나가 삶에 복귀하여도 암을 완치하고 극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신갈 백세요양병원은 환자들에게 식사와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강의와 티칭을 통해서 환자들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본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수술 후에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본원을 내원하는 환자 분들이 늘고 있다. <br/> <br/>임 원장은 "항암치료 후 철저한 식이조절과 면역력 증진 티칭을 통해 퇴원 후에도 환자 스스로의 몸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이 및 재발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전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36.txt

제목: 방광암, 소변 자주 보는 흡연자들 노린다  
날짜: 20171115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5091845002  
ID: 01100201.2017111509184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담배를 피운지 30년이 넘은 김요빈(51·가명) 씨는 한 달 전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밤낮으로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는 일이 잦았다. <br/> <br/>처음에는 날이 추워져 방광이 예민해져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최근에 급기야 소변에서 피가 나와 뒤늦게 검사한 결과 방광암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br/> <br/>이렇듯 김 씨와 같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서 참을 수 없거나 다른 사람보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면 방광암을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br/> <br/>중앙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장인호(사진 왼쪽) 교수는 15일, “<span class='quot0'>방광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형적인 증상으로 평소와 다르게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작스럽게 소변이 참기 힘들고 절박하게 소변이 보고 싶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 <br/> <br/>일반적으로 방광암의 흔한 증상으로 통증이 없는 육안적 혈뇨를 들 수 있지만, 상피 내암의 경우 혈뇨가 없이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나, 배뇨 시의 통증, 소변이 급하거나 너무 급해서 소변을 지리는 급박성 요실금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br/> <br/>장 교수는 “<span class='quot1'>과거 실제 한 중년 남성 환자의 경우 오랜 기간 흡연을 하다 혈뇨 증상은 없이 심해진 빈뇨와 야간뇨 증상이 있어 과민성방광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방광암이 진단되기도 했다</span>”고 말했다. <br/> <br/>특히, 흡연은 방광암의 발병위험을 2~10배가량 증가시키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의 경우 방광암의 50-65%가, 여성의 경우 20-30%가 흡연에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방광암의 발생 빈도는 흡연의 기간 및 흡연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흡연을 시작한 시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유소년기에는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방광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br/> <br/>따라서 장기간 흡연자의 경우,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은 물론 혈뇨, 빈뇨, 야간뇨, 절박뇨, 요실금 등의 배뇨 증상이 동반되면 필히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br/> <br/>흡연이 방광암에 좋지 않은 이유는 담배의 발암 물질이 폐를 통해 우리 몸속에 흡수되고 혈액으로 흘러들어가며 이후 신장에서 걸러지면서 소변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때 소변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방광 내 소변이 직접 접촉하는 점막 세포에 손상을 가해 암세포를 만들기 때문이다. <br/> <br/>장 교수는 “<span class='quot1'>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보통 과민성방광 쯤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에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사람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방광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혈뇨, 빈뇨, 절박뇨, 요실금, 잔뇨감 등의 배뇨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소변검사를 통한 요세포검사 및 방광경검사 등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 <br/>방광암 검사로는 소변 내 혈액이나 염증 여부를 확인하고 소변으로 암세포가 떨어져 나왔는지 확인하는 소변검사 및 요세포검사를 비롯해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방광 내부 및 요도에 있을 수 있는 종양의 유무와 위치, 모양, 개수 및 크기를 확인하는 방광경 검사를 시행해 방광암으로 1차 진단이 되면 필요할 경우, 방광암의 유무, 위치 등을 확인해 방광암이 방광벽을 뚫고 주위조직으로 퍼져 나갔는지, 얼마나 퍼졌는지, 림프절 전이는 있는지,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은 없는지 알아 볼 수 있는 CT검사와 초음파, MRI 검사 등도 함께 시행해 볼 수 있다. <br/> <br/>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비근침윤성(표재성) 방광암은 요도를 통해 방광경을 삽입한 뒤 암을 절제경으로 제거하는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로 종양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며, 방광암이 근육층을 침범한 근침윤성 방광암의 경우는 암의 침윤도가 높고,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로는 암을 완전히 절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광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다. <br/> <br/>또한,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 전이성 방광암에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한편, 방광암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 재발이나 진행을 막기 위하여 BCG(결핵균) 등을 방광 내 주입하는 면역 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br/> <br/>장 교수는 “<span class='quot1'>방광암의 발생 빈도는 금연과 동시에 감소되어 1-4년 내에 방광암의 발생 빈도의 약 40% 가량이 감소되고, 25년 후에는 60% 가량 감소되기 때문에, 방광암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금연과 함께 간접흡연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면서,  <br/> <br/>“<span class='quot2'>흡연자 중에 평소 소변을 자주 보는 등의 배뇨 증상이 있으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만약 단 한 번이라도 혈뇨가 있었다면 정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37.txt

제목: 美 “깨끗한 화석연료” 홍보에 비난 쏟아져  
날짜: 20171115  
기자: 장지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5223255001  
ID: 01100201.2017111522325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깨끗한 화석연료’를 주장했다가 참가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전 뉴욕시장이자 유엔 도시·기후변화 특사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트위터에 “<span class='quot0'>기후변화 회의에서 석탄을 홍보하는 것은 암 학술회의에서 담배를 홍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span>”라고 비꼬았다. <br/> <br/>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에너지 회사 대표들은 이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화석연료·원자력발전의 역할’이라는 행사를 마련해 석탄 등 화석연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br/> <br/>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 데이비드 뱅크스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은 “화석연료는 계속 사용될 것”이라며 “<span class='quot1'>화석연료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국제적 관심을 둬야 한다</span>”고 말했다. 하지만 뱅크스의 연설은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야유를 이끌어냈다. 단체 관계자들은 “거짓말쟁이들” “깨끗한 화석연료는 없다”고 외쳤다. <br/> <br/> 미 기업과 정부기관의 모임인 미국에너지협회 배리 워딩턴 이사 역시 발표 도중 “당신의 탐욕이 보인다” “<span class='quot2'>석탄 머니 때문에 전 세계를 죽이고 있다</span>”는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br/> <br/> 총회 다른 참석자들이나 학계 전문가들도 미국의 모순된 주장을 비판했다. <br/> <br/> 이번 총회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정한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이행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유일하게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다. <br/> <br/>장지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38.txt

제목: 울산대 연구팀, 새 항암 면역치료 경로 발견  
날짜: 20171115  
기자: 울산=조원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5181855001  
ID: 01100201.201711151818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울산대는 생명과학부 권병석 교수와 의예과 조홍래 교수 연구팀이 암 면역치료법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 울산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암에 대한 면역력을 무력화시키는 공동자극분자인 CD137의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항암 면역치료 경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암연구협회(AACR)가 발행하는 암 연구 분야 세계적 권위지 ‘캔서 리서치’ 11월호에 게재됐다. <br/> <br/> 그동안 암치료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의 활성화에 주력했으나 최근에는 암환자의 면역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면역체크포인트(면역회피물질) 차단제가 각광받고 있다. 암세포를 없애기보다 면역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br/> <br/> 연구팀은 T세포 활성화의 공동자극분자인 CD137 항체가 면역력을 무력화하는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 신호를 차단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의 분화가 촉진되고, 이어 면역 담당 대식세포 등의 분화도 촉진돼 항암작용 효과를 얻는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CD137 신호의 차단 또는 활성화를 통해 암과 염증성 면역질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만큼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39.txt

제목: ‘암 보험금’ 4557만원 아들 모교에 쾌척한 60대 여성  
날짜: 20171114  
기자: 최민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4130144001  
ID: 01100201.20171114130144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대장암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치료비를 뺀 나머지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눈길을 끈다. <br/> <br/>충북 옥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소임(62·여)씨는 14일 충북도립대학을 찾아 (재)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이사장 함승덕 총장)에 장학금 4557만원을 쾌척했다. <br/> <br/>평범한 전업주부였던 김씨는 수년 전 갑자기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이때 건강을 회복하면 사회에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보살펴야겠다고 다짐했다. <br/> <br/>다행히 김씨는 건강을 회복해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고, 2년 전부터 사회봉사 차원에서 파트타임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 <br/> <br/>김씨는 청소년 보호와 지도 단체인 한국BBS(Big Brothers and Sister) 충북연맹에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사회에 봉사해야겠다는 다짐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도 이 같은 사회봉사 의지의 실천이다. <br/> <br/>충북도립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br/> <br/>김씨는 "<span class='quot0'>평소에 지역 사회에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 아들의 모교인 도립대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span>"면서 "가정형편이나 장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쓰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br/> <br/>학교는 김씨에게 감사패를 주고 '김소임 장학금'을 신설해, 김씨가 기탁한 장학금의 이자로 해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br/> <br/>또 학교 본관 1층 벽면에 김씨의 이름을 새기고 계속 기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의 의미를 알리고, 김씨의 이름을 시작으로 1층 벽면에 더 많은 기탁자의 이름이 새겨지길 바라는 소망도 담겠다는 의미다. <br/> <br/>함승덕 총장은 “우리 대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 기탁한 발전기금은 뜻에 따라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40.txt

제목: ‘암 완치’라던 아내가 결혼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날짜: 20171114  
기자: 문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4104644001  
ID: 01100201.201711141046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어이없게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br/> <br/>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사는 벤 드보노는 미국 CBS TV 심층 시사 보도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을 밝힐 것”이라며 출연 이유를 밝혔다. <br/> <br/>벤에 따르면 아내 레아(29)는 스물 다섯 살이 되던 해 팔에 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피부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호주 출신의 레아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br/> <br/>벤과 레아가 연애를 시작한 후 레아는 미용 목적으로 점을 없애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점이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 4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레아는 주변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암을 말끔히 없앴다. 3년에 걸쳐 정기검진도 받았다. <br/> <br/>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벤과 레아는 신혼의 기쁨에 빠져있었다. 한 달 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레아는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결혼식 후 느낄 수 있는 단순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레아는 직장에서 근무 중 쓰러졌고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된 사실을 알았다. <br/> <br/>레아는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석 달 후 세상을 떠났다. 벤은 “결혼 당시부터 아내의 몸은 암 투성이었다”며 “아픈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br/> <br/>레아의 가족들은 이같은 사연을 SNS를 통해 공유하며 진실규명에 들어갔다. 벤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아 부부의 꿈이었던 전국일주를 떠났다. <br/> <br/>문지연 객원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41.txt

제목: 한서희와 인스타에서 설전 벌이던 하리수가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  
날짜: 20171114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4051844001  
ID: 01100201.201711140518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하리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아이돌 연습생 한서희와 여성에 대해 설전을 벌이던 중 ‘자궁적출 환자’ ‘암 환자’ 등에 비유해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br/> <br/> <br/> <br/>앞서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한서희는 트랜스젠더는 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 “트랜스젠더 몇몇 분이 다이렉트 메시지로 장문을 글을 보내는데 트랜스젠더도 여성이니 우리의 인권에 관한 게시물도 써달라는 거였다”고 운을 뗀 한서희는 “하지만 난 트랜스젠더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추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냐”고 반문했다. <br/> <br/> <br/> <br/>한서희는 또 “<span class='quot0'>트랜스젠더들이 여성이 되고 싶은 이유가 화장하는 걸 좋아하고 구두 신는 걸 좋아해서라는 것은 ‘여성스러움’이라는 틀 안에 가둬 여권 신장을 퇴보시킨다</span>”고 주장하며 “<span class='quot0'>여성이 아닌 트랜스젠더를 포용하지 않겠다</span>”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br/> <br/> <br/> <br/>이에 하리수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span class='quot1'>본인이 공인이라는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본인의 발언이 미칠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span>”고 지적한 하리수는 “<span class='quot1'>그냥 이 사람의 인성도 저지른 행동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span>”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br/> <br/>아울러 “암에 걸려 자궁 적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글에 따르면 그분들도 다 여자가 아닌 건가”라고 반문하며 한서희의 원색적인 표현을 반박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부적절하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br/> <br/>결국 하리수는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장문의 사과 글을 올렸다. “<span class='quot1'>암에 걸리거나 병으로 자궁을 적출한 얘기를 한 이유는 자궁이 없으면 여자가 아니라는 대화 내용이 있었기 때문</span>”이라고 해명한 하리수는 “<span class='quot1'>절대 암환자나 병 때문에 자궁적출한 분들을 비하한 게 아니다</span>”라고 설명했다. <br/> <br/>그는 또 “<span class='quot1'>다시 한번 여성인권에 앞장서서 힘쓰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span>”고 사과했다. 이후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계정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42.txt

제목: 대한통증학회, 이달부터 ‘통증점수 바로 알기’ 캠페인 전개  
날짜: 2017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4050555001  
ID: 01100201.201711140505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한통증학회(회장 조대현·대전성모병원 통증센터 교수)는 이달 들어 ‘통증점수 바로 알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br/> <br/> ‘당신의 통증점수는?’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환자들이 통증점수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br/> <br/> 조대현 대한통증학회장은 “<span class='quot0'>대표적으로 교통사고 후 상처가 아문 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성통증은 암 이상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 통합관리가 필요한 질환</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43.txt

제목: 유방암 수술 환자 10명 중 8명 '가슴 지켜낸다'  
날짜: 20171113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3230344001  
ID: 01100201.20171113230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20년간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0기, 1기 등 조기 유방암 환자 비율이 1.5배 증가했다. 유방암 수술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지켜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아산병원 유방암센터는 최근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유방암 수술 3만례를 달성하고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유방암 수술 환자를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1995년에는 전체 유방암 환자 중 조기 유방암(0기 및 1기)환자 비율이 37.8%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57.8%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br/> <br/> 조기 발견 및 치료법의 발달로 암 덩어리만 떼어내고 남은 가슴은 보존하는 ‘유방보존술(부분절제술)’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1995년에는 10명 중 1명만이 유방보존술을 받았지만 2014년에는 3명중 2명이 유방보존술을 받았다. <br/> <br/>과거 유방보존술은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0기 또는 1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술 전 항암치료 등 치료법의 발달로 암의 크기를 줄여서 제거해야 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br/> <br/>유방 전체를 절제해야하는 나머지 3명중 1명의 경우에도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보형물 등으로 유방 형태를 복원해주는 수술인 ‘동시 복원술’을 받는 환자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br/> <br/> <br/>2005년에는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약 24%만이 동시복원술을 받았지만 2014년에는 약 50%의 환자가 동시복원술을 받았다. 20년 사이에 동시복원을 받는 환자 비율이 약 2배 증가 한 것이다. <br/> <br/>동시 복원술의 수술 기법도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시 복원수술을 통해 환자 자신의 피부만 보존하는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환자 자신의 피부는 물론이고 유두까지 보존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br/> <br/>전체적으로 유방암 수술받은 환자 10명 중 8명은 유방보존술 또는 유방전절제 및 동시복원술을 통해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지켜내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br/> <br/>서울아산병원 유방암센터 안세현 소장(유방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서울아산병원의 최근 10년간 유방암 5년 생존율은 92%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span>”면서 “<span class='quot0'>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한 결과 암을 떼어냄과 동시에 유방을 복원하고 피부는 물론 환자 자신의 유두까지 성공적으로 보존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44.txt

제목: 고신대복음병원,꿈의 암치료기 ‘트루빔’ 본격 가동  
날짜: 20171113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3193944001  
ID: 01100201.20171113193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최고 수준의 방사선치료를 부산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br/> <br/>고신대복음병원은 오는 30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운영 중인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트루빔 STx’를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br/> <br/>트루빔은 국내에 몇 대 도입되지 않은 최첨단 방사선 치료장비로 꿈의 암치료기, 궁극의 방사선 치료 장비로 불린다. <br/> <br/>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장비라 불리는 트루빔 STx는 다양한 방사선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어 종양이 자리한 깊이와 위치의 제약이 없이 효율적인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 기존의 방사선장비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고선량율 출력을 통해 치료시간을 최대 3배 이상 단축시킨다. <br/> <br/>높은 안정성도 트루빔 STx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방사선치료의 전 과정(영상 획득, 환자 자세 보정, 종양 움직임 및 방사선 전달 등)을 체계적으로 연동하며, 환자의 호흡에 따른 종양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 및 추적 치료가 가능하다. 오차범위는 0.1㎜로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호해 기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br/> <br/>이처럼 트루빔은 종양위치를 추적하고 환자위치를 조절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산화단층촬영 또한 가능해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있다. <br/> <br/>특히 뇌종양, 척수종양, 유방암, 전립선암 등 암과 삼차신경통이나 악성경련, 파킨슨병, 떨림증 같은 뇌 기능성질환의 치료에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 <br/> <br/>트루빔 도입으로 고신대복음병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종양 수술과 달리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약물치료가 어려운 환자, 기존 방사선수술치료기로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의 뇌종양 위치를 정확히 찾아 방사선을 이용한 뇌종양 제거가 가능하다. <br/> <br/>방사선종양학과 마선영 교수는 “<span class='quot0'>트루빔 도입으로 폐나 간처럼 움직이는 장기 안에 있는 종양조직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며 정밀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정상 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종양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높은 치료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고신대복음병원은 지역 최초로 1978년 암센터를 개소하고 올해로 40주년을 맞아 트루빔 STx을 도입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방사선 치료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 수준의 시스템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r/> <br/>임학 병원장은 “<span class='quot1'>빠르고 정확한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게 돼 기쁘다</span>”며 “<span class='quot1'>트루빔 도입을 계기로 전국적인 암센터의 면모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45.txt

제목: 간암으로 진행 '드라이버 유전자' 3개 찾아냈다  
날짜: 20171113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3144944001  
ID: 01100201.201711131449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간암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br/>간암 전단계에서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하는 유전자로 일종의 암 드라이버 유전자다. <br/> <br/> 가톨릭대 의대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팀은 간암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의 개발을 위해 간질환 다단계 진행 병기에 따른 RNA유전체 데이터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했다.  정상 간조직, 전암병변, 간세포성 간암환자 697명으로부터 총 813개의 인체 조직을 활용했다. <br/> <br/> 그 결과 간암 초기에 활성화되는 3개의 드라이버 유전자 ‘BANF1, PLOD3, SF3B4’를 도출했다. 이 유전자가 간암 전단계로부터 악성 종양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마커라는 사실을 대규모 간암환자 집단연구로 증명했다. <br/> 또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암 진단 유전자마커(GPC3, GS, HSP70)와 새로 확인된 유전자 마커의 간암 양성도를 확인해본 결과 기존 진단 마커에서는 50.9%를 나타낸 반면 72.7%의 양성률을 보여 특이도와 민감도에서 더욱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br/> <br/>남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치료 타깃으로 새로운 간암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또 간암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의 개발은 환자의 생존을 현저히 향상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헤마톨로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 간암은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3대 호발암 중 하나로 매년 1만 5000여명이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 간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어려워 예후가 불량하고 다른 암에 비해 5년 생존율이 32.8%로 낮은 편이다. 암 사망률 2위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46.txt

제목: ‘DNA 편집’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인류가 발견한 ‘제2의 불’  
날짜: 20171110  
기자: 박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10050056003  
ID: 01100201.20171110050056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자유자재로 자르고 붙이고 <br/>생명공학 신기원 <br/>병충행 없는 상추 등 응용 <br/>암·에이즈 치료 전기 기대 <br/>그런데, 인간배아 ‘가위질’ 괜찮나? <br/> <br/>영국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간명한 비유로 인체를 설명했다. 그의 비유를 옮기자면 우리의 몸은 하나의 건물이다. 건물엔 수많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데 짐작하다시피 이들 사무실은 곧 세포를 의미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핵’이라는 이름의 책장이 등장한다. 책장에는 염색체라는 책 46권이 꽂혀 있다. 유전자는 바로 이들 책의 페이지다. 여기엔 누대에 걸쳐 대물림되는 인체의 메커니즘, 곧 인간의 설계도가 담겨 있다. <br/> <br/> 그렇다면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쉽게 말하자면 유전자에 새겨진 오자를 고치고 탈자를 채워 넣는 기술이다.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요술봉인 셈이다. <br/> <br/> 워낙 전도유망한 기술이어서 학계 안팎에서는 “인류가 발견한 제2의 불”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서점가에도 최근 이 기술을 다룬 신간은 간단없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NHK 게놈 편집 취재반이 펴낸 ‘생명의 설계도 게놈 편집의 세계’(바다출판사), 전방욱 강릉원주대 교수가 쓴 ‘DNA 혁명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이상북스)가 대표적이다. <br/> <br/> 김홍표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가 내놓은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 역시 마찬가지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실체와 가치를 전하는 과학교양서다. 근사한 비유와 친절한 설명이 돋보이는 신간인데, 살뜰한 목소리로 독자를 이끄는 생명공학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 김 교수는 수많은 과학 용어를 하나씩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각종 과학 용어를 명쾌하게 정의하면서 유전 정보는 무엇이며 DNA 사슬은 어떤 얼개를 띠는지 개괄한 내용이 전반부를 장식한다. 과학책이 낯선 독자라면 얼마간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br/> <br/> 일단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서 ‘크리스퍼(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석하자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포하는’ DNA의 반복 서열이다. DNA 염기 사슬 중 일부는 ‘소주 만 병만 주소’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읽을 수 있는 회문(回文)의 구성을 띤 게 특징이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이런 형태를 응용해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듯” 문제점을 발견한 뒤 유전자를 자르거나 이어 붙이는 기술이다. <br/> <br/> 1990년대부터 유전자가위는 존재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명명된 진일보한 기술이 등장했고, 유전공학의 세계는 크게 출렁였다. 과거의 기술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저렴해진 게 특징인데, 김 교수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 정도 수준이다. <br/> <br/>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위력은 1시간에 100㎞를 능히 축지하는 자동차 바퀴로 비견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껏 사용했던 유전자가위는 음풍농월하던 달구지나 자전거 바퀴에 불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빠르게 뒷걸음질 치며 시야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br/> <br/> 이 기술 덕분에 세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곰팡이에 내성을 갖춘 바나나가 등장했고 병충해에 강한 상추가 나왔다. 중국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응용해 모기를 박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치료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처럼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는 질병의 치료는 말할 것도 없다. 이 기술을 다루는 회사도 여럿 등장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도 있다. 전문가들은 2021년엔 관련 시장의 규모가 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br/> <br/> 확연하게 달라진 생명공학의 그라운드를 묘사하면서 사방치기를 하듯이 전개되던 이야기는 후반부에선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로 뻗어나간다. 유전병 치료를 명분으로 내세워 인간 배아에 유전자가위를 갖다 대도 괜찮은지, 이 기술에 윤리적 맹점은 없는지 살핀 내용이다. <br/> <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인류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학을 재미있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span>”고 적었다. 생명과학 입문서로도 손색없고 미래를 내다본 예언서로서도 무리 없이 읽힌다. <br/> <br/>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47.txt

제목: 당신의 통증점수는? 통증학회, 통증점수 바로 알기 캠페인  
날짜: 2017110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9191344001  
ID: 01100201.20171109191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한통증학회(회장 조대현·대전성모병원 통증센터 교수)는 최근 ‘통증점수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br/> ‘당신의 통증점수는?’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진행되는 캠페인은 환자들이 통증점수를 제대로 알도록 하여 정확하고, 빠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br/> ‘참는게미덕’?…통증 참으면 만성통증된다 <br/> 일반적으로 통증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참는게 미덕’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br/> 조대현 대한통증학회 회장은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통증을 참다보면 치료시기도 놓치고 만성화되면서 난치성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주위의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통하여 만성화 및 난치성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이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원인 없이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론 단순통증을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r/> 정확한 통증점수 확인 중요 <br/> 정확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통증점수를 가능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일반적으로 통증점수를 물어보면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통증점수를 낮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br/> 홍성준 대한통증학회 홍보이사(강동성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통증점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절대적인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 겪고 있는 통증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보다 정확한 치료 및 호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통증점수를 알고 제시하는 것은 통증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발이다</span>”고 지적했다. <br/> 만성통증, 다양한 건강문제 초래 <br/> 통증은 참다보면 만성통증으로 발전한다. 만성통증은 원인이 없어졌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병으로 통증조절도 쉽지 않다. <br/> 만성통증으로 인해 혈압, 혈당상승, 집중력과 기억력 감소, 수면장애, 우울증, 면역력 저하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br/> 실제 대한통증학회에서 국내 통증 치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성통증환자 41%가 중등도 통증(4~6점), 27%는 심한 통증(7~10점)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특히 10명 중 7명이 심한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약물의존도가 심각해지기도 한다. 또 만성통증으로 인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31%, 44%가 우울해했으며, 37%가 불안에 휩싸였고, 35%가 자살충동을 겪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br/> 조 회장은 “<span class='quot1'>만성통증은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뒤 상처는 아물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span>”며, “<span class='quot1'>만성통증은 암 이상일 경우도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정확한 진단, 빠른 치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48.txt

제목: 시흥시에 들어서는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시화병원’, 기공식 개최  
날짜: 2017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9131544001  
ID: 01100201.20171109131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경기도 시흥시에서 최초로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시화병원 건립공사에는 총 사업비 1천1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병원은 본관 지상 12층, 지하2층으로 구성된다. <br/> <br/>외래 진료부 1~3층 병동부 4~12층(1인실, 2인실, 4인실) 지하층 행정부로 설립될 예정이며 2020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br/> <br/>이에 맞추어 시화병원(이사장 최병철)은 오는 10일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화병원 신축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에는 시화병원 최병철 이사장을 비롯해 시흥시 국회의원 조정식, 시흥시장 김윤식 등 지역 정·관계 인사 및 의료·교육계 인사와 시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br/> <br/>병원은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과 감염에 안전하고 최적의 치유환경을 갖춘 병원으로 건립될 계획이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신식 의료장비들을 전면 도입하여 진료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br/> <br/>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적 개선에 이어 지역 내 암 환자들의 ‘집근처 항암치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찾아가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간병 부담이 없는 ‘간병인 없는 병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br/> <br/>특히 시화병원은 지역 내 의료 공급 및 수요 불균형의 완화를 위해 23개과 43진료실로 진료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역 내 부재한 재활의학과, 정신과 등을 신규 개설함으로서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49.txt

제목: 서울대 장미숙 교수팀, 유전자 조작 없이 지방줄기세포 분화 유도 성공  
날짜: 20171108  
기자: 임주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8213055002  
ID: 01100201.201711082130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대는 치의학대학원 장미숙(사진)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 사람의 지방줄기세포를 신경줄기세포와 가바성 신경세포(뇌 안에서 신경세포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억제성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br/> <br/> 그동안에도 배아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다양한 분화 유도 기술이 개발됐지만 환자에 이식할 경우 암 발생 우려가 있어 임상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줄기세포의 경우 암이 발생할 우려는 낮지만 외배엽성의 신경계 세포로 분화를 성공시킨 연구가 드물고, 설사 있어도 연구의 과학적 완성도가 낮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손상된 신경계 질환에 안전한 세포치료제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환자의 유전정보를 반영한 질환 모델 구축이 가능하므로 조현병 등 신경정신질환의 생체표지자 발굴에도 활용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50.txt

제목: 日 국제개별화의료학회, 면역치료 암·자가면역질환 등 치료영역 넓어  
날짜: 20171107  
기자: 전재우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7171055001  
ID: 01100201.201711071710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국제개별화의료학회가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에 대해 암은 물론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까지 치료 영역이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br/> <br/>일본 국제개별화의료학회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암과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에 도전하는 면역치료의 최전선’을 주제로 제23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알레르기나 자가면역질환도 개개인에 맞는 분자적치료제를 개발하여 투여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면 의료비의 과다지출과 치료제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r/> <br/>아베 박사는 이어 “<span class='quot0'>다양한 임상 결과가 이어지면서 면역세포치료는 제4의 암치료 방법으로 불린다</span>”면서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이 난치성 비소세포 폐암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임상한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표준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다. <br/> <br/>림프절에 피하 주사한 방식으로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2주 간격으로 5회 치료한 결과 22명 중 15명(68.2%)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아베 박사에 따르면 완전관해 2명(9.1%), 부분관해 3명(13.6%), 장기불변 10명(45.5%) 등으로 효과를 보였다. <br/> <br/>연구팀은 소량채혈(25㎖)만으로 수지상세포 암 백신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혈액에서 단구를 분리한 후 미성숙된 수지상세포로 분화시키고 개인별 조직적합성 검사부터 유전자, 항원, 암표지자 검사까지 거친 후 개인에 맞는 암항원을 평균 5종류 추가하여 치료했다. 추가 암항원은 NEW WT1, MUC1, CEA-1, GV1001, Survivin 등이다. <br/> <br/>아베 박사는 “<span class='quot0'>치료효과가 있는 그룹의 생존일은 1000일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그룹은 388.5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치료 2주일 후 효과가 있는 그룹에서는 항증식 작용과 면역조절을 하는 인터페론-감마와 면역조절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하는 인터루킨-4가 검사결과 정상범위로 회복됐다</span>”고 전했다. <br/> <br/>아베 박사 연구팀의 수지상세포 암 백신 연구에 국내기업 ㈜선진바이오텍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br/> <br/>전재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51.txt

제목: [And 건강] 내시경 꺼리는 사이… 대장암 씨앗 자란다  
날짜: 20171107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7050555001  
ID: 01100201.201711070505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작년 대장암 사망률 처음 위암 제쳐 <br/>폐암·간암에 이어 3위로 올라 <br/>고통스럽다고, 아직 젊다고, 바쁘다고 <br/>50대 절반이 대장내시경 안 받아 <br/> <br/>최근 통계청 발표에서 지난해 국내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암 사망률 통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처음이다. <br/> <br/> 대장암 사망자는 2006년 인구 10만명 당 12.8명에서 지난해 16.5명으로 28.9% 늘었다. 반면 위암 사망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16.2명으로 26% 줄었다. 대장암은 위암을 제치고 폐암 간암에 이어 암 사망률 3위로 올라섰다. <br/> <br/> 대장암과 위암 사망률의 ‘첫 역전’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비만 인구의 증가로 대장암 발생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주방 위생이 좋아져 위암 같은 후진국형 암이 꾸준히 줄고 있는 영향이 더 크다. 위 내시경 검사의 빠른 보편화도 한몫 하고 있다. <br/> <br/> 손대경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장은 6일 “<span class='quot0'>2002년 시작된 국가 암검진사업의 일환으로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지원(본인 부담 10%)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덕분에 위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증가해 사망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대장암의 사망률 추월은 위암 사망률이 뚜렷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r/> <br/> 대장암 국가검진도 2004년 시작됐지만 45∼80세에서 1년 또는 2년 간격으로 분변잠혈검사(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검사)로 이뤄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br/> <br/> 내시경 검사는 위·대장암을 일찍 찾아내 완치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암의 씨앗이 되는 ‘용종(혹)’ 단계에서 발견해 제거하면 암 발생을 막을 수도 있다. 암이 위·장벽에 머물러 있고 주변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은 조기(1, 2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은 96%(2010∼2014년 기준 위암 95.9%, 대장암 95.6%)에 달한다. 다른 장기에 암이 퍼진 단계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은 위암 6.3%, 대장암 19.3%로 뚝 떨어진다. <br/> <br/>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나마 위암의 1, 2기 발견율은 60.3%나 되지만 대장암은 38.1%에 그친다. 대장암은 암이 림프절까지 번진 3기 발견율이 41.2%로 가장 높다. 위암에 비해 더 늦게 발견된다는 얘기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br/> <br/> 50대 절반, 대장내시경 안 받아 <br/> <br/> 우리나라 30∼50대 5명 가운데 1명(20.1%)은 건강검진 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격적으로 암을 걱정해야 할 연령대인 40∼50대는 8명 중 1명꼴(12.6%)로 해당 검사를 안 받았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지난 9월 건강검진을 받은 30∼59세 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br/> <br/> 대장 내시경 검사의 비율과 인식이 특히 낮았다. 위 내시경 검사 비율은 78.5%인 반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40.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5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50대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49.2%)이 받지 않았다. <br/> <br/>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33.7%가 “고통스러울까봐”를 꼽았고 28.3%는 “나이가 어려서”, 25.7%는 “바빠서”, 20.9%는 “비용이 부담돼서”라고 답했다. <br/> <br/> 검사시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는 진정 내시경(수면 내시경)이 보편화돼 있지만, 일반 내시경으로 할 경우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br/> <br/> 특히 대장 내시경은 위 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 준비 단계(2∼3일 전 음식 조절, 장세척제 마시기 등)나 검사 과정이 힘들다. 대장 벽이 위에 비해 얇아 검사 도중 장에 구멍이 나거나 출혈, 장세척제 과민 반응 및 쇼크,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도 검사를 꺼리는 이유다. <br/> <br/> 다만 숙련된 전문가나 시설을 갖춘 곳이면 이런 염려를 덜 수 있다. 병·의원 선택시 소화기내시경학회 홈페이지에서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곳을 검색해 방문하면 안심할 수 있다. 학회는 내시경 시설이나 의료진 숙련도(용종 등 병변 발견율)를 평가해 일정 수준을 넘는 병원만 선별해 인증하고 있다. <br/> <br/> 소화기내시경학회 김용태 이사장은 “내시경 검사는 전문의가 위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조직을 떼어내 암 여부뿐 아니라 조기 암인지, 진행 암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 위나 대장 점막 혹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 암의 경우, 내시경 검사를 하며 곧바로 90% 이상 제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r/> <br/> 위·대장암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을 땐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 만큼, 무증상이어도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 <br/> <br/>내년 국가 대장내시경 검진 시범사업 추진 <br/> <br/>보건당국이 대장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변잠혈검사를 이용한 현재의 대장암 국가검진의 수검률은 26.9%(2015년 기준)로 위암(41.7%) 간암(42.7%) 등에 비해 매우 낮다. 대변 채취의 번거로움, 검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개별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br/> <br/> 손대경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분변잠혈검사로도 대장암 사망률을 20∼30%,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받으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2014년 분변잠혈검사 양성자(5.5%)의 절반 가량만 실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span>”고 했다. 분변잠혈검사로 이상이 발견돼도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을 대장내시경 검사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r/> <br/>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전문 학회로부터 이런 의견을 듣고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시범사업의 구체적 시기나 대상 지역 선정, 프로토콜 설계 등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암검진질관리위원회 승인도 거쳐야 한다</span>”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span class='quot2'>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의 안전성이나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span>”며 조심스러워 했다. <br/> <br/>대장내시경 ‘1-3-5’ 수칙 지켜라 <br/> <br/>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은 일반적으로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50세 이상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위·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등 고위험군이라면 해당 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전문의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 위암 위험이 큰 만성(위축성)위염 환자,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보균자, 흡연 및 음주자 등이 해당된다. <br/> <br/> 대장암은 부모나 형제·자매 중 환자가 있을 경우 발생 위험이 2∼3배 증가하는데, 가족의 대장암 진단 연령보다 10년 앞당겨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45세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면 35세부터 검사받으면 된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특히 대장 내시경 추적 검사의 ‘1-3-5 수칙’을 권고하고 있다. 한번 검사에서 발견된 용종(특히 암으로 자랄 위험이 큰 선종성 용종)이 1㎝ 이상이거나 3개 이상, 세포 변형이 많은 유형이라면 매 1년으로 검사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 용종 크기가 1㎝ 미만이고 1∼2개이면 3년마다 한 번씩 추적 검사해야 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는 “<span class='quot3'>최근 연구결과로 볼 때, 50세 미만 젊은층도 50세 이상과 똑같이 대장암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3년마다 추적 검사할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 <br/> <br/> 위·대장과 달리 소장 내시경은 정기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시행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나 설사, 빈혈이 반복되고 체중감소, 혈변 증상이 있어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소장 전용 내시경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소장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이 원인이거나 드물지만 소장에서 악성 암(림프종, 신경내분비종양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br/> <br/>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양동훈 교수는 “<span class='quot4'>구불구불하고 좁은 소장은 위·대장 내시경을 넣을 수 없어 알약 크기 ‘캡슐 내시경’을 삼키도록 해 장착된 카메라로 소장 내부를 찍어 병변을 찾거나 특수한 이중풍선 소장 내시경을 직접 넣어 확인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52.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34)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합병증 다학제팀] 협진으로 척추감염 치료  
날짜: 2017110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7050056002  
ID: 01100201.2017110705005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수술을 잘하는 명의라 해도 막기 어려운 것이 감염에 의한 합병증(감염합병증)이다. 아무리 예방을 잘한다 해도 수술 후 1∼5% 정도는 감염이 발생한다.” <br/> <br/>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의 지적이다. 감염관리는 그만큼 까다롭다. 김 교수는 여러 감염합병증 가운데서도 척추수술 후 감염합병증 관리로 수도권 지역 척추외과 의사들에게 잘 알려진 의사다. <br/> <br/> 김 교수는 6일 “<span class='quot0'>인구가 고령화되고 최근 들어 척추수술 건수가 늘면서 감염합병증도 증가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특히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동반한 고령 환자들은 척추수술 후 종종 패혈증에 빠져 생명을 위협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 척추수술 후 감염합병증 적잖아 <br/> <br/> 김 교수에 따르면 척추수술 후 감염합병증은 암보다 사망률이 높은 위험 질환이다. 하지만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만큼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br/> <br/> 의료계엔 이른바 ‘수술은 잘 됐는데 감염이 생겼다’는, 의사도 환자도 낯설고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생길 수 있는 ‘감염위험 1∼5% 확률’에 빠지는 경우다. <br/> <br/> 척추외과 의사들은 주로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요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련한다. 따라서 감염합병증에 대처하는 능력을 별도로 키우기란 아무래도 쉽지가 않다. 상당수의 척추외과 의사들이 척추수술 후 감염합병증이 생겼을 때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br/> <br/> 그렇다고 감염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타(他)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기도 어렵다. 남의 환자를 잘못 맡았다가 자칫 덤터기를 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환자 받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이래저래 의사나 환자 모두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벌어진다. <br/> <br/> 김 교수를 주축으로 한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합병증 다학제팀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그 환자는 내 환자’라는 생각으로 궁지에 몰린 척추수술 후 감염합병증 환자들을 맡아줘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 병원 관계자는 특히 2005년 이후 전문병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 의뢰가 늘었고 직원이나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찾아오는 환자도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br/> <br/> 다학제 협진 성실 진료가 무기 <br/> <br/> 최근 50대 남성인 A씨도 이 팀의 덕을 톡톡히 봤다. 그는 10여년 전 처음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이후 퇴행성 변화가 이어져 얼마 전 2차 수술까지 받았다. 의사는 수술 치료가 잘 됐다고 했다. <br/> <br/>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달 후 수술 부위에 골수염이 생겼다. 원인불명의 세균감염이 일어난 것이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잘 낫지 않았다. 심신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김 교수를 소개받고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를 찾게 됐다. <br/> <br/> 김 교수는 먼저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을 해도 감염이 생길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을 몰라도 퇴치해야 할 가상의 적군을 설정해놓고 대항군을 투약하면 완쾌가 가능하다. 염려 말고 우리 팀의 처방과 권고를 믿고 잘 따라와 달라”고 당부했다. <br/> <br/> 다음 날 아침 회진에 앞서 A씨와 보호자를 다학제 협진 회의실에 불렀다. 관련 진료과목 교수들과 협동진료(협진)를 하기 위해서다.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각각 척추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박형기 교수와 정형외과 이재철 교수, 영상의학과 오은선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br/> <br/> 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감염 다학제팀에는 이 외에도 감염내과 이은정·박세윤 교수팀과 정형외과 최성우·장해동 교수팀, 영상의학과 김현주 교수, 핵의학과 박수빈 교수, 간호부 천은희 간호사(코디네이터)가 전담 의료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br/> <br/> 이날 회의에선 오 교수가 A씨의 척추 수술부위 영상을 보여주며 현재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김태형 교수는 세균배양검사 결과를 근거로 화농성척추염이라는 진단명을 붙였다. 박형기 교수는 농(고름)을 먼저 깨끗이 걷어내는 수술을 한 후 약물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br/> <br/> A씨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고 치료방법과 예상 치료기간까지 듣게 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고마워했다. <br/> <br/> A씨를 괴롭히던 수술 후 척추통증은 고름제거수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일주일이 지나자 눈에 띄게 경감되기 시작했다. A씨는 이후 약 6주간 치료를 더하고서야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 <br/> 평상시 SNS 통해 수시로 소통 <br/> <br/> 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감염 다학제팀은 소통, 배려, 실력의 삼박자를 갖췄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료하는 것만큼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br/> <br/> 김태형 교수는 “우리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진에 대해 실망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오며 암 이상으로 치료가 까다로운 감염합병증을 겪고 있다. 따라서 원인균을 찾아 퇴치하는 것 못잖게 환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 감염병 치료 분야에선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不殆)’란 격언이 통용된다. 김 교수팀은 이를 위해 ‘항생제 약동학 자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적극 사용 중이다. <br/> <br/> 이는 척추감염 치료에 많이 쓰이는 항생제 ‘반코마이신’의 용량을 환자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투약하기 위해 약제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약물사용지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환자들은 어느 누구도 똑같은 용법, 용량으로 항균제가 처방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br/> <br/> 이와 함께 다학제 협진에 참여한 교수들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매일 문제목록을 따로 정리하고 보완·수정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 <br/> <br/> 감염합병증 환자들을 치료하다 모르고 있던 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 의료진 간 수시 소통과 협력이 발휘하는 힘이다. 이들은 환자 상황에 실시간 빠르게 대처하고 최상의 치료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평상시 유·무선 SNS를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53.txt

제목: [현장] 병원 옆에 암환우들 내 집 같은 보금자리  
날짜: 20171106  
기자: 고양=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6000057004  
ID: 01100201.20171106000057004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5분 남짓 걸어가면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암환우 쉼터’다. 빌라를 개조해 만든 방 두 칸짜리 쉼터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암환자 2000여명(연인원)이 머물렀다. 한 달에 20명 넘는 환자가 드나든 셈이다. <br/> <br/> 쉼터 운영 주체는 한국기독교루터회 맑은샘교회(김우준 목사)다. 교회가 암센터 앞에 암환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한 이유는 뭘까. 지난달 18일 오후 쉼터를 찾았다. <br/> <br/> 수척한 모습을 한 박은숙(61·여)씨가 쉼터 큰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자궁경부암 2기인 그는 전북 익산에서 와 6주째 머무르고 있었다. 감리교회 권사인 그는 루터회 성도는 아니지만 쉼터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지난해 11월 받은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는 박씨는 “<span class='quot0'>국립암센터를 찾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병원에서 가깝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 <br/> 암환자들은 방사선 치료를 수개월 받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까운 쉼터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숙소에는 침대 에어컨 옷걸이 등이 있고 냉장고와 가재도구도 마련돼 음식을 해 먹기에도 어려움이 없다. <br/> <br/> 김 목사는 박씨 얘기를 들어주며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그는 디아코니아(섬김) 사역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떠난 김동진 목사의 뒤를 이어 2015년부터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는 직접 집을 수리하고 환자들을 돌본다. 힘들 법도 한데 환자들 걱정을 먼저 한다. “<span class='quot1'>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도 어느 날 연락이 끊길 때면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에 괴롭습니다.</span>” <br/> <br/> 김 목사는 ‘안타까운 일’을 자주 경험하곤 한다. 수술이 잘돼 완쾌된 줄 알았던 한 집사님이 6개월 사이에 치아가 빠지고 피부가 벗겨지며 운명한 것을 보고 암의 무서움을 몸소 느꼈다. <br/> <br/> 한번은 50대 후반 남성 암환자가 임종 직전 그의 친누나를 통해 예수님 영접 기도를 부탁해온 적이 있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김 목사는 호흡기를 낀 채 힘들어하는 남성을 위해 기도드리려 했지만 상심이 컸던 그의 다른 가족들이 거절한 적이 있다. 김 목사는 당시를 떠올리며 “<span class='quot2'>구원의 문 바로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그때가 아직도 안타깝다</span>”고 회고했다. <br/> <br/> 김 목사는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예배 집전을 빼고는 쉼터로 향한다. 청소기를 돌리거나 시설을 점검한다. 한 환자가 문을 잘못 잠가 창문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연 적도 있다. <br/> <br/> 목회 일과 환자를 돌보는 일로 바쁘지만 김 목사는 이곳을 찾는 환자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한다. 환자 중에는 이불 빨래를 해주거나 채소 등을 선물로 몰래 놓고 가는 이들도 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2'>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월세 30만원에 방을 내어준 집주인에 대한 고마움도 빼놓을 수 없다. <br/> <br/> 김 목사가 쉼터 사역을 이어가는 데는 특별하거나 거창한 이유가 있진 않았다. 그는 “<span class='quot2'>쉼터를 통해 성도 수가 늘어나거나 빛을 보는 일은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2'>그럼에도 50명이 채 되지 않는 교회 성도에게는 쉼터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고양=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사진=신현가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54.txt

제목: ‘밤도깨비’ 타이거JK “50억 사기 당해 마이크 놓았다”  
날짜: 20171105  
기자: 진서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5225644001  
ID: 01100201.201711052256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타이거JK가 50억 사기의 아픔을 털어놨다.  <br/> <br/>5일 방영된 JTBC ‘밤도깨비’에서는 타이거JK가 출연해 연남동 맛집 투어를 했다. 그는 이동 중 윤미래의 ‘Memories’를 들으며 소송과 사기로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br/> <br/>타이거JK는 “미래가 전 소속사 분쟁으로 5년간 소송을 했다. 또 사기를 당했는데 조단이의 인감까지 가져가서 50억 이상의 돈이 없어지고 5000원이 남았다. 아파트도 쫓겨날 뻔하고 그 때 하필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고백했다.  <br/> <br/>이어 “그래서 미래가 마이크를 놨다. 나도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 항상 망한다는 소리를 들어 계속 피해의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br/> <br/>진서연 객원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55.txt

제목: ‘낭만닥터 김사부’, ABU TV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 영예  
날짜: 20171105  
기자: 문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5155244001  
ID: 01100201.201711051552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지난 1월 종영한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가 3일 밤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7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상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br/> <br/>배우 한석규 서현진 유연석이 주연한 ‘낭만닥터 김사부’는 시골 병원에서 활약하는 천재 외과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 메디컬 드라마다. 총 20부작으로 그려진 드라마는 자체 최고 시청률 27.6%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주인공 김사부 역을 맡은 한석규는 ‘2016 SAF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br/> <br/>ABU 시상식에서는 KBS 1TV ‘KBS 스페셜-앎’이 TV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KBS 월드라디오 ‘한국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한국어 세계와 꿈꾸다’가 라디오 인터랙티브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KBS 스페셜-앎’은 4기 암 환자들의 투병과정과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 등을 기록했다. <br/> <br/>ABU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270여개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ABU가 주관하는 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성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부분 방송사들이 가입해 있는 협회인 만큼, 지역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올해는 50개 국가에서 출품된 280여개 작품이 경쟁을 벌였다. <br/> <br/>문지연 객원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56.txt

제목: “아빠의 새 짝을…” 말기암 엄마가 두 아들에 남긴 마지막 당부  
날짜: 20171104  
기자: 강창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4050556001  
ID: 01100201.2017110405055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호주 ABC방송과 미국 매체 더 뉴데일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의 말기암 환자 30대 여성이 죽음에 대비해 어린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를 소개했다. 엄마는 아들들에게 감정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팀스포츠와 악기·외국어 배우기,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당부했다. <br/> <br/> 편지를 쓴 새러 치버스(34)는 2008년 치료받은 뇌종양이 지난 3월 재발하며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18개월짜리 작은아들 앨피가 다른 뇌종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다. 새러는 뇌종양 환자를 위한 모금을 독려하며 앨피와 큰아들 휴(3)에게 공개편지를 썼다. <br/> <br/> 새러는 “나는 너희가 크는 걸 곁에서 볼 수 없을 거야. 이건 말하기 힘들고 마주하기엔 더 어려운 일이지”라며 편지를 시작했다. 이어 “너희들 감정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라”며 “사랑하다 잃는 게 전혀 사랑해본 적 없는 것보다 낫다고들 한다”고 적었다. <br/> <br/> 또 공부에 주의를 기울이되 교과서보다는 학교생활에 더 배울 게 많다면서 팀스포츠를 하고 악기와 외국어를 배우라고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과 성공보다는 실수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음도 강조했다. 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말고 가능한 한 많이 여행하렴. 그게 너를 만들 거야”라고 조언했다.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놀리지 말 것, 테이블 매너의 중요성, ‘부탁할게요(please)’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늘 기억하라고도 했다. 말미에는 “가족이 최우선”이라며 “아빠에게 친절하고, 아빠가 새 짝을 만나는 날이 오면 그 선택을 인정하고 환영해주렴”이라고 글을 맺었다. <br/> <br/>글=강창욱 기자,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57.txt

제목: [우먼 칸타타] “캠퍼스 복음화 핵심, 금주·금연에 달렸죠”  
날짜: 20171104  
기자: 글·사진=이지현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4000556003  
ID: 01100201.20171104000556003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그는 대학교수이기 이전에 캠퍼스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다. 김정주(6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이하 절제회) 부회장은 1994년부터 20년간 연세대 ‘용재특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원복음화에 헌신했다. 특히 캠퍼스에서 술·담배·마약의 해악을 알리며 학생들의 ‘절제운동’을 주도했다. <br/> <br/>최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절제회관에서 만난 김 부회장은 “<span class='quot0'>절제운동은 복음을 전하고 술과 담배, 마약과 음란, 도박과 스마트폰 등 각종 중독 문제를 예방을 하는 사역</span>”이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초기 한국교회가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절제 주일로 지켰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복음전도와 절제 교육에 충실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r/> <br/> 그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에서 ‘절제’는 희랍어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좋은 기준이 된다”고 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돕는 것이 절제운동이며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br/> <br/> 1923년 창립된 절제회는 매년 술과 담배, 마약의 해독을 알리는 금주 금연 캠페인을 펼쳐왔다. 술병과 담배에 경고문 부착, 비행기와 식당의 금연 구역화 등 보건당국의 금주·금연정책을 위해 각종 입법 노력을 했다. 1883년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가 창립됐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3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br/> <br/> 그가 20년간 펼쳐온 캠퍼스 복음화 운동은 ‘절제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독학생연합회와 제자훈련 모임 지도교수로 섬겼던 그는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쳤다. 수업 속에 녹아있는 그의 간증은 바위처럼 굳어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열었다. 강의를 통해 매학기 평균 100명의 학생이 결신했다. 지난 95년부터 제자 훈련반을 만들었다. 결신학생 5명씩을 소그룹으로 양육하는 20명의 리더들을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반이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원문 강해’ ‘신약 배경사’ ‘성서와 기독교’ ‘한국 선교역사’ ‘한국 기독여성운동사’ 등을 강의하며 말씀에 기초한 복음 전달에 중점을 뒀다. <br/> <br/> “학생들의 영적 문제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br/> <br/> 김 부회장은 학생들에게 일어난 극적인 회심, 금주금연을 통한 변화, 치유의 간증 등을 모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로 출판했다. 책들은 크리스천 대학생의 생활 입문서처럼 사용되고 있다. <br/> <br/> 그가 절제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 위해 절제회에 가입한 어머니 고 여귀옥 권사의 영향이 크다. 여 권사는 대성그룹 창업주 고 김수근 회장의 부인이다. “어머니는 1965년경 서울역 앞에 절제회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후 결손가정 장학사업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걸음마 할 때부터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절제운동 현장에 따라 다녔던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절제운동을 하는데 더욱 헌신하게 됐습니다.” <br/> <br/> 그는 현재 대학생의 음주율이 남성 95%, 여성 85%라며 캠퍼스 복음화의 핵심은 술 담배 문제 해결에 있다고 했다. 특히 “여성들이 임신 중에 음주를 하면 자녀들이 뇌손상을 입고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며 태아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의 위험성을 알렸다. 또 “모든 범죄의 90%가 술과 연관돼 일어나고 있다”는 범죄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나 성관련 범죄, 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술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br/> <br/> 특히 그는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5년간 2000만명을 추적 연구해 ‘소주 한 잔을 가끔 마셔도 암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암 예방을 위해선 ‘금주가 답’이라고 했다. <br/> <br/> 그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술 담배 중독 예방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속살해, 아파트 층간 감정 대립이 칼부림으로 이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음주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또 한국 드라마나 영화 장면은 대부분의 만남을 음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방 심리에 강한 청소년들은 음주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TV의 술 광고 규제같이 유튜브의 술 광고를 규제해야 합니다.” <br/> <br/> 그는 2014년 정년퇴임 후 대성홀딩스 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의 언니 김영주 절제회 회장과 절제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글·사진=이지현 선임기자 jeeh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58.txt

제목: [단독] 자살 국정원 변호사, 檢조사 3일 뒤 “다 뒤집어쓸 분위기” 死色  
날짜: 20171104  
기자: 신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4235855001  
ID: 01100201.2017110423585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너무 힘들다” 심경 토로 후 <br/>“잘 지내시라” 죽음 암시도 <br/> <br/>당시 방해공작 주도한 <br/>파견검사들이 수차례 전화 <br/> <br/>정모(42) 국가정보원 법률보좌관실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검찰 조사 이튿날 동료들에게 “<span class='quot0'>저는 한두 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span>”라고 말했다고 한다. “<span class='quot0'>뭐 저희를 강도 높게 조사했겠어요</span>”라며 가벼운 농담도 나눴다. 정 변호사는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실무자였다. <br/> <br/> 그러던 그가 조사 사흘 후엔 사색이 된 얼굴로 출근했다. 정 변호사는 동료들과 산책을 하면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다 뒤집어써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br/> <br/> 그런 그에게 동료들은 “그 사람들(당시 파견검사)이 죗값을 치르면 되는데 왜 네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생각하느냐”며 “책임질 일 전혀 없다. 너한테 지시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지. 지시한 대로 했는데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오버하지 마라”고 다독였다. <br/> <br/> 정 변호사가 “잘 지내세요”라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검찰에서 파견 나온 한 검사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며 타이르기까지 했다. 정 변호사는 이 무렵 국정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공작을 주도한 옛 파견검사들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정 변호사가 다음 날 하루 휴가를 내자, 그런 그를 걱정하던 동료들은 행선지를 전화로 알려 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2차 조사도 30일로 하루 미뤘다. <br/> <br/> 정 변호사는 28일 강원도 원주에서 고교 동창을 만났다. 그는 “요새 회사일로 너무 힘들다. 옷을 벗고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료수를 한 병 시켜서 반병도 못 마셨다. 그는 “힘들어 보인다. 자고 가라”는 친구의 말을 뒤로 한 채 강릉으로 떠났다. <br/> <br/> 29일 오전 7시에 정 변호사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강릉 주문진 해변에 있는 다리에서 투신했다. 바닷물에 빠진 그를 행인이 신고했고 해양경찰이 구조했다. 해경은 2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돌려보냈다. 정 변호사가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같은 날 오후 5시47분 강원도 춘천 인터체인지(IC)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다. 정 변호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br/> <br/> 국정원 동료들은 30일 오전 정 변호사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변호사의 형 정모씨가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30일 밤 정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행적은 불분명하다. 그의 그랜저 승용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번개탄을 언제, 어디서 샀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br/> <br/> 시신으로 발견된 지 사흘 만인 2일 경찰은 그가 홀로 살던 오피스텔을 유족과 함께 찾았다. 정씨는 “<span class='quot1'>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동생이니 유서를 남겼을 것</span>”이라 말했지만 유서는 없었다. 개인 컴퓨터 안에도 자살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없었다. 정 변호사는 국정원과 가까운 경기도 과천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방을 얻어 살았다. 가족들에게도 정확한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 그의 오피스텔엔 당장이라도 출근할 수 있을 것처럼 세탁된 와이셔츠가 걸려 있었다. 그는 검찰 조사 후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br/> <br/>글=신훈 기자 zorb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59.txt

제목: [더피플피디아] 닌텐도 스위치에 거는 2가지 기대  
날짜: 20171103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3172644001  
ID: 01100201.20171103172644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닌텐도 스위치’는 일본 게임사 닌텐도의 신작이다. 모바일 디바이스와 비디오게임 콘솔을 결합해 세계 게임시장에 ‘태풍’을 일으켰다. 일본 등 8개월 앞서 출시된 일부 국가에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났다. 닌텐도 스위치는 3일 우리나라에서 예약판매를 시작해 시판을 앞두고 있다. 정식 판매 예정일은 다음달 1일이다. <br/> <br/>1. 닌텐도 스위치는 무엇인가 <br/> <br/>닌텐도는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화투짝을 만들어 팔던 점포였다. 20세기 들어 카드와 완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게임시장에 뛰어든 시기는 1980년대. 1983년 출시한 비디오게임 콘솔 ‘패미콤’과 1985년 개발한 횡스크롤게임 ‘슈퍼마리오’는 닌텐도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한 대표작이다. 1970, 80년대 출생자를 통칭하는 수식어의 하나로 ‘닌텐도 세대’가 사용될 정도로 이 회사는 비디오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다. <br/> <br/>하지만 게임시장은 TV 화면에 머물지 않았다. 컴퓨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재편됐다. 닌텐도는 이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이 온라인게임 시장을, 미국이 컴퓨터게임 시장을, 중국이 모바일게임 시장을 주도하는 동안 닌텐도는 비디오게임을 고집했다. 게임시장에서 입지는 자연스럽게 좁아졌다. 닌텐도는 활동성을 높인 ‘위(Wii)’ 휴대용 ‘디에스(DS)’를 개발해 변화를 시도했지만 과거의 제왕적 명성을 되돌릴 수 없었다. <br/> <br/>닌텐도 스위치는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비디오게임 콘솔로는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와 경계를 허물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란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이용환경을 변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게임기에 ‘스위치(Switch)’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용자는 TV‧테이블‧휴대용 등 3가지 이용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실외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실내에서 가정용 콘솔과 결합해 TV 등 대형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br/> <br/> <br/> <br/>2. 첫 번째 기대: ‘오토 양산’ 모바일게임 시장에 경고할까 <br/> <br/>모바일게임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문화콘텐츠 업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계한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 규모는 2014년 2조9136억원에서 지난해 3조8905억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2년 사이에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 추산치는 4조2356억원. 내년 매출액은 4조4560억원으로 예상된다. 애플‧구글 앱스토어의 경우 지난 9월 업데이트에서 게임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했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게임 이용량이 다른 어느 애플리케이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br/> <br/>문제는 부실하고 획일적인 콘텐츠만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앱스토어 매출 성적 상위권을 장악한 ‘대규모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게임(MMORPG)’은 캐릭터 육성에만 초점을 맞춘 ‘자동 조작’ 방식으로 개발됐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오토(Auto)’로 불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 시절의 원작과 비교하면 몰입감은커녕 게임성마저 희박하다. 이용자 역시 게임의 재미를 직접 탐색하지 않고 자동 조작 기능을 실행해 방치하면서 레벨 성장 및 아이템 수확의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br/> <br/>MMORPG는 분기별 매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만큼 상업적 성공을 거뒀지만, 줄거리의 세계관이나 게임성에 대한 호평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온라인게임의 중요한 흥행 요소 중 하나인 ‘길드’(이용자 커뮤니티)가 모바일게임에서 횡행하지 않는 이유도 ‘오토’에서 찾을 수 있다.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이 필요한 슈팅‧레이싱‧스포츠게임마저 유사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상품명과 도안만 다를 뿐 게임의 전개 방식은 천편일률적이다. <br/> <br/>부실한 상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수밖에 없다. 현재 활황인 모바일게임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닌텐도 스위치에 기대를 거는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하고 충실한 콘텐츠를 요구하는 모바일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서다. 닌텐도 스위치는 비디오게임의 연장선에 있어 모바일게임과 분야가 다르지만 ‘오토’에 질린 이용자에겐 대안이 될 수 있다. 게임 이용자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순으로 이동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새로운 이용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됐다. <br/> <br/> <br/> <br/>3. 두 번째 기대: ‘충실한 콘텐츠로 성공’ 사례 남길까 <br/> <br/>닌텐도가 게임시장 재편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원인 중 하나는 ‘자만’이었다. 닌텐도는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했다. 슈퍼마리오는 물론 ‘포켓몬’ ‘젤다의 전설’ 등 유명 게임들이 모두 닌텐도 콘텐츠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보다 자사의 게임기와 콘텐츠를 개선해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br/> <br/>결과는 참혹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닌텐도 위‧디에스를 더 이상 새롭게 느끼지 않았다. 게임기 판매량 감소는 자연스럽게 콘텐츠 인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임시장의 새로운 소비자인 1990, 2000년대 출생자에게 슈퍼마리오는 ‘닌텐도 세대’의 추억거리에 불과했다. 모바일게임으로 뒤늦게 개발한 슈퍼마리오는 참패로 돌아왔다. <br/> <br/>성공한 모바일게임은 ‘포켓몬고’ 정도였다. 이마저 증강현실(AR)에 대한 흥미 감소로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와 비디오게임 콘솔을 결합한 닌텐도 스위치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시장이 이동한 2010년 전후의 실패마저 경험으로 삼은 이 회사의 고민이 담긴 산물로 볼 수 있다. <br/> <br/>닌텐도 스위치는 앞서 지난 3월 3일 일본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먼저 출시됐다.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다. 출시와 동시에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닌텐도 스위치는 동이 났다. 유럽에서는 가장 빠르게 품절된 비디오게임으로 기록됐다. 일본의 경우 최근까지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오랫동안 다양하고 충실하게 개발한 콘텐츠가 새 시대에 적합한 이용환경을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셈이다. 2015년 7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본 게임시장의 ‘거장’ 이와타 사토루 전 닌텐도 사장이 생전 마지막으로 공을 들인 유작이라는 점은 한동안 조이패드와 조이스틱을 손에서 내려놓았던 ‘닌텐도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br/> <br/>국민일보 더피플피디아: 닌텐도 스위치 <br/> <br/>더피플피디아는 국민(The People)과 백과사전(Encyclopedia)을 합성한 말입니다. 문헌과 언론 보도, 또는 관련자의 말과 경험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백과사전처럼 자료로 축적하는 비정기 연재입니다.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60.txt

제목: [우먼 칸타타-김정주] “캠퍼스 복음화, 금주·금연에 달렸죠”  
날짜: 20171103  
기자: 이지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3151944001  
ID: 01100201.20171103151944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그는 대학교수이기 이전에 캠퍼스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다. 김정주(6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이하 절제회) 부회장은 1994년부터 20년간 연세대 ‘용재특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원복음화에 헌신했다. 특히 캠퍼스에서 술·담배·마약의 해악을 알리며 학생들의 ‘절제운동’을 주도했다. <br/> <br/>최근 서울 후암동 절제회관에서 만난 김 부회장은 “<span class='quot0'>절제운동은 복음을 전하고 술과 담배, 마약과 음란, 도박과 스마트폰 등 각종 중독 문제를 예방을 하는 사역</span>”이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초기 한국교회가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절제 주일로 지켰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복음전도와 절제 교육에 충실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r/> <br/>그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에서 ‘절제’는 희랍어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좋은 기준이 된다”고 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돕는 것이 절제운동이며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br/> <br/>1923년 창립된 절제회는 매년 술과 담배, 마약의 해독을 알리는 금주 금연 캠페인을 펼쳐왔다. 술병과 담배에 경고문 부착, 비행기와 식당의 금연 구역화 등 보건당국의 금주정책을 위해 각종 입법 노력을 했다. 1883년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가 창립됐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3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br/> <br/>그가 20년간 펼쳐온 캠퍼스 복음화 운동은 ‘절제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독학생연합회와 제자훈련 모임 지도교수로 섬겼던 그는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쳤다. 수업 속에 녹아있는 그의 간증은 바위처럼 굳어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열었다. 강의를 통해 매학기 평균 100명의 학생이 결신했다. 지난 95년부터 제자 훈련반을 만들었다. 결신학생 5명씩을 소그룹으로 양육하는 20명의 리더들을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반이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원문 강해’ ‘신약 배경사’ ‘성서와 기독교’ ‘한국 선교역사’ ‘한국 기독여성운동사’ 등을 강의하며 말씀에 기초한 복음 전달에 중점을 뒀다. <br/> <br/>“학생들의 영적 문제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br/> <br/> <br/> <br/>김 부회장은 학생들에게 일어난 극적인 회심, 금주금연을 통한 변화, 치유의 간증 등을 모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로 출판했다. 책들은 크리스천 대학생의 생활 입문서처럼 사용되고 있다. <br/> <br/>그가 절제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시기 위해 절제회에 가입한 어머니 고 여귀옥 권사의 영향이 크다. 여 권사는 대성그룹 창업주 고 김수근 회장의 부인이다. “어머니는 1965년경 서울역 앞에 절제회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후 결손가정 장학사업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걸음마 할 때부터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절제운동 현장에 따라 다녔던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절제운동을 하는데 더욱 헌신하게 됐습니다.” <br/> <br/>그는 현재 대학생의 음주율이 남성 95%, 여성 85%라며 캠퍼스 복음화의 핵심은 술 담배 문제 해결에 있다고 했다. 특히 “여성들이 임신 중에 음주를 하면 자녀들이 뇌손상을 입고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며 태아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의 위험성을 알렸다. 또 “모든 범죄의 90%가 술과 연관돼 일어나고 있다”는 범죄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주의력 결핍ㆍ과잉행동 장애(ADHD)나 성관련 범죄, 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술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우려 했다. <br/>특히 그는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5년간 2000만명을 추적 연구해 ‘소주 한 잔을 가끔 마셔도 암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암 예방을 위해선 ‘금주가 답’이라고 했다. <br/> <br/>그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술 담배 중독 예방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속살해, 아파트 층간 감정 대립이 칼부림으로 이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음주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또 한국 드라마나 영화 장면은 모든 만남을 음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방 심리에 강한 청소년들은 음주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TV의 술 광고 규제같이 유튜브의 술 광고를 규제해야 합니다.” <br/> <br/>그는 2014년 정년퇴임 후 대성홀딩스 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의 언니 김영주 절제회 회장과 절제운동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br/> <br/>이지현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61.txt

제목: 이와타 사토루 유작 ‘닌텐도 스위치’ 예약판매 시작  
날짜: 20171103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3091844002  
ID: 01100201.20171103091844002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일본 닌텐도 신형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의 예약판매 창구가 열린다. <br/> <br/>온라인 쇼핑몰 G9는 3일 오전 10시부터 닌텐도 스위치를 500대 한정으로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다. 정식 시판 예정일은 12월 1일이다. <br/> <br/>닌텐도 스위치는 비디오게임 사상 처음으로 휴대용 전자기기와 가정용 콘솔을 통합한 형태로 제작됐다.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작 환경을 변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스위치(Switch)’라는 이름이 붙었다. <br/> <br/> <br/> <br/> <br/>이용자는 TV‧테이블‧휴대용 등 3가지 이용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실외에서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하고, 실내에서는 가정용 콘솔과 결합해 TV 등 대형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br/> <br/>2015년 7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본 게임시장의 ‘거장’ 이와타 사토루 전 닌텐도 사장이 생전 마지막으로 공을 들인 제품이다. ‘이와타의 유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br/> <br/>우리나라보다 8개월 앞선 지난 3월 이 제품이 시판된 일본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홍콩에서는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62.txt

제목: [책과 길] 암 투병 해직기자가 쌍둥이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  
날짜: 20171103  
기자: 박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3050555001  
ID: 01100201.201711030505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사랑스러운 현재와 경재, 너희들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벌써 스무 살 안팎이 되었겠구나. 나는 너희들이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이 글을 읽을 것이라 생각하고 쓰고 있다.” <br/> <br/> 도입부만 읽어도 코끝이 매워졌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는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은 중년 남성이 써내려간 자서전이면서 40대 가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띄우는 한 권의 편지다. <br/> <br/> 책을 쓴 사람은 2012년 MBC 파업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홍보국장을 맡아 파업을 이끌었던 이용마(48) 기자다. 이 기자는 파업이 한창이던 같은 해 3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암이 발병한 사실을 안 건 지난해 9월. 의료진은 당시 그에게 남은 시간이 12∼16개월 정도라고 내다봤다. 유서를 쓰는 심경으로 그는 이 책을 완성한 셈이다. <br/> <br/>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는 저자의 개인사에 한국의 현대사가 갈마드는 구성을 띠고 있다. 저자는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북 전주에서 초·중·고교를 나왔다. 1987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했고 96년 MBC에 입사했으며 2002년 지금의 아내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br/> <br/> 어찌 보면 평범하고 순탄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 곳곳엔 신념을 지키려고 분투한 흔적이 남아 있다. 가령 그는 지역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본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서울로 올라와 결혼까지 했으면 본적을 옮길 수도 있는데, 자신의 본적은 여전히 남원이며 자식들 역시 남원이 본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출신지를 숨기고 도망가기 싫었다. 호남 출신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br/> <br/> 저자의 이력을 아는 독자라면 공영방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책의 후반부에 눈길이 쏠릴 것이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뽑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국민참여재판이 그렇듯 추첨을 통해 선발된 ‘국민대리인단’에 인사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br/> <br/> 저자의 두 아들이 진지하게 이 책을 마주할 때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참고로 이 기자의 아들인 현재·경재군은 2008년생으로 세는나이로 따지면 올해 열 살이다. <br/> <br/>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63.txt

제목: 癌 합병증 치료 입원 땐 보험금 못받아요  
날짜: 20171103  
기자: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3213855001  
ID: 01100201.20171103213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주부 A씨(46)는 최근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 부작용과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암보험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암의 치료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입원이었기 때문이다. <br/> <br/> A씨처럼 병원에 입원했다고 무조건 암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 암 치료 후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암 진단이 나와도 보험사 약관에 따른 진단 방법이 아닐 경우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br/> <br/>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암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2일 소개했다. 보험사들은 약관상 현미경 조직·혈액 검사를 통해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에서 종양이 발견됐다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br/> <br/> 진단 시점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약한 날짜를 포함해 91일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그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게 되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통상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또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시점은 조직검사 시행일이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다.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해 암 진단이 최종 확정된 날이다. <br/> <br/> 통원치료가 가능한데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받을 때 입원하는 것도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br/> <br/>나성원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64.txt

제목: 몸 속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발견이 어려운 췌장암, 치료 후 재발과 전이 방지 중요  
날짜: 2017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2114544001  
ID: 01100201.20171102114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천안에 거주하는 박 씨(42세, 여성)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작스런 체중감소와 극심한 복통을 느꼈으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았다. 그녀에게 내려진 결과는 '췌장암'이었다. 박씨는 현재 수술치료를 받은 후 항암 치료 중에 있다. <br/> <br/>췌장암은 세계적인 사업가 스티브 잡스가 앓은 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식을 남겼다. 췌장은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효소와 혈당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기관인데, 악성종양이 생겨 발생하는 췌장암은 소리 없이 찾아와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br/> <br/>췌장암은 박 씨와 같은 사례로 찾는 환자들이 많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상당히 암이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치료가 어려워 진다. 또한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전이와 재발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br/> <br/>췌장암의 증상은 소화장애, 당뇨병의 발생 및 악화, 체중감소, 복통 등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몸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췌장의 특성상 조기발견이 매우 어렵고 예방수칙이 확립된 것이 없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br/> <br/>천안에 위치한 메디움천안요양병원 고상훈 병원장은 "췌장암치료를 한 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암요양병원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이 암은 보통 늦게 발견되어 예후가 안 좋은 편에 속하지만 치료 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율을 낮춰주고 암의 전이를 방지해 주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합의학적암치료를 통해 관리와 요양을 동시에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외국의 유명 암센터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암의 사후관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br/> <br/>통합의학적암치료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다양한 대체요법들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양·한방 동시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개개인의 현재 상태에 맞춘 치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통증 밀착 관리가 가능하다. <br/> <br/>암요양병원인 메디움천안요양병원에서는 항암치료 프로그램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미술, 요가, 음악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항암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한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즉각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페인스크램블러 도입 및 편의시설(돔사우나, 족욕 등)을 제공해 환자들의 편의를 보장 하고 있다. <br/> <br/>췌장암은 평소 지방이 많은 음식섭취를 줄이고, 당뇨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 및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벼운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하여 적정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직업이라면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65.txt

제목: 고두심-김성균 “가족처럼 편안해-호흡 맞출 때 짜릿” [인터뷰]  
날짜: 20171102  
기자: 권남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2000056001  
ID: 01100201.20171102000056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처음 만난 사람과 ‘쎄쎄쎄’를 하는데 정말 완벽하게 맞는 느낌? 선생님과 연기 합을 맞추면서 그런 짜릿함을 느꼈어요.”(김성균)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족처럼 편안해도 되는 거냐고(웃음). 현장 가는 게 기다려질 정도였다니까요.”(고두심) <br/> <br/> 서로를 바라보는 살가운 눈빛이 영락없는 모자지간(母子之間)이다.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고두심(66)과 김성균(37)은 영화 속 모습 그대로였다. 오는 9일 개봉하는 ‘채비’는 두 사람이 처음 호흡을 맞춘 작품. 말기암 판정을 받은 엄마 애순과 지적장애를 지닌 아들 인규를 각각 연기했다. <br/> <br/> 인물 설정만 놓고도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몸만 커버린 아들을 홀로 건사하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애순이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별 준비’를 시작한다. <br/> <br/>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땐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스토리였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집사람이 읽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정공법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야기에 큰 울림이 있었던 거죠. 진심이 통했다고 할까요.”(김성균) <br/> <br/> 두 배우의 안정적인 연기력은 이 영화를 지탱하는 힘이다. 단조롭게 흘러가는 이야기에 웃음과 감동을 더해 따뜻한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고두심은 “난 어머니 역할을 워낙 많이 하지 않았나. 거기에 살만 좀 더 붙이면 되는 거였다”고 겸손해했다. 그러더니 ‘아들’ 자랑을 한참 늘어놨다. <br/> <br/> “드라마 ‘응답하라 1988’(tvN)에서 (김)성균씨를 봤는데 ‘정말 좋은 배우구나’ 싶었어요.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기회가 닿아 너무 기쁘더라고요. 인규가 참 어려운 역할이었는데 성균씨가 잘해줬어요.” <br/> <br/> 45년 배우 인생 동안 고두심은 브라운관을 통해 끊임없이 시청자를 만났다. 그러나 영화와는 유독 연이 깊지 않았다. “영화를 기피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형 스크린에 담기는 게 공포스러웠어요. 지방촬영 때문에 오래 집을 비우는 것도 싫었고요. 장르적으로도 공포영화 출연은 피했어요. 돼먹지 못한 생각이었죠(웃음).” <br/> <br/> 하지만 중견 여배우가 드라마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란 지극히 한정적이다. 꾸준히 활동을 하다보면 ‘국민 엄마’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우리나라는 배우를 너무 빨리 늙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나이에도 충분히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중장년층의 멜로? 좀 유치할지언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br/> <br/> 인터뷰 도중 “과거 ‘애마부인’(1982)의 여주인공 캐스팅 제안을 받은 게 나였다”고 깜짝 고백을 한 고두심은 “지금도 그렇게까지 짙은 멜로물은 자신 없지만 어떤 역할이든 일단 도전해 볼 의향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배우라면 당연히 작품 욕심이 있지, 왜 없겠어요. 감독님들, 한번 줘보세요. 고두심도 해낼 수 있다니까요(웃음).” <br/> <br/>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66.txt

제목: 마크로젠, 명지의료재단과 유전체정보교류 협약 체결  
날짜: 2017110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1151244001  
ID: 01100201.201711011512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진]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왼쪽)이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크로젠 제공 <br/> <br/>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대표 정현용)은 30일,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과 유전체 정보 기반 질병관리의 임상 적용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포괄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br/> <br/>마크로젠과 명지의료재단은 앞으로 유전체 정보와 의학·의료정보에 대한 공동연구 및 활용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br/> <br/>또 명지의료재단은 마크로젠이 확보하고 있는 암, 성인병,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유전체 정보 기반 질병관리 프로토콜을 조기에 임상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연구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br/> <br/>뿐만 아니라 양 기관은 마크로젠이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공동 활용하여 명지의료재단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암바이러스치료, 세포치료 등 항암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br/> <br/>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암환자 통합진료를 위한 면역항암치료 및 세포치료 등 신의료기술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명지의료재단과 유전체 정보 기반 질병관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br/> <br/>양 기관의 협력으로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임상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기에 구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r/> <br/>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 선도력을 기반으로 유전체 및 의료 정보 통합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학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br/> <br/>이번 협약을 통해 명지의료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항암 바이러스치료 및 세포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사업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마크로젠은 명지의료재단 외에도 국내외 주요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마크로젠 정밀의학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67.txt

제목: [더피플피디아] 은은했던 배우, 그래서 슬픈 故 김주혁의 작별인사  
날짜: 20171101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101141744001  
ID: 01100201.201711011417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튀지 않았다. 스스로를 앞세우지도 않았다.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했다. 연예계에서 하루를 멀다하고 불거지는 논란에 휘말린 적도 없었다. 원로 배우였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성장했다는 한때의 평가 정도가 유일한 논란거리였다. 이마저 묵묵하게, 십수년 간 천천히 성장하면서 이겨나갔다. 배우 김주혁 얘기다. <br/> <br/>김주혁은 열광적인 팬덤을 가진 배우가 아니었다. 어느 날은 조금 잘생긴 동네 형 같은 배역으로, 또 어느 날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뉴스 앵커 역으로 나타났다.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온화하고 느긋하게 보이는 표정, 침착하고 진지한 언변만큼은 언제나 그대로였다. 김주혁과 면식이 없는 연예계 인사가 빈소를 조문하고,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깊이 슬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은은했던 잔상은 이렇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br/> <br/>1. 배우 아버지를 둔 수의사 지망생 <br/> <br/>김주혁은 1972년 10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1980~1990년대 영화‧드라마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던 배우 김무생이다. 하지만 ‘고등학생 김주혁’은 영화계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울 영동고에서 이과 계열을 선택해 수의사를 꿈꾸고 있었다. <br/> <br/>진로는 어느 날 바뀌었다. 생전 평범했던 그의 삶처럼 진로 변경에서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아버지를 통해 영감을 받았거나, 혹은 진로를 상담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연기자 인생을 반대했다. 김주혁은 2005년 한 연예매체와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어느 날 불현 듯 연기가 하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1997년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SBS 공채 8기 탤런트로 데뷔했다. <br/> <br/> <br/> <br/>2. 튀지 않아도 보이는 은은함 ‘한국의 휴 그랜트’ <br/> <br/>김주혁은 1999~2000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카이스트’에서 단역으로 등장했다. 조교를 휘어잡는 ‘공대생 형’ 정도의 역할이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린 곳은 영화계였다. 뮤지컬을 스크린에 옮긴 2003년 영화 ‘싱글즈’에서 주인공 장진영의 연인 수헌 역을 연기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 영화에서 다소 귀티 나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듬해 개봉한 ‘홍반장’에선 마을주민을 부지런히 돕는 시골청년 홍두식 역으로 변신했다. <br/> <br/>정장을 갖춰 입은 날카로운 모습도, 늘어진 면 티셔츠에 남방을 걸쳐 입은 수더분한 모습도 어울리는 배우였다. 하지만 어떤 차림새나 배역도 느긋하면서도 반듯하게, 귀티가 흐르지만 온화하게 보이는 김주혁의 인상을 망쳐놓지 않았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한국의 휴 그랜트’다. 휴 그랜트 역시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영국 배우다. <br/> <br/>해를 거듭할수록 출연작이 늘어났고, 어느 순간 아버지보다 유명한 배우로 성장했다. 영화계 원로인 아버지의 후광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김무생 김주혁 부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은 화면에 등장한 2005년 보험회사 광고는 두 배우의 대중적 인지도가 교차한 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무생은 이 광고를 촬영할 당시 암 투병 중이었고, 그해 4월 16일 별세했다. 김주혁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출연해 특유의 온화하고 침착한 성품을 대중에게 각인했다. <br/> <br/> <br/> <br/>3. 갑작스러운 작별인사 <br/> <br/>김주혁은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승용차 전복사고로 숨졌다. 그가 몰던 승용차는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아파트 벽면에 부딪쳐 뒤집혔다. 소방당국은 찌그러진 승용차 안에서 김주혁을 구조해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으로 후송,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의식은 되살릴 수 없었다. 김주혁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사망했다. <br/> <br/>운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31일 김주혁의 직접적인 사인을 “<span class='quot1'>즉사가 가능한 수준의 두부 손상</span>”으로 지목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br/> <br/>지난달 케이블채널 tvN에서 8부작으로 방송된 드라마 ‘아르곤’은 생전 공개된 마지막 작품이 됐다. 김주혁은 이 드라마에서 방송 뉴스의 앵커 겸 탐사보도팀장을 연기했다. 그는 생전 “<span class='quot1'>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를 참고해 연기했다</span>”고 말했다. 손 앵커는 김주혁의 사망 당일 뉴스룸에서 부고를 전하면서 “<span class='quot2'>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몇 번째 순서에, 얼만큼 보도해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 착잡한 오늘</span>”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br/> <br/> <br/> <br/>영화계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영화 ‘러브레터’를 연출한 일본 영화의 거장 이와이 슌지 감독이 배우 김주혁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와이 감독은 31일 오전 10시41분 트위터에 “배우 김주혁씨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촬영현장에서의 그의 아름다운 연기가 떠올라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글로 적었다. 이와이 감독과 김주혁은 지난 2월 16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선보인 디지털 단편영화 ‘장옥의 편지’를 합작했다. <br/> <br/>김주혁의 빈소는 31일 오후 3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1월 2일. 장지는 충남 서산 대산읍의 가족 납골묘다. <br/> <br/>국민일보 더피플피디아: 배우 김주혁 <br/> <br/>더피플피디아는 국민(The People)과 백과사전(Encyclopedia)을 합성한 말입니다. 문헌과 언론 보도, 또는 관련자의 말과 경험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백과사전처럼 자료로 축적하는 비정기 연재입니다.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68.txt

제목: 폐경호르몬요법 대한 인식 전환시키는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 눈길  
날짜: 2017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1161544001  
ID: 01100201.201710311615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50대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폐경 증상으로는 안면홍조, 땀 분비,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피곤감, 우울감, 관절통, 질건조증, 성교통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폐경 호르몬요법(MHT, Menopausal Hormone Therapy)은 가장 효과적으로 폐경 증상을 호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br/> <br/>또한 여러 관찰연구 결과를 토대로 폐경호르몬 요법은 골절 및 관상동맥질환 등 노화와 관련된 여러 만성질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br/> <br/>하지만 폐경호르몬요법과 관련해 미국 40개 기관에서 실시된 Women's Health Initiative(WHI) 임상시험 결과 (평균 연령: 63세), 호르몬치료는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은 영향이 없으나, 장기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medroxyprogesterone acetate) 병용요법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폐경 여성은 물론 의료진에게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전세계적으로 폐경호르몬요법을 사용하는 이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br/> <br/>이런 WHI 연구결과가 처음 발표된 지 15년이 지났다. 현재 WHI에 대한 재분석과 함께 새로운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덴마크 연구 결과, norethindrone acetate를 사용한 병합요법은 유방암 위험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됐다. 더불어 최근 의학 관련 전산 데이터베이스 ‘코크란 라이브러리’(Cochrane Library)에 19개 임상시험(4만410명)대한 메타분석을 토대로심혈관질환에 대한 폐경호르몬요법의 효과 발표로 재해석됐다. <br/> <br/>임상시험의 메타분석 결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한다. 코크란 메타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폐경호르몬요법은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하지 못하며 뇌졸중 위험도 증가 시킨다. 그러나 호르몬치료가 주로 사용되는 폐경 10년 이내 시작한 경우 관상동맥질환 위험을 48% 감소(RR 0.52, 95% CI 0.29-0.96)시켰고, 치료효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전체 사망률 역시 30% 감소(RR 0.70, 95% CI 0.52-0.95)됐다. 또 뇌졸중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 <br/> <br/>즉,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는 폐경 후 언제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폐경호르몬요법의 심혈관질환 효과가 달라진다는 타이밍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br/> <br/>이번 메타분석 결과에 대해 대한폐경학회 윤병구 회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또한 “<span class='quot0'>폐경호르몬요법으로 50대 폐경 여성의 전체 사망률을 의미 있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획기적이며, 그 동안 WHI 연구 결과에 따른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임상적 이득이 저평가 됐지만, 이번 메타분석 결과 폐경 초기에 시작하는 통상적인 폐경호르몬요법은 효과적일 뿐 아니라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장암, 위암 등 암 위험을 낮추는 이득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어 “이번 메타분석 결과를 계기로 폐경호르몬요법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폐경 초기 (10년 이내) 호르몬치료 시작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폐경 증상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69.txt

제목: 슈퍼박테리아 4달 만에 3337건… 환자가 쓸 약이 없다  
날짜: 20171031  
기자: 최민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1150644001  
ID: 01100201.201710311506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막을 약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br/> <br/>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개월(6~9월)간 CRE 등록건수는 총 3337건으로 조사됐다. <br/> <br/>CRE는 장내 세균감염 시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다. 감염되면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카바페넴 내성에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도입되지 않아 감염 환자들이 쓸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다. <br/> <br/>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만이라도 항생제 신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월 3일 CRE를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기존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br/> <br/>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의료시설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항생제를 계속 복용해서 발생한다. 이 균은 감염 환자와 단순 신체 접촉을 해도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신속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br/> <br/> <br/> <br/>특히 우리나라는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br/> <br/>2015년 국가항균내성정보 연보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카바페넴 내성률(아시네토박터균)은 각각 83.4%와 82.4%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7년(27%, 25%)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br/> <br/>아시네토박터균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이다. 일본의 경우 이 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이 5% 미만에 그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br/> <br/>특히 최근 유명 아이돌 스타의 애완견에 물려 유명을 달리한 음식점 대표가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농균은 욕창과 피부감염, 요로감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균이다.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등지에서 오줌줄이나 투약관, 인공호흡기 등을 낀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카바페넴에 내성률이 40% 이상 나타나고 있어 슈퍼박테리아로 불리고 있다. <br/> <br/>최 의원은 "짐 오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 2050년엔 암 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 항생제를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약을 신속히 도입해 중증환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br/> <br/>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70.txt

제목: 하늘나라서 만난 두 배우… 故김주혁·장진영의 ‘청연’ ‘싱글즈’  
날짜: 20171031  
기자: 박세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1144544001  
ID: 01100201.201710311445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30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김주혁은 영화 ‘청연’과 ‘싱글즈’에서 장진영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공교롭게 장진영도 세상을 떠난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r/> <br/>2005년 개봉한 영화 ‘청연’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비행사 박경원(장진영 분)의 이야기를 그렸다. 김주혁은 경원의 연인이자 비행학교 장교인 한지혁 역할로 출연했다. 장진영은 영화 개봉 3년 뒤인 2008년 9월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 2009년 9월 37세에 세상을 떠났다. <br/> <br/> <br/> <br/>자신을 ‘청연’의 스태프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30일 SNS에 김주혁과의 일화를 떠올리며 그와 장진영을 그리워했다. 그는 “2003년 겨울, ‘청연’ 제부도 촬영 현장에서 발을 다친 나를 제작실장이 주연배우가 쉬라고 잡아놓은 방으로 보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잠깐 누워있다가 가야지’ 했다가 잠이 들었고 잠결에 소리가 나서 깨보니 주연배우가 살며시 나가려다가 내가 깨자 ‘미안해 좀 더 자’라며 매우 미안해하며 나갔다”라고 적었다. <br/> <br/>이어 “내 기억 속의 배우 김주혁은 그런 모습이었다”며 마지막 촬영 당시 찍은 김주혁과 장진영의 사진을 올렸다. “<span class='quot0'>촬영 부천 세트장… 김주혁 배우의 마지막 촬영 날… 다신 볼 수 없는 두 배우</span>”라는 설명을 덧붙인 그가 올린 사진 속 김주혁은 장진영과 함께 촬영을 마치고 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br/> <br/> <br/> <br/>영화 ‘청연’의 OST인 ‘서쪽하늘’ 역시 사연을 갖고 있다. 장진영과 같은 병으로 투병하다 2013년 세상을 떠난 그룹 울랄라세션 리더인 고 임윤택은 2011년 Mnet ‘슈퍼스타K3’ 출연 당시 이 노래를 불렀다. <br/> <br/>당시 임윤택은 “나와 같은 상황이었던 장씨도 이 노래를 좋아했던 것으로 안다”며 “장씨는 암을 수술할 수 있었지만 배우로서 몸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 역시 천상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이라 무대에만 올라가면 안 좋은 것들이 잊힌다”고 말했다. <br/> <br/> <br/> <br/> <br/>앞서 2003년 영화 ‘싱글즈’에도 함께 출연한 이들은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다. 잘 나가는 증권맨 수헌역을 맞은 김주혁은 직장을 잃고 패밀리 레스토랑 매니저로 취업을 한 나난(장진영)에게 첫눈에 반해 교제한다. 이 작품으로 김주혁은 뭇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장진영은 현실적이고 독특한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br/> <br/>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71.txt

제목: 고두심 “아들 같은 故김주혁, 할일 다 못하고 가” 눈물  
날짜: 20171031  
기자: 권남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1133844001  
ID: 01100201.201710311338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배우 고두심(66)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배 고(故) 김주혁(45)에 대한 애통한 심경을 전했다. <br/> <br/>고두심은 영화 ‘채비’에서 호흡을 맞춘 김성균과 함께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참석했다. 전날 전해진 김주혁 관련 비보로 취소 여부를 고려했으나 일반 홍보 행사가 아닌 여러 매체와 약속된 인터뷰였기에 예정대로 진행됐다. 초반 분위기는 다소 침체돼 있을 수밖에 없었다. <br/> <br/>김성균은 “마음이 무거운 날이다. 오늘 인터뷰를 하는 게 맞나 영화사 측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이미 약속된 자리라서 취소하기 어려웠다”며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좋아하는 선배였다. 너무 놀랐다. 마음이 많이 안 좋다”고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br/> <br/>고두심 역시 착찹한 표정으로 입을 뗐다. 그는 “나와는 드라마도 같이 했었다. (김주혁이) 제 아들로 나왔다”면서 “내게는 아들 같은 기분이다. 선친(고 김무생)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아들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br/> <br/>“어휴, 그 젊은 나이에”라고 짧게 탄식한 고두심은 “어제 밤에 비보를 듣고 너무 놀랐다. 심근경색이라는 지병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빈소에) 가서 자세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사고 당시 가슴을 부여잡았다고 하니까 순간 쇼크가 와서 그러지 않았나 싶다”고 얘기했다. <br/> <br/>이어 “세상에 나와서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라 더욱 더 마음이 아프다. 아직 장가도 안 가지 않았나. 그 친구 진짜…”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감정이 북받쳐 터져 나오는 눈물을 애써 삼켰다. <br/> <br/>고두심은 “배우들이 사실 그런 병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폐쇄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대인)기피증이 조금씩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심한 편이다. 촬영 외에는 대문 밖에 나가기 싫어한다.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배우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버거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친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br/> <br/>김주혁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두 시간여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경찰 소견이 나왔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정과 장소가 조율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br/> <br/>다음 달 2일 개봉하는 ‘채비’는 간만에 극장가에 찾아온 따뜻하고 착한 영화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엄마 애순(고두심)이 나이 서른에 일곱 살의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적장애인 아들 인규(김성균)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이야기다. <br/> <br/>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72.txt

제목: “의술은 과학적 근거가 기본…MR하이푸 연구 외길 걸었죠”  
날짜: 2017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1132044002  
ID: 01100201.20171031132044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창 진로를 고민하던 삼성서울병원 전임의 시절, 당시 지도교수님이 하이푸의 전망을 좋게 보시고 이 길을 가보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칼을 대지 않는 비수술 치료가 장차 주목을 받을 거라고 하시면서 ‘꼼꼼하고 파고들기 좋아하는 너에게 잘 맞을 테니 도전해보라’고 독려하셨죠” <br/> <br/>국내 최다 SCI급 하이푸 논문을 발표한 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 김영선 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이 민트병원에서 ‘제2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가 ‘자궁근종 하이푸(HIFU)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된 것은 11년 전 지도교수님의 조언에서 비롯됐다. <br/> <br/>그는 이후 캐나다 써니브룩헬스사이언스센터에서 2년간의 장기연수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돌아와 2008년부터 필립스사의 MR하이푸 장비구축과 임상센터 건립을 총괄했다. 10년 이상을 임상연구에 몰입한 결과, 올해까지 하이푸 관련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만 31편을 발표했다. 국내외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하이푸 외 기타 논문까지 합치면 139편에 달한다. <br/> <br/>그가 하이푸 연구에 전념하게 된 것은 ‘의술은 과학적 근거가 기본이 돼야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김영선 원장은 “<span class='quot0'>하이푸가 첨단의 자궁근종 치료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치료는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0'>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편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더욱 철저하게 연구데이터와 경험을 쌓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하이푸는 진단용 초음파보다 약 100만 배 강한 치료용 초음파를 종양의 한 점에 집중시킨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열로 병변을 치료하는 최신 의료기술이다. 체외에서 초음파를 쏘지만 몸에 흔적이 남지 않아 만족도가 높다. 처음 도입됐을 때에는 간암, 췌장암 치료용으로 먼저 활용됐다가,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에서 치료효과가 입증되면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br/> <br/>단 하이푸는 비침습적 시술로 시술자가 영상을 보면서 기기를 조작해야 한다. 병변의 위치와 모양을 확인하고, 초음파를 집속하는 정확한 목표점을 찾고, 치료의 진행방향을 실시간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다. 이때의 ‘영상’이 초음파 촬영인지, MRI 촬영인지에 따라 초음파하이푸와 MR하이푸로 구분된다. 하이푸는 몸 속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열을 쏘는 것이라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어떤 영상기법을 쓰느냐가 치료의 안전과 효과를 좌우하는 것이 사실이다. <br/> <br/>이 중 MR하이푸 방식만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치료용 허가를 받았다. 건강보험 포괄수가제도 MR하이푸만 적용된다. 이는 단지 MRI가 영상범위가 넓고 화질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 김 원장은 이보다 중요한 차이로 치료 부위와 주변 조직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 모니터링 기능’을 꼽는다. <br/> <br/>김영선 원장은 “<span class='quot0'>열 치료는 온도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주변 장기와 뼈, 신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하이푸 시술의 부작용 사례가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됐다</span>”고 말했다. <br/> <br/>하이푸는 보통 이해하기 쉽게 ‘자궁근종을 태운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섭씨 65~80도면 혈류가 차단되면서 괴사되면서 치료효과가 나타난다. MR하이푸는 MRI를 이용한 온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위의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열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주변 장기의 열 손상을 막아 보다 안전한 치료가 이뤄진다. <br/> <br/>김 원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MR하이푸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지난 9월 SCI급 학술지 ‘유럽영상의학회지(European Radiology)’에 실린 논문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 연구에서 117개의 자궁근종 MR하이푸 치료 후 정상자궁내막은 대부분 손상되지 않거나 미세한 정도의 손상만을 보였으며, 설사 손상이 될지라도 추후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결론지었다. 이를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환자에게 MR하이푸 치료가 안전한 치료옵션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br/> <br/>현재 국내에는 일반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40개 남짓의 초음파하이푸가 가동 중이다. 그에 비해 MR하이푸는 보급률이 낮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단 7곳에 설치된 것이 전부다. 장비가격이 높고, 하루 시술건수가 최대 2~3건으로 제한되므로 병원 입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탓이다. <br/> <br/>민트병원은 원래 김재욱 대표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자궁근종 색전술로 유명한 곳이지만, MR하이푸를 전담하는 김영선 원장과 복강경 절제술을 전담하는 김하정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이 합세하면서 아예 ‘자궁근종통합센터’를 따로 개소했다. <br/> <br/>김영선 원장은 “자궁근종은 암 만큼이나 복잡한 형태를 띄고, 치료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이 높은 질환”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의 실시간 협진은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민트병원이 시행하는 자궁근종·자궁선근증 질환만을 치료하는 다학제 센터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br/> <br/>이어 “대학병원의 안정된 직책을 박차고 나왔지만, ‘진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어서 지금이 더 행복하다”며 “지금까지의 연구를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자와 소통하면서 더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73.txt

제목: 남자친구 'HIV 보균자'고백에 분노한 여친의 '복수'(영상)  
날짜: 20171031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1110144002  
ID: 01100201.20171031110144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미국 애리조나(Arizona)에 거주하는 미스티 리 윌케(44)는 최근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그가 HIV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을 속이고 성관계를 가져온 남자친구에게 그는 분노의 복수에 나섰다. <br/> <br/>지난 29일 온라인 미디어 바이럴노바는 남지친구와 다툼 중, HIV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홧김에 차로 그를 들이받아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미스티는 경찰조사에서 “<span class='quot0'>운전하다가 앞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뿐 남자친구인지는 몰랐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영상보기 <br/> <br/> <br/> <br/>경찰이 공개한 CCTV영상에서 남자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맞은편 도로에는 미스티가 타고 있는 빨간색 차량이 대기 중이었다. 남자친구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기 직전, 그는 가속 폐달을 밟아 차를 출발시켰다. <br/> <br/>갑자기 달려오는 차량에 당황한 남자친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이때 차의 속력을 더 높인 미스티는 맞은편에 있는 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br/> <br/>차량 앞부분과 정면으로 충돌한 남자친구는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쳐졌다. 사고 직후 미스 티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남자친구를 남겨둔 채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br/> <br/> <br/> <br/>경찰 조사에서 미스티는 “남자친구가 HIV라는 말을 듣고 너무 흥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운전하다가 보지 못해서 일어났을 뿐”이라며 “내가 누굴 친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br/> <br/>하지만 검찰은 CCTV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미스티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br/> <br/>HIV 감염은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한다. HIV 감염자 가운데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74.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33) 세브란스병원 뇌신경센터 바클로펜/모르핀 펌프 클리닉] 중증 통증 완화  
날짜: 2017103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1091055001  
ID: 01100201.20171031091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박하진(47·가명)씨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으면서 암보다 무서운 게 암성 통증임을 깨달았다. 폐암 치료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 사이 예고도 없이 엄습하는 통증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br/> <br/> 결국 견디다 못한 박씨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바클로펜/모르핀 펌프 클리닉을 찾아 모르핀펌프 삽입 시술을 받았다. 이후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완화된 박씨는 폐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br/> <br/> <br/> <br/> 국내 유일 특수클리닉 <br/> <br/> 바클로펜/모르핀 펌프 이식술은 한마디로 근육이완제 ‘바클로펜’ 또는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장치(펌프)를 몸속에 심어 난치성 강직 및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다. <br/> <br/> 뇌성마비뿐 아니라 뇌졸중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경직성 하지마비로 인한 근육강직 증상을 풀고 어떤 진통제로도 제어가 안 되는 중증 통증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br/> <br/> 해외에선 198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선 2008년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 재활의학과 조성래 교수팀이 첫 시술에 성공했다. 10월 현재 총 시술건수는 56건이다. 2014년 7월 건강보험이 재료대(펌프 값)의 50%를 지원하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6건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br/> <br/> 생각보다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부분급여 지원에도 불구 1대당 약 750만원에 이르는 펌프 값을 포함해 시술비용이 1000만여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br/> <br/>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뇌신경센터 바클로펜/모르핀 펌프 클리닉은 이런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특수클리닉이다. <br/> <br/> 현재 신경외과 장원석 교수와 재활의학과 조성래 교수를 중심으로 신경과 신하영 교수, 종양내과 최혜진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난치성 강직 증상과 암성 통증 등을 다루는 진료 특성상 관련 진료과목의 전문 교수들간의 협력진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br/> <br/> 장원석 교수는 30일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재료대를 100%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총 300만 원대로 낮아져 더 많은 뇌성마비 환자와 만성 통증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br/> <br/> 신경 막에 직접 약물 뿌려줘 <br/> <br/> 뇌와 척수 신경계는 인체에서 매우 중요하며 가장 예민한 부위다. 미량이라도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뇌·척수 신경계에는 뇌혈관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어 외부 물질이 쉽게 흘러들지 못하게 돼 있다. 혹시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 그 속의 독물이 혈액 속으로 못 들어가게 차단하는 구조다. <br/> <br/> 문제는 이렇듯 철저한 보호막으로 인해 강직 또는 통증 해소용 치료약도 차단돼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뇌혈관 장벽을 지나 뇌 및 척수 신경에 치료약을 주입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하지만 의학계는 아직도 뚜렷한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태다.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하게 하려고 약물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약효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아예 뇌혈관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방법은 혈액 속의 독성 물질을 뇌 및 척수 신경계에 그대로 직송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br/> <br/>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된 게 뇌 및 척수 신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바클로펜/모르핀 펌프 삽입술이다. 연구결과 모르핀의 경우 같은 용량을 먹었을 때와 비교해 진통 효과가 약 30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구(經口)약으로는 실제 신경에 도달하는 성분이 적어 치료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강직 및 통증 환자들에게 펌프삽입술이 도움이 되는 이유다. <br/> <br/> 고가 재료 부담 낮출 방법 필요 <br/> <br/> 시술 과정도 비교적 안전하다. 뇌나 신경을 직접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라 허리의 척수를 싸고 있는 막 안에 있는 뇌척수액 도관을 통해 약을 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의 강직 치료가 주로 신경이나 인대를 절단하는 방식이었다면 바클로펜/모르핀 펌프 삽입술은 주위 정상 조직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br/> <br/> 그런데도 이 치료법이 외국과 달리 그동안 국내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건강보험 부분급여로 인해 환자가 1대당 펌프 값만 약 75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펌프 삽입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만성 중증 강직 및 통증을 유발한 난치성 질환 또는 암 치료를 위해 이미 적잖은 의료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더욱 크다. 다행히 이 문제가 해결돼 내년부터는 환자들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br/> <br/> 다른 이유는 이 치료가 병의 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겉으로 드러난 강직 증상 또는 통증만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의 일종이라는 데 있다. <br/> <br/> <br/> <br/> 고통 없는 삶의 질 향상 중요 <br/> <br/> 세브란스병원 바클로펜/모르핀 펌프클리닉은 이 같은 걸림돌을 각 진료과 교수들의 협력진료(협진)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br/> <br/> 조성래 교수는 “<span class='quot0'>강직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어려운 경우 이 치료법을 쓰면 움직이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진다</span>”고 설명했다. 강직이 진행됐지만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펌프 삽입술을 받으면 보행운동이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br/> <br/> 세브란스병원 바클로펜/모르핀 펌프클리닉은 현재 펌프 삽입술이 강직 증상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신경과 신하영 교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펌프 삽입술 전후 전기생리검사 연구가 대표적이다. 신 교수팀은 바클로펜 펌프 삽입술 시술이 강직 환자의 신경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생리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br/> <br/> 암성 통증 치료도 마찬가지다. 지독한 통증이 암 치료를 방해할 때 모르핀펌프 삽입술을 시행하면 통증을 제어하고 암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br/> <br/> 종양내과 최혜진 교수는 “<span class='quot1'>기존 치료방법으로 통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해 치료가 쉽지 않을 때 모르핀펌프 삽입술이 활로를 열어주곤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75.txt

제목: 담배도 안 피우는데… 비흡연 여성 폐암 급증  
날짜: 2017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1050555001  
ID: 01100201.201710310505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담배 피는 남성의 암으로 알려진 폐암이 최근 들어 비(非)흡연 여성에게서도 급증세를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r/> <br/> 대한폐암학회는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승준(사진),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 연구팀이 2003∼2004년 2년간 국내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비흡연 여성 600만명을 2016년까지 12년간 추적 관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br/> <br/> 조사기간 중 폐암 진단을 받은 여성은 약 4만5000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61.2세였다. 같은 기간 폐암에 걸리지 않은 이들의 46.8세보다 14.4세가 많았다. 고령층일수록 폐암 발병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br/> <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주 2∼3회 이상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폐암발생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4.7% 높은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span>”고 지적했다. 또 주 3∼4회 미만 운동을 하는 여성들은 매주 3∼4회 이상 운동을 하는 여성들에 비해 폐암 발병 위험도가 2.6% 높았다. 다른 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 위험도가 배 이상 컸다. 이 밖에 정상 체중 보유자에 비해 저체중군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았다. <br/> <br/> 명 교수는 “<span class='quot1'>최근 들어 여성에게서 폐암이 자주 발견되는 이유로 흡연율 증가가 주로 꼽혀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하지만 흡연 외에 음주 저체중 같은 다른 위험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당부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76.txt

제목: 만학도의 열정… 영어연극으로 꽃피다  
날짜: 20171031  
기자: 이형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1050058002  
ID: 01100201.20171031050058002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남편 잃고 무너졌던 마음 <br/>배움으로 위안 얻었어요” <br/>일성여중고 ‘영어 말하기 대회’ <br/>10~80대 다양한 연령층 참여 <br/>대사 잊으면 격려의 박수 쏟아져 <br/> <br/>“<span class='quot0'>왓 어 뷰티풀 데이, 나이스 투 시 유 에브리원.</span>” <br/> <br/> 어설프지만 또박또박한 발음과 함께 연극이 시작됐다. 자명종 분장을 한 신덕례(47·여)씨가 ‘미녀와 야수’ 주제곡을 부르자 객석의 같은 반 ‘학우’들은 준비한 응원도구를 흔들며 연신 환호성을 질렀다. 무대 위 학생이 대사를 까먹을 때는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br/> <br/> 붉은색 반티를 맞춰 입은 모습이 일반 중고등학생과 다를 게 없었다.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만 나이를 가늠케 했다. 일성여중고 학생들의 ‘제16회 영어말하기대회’ 본선 무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이렇게 막을 올렸다. <br/> <br/> 일성여중고는 개인적인 이유로 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학력 인정기관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움을 이어갈 수 없었던 이들도 많다. 1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은 저마다 사연을 품고 무대에 올랐다. 연극과 유명인사의 연설문, 시낭송 등 내용도 풍성했다. 26팀이 예선전에 참가해 중학교 9팀과 고등학교 6팀이 본선에 오를 정도로 경쟁도 치열했다. <br/> <br/> 춘향전 변사또 역을 맡은 정연자(61·여)씨는 ‘문학소녀’였다. 정씨는 정규 학업과정 외에도 시낭송에 관심이 있어 시낭송 자격증을 땄다. 졸업을 앞둔 정씨는 사회복지학과와 문예창작과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그가 학업을 시작한 이유는 2015년 9월 남편이 별세하면서다. 그는 “<span class='quot0'>사랑하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하늘나라에 가면서 마음이 무너졌다</span>”고 말했다. <br/> <br/>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던 정씨에게 딸은 “평소 소원대로 다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다. 정씨는 “<span class='quot1'>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지만 이것도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학교에 등록했다</span>”고 했다. “<span class='quot0'>학교에서의 2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웠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span>”며 웃는 정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br/> <br/> 올해 3월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윤현주(44·여)씨는 학교에서 어린 축이다. 윤씨는 이번 대회에서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대 연설문을 발표했다. 윤씨는 “<span class='quot2'>‘더 이상 남의 삶을 사느라 내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구절이 우리 학교의 모토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이 연설문을 선택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집이 경기도 성남이라 통학에만 2시간이 걸리고 수업을 마친 뒤에 일까지 하고 있어 피곤하지만 삶을 치열하게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아들에게 엄마도 간절히 공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br/> <br/> 일성여중고에 만학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는 17살 중국동포 학생도 있다. 모델이 꿈이라는 하련(17)양은 지난해 11월 첫눈 오는 날 한국에 입국했다. 하양이 한국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한 하양의 이모는 그를 모교인 일성여고에 입학시켰다. <br/> <br/> 하양은 “<span class='quot3'>방과후 밥을 사주겠다는 이모들 때문에 약속이 꽉 차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이모들이 친딸처럼 챙겨줘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겨울왕국’ 엘사 역을 맡은 하양은 “<span class='quot3'>연극 준비 때문에 시험을 잘 못 봤지만 이모들과 함께하는 연습이 즐거웠다</span>”며 웃었다. <br/> <br/>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77.txt

제목: 한국 여성은 왜 잠을 덜 잘까… 美·佛보다 2시간 짧은 이유  
날짜: 20171030  
기자: 이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0143744001  
ID: 01100201.201710301437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한국 여성의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여성은 하루 평균 8.9시간, 프랑스와 호주 여성은 8.6시간 수면을 취하지만 한국 여성은 이보다 최대 2시간 덜 잔다. 또 ‘신체활동 부족’을 가장 심각한 건강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매우 낮았다. <br/> <br/>최근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한국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 조사’를 보면 한국 여성의 수면 부족은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른 요인을 갖고 있다. 청소년 시절에는 과도한 학업 부담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한창 활동할 나이인 20~40대는 육아 부담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느라 잠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갱년기로 접어들면 여성호르몬 결핍과 잘못된 생활습관이 수면을 방해하고, 노년기에는 비교적 잠 자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수면의 질이 급격히 하락한다. <br/> <br/> <br/> <br/> <br/>◇ 청소년기, 수면 가장 부족... 과체중 인식↑ <br/> <br/>만 14~17세 청소년기 여성들은 수면 시간이 6.8시간으로 한국 여성들 중 가장 짧았다. 월경 장애, 왕따·집단따돌림, 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주요 건강 문제로 인식했다. 자신의 체중 및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상 체중 청소년의 22.3%가 자신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br/> <br/>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 건강 상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자 고등학생의 52.99%의 수면 시간이 6시간이 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험생의 사교육과 자습 등 학업 부담이 여성 청소년 수면 부족의 큰 이유다. 특히 청소년기에 잠이 부족하면 성장·발달과 건강은 물론 학업 성적과 주의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br/> <br/>청소년기는 다른 생애 주기에 비해 신체적·심리적 성장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단계다. 사춘기의 변화를 거치며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청소년기 여성들의 체형 만족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화된다. <br/> <br/>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청소년기 올바른 체형 유지 및 건강행태를 갖기 위해서 맞춤형 상담이나 지도 계획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 <br/>청소년기의 여성들은 운동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앉아있는 시간은 평균 9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어 체력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체질량지수(BMI) 지수를 계산해 자신이 속한 체형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식단 조절이나 건강 관리에 임하는 게 좋다. BMI 기준으로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 18.5-22.9㎏/㎡, 과체중 23.0-24.9㎏/㎡, 비만 25.0㎏/㎡ 이상이다. <br/> <br/>◇ 가임기 여성, 매일 커피 섭취… 수면·운동량 ↓ <br/> <br/>가임기 여성(19~44세)의 하루 수면시간은 평균 6.9시간에 그쳤다. 매일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은 83.7%나 됐다. 이 나이대의 여성들은 육아와 직장생활로 인해 제대로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 커피로 인한 카페인 섭취도 수면 방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운동 및 신체활동 부족을 가장 큰 건강 위험요인으로 꼽은 연령층이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비율은 28.8%로 가장 낮았다. <br/> <br/>서울 강남 차병원 서호석 교수는 “<span class='quot1'>직장인 여성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리듬의 깨지기 십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는 것도 여성의 수면 사이클을 망치는 주된 이유</span>”라고 지적했다. <br/> <br/>워킹맘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과 업무에 대한 걱정이 중첩되면서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 시간이 하루 45분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5배가 넘는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한다.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수면 리듬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br/> <br/>최대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간단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전에만 마시고, 햇볕을 많이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면장애는 약물요법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기에 치료를 받는 게 효과적이다. <br/> <br/> <br/> <br/> <br/>◇ 갱년·폐경기 여성, 수면 질 ↓ 골다공증·암 걱정 ↑ <br/> <br/>갱년기와 폐경을 맞은 여성(만 45~64세)은 여성호르몬 결핍으로 인해 안면홍조와 우울증, 수면·분노조절 장애, 신경과민, 골다공증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한다. 특히 수면장애나 전신 피로, 골다공증 등의 증상은 이 나이대 여성들의 수면의 질 또한 현저히 떨어트린다. <br/> <br/>이들은 실제로 자신에게 발생 가능한 건강 문제로 ‘골다공증’을 가장 많이 꼽았고, 수면의 질도 나쁨(39.8%)에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동일 연령대에게 발생 가능한 건강문제로는 ‘암’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신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한 비율은 42.0%로 가장 높았다. <br/> <br/>갱년기 이후에는 여성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여성 호르몬제가 갱년기 증상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건강과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 <br/> <br/>◇ 노년기 여성, 수면 질·행복감·자아존중감 모두 ↓ <br/> <br/>여성의 행복 지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년기(만 65~79세)로 갈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도 낮아졌다. 한국 노년기 여성의 수면시간은 7.1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 수면의 질은 가장 낮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노년기 여성의 31.4%가 비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나이대 여성의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은 신체활동 부족을 포함, 고독·가난·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br/> <br/>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은 갱년기를 시작으로 분비가 현저히 줄어든다.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비만 체형이 되기 쉽다. 정경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노년기에 호르몬이 줄어들어 비만 체형이 되면 합병증을 유발될 수 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심장질환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높인다”며 “복부비만을 줄이려면 고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정제되지 않은 곡류 등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br/> <br/>◇ 여성 건강, 생애주기별 관리 필요 <br/> <br/>한국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나이대의 주요한 건강 문제로 월경장애(청소년기), 교통사고(가임기), 골다공증(갱년기), 관절염(노년기)을 지목, 생애 주기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여성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br/> <br/>특히 인구 고령화 및 생식 관련 질환, 만성 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여성 건강에 대한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성은 고용과 수입 등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 미래세대의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는 여성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건강 증진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 <br/> <br/>이현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78.txt

제목: "입을 옷이 없어" 성기 길이만 1m 남성… 축소 수술로 '새 삶'  
날짜: 20171030  
기자: 최민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0133944001  
ID: 01100201.20171030133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성기가 1m까지 자란 남성이 마침내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찾았다. <br/> <br/>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성기가 1m까지 자란 남성 호레이스 오이티 오피요(Horace Owiti Opiyo)가 '성기 축소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br/> <br/>케냐에 사는 호레이스는 10살이던 2006년 자신의 생식기에 난 낭종을 발견했다. 2007년 낭종 제거 시술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낭종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갔고, 호레이스의 음경과 고환도 비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그의 음경은 길이만 무려 1m까지 자랐는데 그 무게는 5kg까지 나갔다. <br/> <br/>하지만 호레이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그의 성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갔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해 학교까지 그만둬야 했다. 그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수술할 여력이 없다"며 "낭종이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고통이 점점 더 커져 걷거나 앉을 수도 없었다. 옷을 벗고 입기도 쉽지 않았다"며 괴로웠던 심정을 밝혔다. <br/> <br/> <br/> <br/>호레이스의 이웃인 던컨 오티에노(Duncan Otieno)는 호레이스를 돕기 위해 그의 거대한 성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의 사연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케냐 키수무 지사의 아내가 호레이스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br/> <br/>그가 앓고 있는 병은 '음낭상피병'(Scrotal Elephantiasis)이었다. 이 병은 림프액이 고이고 결합조직이 증가해 음낭 피부가 상피처럼 돼 음낭이 커지고 음경이 그 속에 파묻히는 증상을 보인다. <br/> <br/>원인은 결핵이나 암에 의해 림프절의 광범위한 파괴가 있을 때에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아프리카나 아열대지역의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 모기가 흡혈할 때 체내로 들어오는 필라리아 기생충이 음낭에 기생하게 되면 발생한다. <br/> <br/>다행히 호레이스의 고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제는 마음껏 달릴 수 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수영, 축구 등을 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br/> <br/>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79.txt

제목: 韓여성은 왜 잠을 덜 잘까… 美·佛보다 2시간 짧은 이유  
날짜: 20171030  
기자: 이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30130944002  
ID: 01100201.20171030130944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한국 여성의 평균 수면시간은 6.9시간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여성은 하루 평균 8.9시간, 프랑스와 호주 여성은 8.6시간 수면을 취하지만 한국 여성은 이보다 최대 2시간 덜 잔다. 또 ‘신체활동 부족’을 가장 심각한 건강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매우 낮았다. <br/> <br/>최근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한국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 조사’를 보면 한국 여성의 수면 부족은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른 요인을 갖고 있다. 청소년 시절에는 과도한 학업 부담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한창 활동할 나이인 20~40대는 육아 부담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느라 잠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갱년기로 접어들면 여성호르몬 결핍과 잘못된 생활습관이 수면을 방해하고, 노년기에는 비교적 잠 자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수면의 질이 급격히 하락한다. <br/> <br/> <br/> <br/>◇ 청소년기, 수면 가장 부족... 과체중 인식↑ <br/> <br/>만 14~17세 청소년기 여성들은 수면 시간이 6.8시간으로 한국 여성들 중 가장 짧았다. 월경 장애, 왕따·집단따돌림, 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주요 건강 문제로 인식했다. 자신의 체중 및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상 체중 청소년의 22.3%가 자신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br/> <br/>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 건강 상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자 고등학생의 52.99%의 수면 시간이 6시간이 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험생의 사교육과 자습 등 학업 부담이 여성 청소년 수면 부족의 큰 이유다. 특히 청소년기에 잠이 부족하면 성장·발달과 건강은 물론 학업 성적과 주의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br/> <br/>청소년기는 다른 생애 주기에 비해 신체적·심리적 성장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단계다. 사춘기의 변화를 거치며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청소년기 여성들의 체형 만족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화된다.  <br/> <br/>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청소년기 올바른 체형 유지 및 건강행태를 갖기 위해서 맞춤형 상담이나 지도 계획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 <br/>청소년기의 여성들은 운동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앉아있는 시간은 평균 9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어 체력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체질량지수(BMI) 지수를 계산해 자신이 속한 체형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식단 조절이나 건강 관리에 임하는 게 좋다. BMI 기준으로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 18.5-22.9㎏/㎡, 과체중 23.0-24.9㎏/㎡, 비만 25.0㎏/㎡ 이상이다. <br/> <br/>◇ 가임기 여성, 매일 커피 섭취… 수면·운동량 ↓ <br/> <br/>가임기 여성(19~44세)의 하루 수면시간은 평균 6.9시간에 그쳤다. 매일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은 83.7%나 됐다. 이 나이대의 여성들은 육아와 직장생활로 인해 제대로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 커피로 인한 카페인 섭취도 수면 방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운동 및 신체활동 부족을 가장 큰 건강 위험요인으로 꼽은 연령층이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비율은 28.8%로 가장 낮았다. <br/> <br/>서울 강남 차병원 서호석 교수는 “<span class='quot1'>직장인 여성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리듬의 깨지기 십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는 것도 여성의 수면 사이클을 망치는 주된 이유</span>”라고 지적했다.   <br/> <br/>워킹맘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담과 업무에 대한 걱정이 중첩되면서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 시간이 하루 45분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5배가 넘는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한다.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수면 리듬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br/> <br/>최대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간단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전에만 마시고, 햇볕을 많이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면장애는 약물요법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기에 치료를 받는 게 효과적이다. <br/> <br/> <br/> <br/>◇ 갱년·폐경기 여성, 수면 질 ↓ 골다공증·암 걱정 ↑ <br/> <br/>갱년기와 폐경을 맞은 여성(만 45~64세)은 여성호르몬 결핍으로 인해 안면홍조와 우울증, 수면·분노조절 장애, 신경과민, 골다공증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한다. 특히 수면장애나 전신 피로, 골다공증 등의 증상은 이 나이대 여성들의 수면의 질 또한 현저히 떨어트린다.  <br/> <br/>이들은 실제로 자신에게 발생 가능한 건강 문제로 ‘골다공증’을 가장 많이 꼽았고, 수면의 질도 나쁨(39.8%)에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동일 연령대에게 발생 가능한 건강문제로는 ‘암’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신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한 비율은 42.0%로 가장 높았다.  <br/> <br/>갱년기 이후에는 여성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여성 호르몬제가 갱년기 증상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건강과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  <br/> <br/>◇ 노년기 여성, 수면 질·행복감·자아존중감 모두 ↓ <br/> <br/>여성의 행복 지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년기(만 65~79세)로 갈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인식도 낮아졌다. 한국 노년기 여성의 수면시간은 7.1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 수면의 질은 가장 낮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노년기 여성의 31.4%가 비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나이대 여성의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은 신체활동 부족을 포함, 고독·가난·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br/> <br/>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은 갱년기를 시작으로 분비가 현저히 줄어든다.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비만 체형이 되기 쉽다. 정경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노년기에 호르몬이 줄어들어 비만 체형이 되면 합병증을 유발될 수 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심장질환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높인다”며 “복부비만을 줄이려면 고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정제되지 않은 곡류 등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br/> <br/>◇ 여성 건강, 생애주기별 관리 필요 <br/> <br/>한국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나이대의 주요한 건강 문제로 월경장애(청소년기), 교통사고(가임기), 골다공증(갱년기), 관절염(노년기)을 지목, 생애 주기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여성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br/> <br/>특히 인구 고령화 및 생식 관련 질환, 만성 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여성 건강에 대한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성은 고용과 수입 등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 미래세대의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는 여성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건강 증진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  <br/> <br/>이현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80.txt

제목: 폴 뉴먼 롤렉스 시계 200억원에 팔려,경매 사상 최고액  
날짜: 20171029  
기자: 맹경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9110044001  
ID: 01100201.201710291100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내일을 향해 쏴라’의 미국 배우 폴 뉴먼이 생전에 착용하던 롤렉스 시계가 1775만2500달러(약 200억원)에 팔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손목 시계 경매 사상 최고액이다. <br/> <br/>경매업체 필립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20세기의 전설적인 시계들' 경매를 진행했다. 이번 경매에는 700명이 넘는 참여자가 몰렸고 시계는 전화 입찰자에게 판매됐다. <br/> <br/> <br/>뉴면의 시계는 아내 조앤 우드워드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시계의 뒷면에는 우드워드가 쓴 ‘나를 조심스럽게 운전해줘’라는 문구가 남겨져 있다. 뉴먼과 우드워드는 1969년 카레이싱 영화 ‘위닝’에 함께 출연했다. <br/> <br/>뉴먼의 롤렉스 시계는 뉴먼과 함께 10여년간 잡지, 영상, 홍보자료에 함께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다. 아직도 롤렉스 마니아들은 참조 번호 6239번이 붙은 데이토나 시계를 ‘폴 뉴먼모델’로 부른다. <br/> <br/>뉴먼은 1984년 이 시계를 딸 넬 뉴먼의 남자친구였던 제임스 콕스에게 선물했다. 시계를 보관하고 있던 콕스는 넬 뉴먼 재단의 기금 모금을 위해 시계를 경매에 내놨다. <br/> <br/>뉴먼은 내일을 향해 쏴라(1969), 스팅(1973), 판결(1982) 등에 출연했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10차례나 올랐고 1985년 마틴 스콜세지의 ‘컬러 오브 머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08년 말기 암으로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br/> <br/>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81.txt

제목: [아직 살만한 세상] 말기암 김 할머니의 전 재산 ‘2900만원’  
날짜: 20171028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8000144001  
ID: 01100201.201710280001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진 전부를 내 놓은 할머니 한분이 계십니다. 올해 81세인 이 할머니는 27일 아픈 몸을 이끌고 유언공증을 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 뒤 생계가 막막하던 시절 도움을 준 이웃과 약속한 전 재산인 집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br/> <br/>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김순희 할머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할머니는 말기암 환자이기도 합니다. 2년 전 대장암과 소장암을 발견해 수술 했으나 최근 간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더 늦기 전에 20년 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전 재산인 2900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br/> <br/>김 할머니는 경북 풍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언니 오빠 등 7남매가 뿔뿔이 흩어졌고, 김 할머니는 노점으로 생계를 꾸리며 지냈왔다고 합니다. <br/> <br/>그러나 20년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할머니는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보수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할머니는 이 공무원 덕분에 ‘굶어죽지 않았다’고 고마워했습니다. <br/> <br/>이 공무원은 김 할머니가 자식보다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보수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었던 정창곤 계장입니다. 그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후에도 김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집을 찾곤 했습니다. <br/> <br/>김 할머니는 정 계장을 ‘고마운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부릅니다. 그에게 “내가 죽을 때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br/> <br/>김 할머니는 “더 이상 미루다가는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하고 싶었던 유산기부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며 전 재산인 집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br/> <br/>[아직 살만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살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82.txt

제목: 부평 미군기지 다이옥신류 기준치 10배 이상 검출  
날짜: 20171028  
기자: 손재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8212055001  
ID: 01100201.20171028212055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환경부가 반환 예정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에 대한 환경조사를 벌인 결과 부지 내 토양과 하수가 복합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환경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른 두 차례의 현장조사 결과 토양에선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발견됐고 지하수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난해 6∼9월 등 2차례 진행됐다. <br/> <br/> 다이옥신류는 총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 토양시료에서 1000pg-TEQ/g을 초과했고 최고농도는 1만347pg로 나타났다. 일본 환경기준치의 10배 이상이다. 자연적으로 잘 사라지지 않는 다이옥신류는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이다.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호르몬 등에도 악영향을 준다. <br/> <br/> 중금속으로는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의 오염이 확인됐으며, 납 최고농도는 5만1141.6㎎/㎏, 구리 최고농도는 2만9234.2㎎/㎏으로 나타났다. <br/> <br/> 환경부는 “<span class='quot0'>앞으로도 SOFA 규정에 따라 캠프마켓의 환경오염과 반환에 관해 주한미군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span>”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반환 협상 중인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 합의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83.txt

제목: [삶의 향기-박재찬] 믿음의 반성문  
날짜: 2017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8180955001  
ID: 01100201.201710281809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학생은 공부를, 운동선수는 실력과 기록을 더 높이고 싶어한다. 회사도 잘되고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하는 마음도 자연스럽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어떨까.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좀 더 깊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도제목을 종종 듣곤 한다. 요 몇 주 사이 접한 ‘뉴스메이커’들의 사연이 신앙인들에겐 흥미로울 것 같다. <br/> <br/> 나빌 쿠레쉬. 그의 삶은 짧지만 강렬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의대 시절 크리스천 친구를 만나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했다. 이후 자신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 변증가와 작가로서의 길을 걸었다. 저서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세계적인 기독교변증단체 라비 재커라이어스(RZIM) 국제사역팀 일원이었던 그는 1년 넘게 암과 싸우다 지난달 34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뒤 ‘열혈 전도자’로 변신한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한다. <br/> <br/> 쿠레쉬보다 열 살쯤 많은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판 사도 바울이라 할 만하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해 포교를 위해 군법당까지 지었다. 사회 개혁을 위해 학승(學僧)이 되겠다던 그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의 출범 공신이기도 하다. 종자연의 주된 일은 ‘기독교 공격, 교회 타파’였다. 그랬던 그가 개신교로 개종한 사건은 드라마틱하다. 10년 전쯤 그는 개신교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찾으려고 한 방송 설교를 시청하다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설교자의 고백에 고꾸라졌다. 즉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가 믿어졌다고 한다. 그는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바쁜 간증 강사로 활동 중이다. <br/> <br/> 토머스 앤드루(60) 박사의 삶은 또 다른 울림을 준다. 그는 자살이나 타살 같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신의 사인을 판정하는 의사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뉴햄프셔주 검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달 은퇴했다. 이후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 공부를 준비 중이다.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그가 부검한 시신만 250구. 1인당 연간 부검 수가 이 정도에 달하면 검시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일감’이 많아진 이유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특히 젊은이들의 죽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물 중독과 오·남용으로 죽은 시신만 수천명을 손수 확인한 앤드루 박사,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죽음의 원인을 파헤친다고 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 그가 찾은 해법은 ‘영적인 문제로 죽음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br/> <br/> 이들의 사연 속에서 의문이 밀려들었다. 신은 왜 30대 중반의 ‘충실한 사명자’ 쿠레쉬를 그토록 일찍 데리고 갔을까. 뼛속까지 불교신자였던 이 교수를 회심케 한 믿음과 구원의 본질은 뭘까. 환갑 맞은 앤드루 박사가 선택한 제2의 인생은 그의 결정일까, 신의 계획일까. 평소 궁금해 하던 신앙, 또는 신학적 궁금증을 일깨워준 뉴스메이커들이었다. <br/> <br/> 나름 좀 더 깊은 믿음을 가져보고 싶어 명설교자로 꼽히는 S목사의 베스트셀러 ‘믿음’ ‘구원’ 시리즈 책 4권을 구입한 게 수개월 전이었다. ‘시간을 내서 읽어야지’ 다짐만 하고 있던 차인데, 지난 26일 한 교계 언론에 S목사와 관련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이성 성도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담임목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이었다. 관련 뉴스를 읽어 내려가는데 책장에 꽂혀 있는 그의 책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 책들을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버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나의 연약한 믿음 탓이리라. <br/> <br/> 내 믿음의 정체는 뭘까. 하나님 그 자체보다 평판 좋은 목회자나 신앙 서적에 의지해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성경보다는 극적인 신앙 이야기를 지닌 뉴스메이커들 속에서 믿음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했던 건 아닐까. 무엇보다도 실수투성이 인간을 향해 쉽게 감동하고 쉽게 실망하는 건 아닐까. 오는 31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쓰는 믿음의 반성문이다. <br/> <br/>박재찬 종교부 차장 jeep@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84.txt

제목: 나문희-김해숙-고두심, 나이 들지 않는 연기 열정이란  
날짜: 20171027  
기자: 권남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7183755001  
ID: 01100201.20171027183755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66세 고두심 <br/>‘채비’로 7년 만에 영화 팬과 만나 <br/>62세 김해숙 <br/>‘희생부활자’서 극단적 모정 연기 <br/>76세 나문희 <br/>‘아이 캔 스피크’ 320만 관객 울려 <br/> <br/><br/>고운 얼굴에 자연스럽게 패인 잔주름, 그 사이사이마다 인물의 삶이 녹아있다. 이들에게는 함부로 흉내 낼 수 없는 연기 내공이 묻어난다. 고두심(66) 김해숙(62) 그리고 나문희(76). 나이 들지 않는 실력과 열정으로 중무장한 여배우들이 올가을 극장가를 누비고 있다. <br/> <br/> 다음 달 9일 개봉하는 ‘채비’(감독 조영준)는 고두심이 ‘그랑프리’(2010)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스크린 복귀작이다. 극 중 그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뒤 지적장애인 아들(김성균)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엄마 애순 역을 맡았다. 몸만 커버린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억척을 떨며 살아가는 여인이다. <br/> <br/> 1972년 MBC 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두심은 지난 45년간 수많은 역할을 선보여 왔다. 그 중 가장 익숙한 건 역시나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일 테다. 애순도 예상을 뒤엎는 캐릭터는 아니다. 그럼에도 끝내 관객을 울리고 마는 힘은 고두심의 연기에서 나온다. <br/> <br/> 고두심은 “현역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행운이자 기분 좋은 일”이라며 “선의의 경쟁자가 많으면 더 힘이 나지 않나. 동년배 배우들이 꾸준한 활동을 통해 하나의 맥을 짚어가고, 나아가 하나의 역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r/> <br/>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해숙은 지난 12일 개봉한 ‘희생부활자’(감독 곽경택)로 관객을 만났다. 오토바이 강도 사건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복수를 위해 살아 돌아온 엄마 명숙을 연기했다. 명숙이 아들 진홍(김래원)을 공격하면서 극은 미스터리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김해숙은 이런 극단적인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br/> <br/> 김해숙은 “여배우가 할 작품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중견 여배우로서 제가 그 짐을 지고 관객을 만나게 돼 행복하다. 후배들이 올라오는 길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여배우도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br/> <br/> 웃음과 감동을 솜씨 좋게 버무려낸 ‘아이 캔 스피크’(감독 김현석)는 나문희의 열연으로 완성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외롭지만 강인하게 살아가는 옥분을 연기해 무려 320만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구청 직원(이제훈)에게 영어를 배운 옥분이 미 의회 청문회 증언에 나서는 클라이맥스 신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다. <br/> <br/> 인물이 겪은 모진 세월의 격랑을 나문희는 말간 얼굴에 고스란히 담아낸다. 김현석 감독은 “나문희 선생님은 어떤 순간에도 감정을 놓치시는 법이 없다. 촬영하면서 감탄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격찬했다. 나문희는 “후시녹음까지 마치고 나니 ‘내가 해냈구나’ 싶더라. 이 나이에 주인공을 하는 기분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웃었다. <br/> <br/> 중견 배우들의 활약은 영화계 전반을 한층 풍성하게 만든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빼어난 연기력을 갖춘 중견 연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대중문화도 고령사회를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중·저예산 영화 위주로 기획되는 한계가 있으나 이런 흐름은 점차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85.txt

제목: 성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유방재건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날짜: 2017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7111146001  
ID: 01100201.2017102711114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한 사람들은 유방재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수술을 선뜻 결심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유방절제술을 받고 난 후 다시 한번 전신마취를 요하는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br/> <br/>더성형외과 옥재진 원장은 “<span class='quot0'>지난 2014년 4월부터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부분절제술이나 반대편 가슴에 시행되는 수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등 보험혜택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한 것도 사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비용과 직결되는 수술방법의 결정, 반대쪽 가슴 수술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절제하지 않은 반대편 가슴의 수술여부는 환자 자신의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유방재건은 단순히 가슴을 복원하는 것뿐 아니라 양쪽 가슴의 대칭을 맞춰 원하는 가슴 모양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반대쪽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대칭을 맞추기가 어렵다. <br/> <br/>반대편 가슴이 크게 처지지 않았고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자가조직 재건을 통해 가슴 대칭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형물 재건의 경우 보형물의 특성상 봉긋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쪽 가슴을 수술하지 않을 경우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보형물 재건을 한다면 반대편 가슴에도 보형물을 삽입해 양쪽 대칭을 맞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br/> <br/>자가조직 재건과 보형물 재건 중 수술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복부조직과 등 조직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혼인 경우 비교적 흉터 발생이 적은 보형물 재건이 적합하다. 보형물 재건 시에는 먼저 조직확장기를 삽입, 2~3개월 동안 식염수를 주입해 늘린 후 보형물로 교체하는 추가수술이 진행된다. 조직확장기와 보형물을 삽입할 때에는 유방절제술을 할 때 절개했던 부위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 <br/> <br/>하지만 방사선 치료로 인해 피부가 많이 상했거나 몸 안에 보형물을 넣는 것이 거부감이 든다면 자가조직 재건이 적합하다. 자신의 피부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물감이 없고 자연스러운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 <br/>옥 원장은 “<span class='quot1'>유방재건을 하면 유방암이 재발할 경우 보형물에 가려 암 발견이 어렵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보형물 재건수술은 가슴 근육 아래에 보형물을 삽입하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 및 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방암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재건을 하기보다는 재발확률이 거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연재건을 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이어 “보형물은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체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반영구적으로 몸 속에 평생 지니고 있어도 무방하다”면서 “단, 가슴성형 후 3년째부터는 2년 주기로 MRI 검사를 통해 보형물에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86.txt

제목: 유방암 조기 발견, 유방자가검진 후 유방외과 찾아야  
날짜: 2017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7104044001  
ID: 01100201.20171027104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은 자궁경부암과 함께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암 중의 하나이다. 다른 모든 질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방암의 경우에도 조기진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br/> <br/>여성들이 유방외과 진료실을 찾게 되는 것은 주로 유두에서 피가 나는 경우와 유방통증이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못 견딜 정도로 심하지 않은 이상 별 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치기가 쉽다. 가족을 돌보느라 혹은 직장일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여성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게 사실이다. <br/> <br/>유방암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유방암의 흔한 증상이 의외로 ‘통증이 없는 종괴’라는 것이다. 조직검사 후 암 진단을 받은 대다수 환자들이 경험한 초기 증상은 ‘유방에 뭔가 혹같은 것이 만져지는데 아프지는 않다’는 것이다. 유두에서 출혈이 있거나 유방에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혹의 크기가 작고 또 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으니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간과하는 바람에 유방암의 발견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흔하다. <br/> <br/>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가검진이 중요하다. 많은 여성들이 유방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자가검진을 하다 유방에 뭔가 만져진다며 놀라서 진료실을 찾는 경우도 진료를 해보면 정상유방조직인 경우가 많다. <br/> <br/>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가 검진일까? 유방자가검진은 거울을 보면서 육안으로 관찰하고(1단계),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고(2단계) 누워서 촉진(3단계) 한다. 2,3,4번째 손가락의 바닥면을 이용해서 유륜을 중심으로 동심원 그리듯이 검사한다. 꼭 동심원이 아니라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쇄골부터 유방하부까지 그리고 흉골 부위에서 바깥쪽 겨드랑이 선까지 구석구석 빠짐없이 검사한다. 촉진 시기는 폐경 전 여성의 경우는 월경이 끝난 후 3-4일경, 폐경 후 여성은 한 달 중 어느 하루 일정한 날을 정해두고 검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자가검진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유방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방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br/> <br/>류정원 인천 송도외과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는 “유방외과를 찾기 전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꼼꼼하게 유방을 자가검진하는 것은 내 몸과의 대화이며 이는 자기사랑의 실천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 가족 사랑의 시작이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87.txt

제목: 저무는 초저금리 시대 금융 상품, 고객 취향 파고든다  
날짜: 20171027  
기자: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7210855001  
ID: 01100201.2017102721085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초저금리 시대가 저무는 가운데 고객의 입맛에 맞는 재테크 상품을 내놓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핀테크를 도입하거나,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투자해 차별화를 꾀하는 금융상품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실생활을 파고드는 상품들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br/> <br/> 하나금융투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하나 4차산업1등주랩’을 강력 추천한다. 금리인상 시기에도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관련주는 여전히 증시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인간의 판단 없이 100% 알고리즘 투자방식으로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업계 최저 수수료로 선보였다.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 나무(NAMUH)는 10월말까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들면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하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었다. 삼성증권은 원유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을 선보였다. <br/> <br/>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신한은행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을 출시했다. 삼성카드는 평소 커피전문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다가 해외에 나갈 때 여행 특화 서비스를 받는 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는 걸을 때마다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헬스케어 특화 카드를 선보였다. 한국 사망원인 1∼3위인 암·뇌·심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삼성화재의 ‘태평삼대’ 보험도 눈길을 끈다. <br/> <br/>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88.txt

제목: 삼성화재 건강보험 ‘태평삼대’, 급성 뇌경색 진단비 신설 최대 2000만원 보장  
날짜: 2017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7190755002  
ID: 01100201.201710271907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태평성대가 아니고 태평‘삼’대다. 삼성화재가 지난 2월 출시한 건강보험의 이름이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는 암과 뇌·심혈관 질병에 주목한 상품이다. 진단에서 치료를 거쳐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더라도 단계별로 위험을 보장해준다.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받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객 요청이 가장 많았던 ‘급성 뇌경색 진단비’를 신설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span>”고 밝혔다. <br/> <br/> 재발 가능성이 높은 뇌출혈과 관련해 재발해도 2차 진단비를 지급한다. 단, 첫 번째 발병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간암, 폐암 등 10대 주요 암에 대한 진단비 및 치료비를 강화했고 3대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5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때에는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한다.

언론사: 국민일보-1-189.txt

제목: 끝없는 암살설에 외계인설까지…존 F.케네디 문건 공개되면 의혹 풀릴까  
날짜: 20171026  
기자: 안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6181444001  
ID: 01100201.20171026181444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사건 관련 문서 수천건이 26일(현지시간) 공개된다.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된 후 계속 이어져왔던 음모론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br/> <br/>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부인 재클린 여사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벌이던 도중 암살범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에 맞아 숨졌다. 세 발의 총탄 중 한 발이 케네디 대통령 머리에 관통되면서 1시간 후 사망했다. 당시 댈러스 경찰은 오스왈드를 용의자로 지목해 12시간 만에 암살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었던 오스왈드가 체포 이틀 만에 경찰서에서 감옥으로 연행되던 중 나이트클럽 사장 잭 루비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총을 쏜 잭 루비도 수감 생활 중 암에 걸려 옥중에 생을 마감했다. <br/> <br/>당시 조사위원회는 “<span class='quot0'>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된다, 배후는 없다</span>”고 발표했지만 CIA(중앙정보국)와 소련, 쿠바의 개입설 에서 외계인 개입설까지 수 없는 말들이 나돌았다. 여론도 암살의혹에 대한 의문을 심상치 않게 여겨왔다. 서거 50주년이었던 2013년 갤럽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가 “<span class='quot1'>단독 범행이 아니라 거대한 배후가 있다</span>”고 응답했다. <br/> <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span class='quot2'>JFK 파일이 내일 공개되면 흥미로울 것이다</span>”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span class='quot3'>오랫동안 기밀로 분류돼 차단됐던 JFK 파일의 공개를 허용하겠다</span>”고 밝힌바 있다. 이번 추가로 공개되는 문건 공개는 1992년 10월 26일 제정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기록수집법’에 따른 것이다.  <br/> <br/>기밀해제를 앞둔 미공개 파일은 3100건 정도이며, 나머지 문서 3만여 건은 앞서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소가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수만 쪽 분량이 되는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의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부 공개냐와 일부 문서 공개냐가 핵심이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4'>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마 엄청난 양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분명하다</span>”고 전하기도 했다. 또 로저 스톤을 비롯한 트럼프의 일부 측근들은 모든 문서를 일단 투명하게 세상에 내놓는 게 낫다고 건의했지만 국가안보회의(NSC)를 포함한 안보당국은 일부 문서가 현재 정보당국의 활동이나 작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br/> <br/>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던 음모론자들과 역사학자 등이 가장 기대하는 내용은 케네디 암살범으로 알려진 오스왈드와 소련, 쿠바, CIA ,연방수사국(FBI) 또는 마피아 등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오스왈드가 댈러스에서 케네디에게 총을 쏴 살해하기 전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로 여행을 가 쿠바 대사관을 찾아갔던 이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스왈드는 JFK 암살사건 조사를 진행했던 위원회에 당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고 방문 목적을 진술한 바 있다.  <br/> <br/>안태훈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90.txt

제목: [상생의 길을 넓히다-아모레퍼시픽] 10년째 여성 암환자들에 뷰티 노하우 전수  
날짜: 2017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6220555001  
ID: 01100201.201710262205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희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격한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뷰티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으로, 2008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br/> <br/> 캠페인에는 2016년까지 국내 총 1만994명의 여성 암 환자와 4033명의 아모레퍼시픽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2011년 중국, 2015년 베트남, 2017년 싱가포르까지 캠페인 지역도 확대했다. 올해까지 총 6개국 1만4065명의 여성 암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br/> <br/> 올 하반기에는 전국 주요 16개 병원에서 약 700여명의 환자가 캠페인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전문 강사와 아모레 카운슬러 봉사단이 참여자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 이우동 전무는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여성 암 환자 분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국민일보-1-191.txt

제목: 마지막 항암치료 앞둔 유상무, “반드시 도움되는 삶 살겠다”  
날짜: 20171025  
기자: 이담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5101644001  
ID: 01100201.2017102510164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개그맨 유상무가 25일 자정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두고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br/> <br/>유상무는 “견디기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씀 듣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항암제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참 고맙습니다”라며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br/> <br/>그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이 얼마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삼십대에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라며 항암 치료 시절 느꼈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싸워서 이겨내 보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살고, 남을 위해서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덧붙여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br/> <br/>치료 이후에는 “저보다 고통받는 분들에게 반드시 도움 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br/> <br/>이하 전문 <br/> <br/>To. 소중한 내사람들 <br/>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br/>견디기 힘들때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씀듣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br/>저 처음에 라이브방송으로 소통하다가, 암이란 사실을 알았을때... 입원 전까지 약 10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난건 사실 저를 위함이었습니다. <br/>여러분을 통해서 잠시나마 암에 걸렸단 사실을 잊을 수 있었고 몇 기일지 알 수 없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br/>언젠가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은 제게 항암제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br/> <br/>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싸워서 이겨내 보려합니다! <br/>나를 위해서도 살고! 남을, 또 벗을! 위해서도 살아가겠습니다! <br/>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이란걸 알고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br/> <br/>어쩌면 내 삶이 얼마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삼십 대 나이에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br/>항암 치료 하러 병원에 갔을때 많은 어르신들을 보고 <br/>왜? 난 이 나이에 이렇게 아플까? 또 소아들을 보고. <br/>어른인 나도이렇게 힘든데... 저리 작은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어쩌면 저 아이들의 부모님은 나보다 더 아프지 않을까... <br/>새벽부터 각지에서 온 수 많은 아프신분들... 암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의 눈물... 희귀암에 걸리셨음에도 제게 힘내라고 웃으며 말씀해주신 옆병실 아저씨... 퇴원날 힘든 몸으로 편지를 전해주신 아주머니...그리고 수술후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 <br/>내가 병원에 있는 이른 이시간에도 ...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아파하고 있을까... <br/>불과 세네시간 있는 동안에도 코드블루 라는 심정지 전문용어를 몇번씩 듣게되고... 그 병실의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어쩌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으니... <br/>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부디 그들이 치료라도 걱정없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r/> <br/>아...그냥 잠이 안오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맘을 전하고싶어서 몇자 적으려 했는데...넘 길어졌네요. <br/>참 하고싶은 말이 많았나봅니다. <br/>2년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를 나무라시는 분들 역시 많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br/>꼭 이겨내고! 더 건강해져서! <br/>제가 가까이에서 봐온…저보다 힘든… 저보다 더 고통받는 … 저보다 힘없는 … <br/>그런 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br/>그리고 저역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br/>그것이 못난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신것과 <br/>제가 병을 이겨낸 이유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br/>여러분…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있는 모든 일들… <br/>정말 감사합니다. <br/> <br/>이담비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92.txt

제목: [명화는 시대다] 어둡고 슬픈 젊음의 초상… 김기덕의 ‘맨발의 청춘’  
날짜: 2017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5050855001  
ID: 01100201.20171025050855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일본 영화 ‘진흙투성이의 순정’ 원안 <br/> 청춘들의 반항·공허함·자학과 <br/> 순정·혈기·나르시시즘 함께 그려 <br/> <br/> 신성일·엄앵란 커플 내세워 만든 <br/> 스타시스템 가동된 첫 번째 영화 <br/> <br/>영화 ‘맨발의 청춘’(1964)에는 사소하지만 괴상한 대목이 한 군데 있다. 젊은 건달 두수(신성일)는 위기의 밤거리에서 대학생 요안나(엄앵란)를 구해준 뒤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한 눈에도 알아차릴만한 신분 차이를 이내 자각하고는 무력함을 느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여주인 은혜의 방에서 그녀를 끌어안고는 있지만 내내 요안나를 생각하며 자조에 젖어 있던 두수는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듯이 냉소적이면서도 신경질적으로 별안간 이렇게 묻는다. “<span class='quot0'>뭔가 재밌고 신이 나서 못 견딜만한 놀음 없어?</span>” 그러자 여인이 앞에 놓인 화장대를 급히 두리번거려 작은 핀셋을 집고는 다른 한 쪽 팔을 치켜 올린 뒤 자신의 겨드랑이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span class='quot0'>두수씨, 이것 좀 뽑아줘요, 자, 어서!</span>” 두수는 건네받은 핀셋을 구석에 던져버리고는 쓸쓸하게 뒤돌아 방을 나선다. <br/> <br/>이 황당하고 당혹스럽기까지 한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너무 사소해서인지 아직까지는 이 장면에 관한 진지한 해설은 물론이고 우스갯말조차 개인적으론 접해보질 못했다. 이것은 그저 ‘맨발의 청춘’의 원안이었던 일본영화 ‘진흙투성이의 순정’(1963)에서 무리하게 옮겨온 것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라면 원안을 넘고자 각본과 연출이 더욱 과잉되어지는 과정에서 남겨진 불순한 잉여인가. 혹은 단순하게 보일 뿐 고도로 계획된 익살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선진문화로 인식된 서양문화 혹은 미국문화 애호증을 앞세워 관객을 자극하기 위한 이 영화의 변태적 유혹인가. 무엇보다 1964년 당대의 관객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던 것일까. <br/> <br/> 우회적이나마 확연히 상기시키는 사실이 한 가지 있기는 하다. 두수가 원한 ‘재밌고 신이 나서 못 견딜만한 놀음’을 거칠게 ‘향락’이라고 축약해보자. 두수는 자조하고 자학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반발적으로 향락을 찾는다. 두수가 원한 향락과 여인이 제안한 향락의 내용은 서로 달랐으나 그 불일치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두수의 향락에의 요구가 모종의 절망감 내지는 좌절감과 등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군의 ‘청춘영화’ 속 주인공들이야말로 때때로 그러한 종류의 발작적 향락에 젖는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태양족 영화’의 청춘들이 대표적이다. <br/> <br/> 태양족 영화라는 명명은 이시하라 신타로의 소설 ‘태양의 계절’(1955)과 그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동명 영화에서 유래했다. 전후 일본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위험한 향락의 초상을 소재로 했던 도발적인 사조다. ‘진흙투성이의 순정’은 그 사조 안에 있었고 따라서 이 영화를 원안으로 한 ‘맨발의 청춘’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반항심, 공허함, 자기연민과 자학, 모종의 패배주의 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순정과 혈기와 나르시시즘 등이 공히 이 사조의 특징인데, ‘맨발의 청춘’도 얼마간 그 점을 공유하고 있다. <br/> <br/> 다만 동시대 양국 젊은이들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소 달랐을 것이다. ‘맨발의 청춘’이 개봉하던 그 해 1964년 이곳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한일협상과 그에 뒤따른 강력한 반대시위들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무력으로 시위를 제압했다. 한편으론 역사에 기록된 살인 재판인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시위의 분위기를 흐리려 했다. 물론 여기엔 대학생 및 많은 젊은이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월남군사지원단’ 환송식을 시작으로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었고 이듬해부터는 전투병 파병으로까지 이어졌다. 젊은이들 중 누군가는 강제 차출 당했고 누군가는 ‘월남’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부의 유인에 넘어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배를 탔다. <br/> <br/> 한편 저 멀리 미국에 상륙한 영국 밴드 비틀즈가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알리던 이 해에 한국에서는 미 8군 가수 출신의 신중현이 이끄는 한국 최초의 록밴드 ‘에드훠’가 ‘빗속의 여인’을 타이틀곡으로 첫 앨범을 냈다. 그리고 영화 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문화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맨발의 청춘’이다. <br/> <br/> 신성일·엄앵란 커플을 내세워 만든 ‘맨발의 청춘’은 스타시스템이 가동된 첫 번째 영화로 기록됐다. 개봉 첫 날 수많은 관객이 몰려들어 조선일보 옆 아카데미 극장에서 덕수궁까지 줄이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이 영화의 관객은 젊은 층이 다수였고 ‘맨발의 청춘’은 그해 흥행 1위의 영화로 등극했다. 영화 속에서 주연 신성일과 조연 트위스트 김이 입었던 의복은 절정의 인기 상품으로 팔려 나갔으며 청춘영화의 붐이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이후 1960년대 청춘영화의 인기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br/> <br/> 무엇이 이 영화를 당대의 흥행작이자 1960년대 청춘 영화의 정점으로 만든 것인가. 많이 언급되어 온 영화 속의 그 열정적이고 세련된 청년 문화의 기호들을 먼저 말해야 할 것 같다. 가령 ‘맨발의 청춘’은 트로트 일색이던 한국 영화음악에 반격을 가했다. 인기 작곡가 이봉조가 작곡한 재즈풍 주제가의 선율은 지금 들어도 멋스럽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재즈를 영화음악으로 사용한 것은 ‘맨발의 청춘’이 한국영화 최초라고도 한다. 주제가를 부른 최희준 역시 당시 젊은이들이 선호하던 미국문화의 선두 주자에 속했고 그는 트로트가 아니라 스탠더드 팝을 기본으로 했다. 그는 트로트의 여왕 이미자 전성시대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대중음악인으로 부각됐다. <br/> <br/> 무엇보다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킨 것은 ‘트위스트’라는 이름의 춤이었다. 트위스트 김은 영화 속 두수의 수하인 ‘아가리’라는 역할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그는 영화 속에서 광란의 트위스트를 선보인다. 그런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트위스트 김의 춤 장면은 오늘날의 관객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과감하다. 남자의 하체 아래로 여자가 바닥에 누워 춤을 추는 몸짓이란 가히 성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뭔가 재밌고 신이 나서 못 견디겠는 놀음으로서의 춤, 과장된 향락의 춤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br/> <br/> 영화 속에서 두수도 한 차례 트위스트를 춘다. 하지만 두수의 트위스트는 트위스트 김의 그것과 다르다. 요안나가 속한 상류사회에 잠시 발을 들였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직후에 두수는 마치 자학하는 것처럼 그 춤을 느리고 힘없이 춘다. 게다가 그때 자신을 찾아온 요안나를 향해 “나는 사회의 암”이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내쫓는다. <br/> <br/>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다. 트위스트 김의 트위스트는 전적으로 생생하고 활기찬 문화적 기호이자 순수한 전시로서의 향락이다. 반면에 두수의 트위스트는 ‘절망과 좌절의 드라마’가 인도한 자조적이며 자학적인 몸짓으로서의 향락이다. 두수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마다 뭔가 재밌고 신이 나서 못 견디겠는 것을 찾고 있지 않은가. 그의 슬픈 향락의 몸짓은 비극적 드라마의 결과다. <br/> <br/> 그렇다면 그 비극적 드라마의 결정적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때 영화의 대답은 줄곧 정해져 있다. 영화는 그 비극이 끝내 이들의 사회적 신분과 계층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시하고 확정하면서 끝맺는다. 영화의 초반부에서라면 서로의 계층과 신분에 호기심을 느끼는 희극적 장면으로도 꾸며졌던 그런 것이다. 두수가 요안나처럼 주스를 마시며 교양 있게 서양고전음악을 들어보고, 요안나가 두수처럼 침대 위에서 독주를 마시며 ‘권투잡지’를 일별해보는 그 장면이다. <br/> <br/>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 마침내 비극은 도래한다. 여기 두 개의 장례행렬이 대비를 이룬다. 요안나의 시신은 줄지은 고급 세단에 실려 운구 되지만 두수의 시신은 짚더미에 아무렇게나 덮인 채 허름한 손수레에 실려 있다. 눈 내린 추운 겨울날 두수의 시신은 맨발이다. <br/> <br/> 이 마지막 장면에 관한 아이러니한 일화가 한 가지 있다. 애초 이 장면은 빈부격차를 과장한다는 이유로 검열관에 의해 삭제될 뻔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당시 이 영화의 개봉관 소유주이자 유력 일간지의 사장이 대통령 박정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영화를 본 박정희가 문제없다고 허락해주어 지금처럼 상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br/> <br/>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1960년대 도시빈민의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사실상 그걸 직접 반영한 셈인데도 당시 대통령의 눈에는 그 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가. 게다가 이 일화는 단순히 한국영화사의 명장면이 살아남게 된 기막힌 사연으로만 들리진 않는다. 국가통치권자가 개인적 아량으로 영화 한 편의 편집에 관여하여 장면의 유무까지도 결정해주는 사회라니. 그것이 바로 이 시기 청춘들의 절망과 향락의 몸짓에 관계된 모종의 배후가 아니었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br/> <br/><br/>■ 김기덕 <br/> 청춘영화 붐 조성… 1960년대 흥행보증수표 <br/> <br/>김기덕(사진) 감독은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나 올해 9월에 별세했다. 교육자 집안의 자손이었고 그 역시 의사가 되는 것이 젊은 시절의 목표였지만 우연한 기회로 훗날 감독이 되었다. 부산 피난 시절에 미 공군부대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고 그 시기에 시인 고은, 작가 유두연 등과 교류하면서 문화예술계 쪽으로 발을 넓혔다. ‘불사조의 언덕’(1955)이라는 영화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뻔 했다가 대신 연출부 일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영화의 길을 걸었다. 전창근 한형모 등 기술 좋은 선배감독들 영화에서 조감독을 지내며 연출 수업을 쌓았다. 데뷔작은 ‘5인의 해병’(1961)이다. 오락적 면모를 갖춘 동시에 작품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맨발의 청춘’으로는 일약 1960년대 청춘영화 붐을 조성한다. 이후 그 자신이 ‘불타는 청춘’(1966) ‘흑발의 청춘’(1966) ‘맨주먹 청춘’(1967) ‘청춘고백’(1968) ‘청춘을 다 바쳐’(1969)를 내놓으며 청춘영화의 명맥을 이어갔다. 1960년대 영화 산업계에서 일명 흥행보증수표로 불렸다. 청춘영화 외에도 다수 장르에 능했다. 분단을 배경으로 한 심리적 멜로드라마 ‘남과북’(1965), 현미의 동명 주제가로도 유명한 멜로드라마 ‘떠날 때는 말없이’(1964), 희극 시리즈물 중 한 편인 ‘말띠 신부’(1966), 후대 관객들에게 컬트영화로 부각된 한국 공상과학 영화의 대표작 ‘대괴수 용가리’(1967) 등을 만들었다. 그 자신이 야구광으로서 최초의 야구 영화 ‘사나이의 눈물’(1963)과 ‘영광의 9회말’(1977) 등도 연출했다. 1970년대 후반 이후로는 서울예술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았다. <br/> <br/><정한석 영화평론가> <br/> <br/>참고문헌: ‘김기덕:60년대 한국 대중장르 영화의 최전선’ ‘한국현대사 산책:1960년대 편 2’ ‘이야기 한국영화사’ ‘한국현대생활문화사:1960년대’

언론사: 국민일보-1-193.txt

제목: 길병원 등 6개 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공공성 강화위해 뭉친다  
날짜: 20171024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4231244001  
ID: 01100201.20171024231244001  
카테고리: 지역>대구  
본문: 국내에 IBM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한 6개 병원이 의료 기술혁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뭉친다. <br/> <br/>국내 최초로 지난해 12월 왓슨을 도입한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해 총 6개 병원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br/> <br/>인공지능 헬스케어 컨소시엄은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오는 30일 한국 IBM본사에서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컨소시엄 초대 회장은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병원추진단 이언 단장이 맡는다. <br/> <br/>이언 단장은 24일 “<span class='quot0'>현재 국내에 왓슨을 도입해 인공지능 헬스케어를 주도하고 있는 6개 병원이 뜻을 같이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세계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발전상을 알리고, 관련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도록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컨소시엄에 참여하는 6개 병원은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광주 조선대병원이다. <br/> <br/>컨소시엄은 앞으로 병원 외에도 IBM을 비롯한 관련 산업계 구성원의 참여 및 활동을 유도해 인공지능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br/> <br/>특히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고령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열쇠로 기대된다.  <br/> <br/>즉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며 의료기관의 높은 문턱을 낮춰 의료가 가진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이어 단장은 “<span class='quot1'>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향후 고령자를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암환자의 경우 최초 판정을 받은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재진단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또 “<span class='quot1'>본격적인 치료가 시작 되도 재앙적 수준의 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잦다</span>”며 “<span class='quot1'>인공지능 헬스케어를 활용하면 긴 대기시간 없이 오류를 최소화한 최상의 맞춤형 처방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이번 컨소시엄 출범을 주도한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최초로 왓슨을 도입해 인공지능 헬스케어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 바 있다. <br/> <br/> 최근에는 국내 의료계 최초로 일본 소프트뱅크로봇틱스사의 감성인식 로봇 페퍼를 도입하며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br/> <br/>컨소시엄의 초대 부회장을 맡은 건양대 윤대성 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2'>이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병원과 기업들이 인공지능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컨소시엄은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 IBM 본사에서 출범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br/> <br/>이번 심포지엄은 컨소시엄과 올바른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방향, 나아가 의료기관의 올바른 미래상을 그려보기 위해 개최된다. <br/> <br/>심포지엄에는 각 6개 병원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담당자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이 강연 및 토론에 나선다. <br/> <br/>심포지엄 기조 강연은 미국 IBM사 Watson Health Team의 Dr. Jim Miser가 ‘병원의 미래(The Future of Hospital)’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이 강연을 펼친다. 이후에는 6개 병원과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디스커션이 마련돼 있다. <br/> <br/>이언 단장은 “<span class='quot0'>국내외 석학들이 인공지능 헬스케어와 의료기관의 미래상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인공지능 헬스케어 생태계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94.txt

제목: "암검진 믿을 수 있나"…최하 D등급 10곳 중 8곳 "검진기관 그대로 유지"  
날짜: 20171024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4140844001  
ID: 01100201.20171024140844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 암검진 기관이 10곳 중 1곳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 등급을 받은 곳 10곳 중 8곳은 암검진 기관 지정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    <br/> <br/>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기준 암검진기관 총 6346개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709개)나 됐다.  <br/>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S, 80~90점은 A, 70~80점은 B, 60~70점은 C, 60점미만으로 ‘미흡’ 진단을 받은 곳은 D등급으로 분류된다.  <br/> 암 종류별로는 특히 간암의 경우 '미흡' 등급을 받은 비율이 병원급 이상은 10.5%, 의원급은 10.9%였다. 유방암의 경우 병원급 이상 8.4%, 의원급 1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br/> <br/> 암검진 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전체 709개 검진기관 중 82.5%인 585개 기관이 암검진 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미흡’인 D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 암검진 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하지만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br/> <br/> 김상훈 의원은 “<span class='quot0'>평가 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95.txt

제목: [헬스파일]예후 나쁜 염증성 유방암, 치료는 어떻게?  
날짜: 2017102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4093945001  
ID: 01100201.2017102409394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이학민 교수 /국제성모병원 외과 교수 <br/>매년 10월은 유방암에 대한 인식 재고와 조기 검진을 위해 한국유방암학회가 지정한 유방암 예방의 달이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유방암 백서를 보면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중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r/> <br/>이와는 반대로 국내 유방암 치료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국내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2010~2014년)은 92%로 주요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89.2%(2004~2010년), 캐나다 88%(2006~2008년), 일본 89.1%(2003~2005년)에 비해 높다. 이처럼 유방암의 생존율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br/> <br/>그러나 모든 유방암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특히 유방암의 여러 종류 중 ‘염증성 유방암’은 그 예후가 나쁘기로 유명하다. <br/> <br/>염증성 유방암은 진행성 유방암의 가장 치명적인 형태 중 하나로, 암세포가 유방 피부에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침범한다.  <br/> <br/>염증이 생긴 것처럼 피부가 빨개지면서 귤껍질처럼 변하고 부종과 온열감이 나타나는 것이 주 증상이다. 심할 경우 종양이 피부를 뚫고 나오기도 한다. <br/> <br/>염증성 유방암은 임상적으로 전체 유방암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치료 성적도 나쁘다. 다만 국내의 경우 유방 검진에 따른 조기 유방암 발견이 증가하면서 그 발생율이 전체 유방암의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br/> <br/>하지만 최근 국제성모병원 맞춤형암치유병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염증성 유방암 환자’는 28명으로 전체 유방암 환자(315명)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적인 통계 수치(1~2%)보다 훨씬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br/> <br/>염증성 유방암은 최소 유방암 3기 이상에 해당하는 암종으로, 가슴에 이상이 느껴졌음에도 이를 방치했을 경우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역별로 유방암 검진율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r/> <br/>지난 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15년 간 분석해 발표한 ‘국내 암 발생 지도’에서 높은 검진율 등의 이유로 서초, 강남, 분당 등의 대도시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았던 통계와는 대비되는 자료다. <br/> <br/>염증성 유방암은 재발율과 전신전이율이 높아 예후가 나쁘고, 수술 전 항암치료 및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치료 과정이 일반 유방암 치료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더욱 크다. <br/> <br/>염증성 유방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정기적인 검진이다. 특히 유방 피부의 이상, 열감,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유방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연령별 조기검진 권고안을 통해 ▲30세 이후는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후는 2년 간격으로 의사를 통한 임상검진 ▲40세 이후는 1~2년 간격의 임상진찰과 유방 촬영 ▲고위험군은 의사와의 상담 등 여성들의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유방암 자가검진 방법> <br/> <br/>1. 거울을 보며 평상 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 좌우 대칭 여부 등을 비교한다. <br/> <br/>2.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내밀어 피부의 함몰 여부를 관찰한다. <br/> <br/>3. 검진하는 유방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편 2, 3, 4번째 손가락의 첫 마디 바닥면을 이용해 유방의 바깥쪽 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려 안쪽으로 검진한다. <br/> <br/>4. 쇄골의 위/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하단에 멍울이 잡히는지 확인한다. <br/> <br/>5. 유두에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관찰한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96.txt

제목: 대장암 예방, 식습관 개선과 내시경 검사가 답이다  
날짜: 2017102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4091644001  
ID: 01100201.201710240916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국내 대장암 환자 및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을 추월, 폐암과 간암에 이어 암 사망자 3위를 차지했다. <br/> <br/>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장암으로 사망한 이는 10만 명 당 16.5명으로 폐암(35.1명), 간암(21.5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br/> <br/>이는 2015년까지 3위를 차지했던 위암(16.2명)을 밀어낸 수치로, 대장암이 암 사망원인 3위 안에 들어간 것은 1983년 관련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br/> <br/>대장암 환자 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 중 대장암 환자는 갑상선암, 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br/> <br/>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박재석 소화기센터장은 24일 “<span class='quot0'>한국인의 30~50대의 30~40% 가량이 대장용종을 갖고 있어서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40세 이상 연령층부터 최소 5년에 한번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장용정은 암과 관련있는 선종성 용정이 문제인데 그냥두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제거해야 한다.  <br/> <br/>선종성 용종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생활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대장질환은 음식물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질환으로 식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로 용정 등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br/> <br/>특히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 에 따르면,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견된 시기는 종양이 국소림프절을 침범한 3기(36.4%)로 나타났다. 위암이 1기(75.7%) 등 조기 발견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참 늦은 수치다. 이유는 위 내시경이 정기 건강검진 등으로 활성화된 반면, 대장내시경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꺼려지기 때문이다. <br/> <br/>대장암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은 높아진다. 대장암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54.8%에서 2010~2014년 76.3%까지 증가했으며, 아직 암이 대장에만 있는 국한 단계에 발견될 경우 5년 생존율은 무려 95.6%에 이른다. <br/> <br/>반면 암이 간이나 기타 장기에 전이된 말기(원격) 암의 경우 생존율은 19.3%으로 크게 감소한다. <br/> <br/>대장암이 진행되면 혈변과 변이 가늘게 나오거나 배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체중감소, 만성피로와 함께 소화불량과 복통을 동반할 수 있다.  <br/> <br/>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가족력 환자나 과거 대장에서 용종, 폴립 등이 발견된 자, 염증성 장 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은 50세 이전에 빨리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더불어 평소에 대장 건강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대장암 자가진단 키트를 약국 등에서 구입, 대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다. <br/> <br/>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혈변은 치질과 염증성 장 질환의 원인인 경우가 많으나 계속 이어진다면 대장 용종 혹은 대장암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변 색깔이 검붉거나 냄새가 고약할 경우,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면 대장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장기적으로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97.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최명규·박재명 교수팀, 췌장암 세포 살상효과 높이는 ‘광감각제’ 개발  
날짜: 2017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4050355001  
ID: 01100201.201710240503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췌장암세포 살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광역학요법 광감각제가 국내 의료진에 의해 개발됐다. <br/> <br/>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소화기내과 최명규(사진 왼쪽) 박재명(오른쪽) 교수 연구팀이 최근 ‘포토센시타이저 엔캡슐레이티드 폴리메릭 나노파티클’(PS-pNP)을 췌장암 세포를 찾아내는 광감각제로 시용하는 세포실험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br/> <br/> 연구결과 광역학요법 광감각제로 PS-pNP를 이용하면 체외배출에 의한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암세포에 대한 빛 치료 효과도 배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광역학요법은 빛을 잘 받아들이면서도 암세포만 찾아서 표시하는 성질의 광감각제를 투여한 다음 빛을 조사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이다. 현재 췌장암 등 고형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건선 등 난치성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 광감각제는 암세포에만 특이하게 들러붙도록 고안된 약물이다. <br/> <br/> 문제는 투입 후 몸속 암세포가 광감각제를 충분히 흡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체내 세포막 운반체가 광감각제를 자꾸 세포 밖으로 유출시켜 치료 효율을 떨어트린다는 점이다. <br/> <br/> 연구팀은 이 문제를 새 광감각제 PS-pNP로 해결했다. 실험결과 PS-pNP를 쓰면 암세포 밖으로 새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br/>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PS-pNP가 효과적인 광감각제임이 증명된 만큼, 향후 광역학요법을 이용한 췌장암 치료 시 활발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연구결과는 미국암연구협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몰리큘러 캔서 써래퓨틱스’(MCT)’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1-198.txt

제목: 치료시기 놓치기 쉬운 갑상선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중요해  
날짜: 2017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3120044001  
ID: 01100201.20171023120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목의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갑상연골의 아래쪽 기도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내분비관인 갑상선. 성대 바로 아래 위치해 있으며 나비모양으로 이루어져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하며 필요한 기관에 보내는 기능까지 하고 있어 인체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이다. <br/> <br/>갑상선 호르몬은 인체 체온을 유지시켜 주며, 태아와 신생아의 뇌와 뼈 성장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이상이 생길 경우 갑자기 땀이 많이 흐르고 더위를 타거나, 반대로 남들보다 추위를 심하게 타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를 갑상선기능질환이라 부른다. 이렇게 갑상선질환의 경우 다른 질환들과 다르게 통증을 유발하거나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초기 발견이 어렵다.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운 갑상선암은 초기치료를 하지 않고 암이 전이된다면 치료범위가 넓어지고, 합병증이 잘 생기게 되므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갑상선암의 증상은 목소리 변화, 붓기, 호흡곤란 등의 일부 증상을 제외하면 특별한 증상 없이 목에 자그마한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엔 진료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상선암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높은 완치율과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지만 갑상선암은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관찰이 필수적인 질환이다. <br/> <br/>최근갑상선암 치료로 목에 흉터가 남지 않는 내시경 절제술이 주목 받고 있다. 내시경 절제술은 대표적으로 양측 유륜과 겨드랑이에 최소 절개를 이용한 수술법(BABA)으로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확대된 시야로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br/> <br/>의정부성베드로병원 갑상선·유방외과 김규형 원장은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의 치료는 암의 종류, 환자의 연령, 크기, 주위조직의 침범범위 등의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또한 김 원장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수술법으로 진행되어 갑상선 전문의의 정확한 검진 후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갑상선암은 재발의 위험이 있어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며,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다면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당부했다. <br/> <br/>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199.txt

제목: 친숙한 고전, 가을 연극무대에 오르다  
날짜: 20171023  
기자: 권준협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3050056003  
ID: 01100201.20171023050056003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오랜 시간 전해오는 작품은 이유가 있다. 생각이 깊어지는 가을, 고전을 바탕으로 만든 연극 속으로 빠져 보는 건 어떨까. <br/> <br/> 지난 20일 개막한 연극 ‘1984’는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49년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빅브라더’ 감시에 놓인 디스토피아를 담았다. 극 중 윈스턴 스미스(이승헌)는 통제 사회에 살면서 당이 국민을 감시할 때 남긴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임무를 맡는다. 하지만 체제에 의심을 품으면서 회의를 느끼고 마음 속 생각을 일기장에 기록한다. 이를 오브라이언(이문수)이 알게 되면서 갖은 고문을 당한다. <br/> <br/> 2017년 한국 사회에서 약 70년 전 이 작품은 어떤 의미일까. 한태숙 연출가는 “작품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을 쫓는 장치는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져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통제나 감시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 이승헌은 “<span class='quot0'>현 시대도 1984에 나오는 시대와 다르지 않다</span>”며 지난해 통제사회에 반발한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최근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한 사례를 거론했다. 다음 달 19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br/> <br/> 연극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는 미국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55년 발표한 희곡을 토대로 인간 소외를 그렸다. 한때 유망 미식 축구선수였지만 절친한 친구의 죽음 후 술에 빠진 채 사는 브릭(이승주)과 사랑을 갈구하는 아내 마가렛(우정원),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브릭의 아버지 빅대디(이호재). 겉으로는 서로 이해하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관점만 관철하려는 단절된 가정의 이야기다. <br/> <br/> 작품의 키워드 중 하나는 ‘허위’다. 스스로를 속이는 브릭과 상대를 속이는 다른 인물들. 배우 이승주는 “<span class='quot1'>브릭은 가면 쓴 사람을 역겨워하면서도 누구보다 단단한 가면을 썼다</span>”며 “<span class='quot1'>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못해 술로 도피하려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인물</span>”이라고 설명했다. 문삼화 연출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 목표를 위해 뜨거운 양철지붕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고양이더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5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br/> <br/>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1-200.txt

제목: [원자력병원이 전하는 건강톡] 암 발생중 1% 차지 식도암, 전이 빨라 위험  
날짜: 2017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3205155001  
ID: 01100201.20171023205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6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식도암은 전체 암 발생 1%를 차지하는 드문 암이다. 하지만 식도는 장막이 없어 암세포가 임파선이나 장기로 쉽게 전이되고 생존율도 낮아 치명적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br/> <br/> ◇식도암이란=식도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남녀 발생률은 10대1로 남성이 더 많고, 주로 60∼70대에 발병합니다. 발생위치에 따라 경부식도암, 흉부식도암, 복부식도암으로 나뉘며, 세포형태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기타 암종으로 구분됩니다. 선암이 대부분인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편평상피세포암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br/> <br/> ◇음주·흡연과 관련 있나?=식도는 음식물이 들어오는 통로이므로 다른 장기에 비해 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요소도 뜨거운 음료, 영양소 결핍, 흡연, 음주 등 매우 다양합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음주와 흡연을 같이하면 식도암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선암의 대표적인 원인인자는 위식도 역류가 진행돼 발생하는 바렛식도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산이 역류해 식도벽을 자극하면 식도세포들이 완전히 바뀌는 바렛식도가 됩니다. 식도암의 전암성 병변인 바렛식도는 정상인에 비해 식도암 발병률을 약 30∼40배 증가시킵니다. <br/> <br/> ◇밥을 못 넘기는데?=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삼킬 때 통증이 주된 증상입니다. 하지만 식도는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초기의 작은 식도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점차 진행되면 식도내강이 좁아져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체중감소와 영양실조가 동반됩니다. 암세포가 목소리를 내는 성대의 후두신경을 침범하면 쉰 목소리가 납니다. 식도 바로 뒤의 척추를 침범하면 등 쪽에 통증이 올 수 있고, 기관지를 침범하면 기침, 객혈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br/> <br/> ◇내시경으로 진단 가능한가?=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단법은 내시경검사입니다. 최근 내시경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우연히 식도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도암이 진행돼 암세포가 식도를 막으면 내시경으로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엑스레이에 비투과성을 가진 물질인 조영제를 마시고 식도조영술을 통해 식도암의 모양, 크기, 위치 등을 평가합니다. 암으로 진단되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을 통해 림프절 전이, 주변조직 침범, 다른 장기의 전이 여부를 확인해 병기를 결정하고 치료방침을 정합니다. <br/> <br/> ◇수술로 완치되나요?=식도암의 주된 치료는 수술입니다. 다른 장기로 원격전이가 없고 암세포 절제가 가능하며 환자 상태가 수술 받기에 적합한 경우 시행됩니다. 진행된 식도암은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후에 수술하기도 합니다. 최근 흉강·복강경으로 절개부위를 최소화 해 병변만 제거하는 최소침습수술이 점차 보편화됐고, 절개부위가 큰 개흉·개복술보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원자력병원의 경우 기존 식도만 절제하던 국내 의료계에 최초로 목, 가슴, 배의 ‘완전 임파절 청소술’을 도입해 완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1기 수술 후 완치율이 70%에 달합니다. <br/> <br/> ◇수술 후 관리와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수술 후 5∼7일 정도 장내 가스가 배출되고 식도문합부가 잘 아물 때까지 금식하며 수액주사를 맞습니다. 이후 미음이나 죽 등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고, 1∼2개월에 걸쳐 정상 식사로 바꿔갑니다. 식도 절제술을 하면 위의 위치가 가슴으로 올라와 식사량이 수술 전에 비해 적어지므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도암 예방을 위해 흡연, 음주, 자극적인 음식섭취 등을 피하고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이나 신선한 야채, 과일 위주로 식습관을 개선합니다. 조기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r/> <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br/> <br/> \*도움말=원자력병원 식도암센터 백희종·강문철(흉부외과)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1-201.txt

제목: [센터 탐방-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 “환자는 번호표 뽑는 고객 아닌 동반자”  
날짜: 20171023  
기자: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1023204155001  
ID: 01100201.20171023204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진단 후 암환자들의 감정 변화는 유사하다. 처음 병원을 찾아 암 진단을 받으면 절망에 가까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현실을 부정하며 눈물짓기도 한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에 인터넷을 찾고 관련 서적을 읽는다. 주위 경험자나 생존자들에게 민간요법과 치료법도 묻는다. 잘못된 민간요법 때문에 악화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br/> <br/>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3분, 길어도 15분을 넘지 않는 진료시간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짧다고 지적한다. 담당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변화나 이상현상을 그때그때 해소하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환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권위자를 찾고,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여러 대형병원을 돌다 빅5로 통칭되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발걸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진료에 검사를 다시 받고 평균 2달이 넘는 긴 기다림 끝에 수술을 받는다. <br/> <br/> ◇외래부터 수술까지 2달? 5일이면 ‘OK’=어쩌면 일반적이고 당연한 기다림과 체계에 의문을 품은 이가 있었다. 인하대병원 외과 최선근 교수(사진)는 20년전 전공의 시절 위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기다림과 절박함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당시 암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암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br/> <br/> 그는 “소소한 것도 의논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갈망과 환자가 여러 과를 다녀야하는 불합리함,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인하대병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인간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진이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검사와 진단, 치료와 회복,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환자를 돕는 길은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병원이 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br/> <br/> 이런 그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생존’에 집중된 의료체계와 의료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병원을 바꿔야했다. 협진을 위해 각 진료과 전문의들과의 일정을 조정해야했고, 조직검사나 영상검사 등의 양해를 구해야했다. 다행히 김영모 병원장의 지원과 주변 의료진들의 지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외래 첫날 영상 및 병리검사를 모두 마치고 일주일이 걸리던 검사와 진단을 2∼3일로 단축시켰다. 그 결과 2주 이상 걸리던 일정이 5일로 줄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초기 병리과와 내과, 영상의학과 등과 협의해 암 환자로 분류하면 여타 병원과 다른 경로를 통해 빠르게 조직검사와 영상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동결절편검사도 적용해 소요시간을 더 줄일 수 있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환자 이탈율 ‘9%’…지역거점 자리매김에도 ‘으뜸’=여기에 1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춘 간호사들을 암전문코디네이터로 영입해 진료와 검사, 수술 일정을 조율 효율을 높였다. 또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부터 퇴원 후 사회 복귀 후까지 환자를 전담해 밀착서비스를 제공해 친밀감을 높이고 환자의 갈증을 해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암전문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맞춰진 통합진료시스템과 환자와 의료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상담서비스는 환자들의 발길을 병원으로 돌리도록 했다. <br/> <br/> 병원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센테 개소 후 환자 이탈율은 20%대에서 8∼9%대로 떨어졌다. 1시간이 넘는 상담시간과 전담 코디네이터와의 상시 소통은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암환자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자기가 어떤 과정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지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간호사가 친구처럼, 딸처럼 함께하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span>”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진료는 의료진 위주지만 지원은 환자 위주의 접근이다. 인간적으로 다가가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정신적, 심리적 영역까지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강조했다”며 센터 명칭을 ‘암통합지원센터’로 한 이유이자 인하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가야할 방향이라고 힘줘 말했다. <br/> <br/>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